

인천의 
대한민국의 미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

2024.11.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제출문

인천광역시장 귀중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연구용역 사업인 『인천
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용역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작성자 : (주)런런컨설팅

|| 목 차 ||

I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과업의 배경	3
제2절 과업의 목적	7
제3절 과업의 범위	8

II

계획수립 추진 체계 및 절차

제1절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1
제2절 실태조사(설문) 방법	12
제3절 심층 인터뷰 방법	30

III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및 동향

제1절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39
제2절 인천광역시의 은둔 청·청장년의 개념	44
제3절 은둔형 외톨이의 계기와 원인	46
제4절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 과정	48
제5절 은둔형 외톨이 관련 법령	50
제6절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및 서비스 동향	54

IV**설문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69
제2절 은둔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76
제3절 은둔 당사자 가족의 설문조사 결과	125
제4절 은둔 당사자와 가족의 비교분석	168

V**심층 인터뷰 결과**

제1절 조사개요	199
제2절 분석결과	207
제3절 소결	253

VI**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	257
제2절 인천시 은둔 청장년층을 위한 정책 제언	264

VII**부록**

|| 표 목 차 ||

〈표 1〉 지정게시대 현수막 승인 현황	21
〈표 2〉 게릴라 현수막 게침 대상지 현황	22
〈표 3〉 연구자별 은둔의 정의	41
〈표 4〉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 과정	49
〈표 5〉 데이터 정제 방법	71
〈표 6〉 설문조사 참여현황	72
〈표 7〉 조사설계	72
〈표 8〉 은둔당사자를 위한 설문내용	73
〈표 9〉 은둔당사자 가족을 위한 설문내용	74
〈표 10〉 은둔당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6
〈표 11〉 은둔 당사자: 외출빈도	78
〈표 12〉 은둔당사자: 총은둔기간	79
〈표 13〉 밤낮이 바뀌는 은둔경험	79
〈표 14〉 불규칙한 일상생활의 은둔경험	80
〈표 15〉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는 은둔경험	80
〈표 16〉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에 신경을 안 쓰는 은둔경험	81
〈표 17〉 가족이 없을 때 움직이는 은둔경험	81
〈표 18〉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아무도 못들어오게 하는 은둔경험	82
〈표 19〉 가족이나 타인에게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은둔경험	82
〈표 20〉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나는 은둔경험	83
〈표 21〉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쓰이고 불편함을 느끼는 은둔경험	83
〈표 22〉 사람과의 연락이나 만나는 활동을 가급적 피하는 은둔경험	84
〈표 23〉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 은둔경험	84
〈표 24〉 친구가 없는 은둔경험	85
〈표 25〉 무기력함을 느끼는 은둔경험	85
〈표 26〉 나의 장래에 비관적인 느낌을 갖는 은둔경험	86
〈표 27〉 무의미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은둔경험	86
〈표 28〉 위험군에 포함되는 은둔당사자	87
〈표 29〉 은둔당사자: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88
〈표 30〉 은둔당사자: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88

〈표 31〉 은둔당사자: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89
〈표 32〉 은둔당사자: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89
〈표 33〉 은둔당사자: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89
〈표 34〉 은둔당사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90
〈표 35〉 은둔당사자의 은둔원인	90
〈표 36〉 은둔당사자의 은둔생활 첫 경험 여부	91
〈표 37〉 은둔당사자의 총은둔횟수	91
〈표 38〉 은둔당사자: 최근 은둔기간	92
〈표 39〉 은둔당사자: 은둔첫시기	92
〈표 40〉 은둔당사자: 출근경험 여부	93
〈표 41〉 은둔당사자: 은둔생활 전 근무기간	93
〈표 42〉 은둔당사자: 은둔생활 전 근무직종(중복응답)	94
〈표 43〉 은둔당사자: 퇴사이유(중복응답)	94
〈표 44〉 은둔당사자: 생활비 마련	95
〈표 45〉 은둔당사자: 생활만족도	95
〈표 46〉 은둔당사자: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중복응답)	96
〈표 47〉 은둔당사자: 정보의 출처	96
〈표 48〉 은둔당사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97
〈표 49〉 은둔당사자: 자살의향	97
〈표 50〉 은둔당사자: 자살시도	98
〈표 51〉 은둔당사자: 자살횟수	98
〈표 52〉 은둔당사자: 하루 식사 횟수	98
〈표 53〉 은둔당사자: 식사 준비방법	99
〈표 54〉 은둔당사자: 수면의 질	99
〈표 55〉 은둔당사자: 하루 평균 수면시간	100
〈표 56〉 은둔당사자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환복	100
〈표 57〉 은둔당사자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목욕/샤워	101
〈표 58〉 은둔당사자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세수/양치	101
〈표 59〉 은둔당사자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물건 정리/정돈	102
〈표 60〉 기분이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정도	102
〈표 61〉 평소하던 일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	103
〈표 62〉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른 정도	103
〈표 63〉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발생하는 정도	104
〈표 64〉 PC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잠시도 진정 못하는 정도	104

〈표 65〉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	105
〈표 66〉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는 정도	105
〈표 67〉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 정도	106
〈표 68〉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방법을 잘 모르는 정도	106
〈표 69〉 은둔당사자의 동거여부	107
〈표 70〉 은둔당사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	107
〈표 71〉 은둔당사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	108
〈표 72〉 은둔당사자의 신체질환 여부	108
〈표 73〉 은둔당사자의 신체질환 유형(중복응답)	109
〈표 74〉 은둔당사자의 신체질환 치료여부	109
〈표 75〉 은둔당사자의 절신질환 여부	110
〈표 76〉 은둔당사자의 정신질환 유형(중복응답)	110
〈표 77〉 은둔당사자의 정신질환 치료여부	111
〈표 78〉 은둔당사자의 가족 중 주 대화상대	111
〈표 79〉 은둔당사자의 가족과의 갈등 수준	112
〈표 80〉 은둔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	112
〈표 81〉 은둔에 대한 본인의 인식	113
〈표 82〉 문제라고 생각한 계기(중복응답)	113
〈표 83〉 은둔당사자의 문제해결 노력(중복응답)	114
〈표 84〉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114
〈표 85〉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115
〈표 86〉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115
〈표 87〉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116
〈표 88〉 과거 은둔에 대한 본인의 인식	116
〈표 89〉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중복응답)	117
〈표 90〉 회복의 정도	117
〈표 91〉 회복 후 경과기간	118
〈표 92〉 재은둔의 경험	118
〈표 93〉 재은둔의 이유(중복응답)	119
〈표 94〉 은둔생활시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119
〈표 95〉 도움을 받은 후의 변화의 정도	120
〈표 96〉 도움받을 의향	120
〈표 97〉 도움받을 의향이 있는 이유	121
〈표 98〉 도움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	121

〈표 99〉 은둔 당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122
〈표 100〉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122
〈표 101〉 은둔당사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	123
〈표 102〉 은둔당사자: 최소은둔기간	124
〈표 103〉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5
〈표 104〉 가족: 외출빈도	129
〈표 105〉 가족: 총은둔기간	130
〈표 106〉 가족: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130
〈표 107〉 가족: 부모가 은둔가족을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131
〈표 108〉 가족: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131
〈표 109〉 가족: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132
〈표 110〉 가족: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132
〈표 111〉 가족: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133
〈표 112〉 가족: 은둔 원인	133
〈표 113〉 가족: 은둔생활 첫경험 여부	134
〈표 114〉 가족: 총은둔횟수	134
〈표 115〉 가족: 최근 은둔기간	135
〈표 116〉 가족: 은둔 첫시기	135
〈표 117〉 가족: 출근경험 여부	136
〈표 118〉 가족: 은둔생활 전 근무기간	136
〈표 119〉 가족: 은둔생활 전 근무직종(중복응답)	137
〈표 120〉 가족: 퇴사이유(중복응답)	138
〈표 121〉 가족: 생활비 마련	139
〈표 122〉 가족: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중복응답)	140
〈표 123〉 가족: 정보의 출처	140
〈표 124〉 가족: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141
〈표 125〉 가족: 자살의향	141
〈표 126〉 가족: 자살시도	141
〈표 127〉 가족: 자살시도 횟수	142
〈표 128〉 가족: 하루 식사 횟수	142
〈표 129〉 가족: 식사준비 방법	143
〈표 130〉 가족: 수면의 질	143
〈표 131〉 가족: 하루 평균 수면시간	144
〈표 132〉 가족: 자기관리 및 청결도(환복)	144

〈표 133〉 가족: 자기관리 및 청결도(목욕/샤워)	145
〈표 134〉 가족: 자기관리 및 청결도(세수/양치)	145
〈표 135〉 가족: 자기관리 및 청결도(물건 정리·정돈)	146
〈표 136〉 가족: 은둔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함	148
〈표 137〉 가족: 은둔당사자로 인해 환병이 생겼음	148
〈표 138〉 가족: 은둔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됨	149
〈표 139〉 가족: 은둔당사자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음	149
〈표 140〉 가족: 은둔당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음	150
〈표 141〉 가족: 은둔하고 있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됨	150
〈표 142〉 가족: 은둔당사자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	151
〈표 143〉 가족: 은둔당사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151
〈표 144〉 가족: 해결할 방법이 없어 힘들	152
〈표 145〉 가족: 은둔당사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움	152
〈표 146〉 가족: 은둔당사자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짐	153
〈표 147〉 은둔가족의 가구유형	153
〈표 148〉 은둔가족의 거주 주택유형	154
〈표 149〉 은둔가족 주택의 소유형태	154
〈표 150〉 은둔가족의 신체질환 여부	155
〈표 151〉 은둔가족이 앓고 있는 신체질환 유형(중복응답)	155
〈표 152〉 은둔가족의 신체질환 치료여부	156
〈표 153〉 은둔가족의 정신질환 여부	156
〈표 154〉 은둔가족의 정신질환 유형(중복응답)	157
〈표 155〉 은둔가족의 정신질환 치료여부	157
〈표 156〉 가족: 은둔당사자의 가족 중 주 대화상대	158
〈표 157〉 가족: 은둔당사자와 가족과의 갈등	158
〈표 158〉 가족: 은둔가족의 본인 인식	159
〈표 159〉 가족: 은둔가족의 문제해결 노력(중복응답)	159
〈표 160〉 가족: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160
〈표 161〉 가족: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160
〈표 162〉 가족: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161
〈표 163〉 가족: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161
〈표 164〉 가족: 은둔가족이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162
〈표 165〉 가족: 도움 후의 변화	162
〈표 166〉 가족: 은둔가족의 회복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중복응답)	163

〈표 167〉 가족: 은둔당사자 지원 필요성	164
〈표 168〉 가족: 가족 지원 필요성	164
〈표 169〉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	165
〈표 170〉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166
〈표 171〉 가족: 최소 은둔기간	167
〈표 172〉 당사자와 가족의 외출빈도 비교	168
〈표 173〉 당사자와 가족의 총은둔기간 비교	168
〈표 174〉 당사자와 가족: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비교	169
〈표 175〉 당사자와 가족: 부모가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비교	169
〈표 176〉 당사자와 가족: 가족 중 누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 비교	170
〈표 177〉 당사자와 가족: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비교	170
〈표 178〉 당사자와 가족: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비교	170
〈표 179〉 당사자와 가족: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비교	171
〈표 180〉 당사자와 가족: 은둔 원인 비교	171
〈표 181〉 당사자와 가족: 은둔생활 첫 경험 여부 비교	172
〈표 182〉 당사자와 가족: 총은둔횟수 비교	172
〈표 183〉 당사자와 가족: 최근 은둔기간 비교	173
〈표 184〉 당사자와 가족: 은둔 첫시기 비교	173
〈표 185〉 당사자와 가족: 출근 경험여부 비교	174
〈표 186〉 당사자와 가족: 은둔생활 전 근무기간 비교	174
〈표 187〉 당사자와 가족: 은둔생활 전 근무직종 비교	175
〈표 188〉 당사자와 가족: 퇴사 이유 비교(중복응답)	176
〈표 189〉 당사자와 가족: 생활비 마련 비교	177
〈표 190〉 당사자와 가족: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 비교(중복응답)	178
〈표 191〉 당사자와 가족: 정보 출처 비교	179
〈표 192〉 당사자와 가족: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비교	179
〈표 193〉 당사자와 가족: 자살의향 비교	180
〈표 194〉 당사자와 가족: 자살시도 비교	180
〈표 195〉 당사자와 가족: 자살시도 횟수	181
〈표 196〉 당사자와 가족: 하루식사 횟수 비교	181
〈표 197〉 당사자와 가족: 식사 준비방법 비교	182
〈표 198〉 당사자와 가족: 수면의 질 비교	182
〈표 199〉 당사자와 가족: 하루 평균 수면시간 비교	183
〈표 200〉 당사자와 가족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회복 비교	183

〈표 201〉 당사자와 가족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목욕·샤워 비교	184
〈표 202〉 당사자와 가족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세수·양치 비교	184
〈표 203〉 당사자와 가족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정리·정돈 비교	185
〈표 204〉 당사자와 가족: 가구유형 비교	185
〈표 205〉 당사자와 가족: 주택유형 비교	186
〈표 206〉 당사자와 가족: 거주 소유형태 비교	186
〈표 207〉 당사자와 가족: 신체질환 여부 비교	187
〈표 208〉 당사자와 가족: 신체질환 유형 비교(중복응답)	187
〈표 209〉 당사자와 가족: 신체질환 치료여부 비교	188
〈표 210〉 당사자와 가족: 정신질환 여부 비교	188
〈표 211〉 당사자와 가족: 정신질환 유형 비교(중복응답)	189
〈표 212〉 당사자와 가족: 정신질환 치료여부 비교	189
〈표 213〉 당사자와 가족: 가족중 주 대화상대 비교	190
〈표 214〉 당사자와 가족: 가족과의 갈등 비교	190
〈표 215〉 당사자와 가족: 문제해결 노력 비교(중복응답)	191
〈표 216〉 당사자와 가족: 중요하거나 어려움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비교	191
〈표 217〉 당사자와 가족: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비교	192
〈표 218〉 당사자와 가족: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비교	192
〈표 219〉 당사자와 가족: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비교	193
〈표 220〉 당사자와 가족: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비교	193
〈표 221〉 당사자와 가족: 도움 후의 변화 비교	194
〈표 222〉 당사자와 가족: 은둔당사자 지원 필요성 비교	194
〈표 223〉 당사자와 가족: 가족 지원 필요성 비교	195
〈표 224〉 당사자와 가족: 지원 서비스 참여의향 비교	195
〈표 225〉 당사자와 가족: 최소 은둔기간 비교	196
〈표 226〉 지역별 인터뷰 참여자 선정	201
〈표 227〉 심층 인터뷰 참여자	201
〈표 228〉 당사자용 심층 인터뷰 내용	203
〈표 229〉 가족용 심층 인터뷰 내용	205

|| 그림 목 차 ||

〈그림 1〉 은둔생활의 시작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
〈그림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의 비교분석 결과 종합	53
〈그림 3〉 당사자에게 일어난 일(주관식)	147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용역

I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과업의 배경

제2절 과업의 목적

제3절 과업의 범위

I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과업의 배경

- 은둔형 외톨이(hikikomori,引き籠もり)는 1970년대 일본의 등교 거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드러난 사회적 현상으로 ‘6개월 이상 사회적으로 철수된 채 집에서 지내며, 사회적 철수와 관련된 심각한 수준의 기능 저하를 보이는 자’를 의미함
- 2016년에 일본 내각부에서 발간한 ‘청년 생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5-39세의 청년 중 은둔형 외톨이는 541,000명(1.57%)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시기는 24세 이하가 7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20-24세가 34.7%, 30-39세는 14.3%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2019년에는 40-65세의 중장년층 내에서 은둔형 외톨이 추정 인구수가 610,000명(1.45%)에 달한다고 발표한바 있음
- 국내에서도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지속되는 취업난 등의 지속되는 악화로 인하여 2000년대 초부터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어 왔으며,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해 오고 있음
- 1997년 IMF 사태, 설상가상으로 2019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COVID-19)가 지속되면서 2023년 10월 기준으로 구직단념자, 이른바 청년 니트족이 8만 명에 달해 이들의 경우 사회 경력을 제대로 쌓지 못한 채 결국은 저임금·고용불안에서 구제되지 못하고 있음(통계청, 2023. 10. 22.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연애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결과 결혼하는 것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되었으며, 거기에 집을 사는 것, 인간관계를 맺는 것, 꿈과 희망을 품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7포 세대”, 곧이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N포 세대”라는 개념도 확산되고 있음(정근하·노영희, 2022b)

- 최근 일본에서는 청년 히키코모리만이 아닌, 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¹⁾
이른바 ‘8050문제’인데, 50대 은둔형 외톨이가 80대 부모의 연금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 가는 현상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지속된다는 점은 이것이 전생애 적인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임을 시사함
- 은둔형 외톨이의 삶이 장기화되어 일본의 8050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난다면,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만이 아니라 노인학대, 가정폭력, 가구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 또한 동거 형태가 아닌 독거 은둔형 외톨이가 오랫동안 사회와 유리되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간다면, 자살, 고독사, 중독, 충동범죄 등과 같은 사회문제도 직면할 수 있음(민기채, 2023)
-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지치고, 도태된 청년 중에서 사회와의 관계를 모두 단절하고 좁은 방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 한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 세계 각지에서 사회적 은둔 현상이 확인되고,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회적 은둔 현상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문화 관련 증후군(culture bound syndrome)이 아니라 현대사회 관련 증후군(modern society bound syndrome)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는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인격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동반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교육 문제, 실업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어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공중 보건학적인 관점에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1) 2019년 일본 농림수산업성 전(前)사무차관이 자신의 장남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히키코모리들의 은둔 기간이 장기화와 함께 고령화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2019년 6월 일본의 전직 농림성(현, 농림수산업성) 차관을 지낸 ‘구마자와 히데아키(熊沢英昭)’가 도쿄 자택에서 44세의 장남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76세였던 구마자와는 아들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더했다. ...중략... 이후 밝혀진 사건 전모를 보면, 살해된 아들은 거의 25년 동안이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었다. 아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부모와 떨어져 살기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인터넷 게임과 SNS에 빠진 채 은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에 따르면, 아들은 중학생 때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당했는데 그 무렵부터 종종 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힘들게 들어간 직장도 동료들과의 잦은 마찰로 오래 근무하지는 못했다. 그의 여동생은 오빠의 폭력문제로 혼담마저 끊겨 자살했으며, 그로 인해 모친은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층의 문제로 확대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환이 일어나게 되었음(정근하·노영희, 2022b)

- 뿐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계 맺는 가족, 특히 부모의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정도가 심하고 은둔으로 인한 문제행동이 장기화 될수록 부모는 탈진상태이거나 우울, 무력감, 자책감, 분노 등의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음
- 특히 은둔 기간이 긴 자녀를 둔 부모는 과도하게 민감해지고, 자녀의 작은 변화에 따라 컨디션이 쉽게 좌우되기 때문에 빨리 지치고 소진을 경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은둔 문제에 대해 친인척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불편해 하여 자녀뿐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들도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기도 함
-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와 맞물려 2000년대 초반부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점차 증대되었음. 구체적으로는 2002년 이시형, 여인중의 연구팀에 의해 한국형 히키코모리인 ‘은둔형 외톨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2005년도 KBS에서 방영된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의 방송프로그램 ‘나는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 보고’와 후속 프로그램인 ‘나는 방에서 나가고 싶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 보고 2’가 방영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의 존재와 문제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였음
- 은둔형 외톨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대응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은둔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과정을 거쳐 은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뤄진 관련 연구들에서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은둔 상태를 확인하거나, 현상학적 고찰결과를 제시하거나,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다면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인식 하에 최근에 들어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연구조사 및 정부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2년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최초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공식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세상과 거리를 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24만 4000명 규모로 추산된다는 정부의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서울시의 경우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는 2020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수행, 2021년에는 이를 근거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제2차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라남도 역시 2022년 전남지역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범사업으로 2024부터 '전남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임
- 부산시도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방안연구'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최근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도 제정되고 있는 실정임. 2023년 12월 29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조례 7개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32개가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기초 226개) 중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자치단체는 39개(16%)뿐이라고 할 수 있음
- 몇몇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국내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또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구축 및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2절 과업의 목적

○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조사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 및 특성 파악
-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

○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발굴

-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해야 함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 은둔형 외톨이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을 이해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모색
-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방안을 모색

○ 은둔형 외톨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초기대응과 예방

- 고립·은둔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높은 잠재집단 식별
- 당사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욕구 탐색
- 은둔형 외톨이의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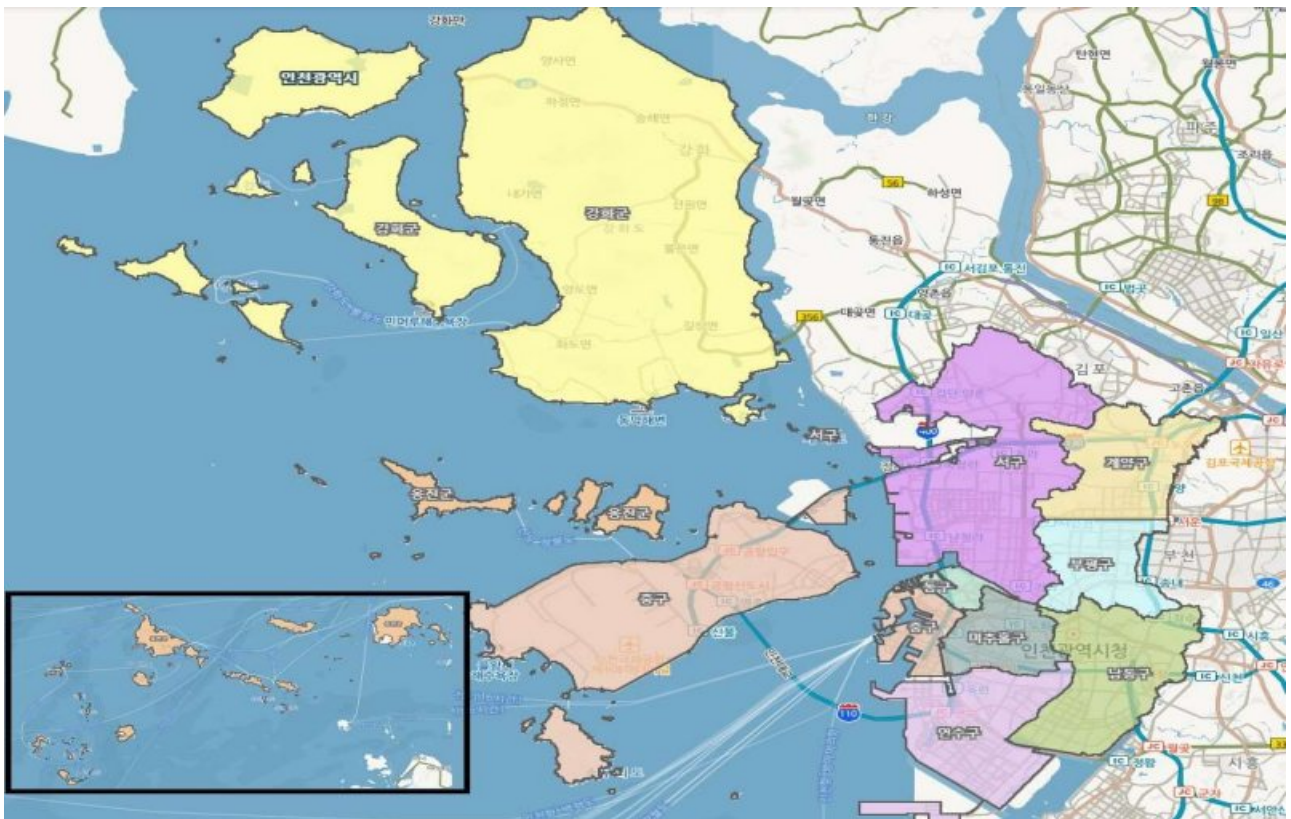
제3절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직접) : 2024년

○ 시간적 범위(간접) : 2024년~2028년

※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관내



○ 내용적 범위

- 은둔형 외톨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문항개발
- 대상자 모집·선정을 위한 은둔형 외톨이 발굴체계 구축
-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
- 은둔과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구상
- 사업추진 점검과 발전방안 체계 마련
-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용역

Ⅱ. 계획수립 추진 체계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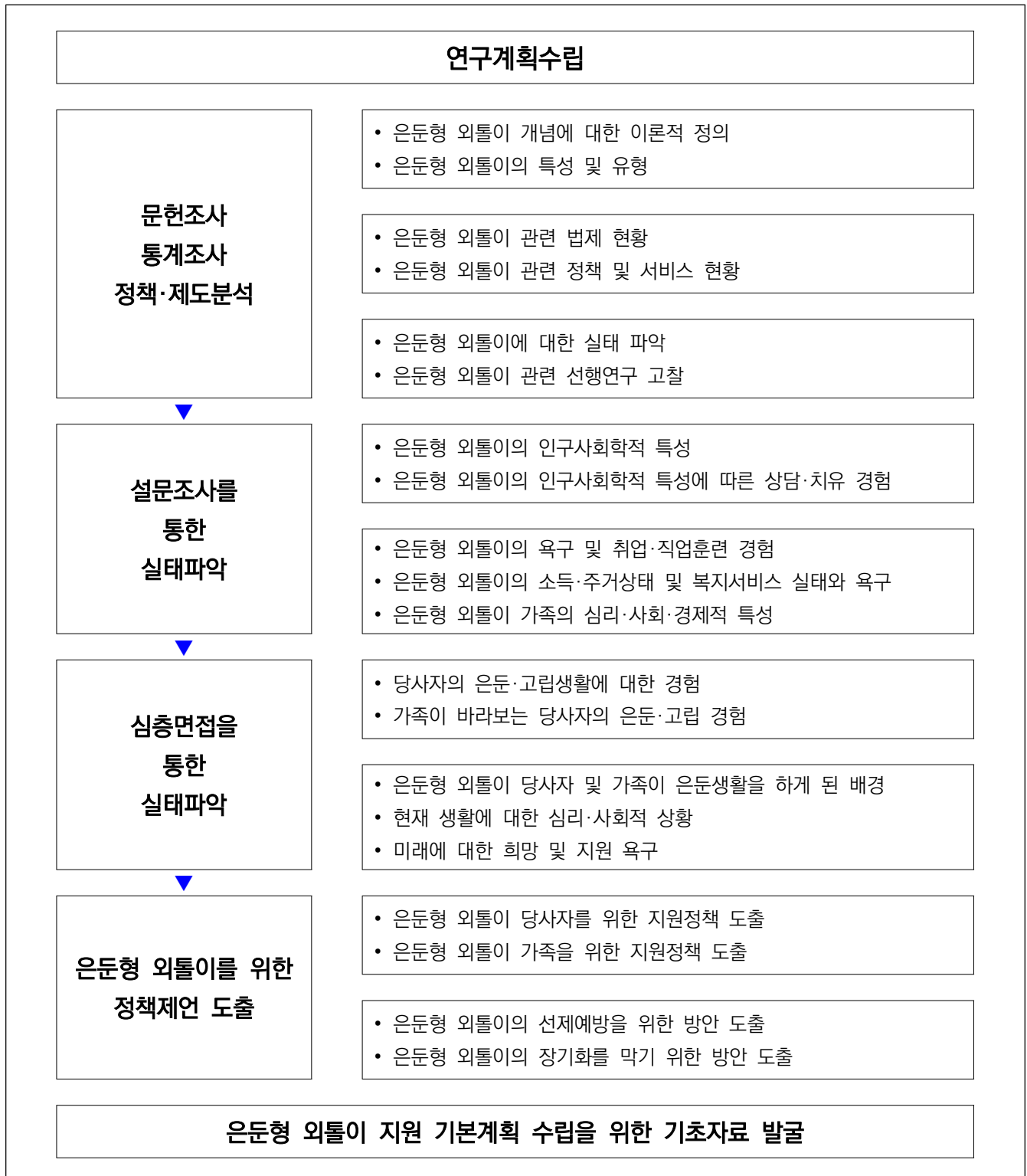
제1절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제2절 실태조사(설문) 방법

제3절 심층인터뷰 방법

Ⅱ 계획수립 추진 체계 및 절차

제1절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제2절 실태조사(설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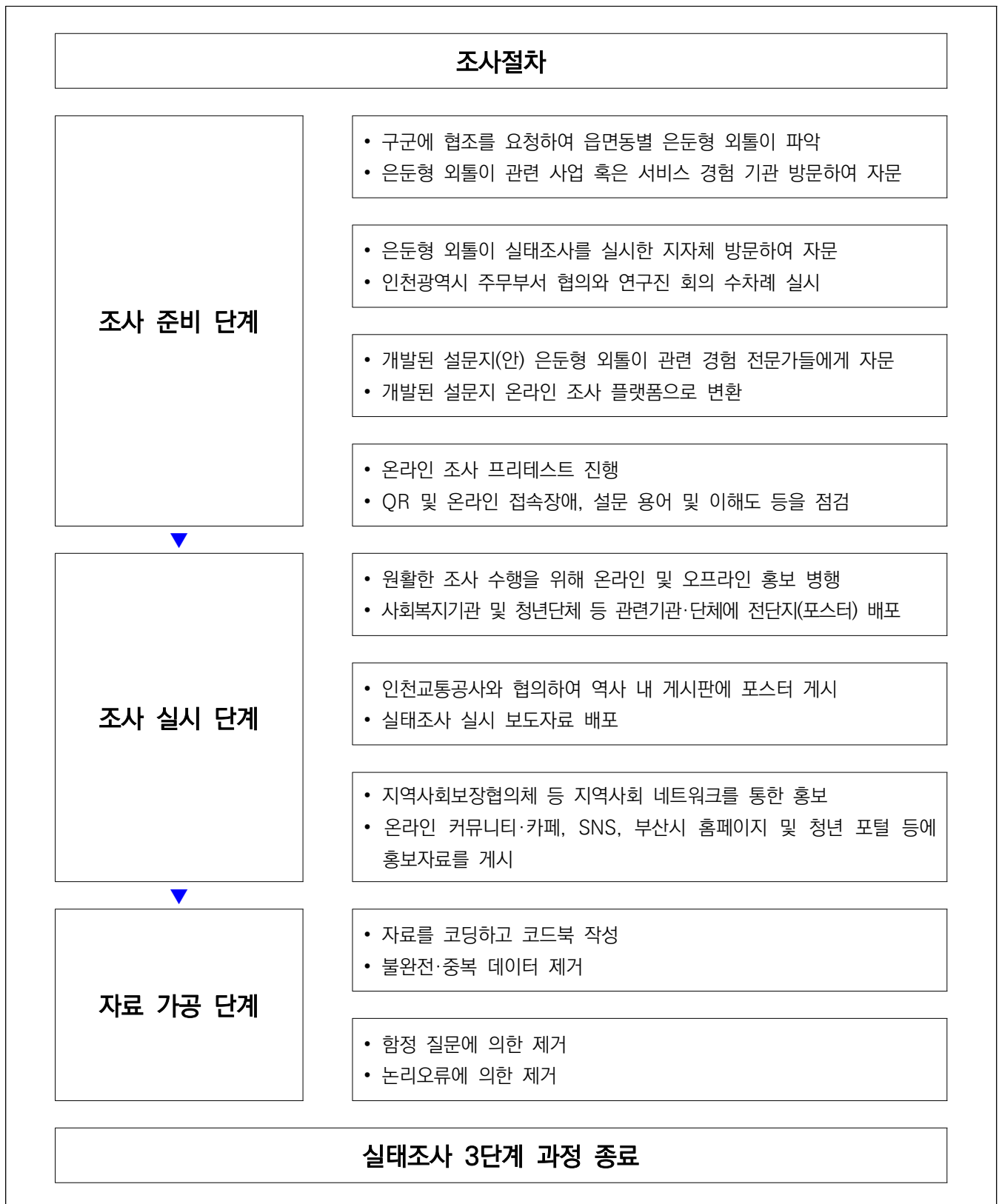
1. 조사설계 개요

항목	내용
표본 추출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19~64세 거주 가구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은둔생활을 하는 당사자와 과거 은둔경험이 있는 당사자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은둔형 외톨이 가족으로 구분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대상이 되는 표본을 찾아 조사하는 목적 표집의 방법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안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카드뉴스 발송 인천 지역 신문사 보도협조 인천광역시 청년, 청소년 상담기관 홈페이지 안내 사회복지기관 및 상담바우처 제공기관, 교육청 Wee센터, 청(소)년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 포스터 부착 및 전단지 배포
목표 표본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집단 : 2,000명 이상 목표표본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500명, 은둔형 외톨이 가족 500명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07.01. ~ 2024.08.30.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터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QR코드 또는 온라인 주소를 홍보하여 접속을 유도하는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접근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을 위해 면접원이 대상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을 입력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의 조사를 보완적으로 진행

2. 데이터분석 방법

- 코딩 및 데이터클리닝 작업 후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
- 기술통계분석(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T검증(T-test) 등

3. 조사과정



4. 은둔형 외톨이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 업무협조체계

연번	구분	일자	대상 및 참여인원	주요 내용
1	주민자치연합회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6/4(화)	주민자치연합회(약 10명) 인천시 복지정책과 2명 용역사 2명	-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자 료, 홍보물(포스터) 각 1부 배부 완료 - 안내 및 질의응답
2	읍면동 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6/7(금)	읍면동 담당자(약 200명) 인천시 복지정책과 3명 용역사 3명	-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자 료, 홍보물(포스터) 각 1부 배부 완료 - 안내 및 질의응답
3	통이장연합회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6/11(화)	통이장연합회(약 25명) 인천시 복지정책과 2명 용역사 3명	-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자 료, 홍보물(포스터) 각 1부 배부 완료 - 안내 및 질의응답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6/12(수), 6/13(목) 총 4회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차별 약 50명, 4회차) 인천시 복지정책과 2명 용역사 2명	-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자 료, 홍보물(포스터) 각 1부 배부 완료 - 안내 및 질의응답
5	종합사회복지관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6/17(월)	종합사회복지관(약 10명) 인천시 복지정책과 2명 용역사 2명	-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자 료, 홍보물(포스터) 각 1부 배부 완료 - 안내 및 질의응답

〈주민자치협회 대상(6/4, 수)〉



〈읍면동 담당자 대상(6/7, 금)〉



〈통이장연합회 대상(6/11, 화)〉



〈종합사회복지관 대상(6/17, 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4회차)(6/12~13, 수~목)〉



○ 홍보체계

연번	구분	규모	기간	비고
1	관련 기관 및 부처 대상 담당자 교육 및 협조 요청	-	자체 회의 중 참석	(대상) 주민자치연합회, 읍면동 담당자, 통이장연합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 등
2	반상회보	-	(6월분) 6/15	-
3	대학교 교내 포스터 게시	각 5개소	(인천대) ~7/31 (인하대) ~7/9	-
4	인천지하철공사 문화마당(게시판) 포스터 게시	80개소	7/8~7/21	(인천1호선) 35개소 (인천2호선) 30개소 (7호선) 15개소
5	인천시청 홈페이지 (배너, 카드뉴스) 게시	-	7/1~	시민참여 알림, 카드뉴스 게시
6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게시	-	7/8~	공지사항 게시

연번	구분	규모	기간	비고
7	인천 청년공간 게시 (홈페이지, SNS, 현장 게시판)	7개소	조사 기간 중	(대상) 유유기지 인천, 청년센터 서구1939, 계양청년마당, 연수청 년자리, 유유기지 부평, 중구 청 년내일기지, 동구청년21
8	관련 블로그 및 카페 게시	-	조사 기간 중	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게시 완료
9	카드뉴스 배포	약 3,200명	7/9(일시배포)	장애인생활신문 배포 협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10	지정게시대 현수막	구 당 5개소	8월 중 10일간	(대상) 서구,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중구, 동구
11	게릴라 현수막	1회 50개소	8/10 ~	번화가, 주거지 등 50개소
12	버스 내 홍보물 게시	좌석시트 60대, 내부중앙문 23대	게시일로부터 1개월 (7/9 1차, 7/15 2차)	(홍보수단) 좌석시트, 내부중앙문
13	온라인 홍보(광고) 채널 (구글 GDN, 카카오 등)	-	1개월(7/8~)	인천광역시 내 타겟홍보
14	보도자료 배포	-	7/19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게시
15	인천e음 배너 홍보	-	7월 말~	팝업배너형, 라인배너형
16	관내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게시	군·구청 10개소 행정복지센터 156개소	7/10 발송(배포) ~조사기간 중	기관별 홍보물 각 3매 배포 및 부착 협조 요청(공문 및 이메일)
17	기타	-	수시	관련 기관 및 장소 / 지역구별 요청장소 발송 등 지속 추진

□ 반사회보

〈2024년 6월 정례반사회 홍보자료 중 6월 반사회보(시)〉

2024년 6월 중 정례반사회 홍보자료 목록

주요 홍보내용(29건)

1. 2024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안내	정책기획관	1p
2. 내게 꼭 맞는 정부정책, 보조금24에서 만나보세요!	시장혁신담당관	3p
3. 9월분 자원봉사 실적의 달입니다.	지자체협력담당관	7p
4. 자원봉사자의 시선 '1365자원봉사포털' 안내	자원봉사과	9p
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감면 안내	보훈정책과	11p
6.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안내가 지방인도	보훈정책과	12p
7. 2024년 인천광역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제4차사업 안내	보훈정책과	15p
8.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인천광역시) 안내	보훈정책과	16p
9. 인천신로고 '여름철 재난안전취약지역 집중신고제' 운영	사회재난과	17p
10. 고령 건물 화재사 예방을 위한	사회재난과	19p
11. 여름철 자연재해 비상응급 대응책, 지자체별 맞춤형	자연재난과	20p
12. '2024 인천여름 일자리 한마당' 개최 안내	경제정책과	22p
13. 2024 기후위기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교육 안내	환경기후정책과	23p
14. 디지털 격차(인하-배스)를 위한 안내자료 운영	교육정책과	25p
15. '2024 국제해양안전주간' 개최 안내	관광마케팅과	26p
16.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요청	복지정책과	27p
17. 자살예방포럼, 청소년, 지역특수 및 다문화 청소년	건강증진과	29p
18. 인천 디지털 자율학습센터(인천ON) 운영 홍보	도시관리과	30p
19. 인천ON마을 우수이웃자 살롱 및 활성화 이벤트 안내	도시관리과	31p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안내

○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을 돕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조력을 제정(23.4.17)하고, 28년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추진

※ 은둔형 외톨이란

- 일상적인 학교를 가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병들, 가족을 만나는 방문 등을 제외하고 집에서 잘 나가지 하지 않는다.
- 가족, 이웃, 사생활과의 소통 - 교류가 거의 없다.

※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절차

1. 설문조사(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실시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설문조사 결과 발표

4.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개요

○ (목적)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지역별 특구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마련 기초자료 수집

○ (조사기간) 6월 중 ~ 8월(약 2개월 내외, ※ 일정변경 가능)

○ (조사대상)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은둔형 외톨이 가족

○ (조사방법) 온라인(QR코드, URL)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면접조사

□ 협조 요청사항

○ 관공서 내 실태조사 홍보(실태조사 안내문 배부)

○ 홍보물론 추후 관공서로 제공 예정

○ 은둔형 외톨이 대상자 및 가구 발굴 협조

○ 관공서 내 복지기관, 주민자치위원회, 무녀회 등 관공서지 협력

○ 실태조사 관련 문의 접수 시 용역사에 안내 및 전달

문의처: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440-1552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설문조사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설문조사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과거 또는 현재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다면 꼭 참여해주세요!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당첨금 100만원(1인당 1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기간: 6월~8월

QR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

설문조사 참여 방법

1. QR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

2. 설문조사 참여 방법

3. 설문조사 참여 방법

4. 설문조사 참여 방법

5. 설문조사 참여 방법

6. 설문조사 참여 방법

7. 설문조사 참여 방법

8. 설문조사 참여 방법

9. 설문조사 참여 방법

10. 설문조사 참여 방법

11. 설문조사 참여 방법

12. 설문조사 참여 방법

13. 설문조사 참여 방법

14. 설문조사 참여 방법

15. 설문조사 참여 방법

16. 설문조사 참여 방법

17. 설문조사 참여 방법

18. 설문조사 참여 방법

19. 설문조사 참여 방법

20. 설문조사 참여 방법

21. 설문조사 참여 방법

22. 설문조사 참여 방법

23. 설문조사 참여 방법

24. 설문조사 참여 방법

25. 설문조사 참여 방법

26. 설문조사 참여 방법

27. 설문조사 참여 방법

28. 설문조사 참여 방법

29. 설문조사 참여 방법

30. 설문조사 참여 방법

31. 설문조사 참여 방법

32. 설문조사 참여 방법

33. 설문조사 참여 방법

34. 설문조사 참여 방법

35. 설문조사 참여 방법

36. 설문조사 참여 방법

37. 설문조사 참여 방법

38. 설문조사 참여 방법

39. 설문조사 참여 방법

40. 설문조사 참여 방법

41. 설문조사 참여 방법

42. 설문조사 참여 방법

43. 설문조사 참여 방법

44. 설문조사 참여 방법

45. 설문조사 참여 방법

46. 설문조사 참여 방법

47. 설문조사 참여 방법

48. 설문조사 참여 방법

49. 설문조사 참여 방법

50. 설문조사 참여 방법

51. 설문조사 참여 방법

52. 설문조사 참여 방법

53. 설문조사 참여 방법

54. 설문조사 참여 방법

55. 설문조사 참여 방법

56. 설문조사 참여 방법

57. 설문조사 참여 방법

58. 설문조사 참여 방법

59. 설문조사 참여 방법

60. 설문조사 참여 방법

61. 설문조사 참여 방법

62. 설문조사 참여 방법

63. 설문조사 참여 방법

64. 설문조사 참여 방법

65. 설문조사 참여 방법

66. 설문조사 참여 방법

67. 설문조사 참여 방법

68. 설문조사 참여 방법

69. 설문조사 참여 방법

70. 설문조사 참여 방법

71. 설문조사 참여 방법

72. 설문조사 참여 방법

73. 설문조사 참여 방법

74. 설문조사 참여 방법

75. 설문조사 참여 방법

76. 설문조사 참여 방법

77. 설문조사 참여 방법

78. 설문조사 참여 방법

79. 설문조사 참여 방법

80. 설문조사 참여 방법

81. 설문조사 참여 방법

82. 설문조사 참여 방법

83. 설문조사 참여 방법

84. 설문조사 참여 방법

85. 설문조사 참여 방법

86. 설문조사 참여 방법

87. 설문조사 참여 방법

88. 설문조사 참여 방법

89. 설문조사 참여 방법

90. 설문조사 참여 방법

91. 설문조사 참여 방법

92. 설문조사 참여 방법

93. 설문조사 참여 방법

94. 설문조사 참여 방법

95. 설문조사 참여 방법

96. 설문조사 참여 방법

97. 설문조사 참여 방법

98. 설문조사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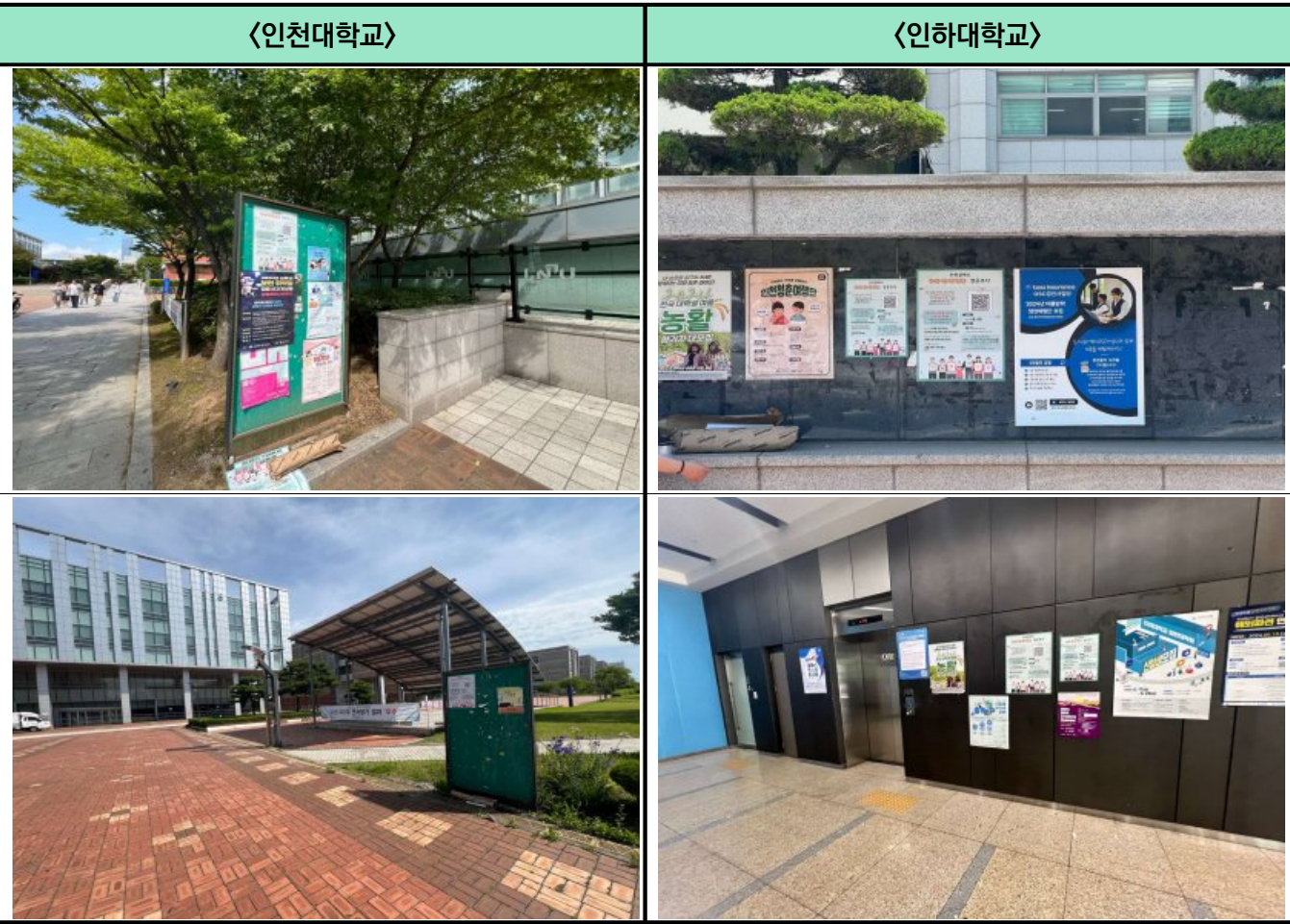
99. 설문조사 참여 방법

100. 설문조사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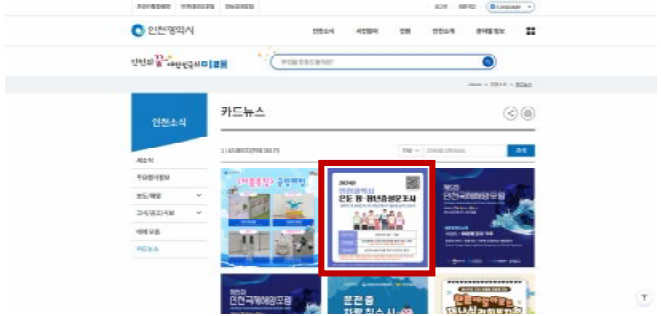
□ 인천지하철공사 문화마당(게시판) 포스터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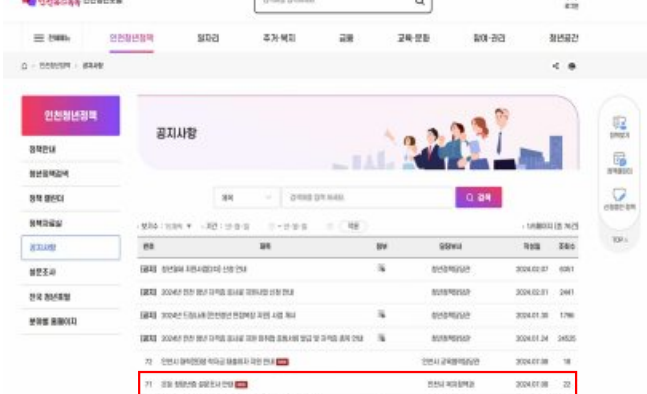

□ 대학교 교내 포스터 게시





□ 인천시청 홈페이지(배너, 카드뉴스) 게시

〈시민참여 알림〉	〈카드뉴스〉
	

□ 인천청년포털(인천유스톡톡) 홈페이지 게시

〈인천청년포털 공지사항 게시〉	
	

□ 인천 청년공간 게시(홈페이지, SNS, 현장 게시판 등)

〈홈페이지〉	〈SNS〉
	

□ 카드뉴스 배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카드뉴스 배포(장애인생활신문 배포 협조)〉



□ 버스 내 홍보물 게시(좌석시트, 내부 중앙문)

〈좌석시트〉



〈내부 중앙문〉



□ 인천 e음

〈팝업 배너〉



〈라인형 배너〉



□ 현수막(지정계시대 / 게릴라)

〈지정계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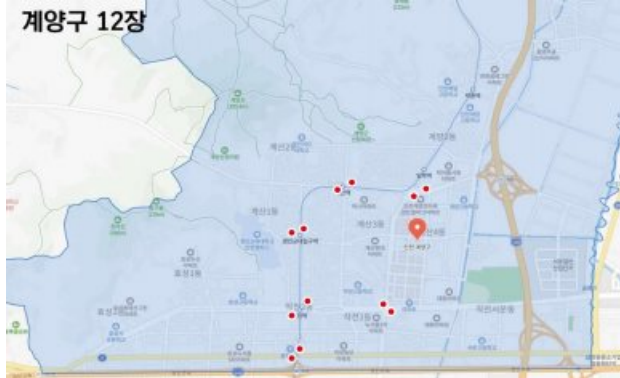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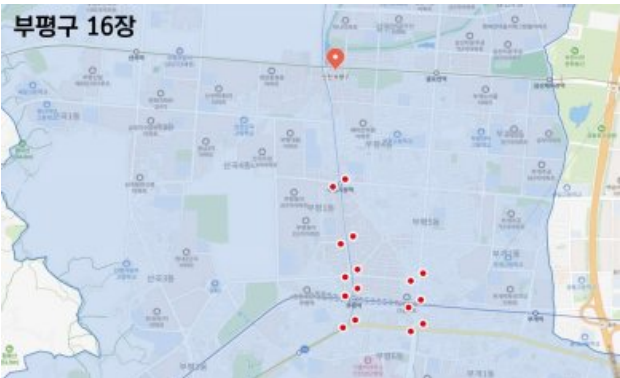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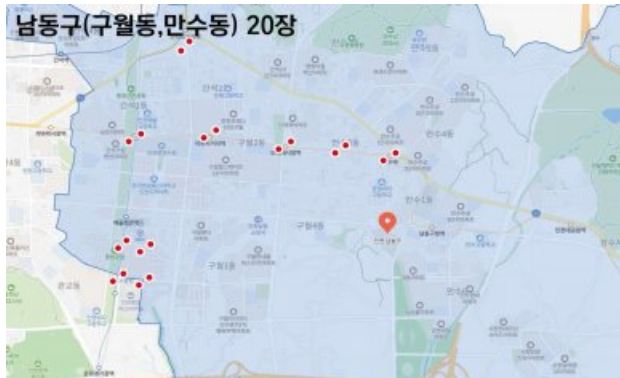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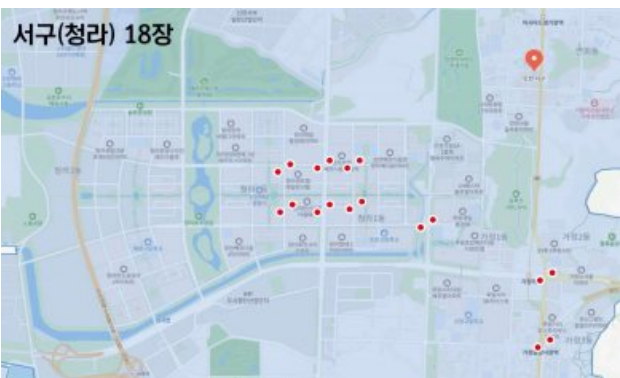


〈게릴라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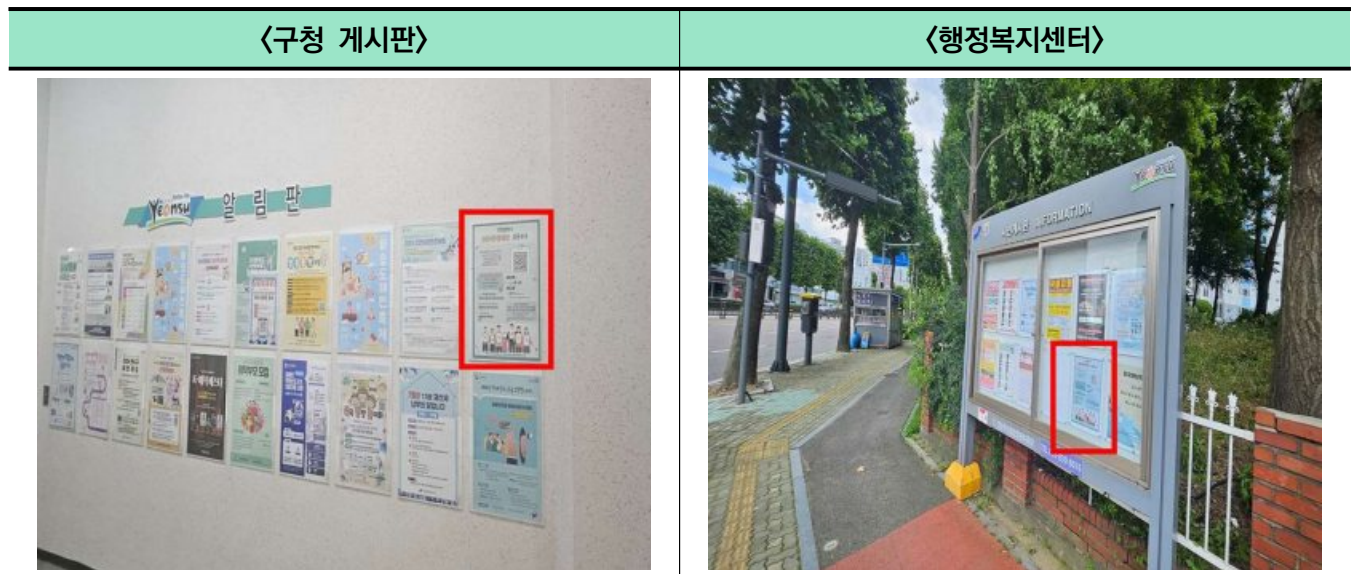
〈표 1〉 지정게시대 현수막 승인 현황

연번	지역	게시대명(위치)	게시일자	철거일자
1	계양구	효성동 유승(아) 옆	2024. 08. 01.	2024. 08. 10.
2		서운중(옆)삼거리	2024. 08. 01.	2024. 08. 10.
3		장기동 원옥 그린빌라(앞)	2024. 08. 01.	2024. 08. 10.
4		구일빌딩(뒤)	2024. 08. 01.	2024. 08. 10.
5		계산여고(앞)	2024. 08. 01.	2024. 08. 10.
6	남동구	인천시청분수대앞-219	2024. 08. 12.	2024. 08. 21.
7		(소형)시청입구삼거리2-3	2024. 08. 12.	2024. 08. 21.
8		(소형)교육청건너-6	2024. 08. 12.	2024. 08. 21.
9		(소형4단)논현동은봉로351번길입구-322	2024. 08. 13.	2024. 08. 22.
10		동보아파트삼거리1-108	2024. 08. 13.	2024. 08. 22.
11	동구	봉수대길 SK주유소 옆(B)	2024. 08. 01.	2024. 08. 10.
12		서흥초등학교 앞	2024. 08. 01.	2024. 08. 10.
13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2024. 08. 01.	2024. 08. 10.
14		동부아파트 앞(A)	2024. 08. 01.	2024. 08. 10.
15		박문로터리 진로아파트 옆	2024. 08. 01.	2024. 08. 10.
16	미추홀구	간석역앞	2024. 08. 02.	2024. 08. 11.
17		주안역길(스파시스옆길)	2024. 08. 02.	2024. 08. 11.
18		하늘꿈 교회 맞은편	2024. 08. 05.	2024. 08. 14.
19		인향고삼거리(윤성아파트 입구)	2024. 08. 10.	2024. 08. 19.
20		고속버스터미널(구 농산물 시장)	2024. 08. 10.	2024. 08. 19.
21	부평구	갈산사거리 갈산주공1단지 방면	2024. 08. 06.	2024. 08. 15.
22		학교) 백영아파트 앞	2024. 08. 07.	2024. 08. 16.
23		부개주공 1단지 앞(삼산체육관 맞은편)(좌)	2024. 08. 07.	2024. 08. 16.
24		학교) 영선고등학교 앞	2024. 08. 07.	2024. 08. 16.
25		학교)예림원 옆	2024. 08. 08.	2024. 08. 17.
26	서구	검암역앞(A)	2024. 08. 01.	2024. 08. 10.
27		검단금호어울림아파트삼거리 앞(B)	2024. 08. 01.	2024. 08. 10.
28		봉수대로 SK 에너지 앞 삼거리(B)	2024. 08. 01.	2024. 08. 10.
29		유승아파트 앞	2024. 08. 11.	2024. 08. 20.
30		서구청 정문 앞(B)	2024. 08. 11.	2024. 08. 20.
31	연수구	신연수역 풍림아파트 앞	2024. 08. 08.	2024. 08. 17.
32		원인재역 6번출구 앞	2024. 08. 08.	2024. 08. 17.
33		선학역 사거리 경남아파트 앞	2024. 08. 08.	2024. 08. 17.
34		인천여자고등학교 앞	2024. 08. 08.	2024. 08. 17.
35		연수우체국 앞(우)	2024. 08. 18.	2024. 08. 27.
36	중구	서해대로 기업은행 앞	2024. 08. 06.	2024. 08. 15.
37		경인고속도로종점 인하대병원 사거리2	2024. 08. 06.	2024. 08. 15.
38		연안비취맨션 16동 앞	2024. 08. 06.	2024. 08. 15.
39		남경포브 아파트 2	2024. 08. 06.	2024. 08. 15.
40		정보산업고 담장	2024. 08. 16.	2024. 08. 25.
계		총 40개소(구별 5개소) / 개소당 10일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표 2〉 게릴라 현수막 게침 대상지 현황

〈연수구 : 18개소〉	〈계양구 : 12개소〉
<p>연수구(송도) 18장</p> 	<p>계양구 12장</p> 
〈부평구 : 16개소〉	〈남동구 : 20개소〉
<p>부평구 16장</p> 	<p>남동구(구월동,만수동) 20장</p> 
〈서구 : 18개소〉	〈남동구 : 8개소〉
<p>서구(청라) 18장</p> 	<p>남동구(논현동,고잔동,소래포구) 8장</p> 
〈미추홀구 : 8개소〉	
<p>미추홀구 8장</p> 	

□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게시



□ 기타(협조기관 자체 추가 홍보 추진사항 등)



5. 조사내용

1) 부산시 조사내용

○ 은둔당사자

구분		문항	
		현재	과거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가구경제상태	
은둔 돌입 전		은둔 전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 은둔 전 깊은 대화 상대	
은둔 과정	은둔 관련	은둔 생각이 처음 들었던 시기, 실제로 처음 은둔한 시기, 은둔 기간, 총 은둔 횟수 은둔생활 중 외출 빈도, 은둔 계기, 은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 기간	
	생활 전반	주로 하는 활동, 식사생활, 식사준비, 수면생활, 수면기간,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미참여 시 경제적 문제해결 방법	
	신체/정신건강	지난 7일간 기분상태(외로움, 우울, 불안), 은둔 당시 기분상태(과거), 음주흡연, 주관적 신체건강, 주관적 정신건강, 자살생각, 자살시도(횟수)	
	관계와 도움	가족과 생활 여부,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정도, 은둔생활 중 외부 도움	
회복 과정	문제해결 노력	은둔생활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은둔을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문제해결 노력	
	지원필요성 및 방식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서비스 이용의향, 선호하는 지원방식,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꼭 필요한 것	
은둔 탈출 후		-	은둔탈출방법, 은둔탈출 시_문제해결 여부, 과거 은둔생활에 대한 현재 인식

○ 응답가족

구분		문항	
		현재	과거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가족 성별 및 연령, 가구경제상태, 은둔가족과의 관계 은둔가족 성별 및 연령	
은둔 돌입 전		은둔 전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 은둔 전 깊은 대화 상대	
은둔 과정	은둔 관련	처음 은둔한 시기, 은둔 기간, 은둔생활 중 외출 빈도, 은둔 계기, 은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 기간	
	생활 전반	주로 하는 활동, 식사생활, 식사준비, 수면생활, 수면시간,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미참여 시 경제적 문제해결 방법	
	신체/정신건강	음주흡연, 주관적 신체건강, 주관적 정신건강, 자살생각, 자살시도(횟수)	
	관계와 도움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정도, 은둔생활 중 외부 도움	
회복 과정	문제해결 노력	문제해결 노력, 당사자의 은둔생활에 대한 당시 인식	
	지원필요성 및 방식	은둔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서비스 이용의향, 선호하는 지원방식, 은둔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꼭 필요한 것	
은둔 탈출 후		-	당사자의 과거 은둔생활에 대한 현재 인식

2) 서울시 조사내용

조사항목	세부항목
응답자 선정 질문	• 성별, 연령, 거주지역, 출생지, 가구원 수, 가족 형태
고립·은둔 성향	• 현재 근로 상태/취업 의향, 미취업 사유/기간, 생활비 출처,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 • 평상시 외출 정도, 은둔 기간, 과거 은둔 경험, 최초 은둔 시작 시기, 일상적 교류 빈도, 정서적 물리적 고립 정도, 고립 기간, 과거 고립 경험, 최초 고립 시작 시기, 고립·은둔 계기 • 온라인 대화 여부/방식, 외로움 정도, 아동 청소년기 경험, 성인기 후 경험
생활 실태	• 평소 생활 패턴, 수면 및 활동 패턴, 집에서 하는 활동, PC/모바일 활동, 평소 식생활, 자기관리 및 청결 상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우울 정도
지원 필요사항	• 벗어나려 했던 경험/방법, 가장 필요한 도움, 지원 제공 장소/방식/기간 • 서울시 지원사업 인지도/인지 경로,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 여부, 서울시 지원사업 만족도/불만족 이유,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 의향/불참 이유
응답자 일반사항	• 최종학력, 직업, 혼인상태, 주택 유형, 주택의 소유 형태, 타인과 방 공유 여부

3) 전라남도 조사내용

조사대상	항목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은둔 기간, 계기, 첫 은둔 시기 등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 주요 활동, 관계 형성, 식사 방식 등 은둔형 외톨이의 일상생활 - 외로움, 친구 사귀기, 학습, 취·창업 활동, 문화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 - 심리 정서적 경험, 사회적 관계 등 은둔형 외톨이 생활의 원인 관련 변인 - 상담 경험, 상담 평가, 활동 욕구 등 - 은둔 생활을 벗어난 계기(과거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및 정책 욕구
은둔형 외톨이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은둔 기간, 계기, 첫 은둔 시기 등 은둔형 외톨이인 가족의 특성 - 주요 활동, 관계 형성, 식사 방식 등 은둔형 외톨이인 가족의 일상생활 - 외로움, 친구 사귀기, 학습, 취·창업 활동, 문화여가활동 등 은둔형 외톨이인 가족의 일상생활 어려움 - 외로움, 친구 사귀기, 학습, 취·창업 활동, 문화여가활동 등 은둔형 외톨이 가족으로서의 어려움 - 상담 경험, 상담 평가, 활동 욕구 등 은둔형 외톨이인 가족의 상담 경험 및 활동 욕구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및 정책 욕구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을 위한 지원 및 정책 욕구

4) 광주시 조사내용

○ 1차 실태조사는 전라남도 설문문항과 동일

○ 2차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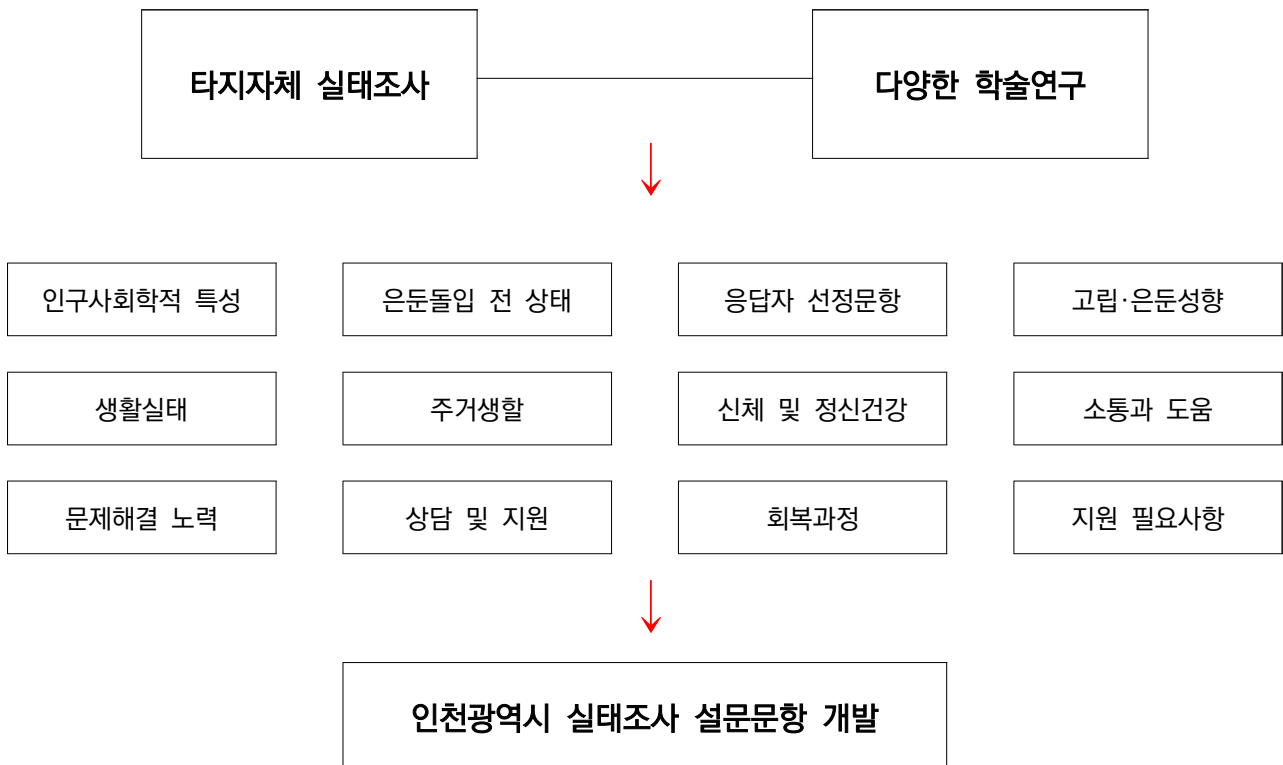
구분	설문항목	현재 외톨이	과거 외톨이	외톨이 가족
A. 은둔경험	집에서 생활한 기간	○	○	○
	평소 외출정도	○	○	○
	집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복수응답)	○	○	○
	은둔생활 시작한 시기	○	○	○
	은둔 당사자 생활상태(36문항)			○
B. 일상생활	방에서 자주하는 활동(2가지 복수응답)	○	○	○
	속마음 털어놓을 사람 수	○	○	○
	하루 식사 횟수	○	○	○
	식사 방법	○	○	○
	식사 종류	○	○	○
	평소 수면 정도	○	○	○
	하루 평균 수면시간	○	○	○
	경제적 문제해결 방법	○	○	○
	일상생활 어려움(6문항)	○	○	
	은둔 당사자로 인한 어려움(8문항)			○
C. 주거생활	거주 주택 유형	○	○	○
	거주 주택 소유형태	○	○	○
	은둔 당사자 주택내부 주거상태(7문항)			○
	은둔 당사자 주택 외부환경(9문항)			○
D. 신체 및 정신건강	신체건강 상태	○	○	○
	은둔생활 정도(23문항)	○	○	○
E. 소통과 도움	가족과의 대화	○	○	○
	도움주는 사람(12문항)	○	○	○
F. 상담 및 지원	상담 경험 여부	○	○	○
	상담받은 이후 변화	○	○	○

구분	설문항목	현재 외톨이	과거 외톨이	외톨이 가족
	전문 상담기관 상담 의향	○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		
	의향이 있는 이유	○		
	욕구정도(11문항)	○		
	필요한 지원(복수응답)	○	○	○
	도움받기 원하는 방법(복수응답)	○	○	○
	은둔생활 당시 하고 싶었던 것(복수응답)		○	
	은둔 당사자 변화를 위해 가족이 한 노력(복수응답)			○
	은둔 당사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정책(복수응답)			○
F. 회복과정	은둔생활 당시 가족 생각		○	
	은둔생활 당시 나의 생각		○	
	은둔생활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2가지 복수응답)		○	
	은둔생활 당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2가지 복수응답)		○	
	은둔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	
	은둔생활 회복한 기간(주관식)		○	
	회복 후 은둔생활 반복 경험		○	
	은둔생활 반복 횟수		○	
	은둔생활 반복 이유(복수응답)		○	
	회복 후 현재 생활(복수응답)		○	
G. 일반적 특성	성별	○	○	○
	출생년도	○	○	○
	최종학력	○	○	○
	거주지역	○	○	○
	종교	○	○	○
	배우자 유무	○	○	○
	함께 사는 가족(복수응답)	○	○	○
	경제상태	○	○	○
	은둔 당사자와의 관계			○

5) 제주도 조사내용

1차 조사 - 규모 추계조사		2차 조사 - 심층 설문조사	
기초상황	성별, 연령, 거주지역, 최근 1주 경제활동 상태, 일 경험, 체감 생활 형편, 신체적 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	현재 상황	은둔 및 고립 생활 계기, 은둔 및 고립 상태 지속 정도, 주된 활동과 자구책, 생활 패턴, 경제적 상황
자기인식과 마음상태	자기수용(자아존중감), 삶 만족도, 우울, 외로움과 고립감	건강 상태	평균 수면 시간, 운동 상태, 술·담배·약물 이용 현황
사회적 관계	청소년기 고립 경험, 현재 사회적 관계 및 교류 상태, 외출 현황	정책 의견	청년 정책 정보 획득 경로, 정책 의견

6) 인천광역시의 조사내용



- 은둔형 외톨이 관련 학술연구와 타지자체 실태조사의 문항들을 종합 정리
-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둔돌입 전 상태, 응답자 선정문항, 고립·은둔성향, 생활실태, 주거생활, 신체 및 정신건강, 소통과 도움, 문제해결 노력, 상담 및 지원, 회복 과정, 지원 필요사항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음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

6. 조사 홍보 및 응답율 제고 방안

- 보도자료·카드뉴스 배포, 지자체·유관기관 등 협조 요청
- 민간 지원기관 및 청년당사자·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등 홍보

예시)



- (문자안내) 확인된 대상자 중 미응답자 대상으로 주 2회(월, 목) 안내 문자발송
- (답례품) 완료자 중 추첨 모바일 상품권

제3절 심층 인터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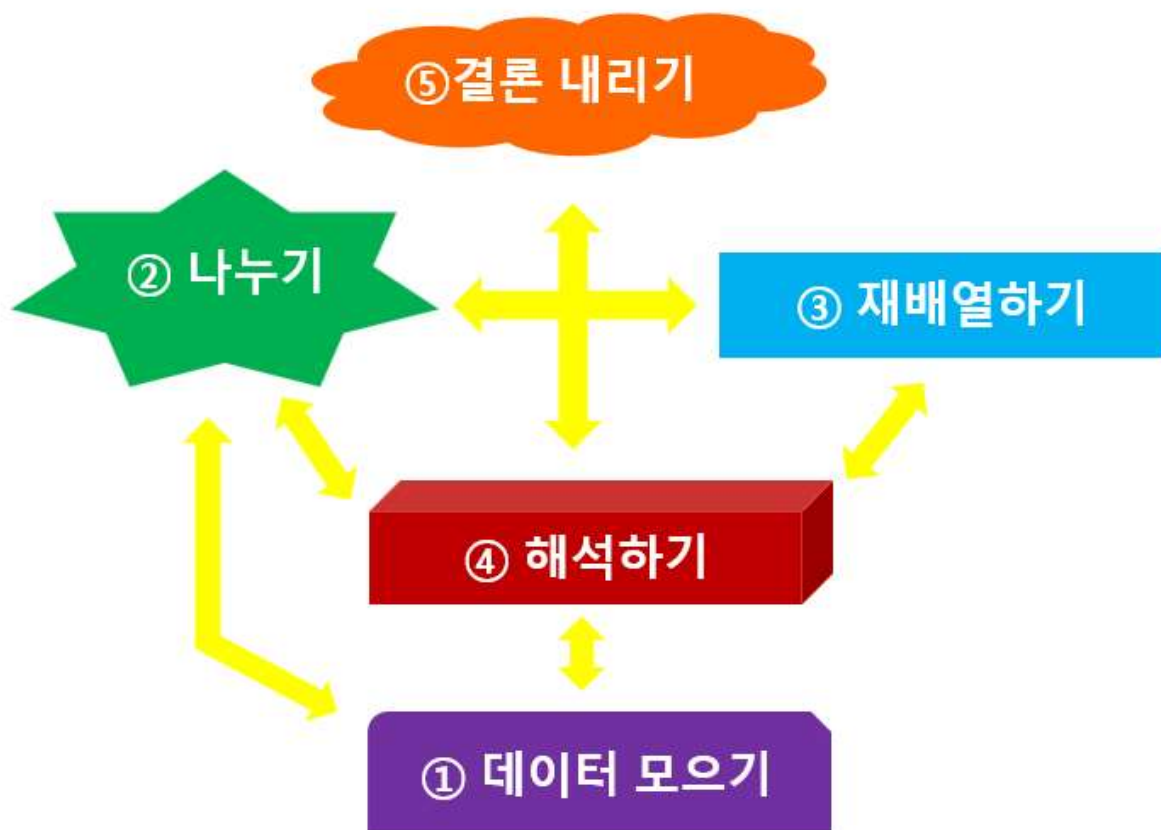
1. 조사설계

-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은둔형 외톨이들의 고립·은둔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 본인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집 홍보와 관계기관의 소개를 받은 후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거쳐 선정하였고 가족 참여자는 관계기관의 소개와 온라인 홍보 및 문자 권유에 대해 참여의사를 밝힌 가족을 대상으로 역시 서면동의를 구한 후 선정
-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참여자의 성별이나 연령, 은둔기간, 은둔계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과거에 은둔한 경험이 있는 조건에 부합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만 있으면 연구참여자로 선정(가족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

항목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은둔형 외톨이 가족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집 홍보와 관계기관의 소개를 받은 후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거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의 소개와 온라인 홍보 및 문자 권유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족
참여자수	10~15명	10~15명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1:1 심층 인터뷰 (In Depth interview) 반구조화된 인터뷰 (Semi-Structured Int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FGI (Focus Group Int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1:1 심층 인터뷰 (In Depth interview) 반구조화된 인터뷰 (Semi-Structured Interview)

2. 조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인 은둔형 외톨이는 그 특성상 외부와의 접촉이나 노출을 대단히 꺼리므로 1:1로 온·오프라인 심층면접을 진행
- 당사자의 경우 집으로부터 가까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
- 대면방식의 인터뷰 조사를 꺼리는 경우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
- 대상자별 심층 인터뷰 진행 시간은 1~2시간 소요
- 심층 인터뷰 진행자는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인터뷰 진행 교육을 받은 다음 조사현장에 투입 하였음
- 심층 인터뷰 실시 목적 및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 비밀보장의 원칙 그리고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한국임상심리학회 윤리 규정, 제1장 제17조, 제6장 제59조 참조)
- 심층 인터뷰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
- 심층 인터뷰 최종 마무리 후 72시간 이내에 녹음된 자료 전사작업 실시
- 인터뷰 내용분석은 데이터모으기→나누기→재배열하기→해석하기→결론내리기 순으로 진행



3. 조사내용

1) 서울시 인터뷰 내용

대상	항목	내용
당사자	Introduction & Warm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목적 및 질문 내용 간략 소개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자기 소개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의 일상생활 루틴: 기상시간, 일어나서 잠들기까지의 일상생활, 식사패턴, 가족과 식사여부, 수면상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약물복용 여부, 건강을 위한 활동 여부
	고립·은둔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은둔 상태: 집/방 안에서 주로 하는 일, 외출횟수 및 외부적 교류 행태, 가족과의 관계 고립·은둔 기간 및 반복: 고립·은둔의 계기, 고립·은둔 후 생활/정서의 차이 체감 정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복에 대한 생각: 현 상황에 대한 생각 및 가족/친구의 반응, 고립·은둔 극복 시도 경험 지원에 대한 생각: 경제적/심리적/제도적 지원에 대한 생각, 향후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식/지원 장소/지원 체계에 대해 원하는 방향
가족	Introduction & Warm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목적 및 질문 내용 간략 소개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자기 소개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의 일상생활 루틴: 기상시간, 일어나서 잠들기까지의 일상생활, 식사패턴, 가족과 식사여부, 수면상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약물복용 여부, 건강을 위한 활동 여부 외출/여가/교류 관련: 외출 횟수/이유/상태, 주변 사람들에 의지하는 정도, 가족과의 관계 고립·은둔 시작 시기 및 계기: 계기에 대한 대화 여부, 가족의 고립·은둔 생활 이후 변화된 것
	가족의 인식 및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생각: 고립·은둔인 가족에 대한 생각 및 이해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보살핌/소통/관심의 표현에 대한 애로사항,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여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은둔 상태 극복을 위한 대처/노력: 변화를 위해 시도해본 것, 도움이 된/되지 않은 이유 지원에 대한 생각: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의견,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

2) 부산시 인터뷰 내용

항목	내용
당사자	은둔하게 된 계기, 은둔 시기, 은둔 기간, 어린 시절과 가정환경, 학창시절과 교우관계,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및 대인관계, 은둔생활 중 주로 하는 일, 심리정서적 문제와 신체 건강상태, 은둔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는지,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
가족	언제 어떻게 은둔하게 되었으며 은둔생활 중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린 시절과 성장환경, 교우관계, 학창시절에 왕따 등을 당하지 않았는지, 일 경험이 있는지 등
	부가질문 언제 은둔을 인지하게 되는지, 가족으로서 느끼는 부담과 답답한 심정,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등

3) 광주시 인터뷰 내용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회차	항목		내용
1차			은둔생활을 하게 된 시점과 계기, 은둔생활이 지속된 기간, 은둔생활 이전의 삶, 은둔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욕구,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
2차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	은둔 이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생활 이전 가족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 은둔생활 이전 대인관계는 어땠나요? • 은둔생활 이전 학교생활이나 사회활동은 어땠나요?
		은둔 시점과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부터 집(방)에서만 있었나요? • 집(방)에서 지내고 싶었던 계기(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현재상태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거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이나 집(안)에서 지내는 게 어떠신가요? • 주거환경에서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은둔생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관계는 어떠한가요? •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은둔생활 극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적은 있었나요?(상황탐색) •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 극복 이후 다시 은둔하게 되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은둔당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받았던 지원 중에 도움이 된 점과 되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요? • 현재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나요? •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필수 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광주광역시는 은둔당사자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은둔형 외톨이 가족

회차	구분	항목	내용
2차	은둔당사자와 가족의 경험	가족원의 은둔 이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생활 이전 가족원과 가족들 간의 관계는 어땠나요? • 은둔생활 이전 가족원의 대인관계는 어땠나요? • 은둔생활 이전 가족원의 학교생활이나 사회활동은 어땠나요? • 가족원의 어린 시절(초, 중, 고)은 어땠나요?(가족원이 청소년, 청년의 경우)
		가족원의 은둔 시점과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원은 언제부터 집(방)에서만 있었나요? • 가족원이 집(방)에서만 지내고 싶었던 계기(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가족원의 현재상태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원은 최근 한 달간 어떻게 생활하나요?
		가족원의 주거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원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가족원의 주거환경(내부, 외부)에서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은둔 가족원과 가족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 가족원의 어려움은 어떠한가요? • 가족원의 은둔생활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돌봄, 경제적 문제, 가족갈등, 자녀 행동에 대한 대처 등)
		은둔 가족원 및 가족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원이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상황탐색) • 가족원이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나요?

회차	구분	항목	내용
	은둔형 외톨이 가족원과 가족지원	은둔 가족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복 이후 다시 은둔하게 되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족원을 돕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해보았나요?
		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받았던 지원 중에 가족원에게 도움이 된 점과 되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가족원이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나요? 은둔당사자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이나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았나요? (도움이 된 점과 되지 않은 점 탐색) 은둔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필수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광주광역시는 가족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제주도 인터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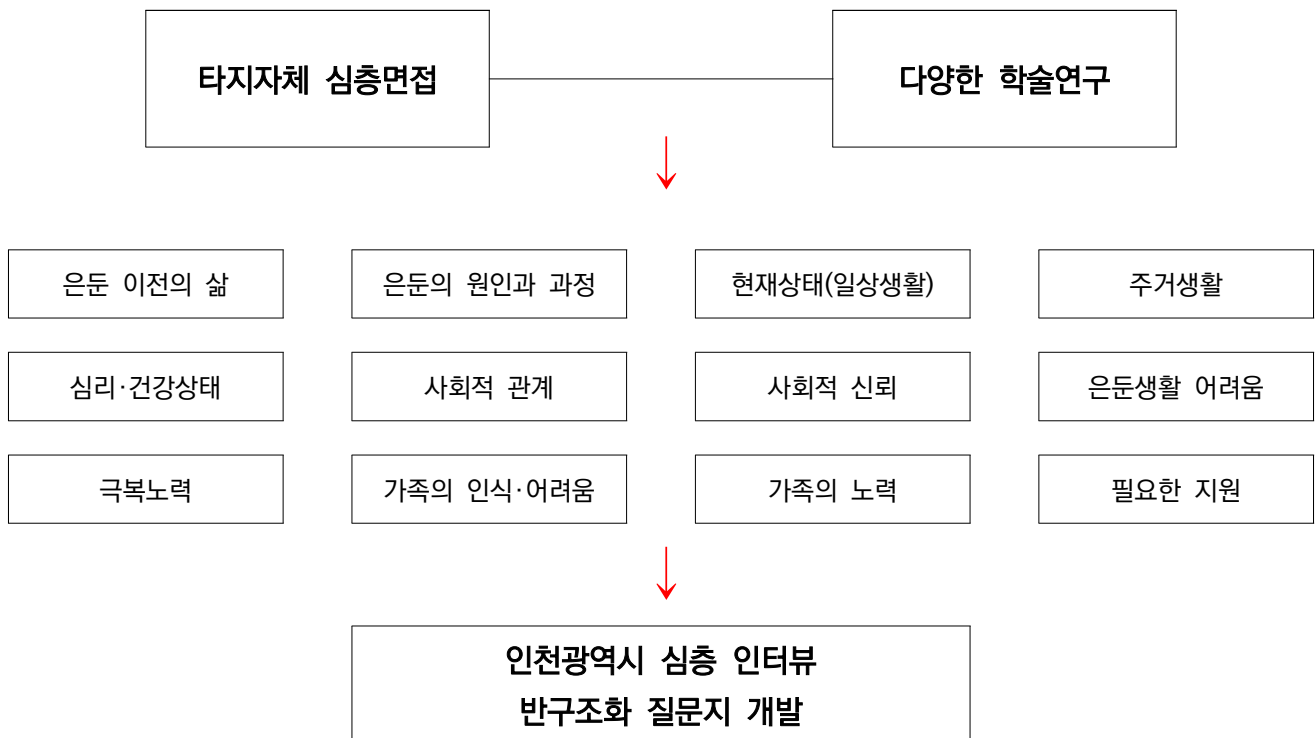
대주제	주요 내용	세부내용
사회적 고립의 계기	고립 계기와 과정	물리적·심리적 고립 기간/고립 시기 발생한 주요 이슈/처음 고립이 시작된 나이/고립이 반복되는 경우, 주요 원인
	교육 경험	학교생활 및 학업 중단 경험/친구와의 관계/대학 (비)진학 이유/전공과 연결된 노동시장에서 일했는지
	진로 이행	노동시장 진입 경험/동료의 유무/희망하는 진로와의 연관성/노동환경 및 급여/일터에서의 긍정적인/부정적인 경험/퇴사 이유
사회적 고립의 양상	고립 생활의 특성	하루일과/자주 하는 생각과 감정/거주 공간 형태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외출빈도 및 목적(지)/이동수단/신체·정신적 건강상태/외로움 혹은 고립감 인식 여부와 그 이유/고립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생활비 조달 방법
	사회적 관계	동거인 유무/가족 배경과 관계 만족도/가장 자주 연락하는 혹은 만나는 사람/친구, 지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이 단절된 시기와 이유/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사람의 유무와 주요 대화 주제/고립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진로 문제를 상의할 사람/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우려되는 것
	버팀목과 변화의 노력	고립 시기 버팀목/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방법/고립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도움 받은 경험/다시 고립되었다면, 실패 원인과 과정
	사회적 신뢰	정부, 지자체, 복지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경험/사회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사회적 신뢰가 부재한 경우, 그 이유/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해주고 싶은 말
전망 및 정책욕구	고립 생활 변화 가능성	희망하는 진로 및 미래의 모습/진로 및 미래에 대한 계획/고립을 종결하기 위한 계획/변화의 걸림돌
	필요한 지원	필요한 관계지원/관심 있는 취미활동/활동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구성원의 수(일대일, 5인 이하, 10인 이하 등)/고립을 종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현금, 활동 지원/모임, 상담, 교육 등)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터뷰 내용

대상	주요 요소	내용
당사자	생애경험	• 고립 생활의 원인과 과정
	현재 상태	• 고립 생활의 특성(외부적/내부적 고립)

대상	주요 요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 생활의 어려움 파악 고립 생활로부터의 변화 노력 경험 변화가 어려웠던 이유와 필요했었던 지원
	전망 및 정책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 생활로부터의 변화 가능성 고립 생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고립 생활 변화를 위한 정책 욕구
가족	고립생활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가 고립생활을 하게 된 원인과 과정
	청년과 가족의 현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고립생활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 고립 생활로부터의 변화 노력 경험
	가족의 정책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가 고립생활을 청산하고 가족의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6) 인천시의 인터뷰 내용



- 은둔형 외톨이 관련 학술연구와 타지자체 심층면접 문항들을 종합 정리
- 대부분의 연구들이 심층 인터뷰와 관련하여 은둔 이전의 삶, 은둔의 원인과 과정, 현재상태(일상생활), 주거생활, 심리·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신뢰, 은둔생활의 어려움, 극복노력, 가족의 인식·어려움, 가족의 노력, 필요한 지원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음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심층 인터뷰 문항을 개발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용역

Ⅲ.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및 동향

제1절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제2절 인천광역시의 은둔 청·청장년의 개념

제3절 은둔형 외톨이의 계기와 원인

제4절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 과정

제5절 은둔형 외톨이 관련 법령

제6절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및 서비스 동향

Ⅲ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및 동향

제1절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 ‘은둔형 외톨이’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일본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일본어 표현은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이며 그 정의는 ‘6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일체의 사회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이나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음(박형태 외 3인, 2011)
-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Hikikomori)”의 어원은 “히키코모루(引き籠もる)”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단어로 “어려움에 부딪친 자가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몰래 숨어 지내는 사람”에게서 유래된 말이라고 할 수 있음(Jung. Geun-Ha, 2016)
- 명사형인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8년 사이토 타마키가 저서 『사회적 히키코모리』에서 Social Withdrawal을 번역하여 사용한 것이 시작이며(사이토 타마키, 2012; 오오쿠사 미노루, 2020) 히키코모리가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출현했을 때만 해도 이는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졌음(김혜원, 2022)
- 사이토 타마키는 히키코모리란 20대 후반까지 문제화하여 6개월 이상, 집에 틀어박혀 사회참가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다른 정신장애가 제1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정의하였음. 여기서 사회참가란 취학이나 취업하고 있거나 가족 이외의 친밀한 인간 관계가 있는 상태를 의미함(井出草平, 2008에서 재인용)
- 이와 관련하여 시미즈 마사유키(清水將之)는 히키코모리의 개념을 ① 집에 틀어박혀 가족 이외의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차단하는 것, ② 조현병 등 특별한 정신장애로 인해 퇴각하지 않는 것, ③ 히키코모리가 된 지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였음(清水將之, 2003)
-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10)에서는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한 히키코모리를 둘러싼 지역정신보건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히키코모리를 여러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학업,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외에서의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가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타인과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음

- 한편 내각부(内閣府)의 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사회적 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취업,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로활동, 가정 이외에서의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을 집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타인과의 교류가 없는 형태의 외출도 포함)를 칭한 현상개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음(정근하·이상엽·노영희, 2021)
- 우리나라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Lee. Si-hyung et al(2000)의 발표에 의해 그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과 ‘외톨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스스로 은둔을 선택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끊고 스스로 외톨이로 생활하는 이들을 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은 새로운 창작이나, 휴식을 위한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며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어 부정적인 의미의 은둔이 되고 있으며, ‘외톨이’라는 단어 또한 “의지할 곳 없고, 매인 것이 없는 홀몸; 같이 어울릴 짝이 없이 홀로만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울한 느낌의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빈도가 높은 단어라고 할 수 있음(정근하·노영희, 2022a)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이시형 연구팀은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받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분류하였으며(손정우, 김은정, 홍성도, 이시형, 홍강의, 2000), 2002년 8월 28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2차 세계정신 의학대회에서 한국형 은둔형 외톨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 이 단어는 이시형과 여인중 연구팀이 2002년 한국의 히키코모리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처음으로 명명한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In-Joong. Lyo(2005)에 의하면 ‘친구가 한 명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 ‘가족 이외 친밀한 인간관계 없이 3개월 이상 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내리고 있음
- 이와 유사한 의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2005)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증상을 “첫째,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 안에 머물러 있고, 둘째, 진학·취업 등의 사회 참여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며, 셋째, 친구가 없거나 혹은 한 명 정도이며, 넷째,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해 초조함과 불안을 느끼며, 다섯째, 이상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 또는 정신지체(IQ50-55)가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는 활동범위에 따른 구분도 가능한데, 생활반경이 상대적으로 넓은 광의의 은둔형 외톨이에서부터 매우 제한적인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로 구분할 수 있음(오오쿠사 미노루, 2020; 김혜원 외, 2021).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거나 집 앞 편의점 정도의 외출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준은둔형 외톨이는 취미관련 외출 정도는

하는 경우를 말하며, 협의 및 준은둔을 합한 모든 대상은 광의의 은둔형 외톨이로 구분됨 (김혜원, 2022)

-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연구자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김혜원, 조현주, 김연옥, 김진희, 윤진희, 차예린, 한원건, 2021; 여인중, 2005; 오상빈, 2019; 이상희, 2010)

〈표 3〉 연구자별 은둔의 정의

저자명	은둔의 정의
김신아, 강연정 (2021)	자녀가 ‘(1) 가끔 일을 하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 ‘(2) 같이 놀거나 친한 친구가 없거나 한명이다’, ‘(3)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의 3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하고 9세부터 24세 이하인 경우에 은둔형 외톨이 부모라고 정의함
김유진(2018)	“외부인과 사회적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수급 이외에 어떤 공식·비공식 서비스도 받지 않는 독거노인”을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집단으로 간주함
노가빈 등(2021)	“장기간(최소 3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회적 교류를 단절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칩거하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만 19세~34세)”을 청년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함
김진숙(2023)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이나 학업·취업 준비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한 자로서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이들”을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함
김은재(2023)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한 외형적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철회하고 은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을 은둔 환자로 정의함
양미진 등(2007)과 양미진 등(2009)	‘(1) 등교나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 있다.’, ‘(2) 친한 친구가 없거나 한 명밖에 없다.’, ‘(3) 학교나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고위험군으로 간주하였고, 그중에서 (3)번 항목을 제외한 2가지 항목에 해당될 때 위험군으로 간주함
조영미, 김동민 (2011; 2012)	‘(1) 일정 기간 동안 은둔하면서 등교, 외출, 대인접촉 등의 사회활동을 거부하고’, ‘(2) 사회활동 거부의 계기가 대인관계 부적응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3) 인터넷을 1일 평균 4시간 이상 과다 사용하여 나타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의 문제가 인터넷 중독 척도 결과상 잠재적 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에 은둔형 인터넷 중독 청소년으로 간주함
백형태 등(2011)	“정신과 전문의가 면담을 통해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병적 장애나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가 없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접촉 및 활동을 3개월 이상하지 않고 있어 은둔형 외톨이로 의심된 8~25세 사이”의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로 간주함
이지민, 김영근(2021)	‘(1)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 안에 머물러 있고’, ‘(2) 진학·취업 등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3)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4)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고 있으며’, ‘(5) 이상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적 장애 또는 지적장애(IQ35-49)가 아닌 경우’에 은둔형 외톨이라고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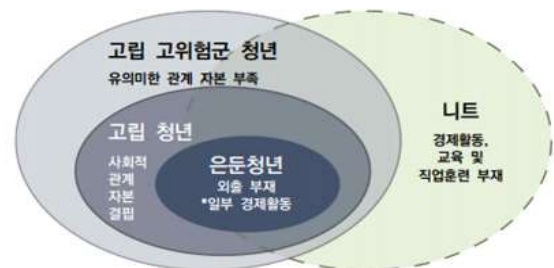
저자명	은둔의 정의
강주승 등(2021)	과거 3개월 이상의 기간 중 ‘(1)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2) 학교 등교 혹은 직장 출근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3) 친구 혹은 가족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4)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에 은둔형 외톨이라고 간주함
이진아, 서미아(2022)	“가족이나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되어 자기 방에 은둔하고 있는 성인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잠시 외출이나 일은 하지만 대인관계를 거의 하지 않거나 대부분의 시간은 자기 방이나 밀폐된 자기만의 공간에서 은둔하며 지내는 성인”을 성인 은둔형 외톨이라고 정의함
제세령 등(2022)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참여자 중에서 ‘(1)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2) 은둔 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는지’, ‘(3) 은둔으로 인한 고통이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는지’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를 선별함
오상빈(2019)	은둔형 외톨이를 ‘희망을 찾는 사람’으로도 표현하면서, 이들에 대해 ‘은둔한 상태에서 누구와 소통을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 ① 3개월 이상 자신의 방이나 집에서 가족 및 친구 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 ② 학업이나 직업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학업과 사회참여에 동기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람 ③ 친구가 한 명이거나 한 명(도움이거나 정서적 교류를 요청할 사람)도 없음 ④ 자신의 방이나 집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함 ⑤ 자신의 고립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호소 ⑥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장애라는 원인으로 고립 생활하는 경우는 제외

출처 : 김도희(2024)의 자료를 재구성

- 한편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정책 연구기관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본격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목적으로 조사연구들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둔에 다양한 개념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광주광역시(2023)는 은둔형 외톨이를 장애나 정신질환 등이 은둔 계기가 아니라 필요시 간헐적 외출을 하면서 방이나 집안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면서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친구가 하나이거나 한 명도 없고, 가족 외 대인관계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음
- 서울시(2022)는 은둔청년을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하였음
 -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자로,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함.
 - (1)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 (2)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 (3)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 (4)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 위의 외출이 거의 없는 은둔생활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왔음

-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
- 부산시(2022)는 ‘기간’과 ‘외출빈도’를 중심으로 전자는 ‘3개월 이상’을 후자는 아래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외출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여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 ① ‘주로 방에서만 지내며 집 또는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음’
 - ②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음’
 - ③ ‘주로 집에서 지내지만 가끔 근처 편의점이나 병원(필요한 일) 등에는 다녀옴’
 - ④ ‘주로 집에서 지내지만 취미활동을 할 때만 외출함’
 - ⑤ ‘직장 또는 학교로 인해 주 3~4일 정도는 외출함’
 - ⑥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함’으로 응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은 고립 청년은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청년, 은둔 청년은 고립 청년 중 외출 부재가 겹친 상태로 규정해 은둔 청년을 고립 청년의 하위 집단으로 포함하였고 경제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이 부재한 니트(NEET)는 고립·은둔 청년과는 독립된 개념으로 고립 및 은둔 청년과 일부 겹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음

구분	경제활동 지표	사회관계 지표	외출 지표
니트 청년	○ (경제활동 없음)	X (미고려)	X (미고려)
고립 청년	X (미고려)	○ (사회 관계 자본 부족·결핍)	○ (외출 낮거나 없음)
은둔 청년	X (미고려)	○ (사회 관계 자본 결핍)	○ (외출 없음)



- 보건복지부(2023)는 타인과 인적 네트워크(사회관계) 보유 및 접촉(외부외출) 정도에 따라 ①은둔 청년 < ②고립 청년 < ③고립 고위험군 청년으로 구분하였음. 고립 청년은 ①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외부외출 △) 취약한 상태지만, ②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으로, 은둔 청년: ①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②제한된 거주공간(방 또는 집 등)에 ‘스스로를 가둔 청년’(외부외출 거의 X)으로 정의하였음

구분	경제활동	사회관계	외부외출
고위험군	X (미고려)	△ (사회관계자본 부족)	△ (외출 낮음)
고립	X (미고려)	X (사회관계자본 부족·결핍)	△ (외출 낮거나 없음)
은둔	X (미고려)	X (사회관계자본 결핍)	X (외출없음)



제2절 인천광역시의 은둔 청·청장년의 개념

〈은둔형 외톨이 정의 기준〉

- A. 학업과 직업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언급되는 경우
- B.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기피하는 상황이 언급된 경우
- C. 집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혼자 외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 D. 집에만 머무르는 상황이 강조되는 경우
- E. 고립으로 인한 어려움을 본인이 호소하는 상황
- F. 은둔기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경우
- G.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제외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 H. 성별이나 연령을 제시하는 경우

- 이상에서 언급하였듯이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는 합의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연구자마다 연구마다 다양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A, B, C, F, G 기준이 주로 제시되고 있음
- 은둔 기간의 경우 광주시와 서울시는 6개월을, 부산시는 3개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술연구의 경우에는 3개월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3개월 혹은 6개월 은둔 기간의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은둔형 외톨이를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확장을 위해 3개월을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성별과 연령은 연구마다 참여자의 범위가 다르므로 큰 의미는 없음
- 전국 단위 또는 타 지자체와의 비교연구를 위해 ①학업과 직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②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기피하는 경우, ③집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혼자 외출하는 경우, ④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제외하는 경우 등을 은둔형 외톨이의 공통된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적장애 혹은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판단 기준은 스스로 혹은 가족도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데다가 이러한 증상이 은둔형 생활의 원인변수인지 혹은 결과변수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은둔형 외톨이의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최근에는 '외톨이'라는 개념 대신에 '청년' 혹은 '청·장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추세임
- 일본의 8050문제가 한국사회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까지 은둔형 외톨이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은둔 청·장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은둔 청·장년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64세의 청·장년층들로서 ①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②극히 예외적인 경우(최소한의 생활·취미·경제활동 등)를 제외하고 한정된 혹은 밀폐된 공간(방 혹은 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③일반적 대인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자본이 결핍된 채로 ④규칙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학업 및 직장)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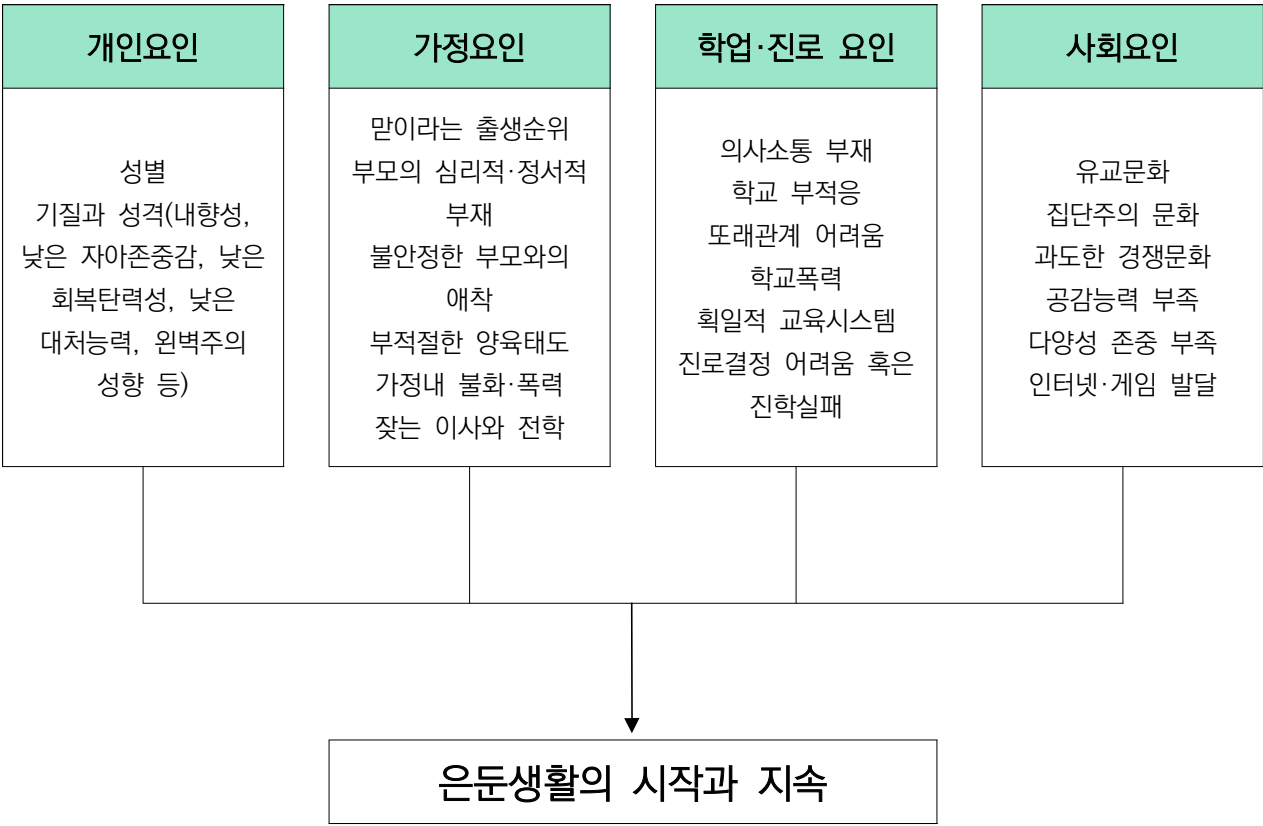
제3절 은둔형 외톨이의 계기와 원인²⁾

- 은둔형 외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작되고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음. 첫째, 개인관련 요인으로 성별, 기질과 성격 등이 포함됨.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고(사이토 다마키, 2012; 광주광역시, 2021), 내향성,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회복탄력성, 낮은 대처능력, 완벽주의 등의 성격적 특성(황순길 외, 2005;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이재영, 2014; 김은서, 2019; 오상빈, 2019; 문정화, 2020; 광주광역시, 2021)이 관련 요인으로 밝혀졌음
- 둘째, 가정관련 요인으로서는 말이라는 출생순위(황순길, 여인중 외, 2005; 사이토 다마키, 2012), 청소년기에 부모의 심리적·정서적 부재(윤철경, 2023), 불안정한 부모와의 애착(권석만, 2019; 김신아, 강연정, 2021), 부적절한 양육태도(김경아, 2005; 송미령, 2005; 황순길, 여인중 외, 2005; 정민정, 2012; 김미경, 2021), 가정 내 불화나 폭력(김화정, 2010; 이재영, 2014; 이해지, 2014), 잦은 이사와 전학(최정윤, 2016) 등이 주요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 셋째, 학업 및 진로관련 요인으로서는 청소년기의 의사소통 부재(김효순 외, 2016), 학교부적응과 등교거부(김신아, 2019; 오상빈, 2020), 또래관계 어려움이나 학교폭력(허경운, 2005; 황순길 외, 2005; 양미진 외, 2007; 이재영, 2014; 광주광역시, 2021),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교육시스템(박현숙, 2004; 정근하, 노영희, 2022a), 진로결정 어려움이나 진학실패(이경선, 2015; 정근하, 노영희, 2022a)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사회적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하는 유교문화(노여진, 2007; 오상빈, 2020), 주체적 선택을 어렵게 하는 집단주의 문화(사이토 다마키, 2012), 과도한 경쟁사회와 취업전쟁(여성신문, 2020.06.25; 이소베 우시오, 2009; 오상빈, 2019, 2020; 정근하, 노영희, 2022a), 사회의 공감능력과 다양성 존중 부족(최진선, 2013), 인터넷 및 게임발달(손은수, 2005; 최진선, 2013; 김효순, 박희서, 2014; 김효순, 김서연, 박희서, 2016; 오상빈, 2020) 등이 포함됨

2) 김혜원(2022)의 연구를 참조하였음

- 종합하면, 은둔형 외톨이는 한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 개인이 이상 언급한 요인들을 중복적으로 경험해가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고 세상과의 단절을 시도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음(김혜원, 2022)

〈그림 1〉 은둔생활의 시작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처 : 저자가 재구성(2024)

제4절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 과정

○ 노가빈 외 2인(2021)의 연구에서는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고립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고립·은둔의 배경과 구조 및 경험 등을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은둔·고립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전체 사회적 맥락에서 청년 경험의 이면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은둔·고립의 과정을 검토

○ 은둔·고립의 배경

- **(노동시장에서의 소외)** 은둔생활 직전은 주로 직장생활, 아르바이트, 학교생활 등 교육-노동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노동, 과도하고 불필요한 업무, 실수에 대한 상사-동료의 폭언, 부당해고, 저임금 일자리 고용의 반복 등 불합리하며 불안정한 노동 경험 등으로 피로감, 의욕상실, 우울감 등을 느끼는 단계
- **(생산적 인간상을 강요하는 사회)** 끊임없는 자기계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가변적인 인간상을 갖추어 자신을 능력화할 것을 강요하는 현 사회 전반의 메시지는 가정에서 역시 부모에게 체화되어 자신의 훈육에 내포됨으로써 청년세대가 삶의 전반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로 작용
- **(정서적·육체적 소진)** 학업과 직장생활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피로감이 축적되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단계로서 정서적 회복력이 더더지고 동기부여가 낮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육체와 정서의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신을 철회하게 됨

○ 사회·심리적 고립

- **(가정에서의 정서적 고립)** 양육자에게 수용 및 공감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낮게 나타나는 단계로 걱정이나 괴로움에 대해 털어놓더라도 의지부족 혹은 태만함으로 평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양육자의 모습에 분노와 좌절감이 점차 증폭되면서 스스로 가족들과 감정적 교류를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음
- **(학교에서의 정서적 고립)** 관심분야 구축과 진로 찾기에서 방향을 겪으면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점차 친구들과 공통적 관심사나 진로방향에서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스스로를 주변적 존재로 인식하게 됨
-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정서적 고립)** 가정의 취약한 경제상황도 정서적 고립을 간접적으로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경제적 빈곤으로 기초수급에 의존하거나 금전적 이유로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학교, 사회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움

○ 은둔·고립 장기화에 따른 정서·행동 변화

- **(은둔입성기)** 외부환경으로부터 소진된 경험을 한 이후 사회적 활동 및 관계로부터 자발적 철회를 선택하면서 초반에는 스트레스적 외부환경을 차단하고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지내며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나, 은둔 및 칩거 생활일수가 늘어감에 따라 게임, 인터넷 서핑, 동영상 시청, 음악감상 등 점차 생활리듬이 깨지면서 자신을 고립시켜 나감
- **(은둔 중반기)** 은둔생활 패턴이 고착화되는 양상과 무기력이 증가하는 등의 심적 변화를 인지하고 현 상황을 탈피하고자 행동변화를 여러번 시도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은둔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팽배하면서 은둔 생활패턴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임
- **(은둔 후반기)** 은둔생활이 장기화에 접어든 이후 부정적 정서의 엄습으로 공황발작,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서적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함.

〈표 4〉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 과정

주제	범주	개념
은둔·고립 배경	노동시장에서의 소외	장시간 노동, 강도 높은 노동, 업무 떠넘기기, 과중된 업무지시, 수치심 유발, 폭언, 부당해고, 불안정 고용
	생산적 인간상을 강요하는 사회	자기계발, 채찍질, 인정받는 삶, 받는 만큼 해내기
	정서적·육체적 소진상태	피로, 무기력, 괴로움, 방황, 무너짐, 기대와 다른 결과
사회·심리적 고립	가정에서의 정서적 고립	통제적, 억압적 혹은 방관적 양육방식, 정서적 유대없음
	학교에서의 정서적 고립	일률적 교육과정, 교사와 상호작용 부재, 주체성 상실, 소속감 상실, 자발적 교우관계 철회, 친구와 동질감 부재, 외로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정서적 고립	기초수급 의존, 생존 불안
은둔·고립 장기화에 따른 정서·행동 변화	은둔 입성기 : 소진된 삶에서의 자발적 철회	일시적 휴식기로서 은둔생활 입성, 자발적 고립, 휴식, 만족, 일시적 상태, 안락함, 편안함, 양육자의 무관심과 방관, 개입(잔소리, 야단, 방청소, 책구매), 부모의 포기, 편안함, 실망감, 사회적 단절·고립을 심화하는 생활패턴, 수면, 게임, 영상, 음악, 밤낮 뒤바뀐, 신체변화, 관계단절
	은둔 중반기 : 은둔생활의 만성화	개인적 통제감 상실, 부정적 정서 심화, 동기부여 시도, 주변청소, 책읽기, 외출, 운동, 은둔생활패턴 회귀, 생각과 행동다름, 스스로 통제안됨, 부정적 자아상 형성, 무기력, 우울, 좌절, 두려움, 사회에 대한 공포, 자책, 스스로 무능·나태하다 생각, 은둔형 외톨이로 정체화, 은둔형 외톨이와 동일시, 같지만 다른 집단
	은둔 후반기 : 은둔생활 철회를 위한 저항	은둔생활 위기감 증폭, 괴로움 증대, 고통 호소, 어쩔줄 모름, 공황발작, 심각한 공포, 자기통제 상실, 부정적 생각 연속, 자살시도, 자발적 구조요청, 은둔생활 저항감, 외부도움 요청, 상담, 지원단체 문의, 지인과 연락, 생존의 위협

출처 : 노가빈 외(2021)의 연구

제5절 은둔형 외톨이 관련 법령

1.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23년 3월 21일 제285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판순(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음
- 이 조례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인천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목표와 추진방향,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교육 및 취업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자원조달 등을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인천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 발굴·상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교육 및 직업훈련,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자조(自助)모임 지원,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2. 타시도 은둔형 외톨이 자원조례

- 2024년 8월 기준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인천시를 제외하고 54개의 지원 조례가 있으며 광역 지자체는 총 11개, 기초 지자체는 총 44개의 조례가 있음
-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기초 226개) 중 해당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자치단체는 22.6%(55개) 정도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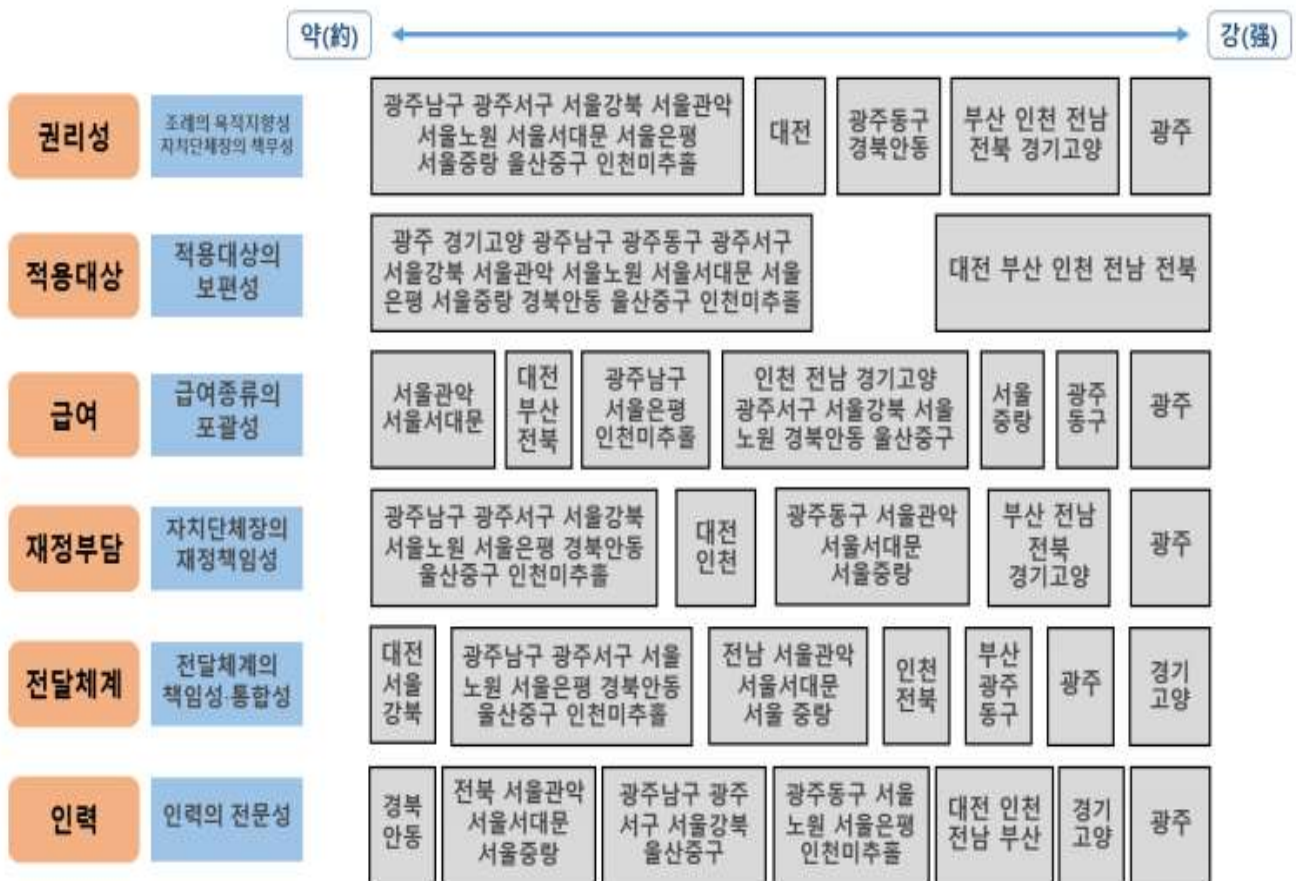
번호	조례명	번호	시행일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42호	'23.04.07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535호	'23.07.06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86호	'22.01.06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556호	'22.12.30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제1450호	'21.09.30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590호	'23.05.04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제1761호	'22.10.17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39호	'23.09.27
9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673호	'23.11.10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692호	'23.09.20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690호	'23.10.06
12	대전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655호	'23.09.27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904호	'23.11.10
14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6059호	'23.07.14
15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589호	'23.10.10
16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제1326호	'21.11.04
17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453호	'21.03.24
18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881호	'23.09.27
19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60호	'23.08.14
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5282호	'19.10.15
21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6427호	'21.07.14
22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209호	'22.12.26
23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796호	'23.10.11
24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2643호	'23.02.21

번호	조례명	번호	시행일
25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3002호	‘23.09.25
26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5392호	‘21.09.30
27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2600호	‘24.01.01
28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2660호	‘23.11.17
29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5161호	‘22.11.11
30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723호	‘22.05.06
31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904호	‘23.09.21
32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7954호	‘24.03.20
33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81호	‘23.12.29
34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006호	‘24.02.19
35	광주광역시 광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852호	‘24.06.14
36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2077호	‘24.07.11
37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515호	‘24.03.20
3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847호	‘24.05.13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3026호	‘24.05.20
40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2100호	‘24.04.08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1999호	‘24.06.28
4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1631호	‘24.04.30
4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1262호	‘24.03.15
44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1809호	‘24.03.14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1466호	‘24.03.08
4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1624호	‘23.12.28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1625호	‘23.12.28
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1705호	‘23.12.28
49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1416호	‘23.12.28
50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2470호	‘24.06.05
51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1684호	‘24.03.25
52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4135호	‘24.04.15
53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2152호	‘24.03.27
54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2062호	‘23.11.22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3) 고립은둔 청년지원방안을 재구성

- 민기채(2023)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 규범적 타당성 체계와 규범적 실효성 체계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 조례의 목적지향성,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으로 측정하고, 후자의 경우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 인력의 전문성으로 측정하였음

〈그림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의 비교분석 결과 종합



출처 : 민기채(2023)의 연구

-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주광역시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 고양시 조례가 이상적인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인력의 전문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6절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및 서비스 동향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및 서비스 동향

- 약자복지 기조 아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23.9.19)
- **(가족돌봄, 고립·은둔)** 취약청년 전담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가칭)청년미래센터 설치(2년간 시범운영 후 17개 광역 시도별 (가칭)청년미래센터 설치 계획)
 - 일상돌봄서비스 대상·규모 확대
-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되면서 2023년 12월 13일에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이 보고된 바 있음

① 고립·은둔 위기징후 조기 포착체계 마련

- **(상시발굴)** 온라인 129콜 등 원스톱 도움창구 마련
 - (온라인 공공사이트: ‘자가진단’ 시스템 마련) ’24년 시범사업과 연계 하여 취약청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창구* 구축(’25.~)
 - (전화: 129 콜센터 신고접수) 단일 번호로 도움 요청을 접수받고, 이를 해당지역*(가칭)청년미래센터로 연계
 - **(자원봉사 모니터링단 운영)** 우울증, 폐인 갤러리 등 고립·은둔청년들이 주로 찾는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홍보
 - **(지역협력망 구축)** 시범사업 시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 원룸촌, 편의점 등) 등 지역 협력망 구축을 통해 선제적 발굴 추진
- **(즉시지원)** 사회복귀 의지 확인된 1903명 우선 지원
 - ※ ’23년 복지부 심층조사결과, 위험군으로 식별된 자(12,105명) 중 공식 지원요청자
 - **(’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실시지역으로 선정된 4개 시도 거주 청년은 전담인력을 통한 밀착 사례관리 추진
 -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은 표준사업 지침, 시범사업과의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 마련 후 지

역별 온라인 지원방안 마련

-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 일상적 대화가 힘든 대상자 특성을 고려, 최초 접근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현장 가이드라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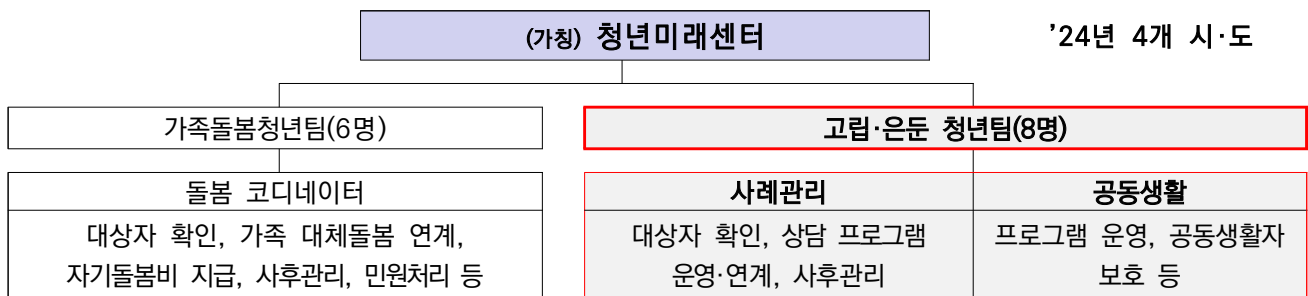
○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고위험군 감안, 우선보호

- (별도 전담인력 배치) 개인동의 전제로 정기적 자가진단, 심리지원, 자조모임 및 마음건강 서비스 우선 이용 등 특화 사례관리
- (5년 보호 종료자 우선 연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자립준비지원 보호가 종료* 되는 청년 우선 지원

② '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청년) 취약청년 전담 지원체계(청년미래센터) 가동

- (선도모델 개발) 지역 공모를 통해 4개 시도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센터별 고립·은둔은 8명, 총 32명 4개 시·도 배치)



- (지자체 사업 확대·강화) 기존 자체사업 수행 중인 지자체 선정 시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지자체 공모·선정)
- (표준 판단척도에 근거한 고립도 분류) 사회적관계 측정 표준세트를 마련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대상자 유형 및 지원 프로그램 분류

<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부모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최초발굴 및 사례관리는 보편적으로 하되, 맞춤 지원은 경제력에 따른 비용 차등화 원칙으로 지원사업 고도화(시범사업 통한 서비스 모델 마련)
- (대상자 판별) 사례관리사(전담인력)가 과학적 척도(K-SAD 및 HQ-25) 활용하여 현장방문 후 판단. 이를 통해 대상자 선정, 유형 분류 및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 예: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 참여자 vs (고립 고위험군) 예방 및 추적 관리 대상자

- (밀착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초기상담, 대상자 선정 및 유형 분류,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상태에 따른 단계적 사회복귀 지원

〈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비고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	자가진단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 ‘일상생활 챌린지’ 등 * 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등 *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관계형성
	·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은둔 특화
가족·대인 관계 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부모참여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탈 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대인접촉 소통기술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	사회복귀 시도

- (기존 서비스 연계) 일상돌봄 청년 1인가구까지 확대 등 연계 지원 강화
- (사례관리 - 청년마음건강서비스 연계) 초기상담 시 유형 분류에 따라 마음건강서비스 바우처 (3개월간 10회, 본인부담 有) 이용 지원
- (청년 1인가구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을 주대상으로 하던 일상돌봄을 서비스가 필요한 1인가구 청년도 본인부담을 통해 이용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24년~, 온라인 서비스 도입 검토)
- (공간지원) 중앙-지자체-민간 협업 하에 특화형 매입임대 제도 등 활용, 고립·은둔 고위험 청(소)년 위한 공동생활 커뮤니티 등 공간 조성(증장기) 추진



사례관리사(서로 대화하기)



스스로 요리 만들기



청년친화공간

③ 구직기·구직기 등 일상 속 안전망 강화

○ 구직 단념, 직장 부적응 위기 선제 대응

- (구직단념 예방) 취업 실패, 이직 등 초기 쉬었음 청년들의 구직 단념 예방을 위해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 신설('24년 10개 지자체)

- (대상) 미취업 청년 ■ (전달체계) 지자체 ^{가칭}청년카페 (24년^안 10개소)
- (프로그램)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지원¹⁾ + 청년정책 연계²⁾

1) 지역 내 대학 및 대학일자리센터와 협업하여 참여자 발굴→ 지역특화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역량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등 제공 → 지자체 자체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도 연계·지원

2)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일경험 지원 등

- (구직단념청년 의욕 고취) 구직단념 쉬었음 청년 등 대상으로 구직 의욕 고취,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 (대상)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등
- (프로그램) 심층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 및 수당(최대 300만원) 제공 →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 (직장적응 지원) 경직적 기업문화 개선 및 취업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 신설

* CEO 등에게는 MZ 직무관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청년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조직 내 성장방법, 소통·협업 등 교육 제공

○ 문화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정서적 취약청년 대상 문화·인문자원을 활용한 문화케어 프로그램 운영, 정서고양 및 관계형성 지원('24년 9개소)
-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연계) 프로그램 대상자 중 고립·은둔 성향이 강한 청년을 복지부 시범사업과 연계, 일상으로 복귀 지원

④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 근거 마련

○ 사례관리 플랫폼(희망e음 시스템) 활용 확대

- (대상자 이력관리) 민간 사례관리사에 희망e음 사용권한 부여, 행정부담 완화 및 기록전산화를 통한 사례관리 업무 고도화

(희망e음) 공공위탁 사업 민간 제공기관 종사자 사용 중

- ▶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용 시스템**, 자격확인을 거치면 민간종사자도 **사용 가능**

- 지역 내 다양한 공공·민간 보건복지 자원정보 및 대상자가 지원받은 이력 손쉽게 확인
→ 인근 맞춤형 서비스 통합 의뢰
- (복지사업 간 통합발굴 지원 및 서비스 연계) 희망e음 내 사례관리 플랫폼을 통해 타 사례 관리 사업에서 대상자 발굴의뢰 접수

○ 대상자 유형별 표준 케어플랜 수립 의무화

- (사례관리사 업무 매뉴얼) 유형분류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희망e음 등록·사용법 등 체계적 행동지침 마련
- 시범사업 지역 미선정 지자체에도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 자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종사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체계적 지원

- (종사자 역량강화) 중앙차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및 체계적 전담인력 배출 트랙, 서포터즈(또래상담사) 양성과정 등 개발 추진

〈 참고: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 인재양성 사업(‘13~)’ 〉

- (사업지역) 전국 도도부현(광역)·시정촌(기초)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구분	히키 종사자 양성 연수	히키 서포터 양성 연수
대상자	사례관리사, 관계기관 종사자 등	관심있는 누구나(* 자격 등 요건 없음)
연수내용	히키 지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기술 등	히키 관련 기본지식, 서포터·멘토로서 활동 시 유의점 등

- (종사자 처우개선) 물가상승 등 따른 민간종사자 처우 지속 악화에 대응하여 중앙-지방 역할분담을 통한 가산수당 마련 등 검토
- (종사자 대상 정기적 마음건강 상담지원) 복지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과 연계, 주기적(분기 1회) 상담 지원 추진
- (사례관리 제공기관 기관역량 강화) 고립·은둔 청(소)년 관련 지원기관 대상 기관 간 정보·경험 공유 및 교류 확대 지원
- 희망e음시스템을 활용, 공공 전담 지원기관 외 서비스 제공 이력을 갖춘 민간기관에도 정보·경험공유 등 지원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적지원 대상자로서 제도적 정의 명확화) 기존 법적체계 내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제도화) 지자체별 각기 다른 개념 정의(고립은둔 개념, 연령, 상태 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가족돌봄청년과 연계 추진 검토)
- (정보연계 근거) 개인동의 하 민-관 협력지원에 필요한 정보들을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 하기 위한 정보수집 근거 마련
- (정보보호 철저) 경력공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에 대한 보완장치
- (취약청년 전담지원체계 구축) 2년간 시범사업 후 전국확대 목표
- (맞춤형 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결과 기반, 지원 필요대상 청년 케어플랜 수립 의무, 적정 서비스 이용 연계 절차 등 마련
- (중앙-지방 효율적 역할 분담) 별도 전담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지원, 조직, 전담인 력 권한 등 규정 마련
- (민-관 자원 효율적 연계) 대상자 지원을 공공자원에만 의존은 한계
- (사회서비스 고도화 연계) 민간 지원 서비스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 치 및 서비스 질 관리방안 마련
-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고립·은둔 극복 경험을 살려 관련 일자리 진로연계가 가능 토록 교육이수, 자격관리 방안 등 규정

2. 인천광역시의 지원정책 및 서비스 동향

① 인천광역시의 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시범사업: 청년미래센터

- 중앙정부의 취약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 인천시의 청년미래센터는 공간운영계획과 프로그램 운영계획 마련
- 공간운영계획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독립공간, 쉼시어 공간, 일체험공간(조리실 습실), 로비(북카페)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면적(149.5평)	용도(구성)
사무실(1)	40평	21명 사무실 (책상, 의자, 컴퓨터, 냉난방기 등)
상담실(1)	5평	상담 테이블 및 의자 (4인 기준)
프로그램실(3)	30평	3실 구성 (20인 1실, 10인 2실)
독립공간(3)	15평	1~3인 (개인 및 소규모 모임 공간)
쉼시어 공간	25평	고립·은둔청년 안식처 및 활동공간 - 안식처(휴식, 운동, 게임), 작은활동(공동작업 공간)
일체험 공간 (조리실습실)	20평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교육 및 실습실
로비(북카페)	14.5평	테이블, 카페, 도서(책장)

-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지원,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원, 교육 등이 제공되고, 고립은둔청년에게는 마음건강 및 정서지원, 관계이해, 공동활동(쉼시어), 회복지원, 가족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임

구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비고
가족 돌봄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청년(중위소득 100%이하) 연200만원 지원 자기돌봄비 대상자 초기 상담, 지출계획 수립/관리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면담, 긴급상황 현장출동, 기존자원연계 등 밀착사례관리 심리상태, 소득 돌봄생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조모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경험 공유, 간병방법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지지 힐링활동(여행, 취미, 문화·체육활동)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돌봄대상자 간병·간호 방법, 영양식 제조 교육 등 	
고립 은둔 청년	마음건강 및 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방문 및 거주지 밖(센터, 카페 등)에서 상담 은둔 원인에 대한 상담, 현재 심리상태 진단 등 	
	관계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간 자조모임, 소속감 형성, 경험 나누기 등 공감대형성, 의사소통 기술교육, 배려 및 공감 경험 등 	
	공동활동 (쉼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식(휴식, 운동, 게임), 공동작업(공예, 부업, 일체험 등) 	

구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비고
	회복지원	•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가족지원	• 은둔 자녀와의 소통 활성화, 상호이해를 위한 부모상담 •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 간 모임	

- 현재 인천광역시 8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은둔고립자들을 위한 특화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음
-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송의종합사회복지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구월종합사회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복지관	프로그램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은둔·고립·1인가구 대상 주민동아리(운동, 독서, 미술 등), 원데이클래스(취미 소양 교육) 진행, 이음쿠폰 지원(월 1회 5만원)을 통한 이웃관계망 형성 등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게이트키퍼를 활용한 모니터링, 중장년 은둔고립가구 반찬 만들기, 폐지수거 노인 안전 교육 진행 및 안전 물품 제공, 은둔고립 노년층 원예치료, 중장년층 자조 모임 구성 등
송의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35~64세) 은둔·고립가구 대상 운동, 요리, 정서 지원, 교육, 디지털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 고립 남성들을 위한 소셜다이브(DIY프로그램, 자율심활동, 식생활지원) 및 은둔청년 발굴 이음쿠폰 발행, 자조조임, 욕구맞춤형프로그램(목공예,산책,문화체험 등), 자율심활동
구월종합사회복지관	자발적 고립가구 대상 이동상담소 운영, 열린소통모임, 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비자발적 고립가구 대상 안부지원단 조직운영 등
성산종합사회복지관	40대~60대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여가활동 소모임(볼링, 족구, 탁구, 드럼, 기타 등), 청년 소셜다이닝 진행 및 소통과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공동체 활동 등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40~64세이하) 은둔·고립·1인 가구 남성 대상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상점 이용쿠폰 지원, 긴급 지원, 경청 모임, 공동체 활동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1인 고립가구 이웃발굴단 활동을 통한 마음건강KIT 전달(식재료, 도서, 안전용품 등), 이동상담소, 사례회의, 일상회복 프로그램(요리 및 여가프로그램 등)

② 부평구 지원사업

-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
 - (추진부서 / 사업구분) 복지정책과 / 계속사업
 - (세부사업) 복지·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고독사예방 체계 구축
 - AI 등 스마트 기술 활용 고독사예방
 - 취약계층 위기상황 예방을 위한 돌봄플러그 지원 운영

-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운영(고독사 위험 40세이상 중장년 1인가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공모사업 동별 전수 조사 실시
 - 조사대상: 약 5천명(2023. 8월 ~ 2024. 7월)
 - 내용: 50~64세 여성 1인 세대 전수 조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기준(2023)

- AI 등 스마트 기술 활용 고독사 예방
 - 취약계층 위기 예방 돌봄플러그 지원: 335명
 -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운영: 630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
 - 50~64세 남성 1인 세대 전수조사 실시: 10,379명 방문/ 5,381명 조사완료
 - 50~64세 여성 1인 세대 전수조사 진행 중: 대상자 4,008명 방문/ 2,926명 조사완료
 - 동별 고독사 예방사업 실태조사 교육실시: 30회, 891명
 - 고립 가구 특화 사업비 교부: 5개사업, 10백만원

○ 더 좋은 청년정책 추진

- (추진부서 / 사업구분) 일자리창출과 / 계속사업
- (세부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지역 내 18~34세의 구직단념청년
- 내용 : 고립청년,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 및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사업규모 : 구직단념 청년 90명
- 프로그램 : 단기(5주, 20명), 중기(3개월, 40명), 장기(5개월, 30명)



인천부평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2024

#청년맞춤형 #자신감향상 #역량강화 #구직단념청년

도전	도전+1유형	도전+2유형
5주 단기	15주 중기	25주 장기
참여수당 50만원	참여수당 150만원 * 추가인센티브 최대 2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 추가인센티브 최대 50만원

신청문의 | 032-710-1983, 032-501-1984



청년, 길을 찾다 YOUNG CHALLENGE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사업소개

-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가는 청년을 청년도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2024년 모집인원: 총 90명(단기 20명, 도전+ 40명, 도전+2 30명)
- 신청방법: 워크넷 접수 → 고립복지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신청(지원) → 사립지원(지원) → 사립지원(지원)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조건

- 공통 조건
 - ① 구직단념청년
 - ② 최소 6개월 간 취업 및 교육·직업 훈련에 참가, 구직단념청년(단기 20명 이상, 단 18~34세)는 청년
 - ③ 자립준비청년
 - ④ 이력제기(이력제기 후 1년 이내)의 청년 또는 최소 6개월 이상 구직단념 후 1년 이내 구직단념을 경험한 청년
 - 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청년(18세~34세)의 청년
 - ⑥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청년(18세~34세)의 청년
 - ⑦ 복원지원청년
 - ⑧ 복원지원청년(단기 20명 이상, 단 18~34세)의 청년
- 지역특성 참여 조건
 - ① 공적유연: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청년(단기 20명 이상, 단 18~34세)의 청년
 - ② 부양가족: 청년 본인과 동거하는 18~34세의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③ 소득: 청년 본인과 동거하는 18~34세의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④ 생계: 청년 본인과 동거하는 18~34세의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⑤ 생계: 청년 본인과 동거하는 18~34세의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⑥ 생계: 청년 본인과 동거하는 18~34세의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⑦ 생계: 청년 본인과 동거하는 18~34세의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⑧ 생계: 청년 본인과 동거하는 18~34세의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⑨ 생계: 청년 본인과 동거하는 18~34세의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⑩ 생계: 청년 본인과 동거하는 18~34세의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혜택

-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직업 훈련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 참여 종료 후 3개월 간 다양한 취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예산·수입(단기) 안내

구분	참여기간	참여수당	간접지원	직접지원
도전	최소 5주	50만원	-	-
도전+	15주(도전+1개월)	150만원	20만원	50만원
도전+	25주(도전+2개월)	250만원	30만원	50만원

■ 참여조건: 청년 본인과 동거하는 18~34세의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2명 이하인 청년

■ 사업 참여 안내 및 문의처(사립지원) 담당자 연락처

032-710-1983, 032-501-1984
 e-mail: ync@youthnet.net
 ync@youthnet.net
 www.or.kr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매동 235, 부평아울렛센터 3층

③ 동구 지원사업

○ 고립·은둔 청년 사회복귀지원사업 추진

- (추진부서 / 사업구분) 미래발전추진단 / 신규사업
- (세부사업)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신개념 메타버스 멘탈케어 시스템을 도입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 지원
-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고립·은둔 청년
- 사업내용 :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고립·은둔청년과 전문가의 비대면(아바타) 상담과 훈련을 진행하고,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치료를 제공
-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홍보 및 MOU 체결 : 2024. 1.
 - 신청 및 프로그램 운영 : 2024. 2. ~ 12.
 - 전화 및 대면 등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관계 형성과 대화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애착을 형성
 - 즐겁게 대화를 연습하는 멘탈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하여 양질의 상담과 훈련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자신감을 증진



○○○ 1차 (온라인) 메타버스 멘탈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모집인원 A,B,C 3개 그룹별 최대 8명 모집 및 운영 (4회기 X 3그룹)				
진행방법 '이프랜드(ifland)' 방'을 통한 온라인 심리상담				
상담기간 4월중 (월/수)				
구분	회기 수	프로그램 명 및 내용	인원	비고
A,B,C (동일진행)	1회기	구조화, 자기소개, 참여동기, 목표설정	최대 8인	참여자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변경 가능
	2회기	고립·은둔 계기 나눔 및 자조 모임		
	3회기	인지행동치료 + ACT		
	4회기	인지행동치료 + ACT 소감 및 오프라인 체험 연계 독려		

○○○ 1차 비대면 메타버스 상담				
진행기간 2024.05.27 (토) - 06.10 (월)				
진행방법 '이프랜드(ifland)' 방'을 통한 온라인 심리상담				
상담내용				
기간	회기 수	프로그램 명 및 내용		
2기 매주 월요일 13:00-14:30	1회기	구조화, 자기소개, 참여동기, 목표설정		
	2회기	고립, 은둔 계기 나눔 및 자조 모임		
3기 매주 월요일 16:00-17:30	3회기	인지행동치료 + ACT		
	4회기	인지행동치료 + ACT / 소감 및 오프라인 체험 연계 독려		

○○○ 2차 (대면) 체험형 프로그램 및 치료 제공				
모집인원 1차 메타버스 멘탈헬스케어 참여자(연계)				
진행방법 유유기저 동구청년21을 통한 대면 체험형 프로그램				
체험기간 5월중 (월/수)				
종류	세부 프로그램	비고		
심리 및 정서 치료	심리 검사, 자기이해 및 감정조절 프로그램	참여자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변경 가능		
미술 치료	EBDT 그림 검사, 색채 테라피, 화상 이야기 치료			
원예 활동	플라워 박스 및 미니정원 만들기, 허브식물 가드닝			
공동체 활동	쿠킹 및 베이킹, 전각, 연극, 동아리 활동			

○○○ 2차 대면 체험활동				
진행기간 2024.06.15 (토) - 07.13 (토)				
진행방법 유유기저 동구청년21을 통한 대면 체험형 프로그램				
상담내용				
기간	회기 수	세부 프로그램		
2기 매주 토요일 13:00-14:30	1회기	심리 및 정서 치료		
	2회기	미술 치료		
3기 매주 토요일 16:00-17:30	3회기	원예 활동		
	4회기	공동체 활동		

4] 옹진군 지원사업

○ 복지사각지대 ZERO화 및 신속한 연계지원

- (추진부서 / 사업구분) 복지정책과 / 계속사업
- (세부사업) 민관협력 연계망 구축을 통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위기 가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하고 신속한 서비스 지원
- 사업대상 : 사회적 고립, 위기 및 고독사 위험 가구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 및 예방지원 사업 추진
 - 인적안전망 체계 확대, 활동 지원
 - 행복e음시스템 활용 및 집중 발굴 홍보캠프 운영
- 추진계획 :
 - 「옹진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안전망확충을위한조례」제정
 - 민·관 협력사업으로 1인가구(중, 장년층 이상) 실태조사 추진
 -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 고위험 고립 가구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돌봄플러그, AI케어콜 서비스 확대 시행)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 ① 2024년 상반기 전문강사 초청 교육 추진
 - ② 복지수첩(위기가구 상담내역 기록지, 방문상담 체크리스트, 주요 복지서비스 정보, 복지 관련 기관 연락처 등) 및 활동복 제작 배포
 - ③ 면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 실시
 -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자발적 주민 참여로 위기발굴의 무보수, 명예직의 인적조직
 - 위험징후* 위기가구 복지시스템 활용으로 초기대응 관리 체계화
 - * 위험징후 : 3개월 이상의 건강보험료, 전기료, 수도요금, 금융체납 등
 - 위기발굴 집중 캠페인 연 2회 이상 추진(7월~8월/ 11월~3월)

5] 미추홀구 지원사업

○ 2024년 미추홀구 은둔,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일자리정책과)

- 대상 : 미추홀구 거주 은둔·고립상태에 있는 청년(18~39세)
- 주요내용 : 마음돌봄 어울림 프로그램(6회), 체험활동(3회), 일 경험 등 지원
- 장소 : 미추홀구 청년 거점공간 '청년 브릿지'
- 비고 : 은둔·고립 청년 발굴에 난항을 겪었으나, 현재 정상 진행 중, 대상자 7명 발굴되어 추진 중이며, 사업 기간 중에는 중도에도 발굴 및 참여 가능하도록 열어 둘 예정



2024년 미추홀구 은둔·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혼자가 아니야

운영기간 2024. 5. 7. ~ 7. 2. 매주 화요일 19:00~21:00
운영장소 미추홀구 '청년별빛지' (미추홀구 한나루로 485)
대상 미추홀구 거주 18세~39세 은둔·고립 청년 (은둔·고립 정도 확인 후 지원대상자 선정)
접수기간 2024. 4. 1. ~ 프로그램 운영기간 내 수시 접수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신청
발행 접수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미추홀구 독정리로 95, 3층사 1층)
 ※ 참여 대상자 직접 신청 원칙
주요내용 마음돌봄 어울림 프로그램(6회), 체험활동(3회), 일 경험 등 지원
문의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2-880-7992)

마음돌봄 어울림 프로그램(6회) 강사 : 유현주(연, 자립지원센터(비대우 대표))

관계망기	나에게 힘이 되는 것 찾기	마음열기	나, 잘 드러내기	함께 쓰담쓰담	행복한 자존, 만들어기
------	----------------	------	-----------	---------	--------------

체험활동 프로그램(3회)

유리공방 클래스	무선 클래스	목공예 클래스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4년 미추홀구 은둔·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제14조에 따라 은둔·고립 청년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미추홀구 은둔·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대상: 미추홀구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은둔·고립 청년
- 주요내용: 마음돌봄 어울림 프로그램(6회), 체험활동(3회), 일 경험 지원 등
- 운영기간: 2024. 5. 7. ~ 7. 2. 매주 화요일 19:00~21:00
- 운영장소: 미추홀구 청년거점공간 '청년 브릿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85)
- 접수기간: 2024. 4. 1.(월) ~ 운영기간 내 수시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신청
(은둔·고립 확인 서식 작성하여 첨부)
 - 방문 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3층사 1층 일자리정책과)
- 문의: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2-880-7992)

- 은둔형 외톨이 부모 자조 모임(일자리정책과)
 - 대상 : 은둔형 외톨이 부모
 - 주요내용 : 은둔형 외톨이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 마음건강 지원 등
 - 비고 : 2024년 초 진행 예정이었으나, 참여자 0명으로 무산됨. 하반기에 다시 진행 예정
- 은둔·고립 청년 지원가 양성 과정(일자리정책과)
 - 대상 :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
 - 주요내용 : 은둔형 외톨이의 이해와 특징, 진단, 지원 프로세스 및 소통 방법 등(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진행)
 - 성과 : 11명 수료

[6] 계양구 지원사업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 대상 : 사회적 고립 청년
 - 비고 : 주요내용 등은 아직 미정, 기존 구직단념청년 지원사업 등과 연계
- 계양구 힐링하우스 사업(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대상 : 1인가구,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례관리 가구 등
 - 내용 :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 정리·정돈, 소독 등 지원
 - 비고 : 대상자 발굴 및 사례자 관리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자 발굴도 가능할 것
- 1인가구 실태조사(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추진예정)
 - 대상 : 관내 19~39세 1인 가구 및 청년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내용 : 대상자의 생활여건, 건강 등(구체적 내용은 아직 미정)
- 비고 : 전반기에는 청년 대상 진행 예정이고, 하반기는 연령 범위 확대 진행 예상

7 연수구 지원사업

○ 사회적 고립가구 및 은둔형외톨이 돌봄기반 조성

- 대상 : 은둔형외톨이, 사회적 고립청년 등 독거가구
- 내용 : 사회적 고립가구, 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돌봄·안전 기반조성을 통해 위기가구의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 및 위기상황 예방 도모

<p>사회적 고립가구 케어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통신 빅데이터 및 AI 활용하여 이용대상자 간섭을 최소화해 대상자의 위험상황 및 안전여부 상시 확인 <p>(한국전력, SK텔레콤, K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가구의 전력·통신빅데이터 활용 안전 확인 - 이상징후 발견 시 AI활용 전화 연결을 통해 대상자 안부 확인 <p>(洞 맞춤형복지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자동전화 연결실패 가구 대상으로 1차 유선 확인 - 유선 확인이 안 된 가구는 2차 가구 방문 실시로 대상자 안전 확인 및 조치
<p>저소득 청·장년 1인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청·장년 등 1인 가구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복귀 및 보호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및 욕구 파악 <p>(복지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 실태조사 준비 및 홍보 - 실태조사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반영, 익년도 지원계획 수립 등 <p>(洞 맞춤형복지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실시(유선/방문) - 동별 인적안전망과 협업
<p>찾아가는 방문상담 예약시스템 구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로 나오지 않는 사회적 고립·은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15개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맞춤형복지팀”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예약시스템 도입·운영 ■ 상담예약 가구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전화) 상담·지원

8 중구 지원사업

○ 복지사각지대 기획 조사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 행복e음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격월)
- 저소득 중장년(만 50세~64세) 남성 1인 고립위기 가구 발굴(4~6월)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용역

IV. 설문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은둔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제3절 은둔 당사자 가족의 설문조사 결과

제4절 은둔당사자와 가족의 비교분석

IV

설문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자

- 본 실태조사에서는 은둔 청·장년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64세의 청·장년층들로서 ①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②극히 예외적인 경우(최소한의 생활·취미·경제활동 등)를 제외하고 한정된 혹은 밀폐된 공간(방 혹은 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③일반적 대인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자본이 결핍된 채로 ④규칙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학업 및 직장)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의미함
- 조사대상자는 크게 네 부류로 구분하였음. 현재 은둔 당사자인 청·장년층, 과거에 은둔 당사자였던 청·장년층, 현재 은둔 당사자인 청·장년층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과거에 은둔 당사자인 청·장년층과 함께 거주하였던 가족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시에 각각의 그룹으로 분기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음
- 은둔 청장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은둔 당사자와 이들의 가족을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①은둔 당사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족의 관점을 통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 ②은둔 당사자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 ③은둔 당사자들을 위해 가족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 ④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들의 참여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 ⑤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가족 스스로부터 알아내기 위한 목적 등을 기하기 위해서임
- 은둔 당사자들을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①은둔 당사자들이 은둔생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 ②은둔생활로부터의 회복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 ③은둔생활에서 회복한 후 다시 은둔하게 된 경험에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 ④다시 은둔생활을 반복하게 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기하기 위해서임
- 은둔 당사자들의 가족들을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①과거 시점의 가족 의견까지 검토함으로써 은둔 당사자들에 대한 객관적 의견들을 보다 폭넓게 취합하기 위한 목적, ②은둔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알아보기 위한 목적 등을 기하기 위해서임

- 외출빈도와 관련해서는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병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하는 경우,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은 외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반면에,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하는 경우와 직장이나 학교로 매일 외출하는 경우는 실태조사 대상자에서 배제하였음

2. 조사 프로세스

- 조사 프로세스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음. 첫 번째 단계는 실태조사 진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실태조사 참여를 위한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으며, 세 번째 데이터 가공단계, 마지막 단계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단계로 진행하였음
- 업무협조체계는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의 도움으로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주민자치연합회, 읍면동 담당자, 통이장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자체회의에 참석하여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특히 각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실태조사 포스터를 보내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홍보체계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추진하였음. 인천지하철공사의 협조를 얻어 문화마당 게시판에 포스터를 제시하였고, 인천시청 홈페이지에는 배너와 카드뉴스를, 인천청년포털에는 공지사항에 게시, 인천 청년공간에는 홈페이지·SNS·현장 게시판에 배너와 포스터를 게시하였음
- 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신문의 협조를 얻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를 배포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출입 기자들을 통해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하였음. 또한 인천시의 협조를 통해 인천e음에 팝업형과 라인형으로 배너가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민간 업체를 통한 홍보수단도 강구하였는데, 지정게시대 현수막(자치구당 5개소), 게릴라 현수막(고밀도 지역 50개소), 버스 내 홍보물 게시(다양한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분, 좌석시트 60대, 내부중앙문 23대), 인천시 타겟으로 온라인 홍보(광고) 채널(구글 GDN, 카카오 등) 등을 활용하였음
- 데이터 가공단계에서는 재코딩(단순한 재코딩으로 데이터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로 국한)과 클리닝을 실시하였음. 전체 설문참여는 5,278명이 진행하였고, 불완전 데이터를 제거한 1차 필터링 후 2,784명을 확보하였음

- 2차 필터링 단계에서는 스크리닝 문항을 통한 제거, 함정 질문에 의한 제거, 논리적 오류 검증 및 제거 등을 통해 유효표본 총 2,052명을 확보하였음. 그 결과 은둔당사자는 1,432명, 가족은 620명의 유효표본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였음
- 2차 필터링 단계에서 진행한 데이터 가공은 ①외출빈도 문항에서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하거나 직장이나 학교로 매일 외출하는 응답 건 제거, ②본인의 은둔생활에 대한 인식에서 은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건 삭제, ③총은둔기간 최대값보다 최근은둔기간이 큰 응답 건 제거, ④(연령-총은둔기간) 최대값과 최초 은둔시기가 불일치 하는 응답 건 제거, ⑤총은둔기간과 은둔횟수가 극단적으로 낮은 응답 건 제거, ⑥(연령-총 근무기간)이 만 16세 이하인 건 제거, ⑦최소 은둔기간 1개월 이하 응답 건 제거, ⑧최초 은둔시기와 (은둔회복 후 경과기간+총은둔기간)이 불일치하는 응답 건 제거, ⑨자살 시도 횟수 극단적 응답 건 제거, ⑩최소인정 은둔기간 극단적 응답 건 제거 등을 통해 732명의 데이터를 제거하였음

〈표 5〉 데이터 정제 방법

단계	방식	내용
1차 필터링 (2,494건 삭제)	불완전 데이터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를 충실히 마치지 않은 설문 건
2차 필터링 (732건 추가 삭제)	스크리닝 문항을 통한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빈도 문항에서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하거나 직장이나 학교로 매일 외출하는 응답 건 제거
	함정질문을 통한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은둔생활에 대한 인식에서 은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건 삭제
	논리적 오류 검증을 통한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은둔기간 최대값보다 최근은둔기간이 큰 응답 건 제거 (연령-총은둔기간) 최대값과 최초 은둔시기가 불일치 하는 응답 건 제거 총은둔기간과 은둔횟수가 극단적으로 낮은 응답 건 제거 (연령-총 근무기간)이 만 16세 이하인 건 제거 최소 은둔기간 1개월 이하 응답 건 제거 최초 은둔시기와 (은둔회복 후 경과기간+총은둔기간)이 불일치하는 응답 건 제거 자살 시도 횟수 극단적 응답 건 제거 최소인정 은둔기간 극단적 응답건 제거

〈표 6〉 설문조사 참여현황

구분	참여인원(명) / 비율(%)					
	계		은둔 청·장년층 당사자		은둔 청·장년층 가족	
	인원	비율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전체 설문참여	5,278	100%	1,632	1,977	916	753
응답제출 완료	2,784	-	853	1,110	425	396
예상 유효표본*	2,052		670	762	347	273
응답률	-	52.75%	52.27%	56.15%	46.40%	52.59%
목표 대비 진척도 (전체 참여자)	2,784명/2,000명 (139.2%)		1,963명/1,000명 (196.3%)		821명/1,000명 (82.1%)	
목표 대비 진척도 (유효표본)	2,052명/1,000명 초과달성(205.2%)		1,432명/500명 초과달성(286.4%)		620명/500명 초과달성(124.0%)	

- 설문조사는 물리적 고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5분 내로 응답을 마칠 수 있는 분량의 문항 수를 고려하였고, 응답시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여 설문응답 시 이탈하더라도 다시 접속하여 설문을 마칠 수 있도록 무료 플랫폼 대신에 유료 플랫폼(서베이 프로)을 고려하였음. 설문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10명에게 프리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시간과 문항의 최종 오류를 점검하였음

〈표 7〉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은둔 중인 혹은 과거에 은둔생활의 경험이 있는 19~64세의 당사자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현재 은둔 중인 혹은 과거에 은둔생활의 경험이 있는 19~64세의 당사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QR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은둔 청장년 발굴을 위한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연합회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요청 읍면동 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요청 통이장연합회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요청 종합사회복지관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협조요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카드뉴스 배포 반상회보 배포 대학교 교내 포스터 게시 인천지하철공사 문화마당(게시판) 포스터 게시 인천시청 홈페이지(배너, 카드뉴스) 인천청년포털(인천유스톡톡) 게시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청년공간 개시(홈페이지, SNS, 현장게시판) - 관련 블로그 및 카페 게시 - 지정게시대 현수막(40개소) - 게릴라 현수막(50개소) - 버스 내 홍보물 게시 - 온라인 홍보(광고) 채널(구글 GDN, 카카오 등) - 보도자료 배포 - 인천 e음 배너 홍보 	
응답시간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현재: 12분 30초, 과거: 12분 12초) • 가족(현재: 14분 41초, 과거: 10분 28초) 	
표본수	전체 표본 (5,27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현재: 1,632명, 과거: 1,977명) • 가족(현재: 916명, 과거: 753명)
	1차 필터링 (2,78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완전 데이터 제거 후 2,784명 확보 • 당사자(현재: 853명, 과거: 1110명) • 가족(현재: 425명, 과거: 396명)
	2차 필터링 (2,05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리닝 문항·함정질문에 의한 제거 후 2,052명 확보 • 당사자(현재: 670명, 과거: 762명) • 가족(현재: 347명, 과거: 273명)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6.24.~2024.08.31. (68일) 	

3. 조사내용

- 은둔당사자를 위한 설문내용은 크게 공통사항, 응답자 기본사항, 은둔배경, 은둔생활, 회복과정, 기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회복과정에 대한 문항은 과거에 은둔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설문조사에만 포함됨

〈표 8〉 은둔당사자를 위한 설문내용

구분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문항	
	현재경험	과거경험
공통	은둔당사자의 조건, 당사자 혹은 가족 여부, 은둔시기, 외출빈도, 은둔기간, 은둔생활의 패턴	
응답자 기본사항	성별, 출생년도, 학력, 거주지역, 결혼여부, 자녀유무, 경제수준(당사자), 경제수준(가족), 인터뷰 의향	
은둔배경	가정환경, 은둔이유, 은둔생활이 처음 인지의 여부, 은둔생활의 빈도, 가장 최근에 은둔생활을 한 기간, 처음 은둔을 시작한 시기, 정기적 출근경험	가정환경, 은둔이유, 은둔생활의 빈도, 가장 최근에 은둔생활을 한 기간, 처음 은둔을 시작한 시기, 정기적 출근경험 여부, 은둔생활 전의 근

구분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문항	
		현재경험	과거경험
		여부, 은둔생활 전의 근무기간, 은둔생활 전 직종분야, 퇴사이유, 생활비 마련방법	무기간, 은둔생활 전 직종분야, 퇴사이유, 생활비 마련방법
은둔생활	일상생활	생활 만족도, 집에서 자주하는 활동, 정보를 구하는 출처, 주 대화상태,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시도, 식사생활, 식사준비 방법, 수면의 질, 수면시간, 자기관리 및 청결정도, 곤란을 느끼는 문제의 정도	
	주거생활	동거인, 거주주택 유형, 주택의 소유형태	
	건강상태	신체질환 여부, 신체질환의 종류, 신체질환 치료여부, 정신질환의 종류, 정신질환 치료여부	
	소통과 관계	가족 중 주로 대화하는 사람, 가족과의 갈등정도, 가족의 인식, 본인에 대한 인식, 문제인식 계기, 문제해결 노력. 외부도움	
	도움 및 지원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변화정도, 도움을 받을 의향,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유, 도움을 받지않는 이유,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의향, 은둔기간의 최소기준, 은둔당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	
회복과정			과거 은둔생활에 대한 인식, 벗어난 계기, 회복의 정도, 회복 후 기간, 재은둔의 경험, 재은둔의 이유
기타		개인정보 동의여부, 심층면접 참여의향, 지원사업 참여안내 의향,	

- 은둔당사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을 위한 설문내용은 크게 공통사항, 응답자 기본사항, 은둔배경, 은둔생활, 기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9〉 은둔당사자 가족을 위한 설문내용

구분		은둔형 외톨이 가족 문항	
		현재경험	과거경험
공통		은둔당사자의 조건, 당사자 혹은 가족 여부, 은둔가족과의 관계, 은둔시기, 외출빈도, 은둔기간	
응답자 기본사항		응답가족의 성별, 은둔가족의 성별, 응답가족의 출생년도, 은둔가족의 출생년도, 응답가족의 학력, 은둔가족의 학력, 응답가족의 직업, 응답가족의 거주지역, 은둔가족의 거주지역, 은둔가족의 결혼여부, 은둔가족의 자녀유무, 응답가족의 경제수준, 인터뷰 의향	
은둔배경		가정환경, 은둔이유, 은둔생활이 처음인지의 여부, 은둔생활의 빈도, 가장 최근에 은둔생활을 한 기간, 처음 은둔을 시작한 시기, 정기적 출근경험 여부, 은둔생활 전의 근무기간,	가정환경, 은둔이유, 은둔생활의 빈도, 가장 최근에 은둔생활을 한 기간, 처음 은둔을 시작한 시기, 정기적 출근경험 여부, 은둔생활 전의 근무기간, 은둔생활 전 직종분야, 퇴사

구분		은둔형 외톨이 가족 문항	
		현재경험	과거경험
		은둔생활 전 직종분야, 퇴사이유, 생활비 마련방법	이유, 생활비 마련방법
은둔생활	일상생활	집에서 자주하는 활동, 정보를 구하는 출처, 주 대화상태,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시도, 식사생활, 식사준비 방법, 수면의 질, 수면시간, 자기관리 및 청결정도, 은둔가족에게 발생하는 일, 은둔가족으로 인한 어려움	
	주거생활	은둔가족의 가구유형, 거주주택 유형, 주택의 소유형태	
	건강상태	신체질환 여부, 신체질환의 종류, 신체질환 치료여부, 정신질환의 여부, 정신질환의 종류, 정신질환 치료여부	
	소통과 관계	가족 중 주로 대화하는 사람, 가족과의 갈등정도, 은둔당사자 본인에 대한 인식, 은둔당사자의 문제해결 노력, 은둔당사자의 외부도움	
	도움 및 지원	은둔당사자가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변화정도, 은둔당사자 회복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 은둔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은둔당사자에 대한 지원사업 권유의향,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은둔기간의 최소기준, 은둔당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	
기타		개인정보 동의여부, 심층면접 참여의향, 지원사업 참여안내 의향,	

4. 조사방법

- 수집된 데이터는 코딩 및 데이터클리닝 작업 후 29.0.2.0 버전의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로 빈도분석을 포함한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음
- 교차분석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 지역, 가구경제수준)와 위험성향 점수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음
- 인천시의 현황과 타지자체의 현황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동일 혹은 유사문항을 기준으로 응답 패턴을 타지자체와 대조하여 검토하였음

제2절 은둔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0〉 은둔당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현재		과거		전체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성별	남성	298	44.5%	308	40.4%	606	42.3%
	여성	372	55.5%	454	59.6%	826	57.7%
연령	19~29세	258	38.5%	291	38.2%	549	38.3%
	30~39세	245	36.6%	325	42.7%	570	39.8%
	40~49세	110	16.4%	113	14.8%	223	15.6%
	50~59세	43	6.4%	22	2.9%	65	4.5%
	60세 이상	14	2.1%	11	1.4%	25	1.7%
학력	고교 중퇴 이하	29	4.3%	11	1.4%	40	2.8%
	고등학교 졸업	196	29.3%	160	21.0%	356	24.9%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42	6.3%	85	11.2%	127	8.9%
	대학교 졸업	369	55.1%	459	60.2%	828	57.8%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2	0.3%	18	2.4%	20	1.4%
	대학원졸업, 수료	32	4.8%	29	3.8%	61	4.3%
거주지역	강화군	8	1.2%	13	1.7%	21	1.5%
	옹진군	7	1.0%	5	0.7%	12	0.8%
	중구	45	6.7%	50	6.6%	95	6.6%
	동구	20	3.0%	20	2.6%	40	2.8%
	미추홀구	108	16.1%	150	19.7%	258	18.0%
	연수구	114	17.0%	137	18.0%	251	17.5%
	남동구	129	19.3%	118	15.5%	247	17.2%
	부평구	99	14.8%	106	13.9%	205	14.3%
	계양구	59	8.8%	53	7.0%	112	7.8%
	서구	81	12.1%	110	14.4%	191	13.3%
결혼여부	미혼	522	77.9%	594	78.0%	1116	77.9%
	기혼(사실혼 포함)	84	12.5%	140	18.4%	224	15.6%
	이혼/별거/사별	59	8.8%	27	3.5%	86	6.0%
	기타	5	0.7%	1	0.1%	6	0.4%
자녀유무	없음	568	84.8%	633	83.1%	1201	83.9%

구분		현재		과거		전체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음	102	15.2%	129	16.9%	231	16.1%
자녀수	없음	568	84.8%	633	83.1%	1201	83.9%
	1~2명	93	13.9%	116	15.2%	209	14.6%
	3~4명	7	1.0%	12	1.6%	19	1.3%
	5명 이상	2	0.3%	1	0.1%	3	0.2%
경제수준 (당사자)	하	436	65.1%	266	34.9%	702	49.0%
	중하	118	17.6%	255	33.5%	373	26.0%
	중	100	14.9%	211	27.7%	311	21.7%
	중상	13	1.9%	24	3.1%	37	2.6%
	상	3	0.4%	6	0.8%	9	0.6%
경제수준 (가족)	하	198	29.6%	122	16.0%	320	22.3%
	중하	195	29.1%	242	31.8%	437	30.5%
	중	231	34.5%	298	39.1%	529	36.9%
	중상	41	6.1%	86	11.3%	127	8.9%
	상	5	0.7%	14	1.8%	19	1.3%

- 성별의 경우 현재 당사자 중 남성이 44.5%, 여성이 55.5%, 과거 당사자 중 남성이 40.4%, 여성이 59.6%로 나타남
- 연령의 경우 현재 당사자가 19~29세 38.5%, 30~39세 36.6%, 40~49세 16.4%, 50~59세 6.4%, 60세 이상 2.1%로 나타나고, 과거 당사자가 19~29세 38.2%, 30~39세 42.7%, 40~49세 14.8%, 50~59세 2.9%, 60세 이상 1.4%로 나타남
- 학력의 경우 현재 당사자가 고교 중퇴 이하 4.3%, 고교 졸업 29.3%, 대학 재학 6.3%, 대학 졸업 55.1%, 대학원 재학 0.3%, 대학원 졸업 4.8%로 나타나고, 과거 당사자의 경우 고교 중퇴 이하 1.4%, 고교 졸업 21.0%, 대학 재학 11.2%, 대학 졸업 60.2%, 대학원 재학 2.4%, 대학원 졸업 3.8%로 나타남
- 거주지역의 경우 현재 당사자가 강화군 1.2%, 옹진군 1.0%, 중구 6.7%, 동구 3.0%, 미추홀구 16.1%, 연수구 17.0%, 남동구 19.3%, 부평구 14.8%, 계양구 8.8%, 서구 12.1%로 나타나고, 과거 당사자가 강화군 1.7%, 옹진군 0.7%, 중구 6.6%, 동구 2.6%, 미추홀구 19.7%, 연수구 18.0%, 남동구 15.5%, 부평구 13.9%, 계양구 7.0%, 서구 14.4%로 나타남
- 결혼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의 경우 미혼 77.9%, 기혼 12.5%, 이혼·별거·사별 8.8%로 나타나고, 과거 당사자의 경우 미혼 78.0%, 기혼 18.4%, 이혼·별거·사별 3.5%로 나타남

- 자녀유무와 현재 당사자의 경우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15.2%, 없다는 응답이 84.8%로 나타나고 과거 당사자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16.9%, 없다는 의견이 83.1%로 나타남
- 자녀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당사자의 경우 1~2명이 13.9%, 3~4명이 1.0%, 5명 이상이 0.3%로 나타나고, 과거 당사자의 경우 1~2명 15.2%, 3~4명 1.6%, 5명 이상이 0.1%로 나타남
- 당사자의 경제수준에 대하여 현재 당사자의 경우 상 0.4%, 중상 1.9%, 중 14.9%, 중하 17.6%, 하 65.1%로 나타나고, 과거 당사자의 경우 상 0.8%, 중상 3.1%, 중 27.7%, 중하 33.5%, 하 34.9%로 나타남
- 반면에 가족의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의 경우 상 0.7%, 중상 6.1%, 중 34.5%, 중하 29.1%, 하 29.6%로 나타나고, 과거 당사자의 경우 상 1.8%, 중상 11.3%, 중 39.1%, 중하 31.8%, 하 16.0%로 나타남

2. 외출빈도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병원 등에 외출한다는 의견(45.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는 의견(18.8%)이 그 뒤를 따라고 있음
- 반면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인근 편의점, 병원 등에 외출한다는 의견(39.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는 의견(29.8%)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표 11〉 은둔 당사자: 외출빈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46	6.9%	117	15.4%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	120	17.9%	227	29.8%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병원 등에 외출한다.	306	45.7%	297	39.0%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126	18.8%	64	8.4%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49	7.3%	46	6.0%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은 외출한다.	23	3.4%	11	1.4%
소계	670	100.0%	762	100.0%

3. 총은둔기간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으로 나타남
- 반면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다음으로 6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나타나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보다 총은둔기간이 짧게 나타남

〈표 12〉 은둔당사자: 총은둔기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89	13.3%	212	27.8%
6개월 이상-1년 미만	107	16.0%	218	28.6%
1년 이상-3년 미만	222	33.1%	232	30.4%
3년 이상-5년 미만	113	16.9%	68	8.9%
5년 이상-7년 미만	43	6.4%	18	2.4%
7년 이상-10년 미만	43	6.4%	7	0.9%
10년 이상	53	7.9%	7	0.9%
소계	670	100.0%	762	100.0%

4. 은둔생활 경험

□ 밤낮이 바뀜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밤낮이 바뀐 생활을 자주한다는 의견(36.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는 의견(28.4%)이 높게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의견(47.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33.3%)이 높게 나타나 과거에 은둔생활을 한 응답자들이 보다 부정적인 답변을 보여줌

〈표 13〉 밤낮이 바뀌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87	13.0%	32	4.2%
가끔 그렇다	190	28.4%	116	15.2%
자주 그렇다	243	36.3%	254	33.3%
매우 그렇다	150	22.4%	360	47.2%
소계	670	100.0%	762	100.0%

□ 불규칙한 일상생활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자주 그렇다는 의견(40.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는 의견(31.2%)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의견(53.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31.5%)이 높게 나타나 현재 은둔당사자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줌

〈표 14〉 불규칙한 일상생활의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52	7.8%	25	3.3%
가끔 그렇다	137	20.4%	89	11.7%
자주 그렇다	272	40.6%	240	31.5%
매우 그렇다	209	31.2%	408	53.5%
소계	670	100.0%	762	100.0%

□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음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전혀 아니라는 의견(38.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는 의견(30.0%)이 높게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자주 그렇다는 의견(34.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는 의견(33.2%)이 높게 나타나 현재 은둔당사자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줌

〈표 15〉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259	38.7%	154	20.2%
가끔 그렇다	201	30.0%	253	33.2%
자주 그렇다	168	25.1%	260	34.1%
매우 그렇다	42	6.3%	95	12.5%
소계	670	100.0%	762	100.0%

□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에 신경 안씀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가끔 그렇다는 의견(32.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31.5%)이 높게 나타남
-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 자주 그렇다는 의견(36.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는 의견(26.9%)이 높게 나타나 현재 은둔당사자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표 16〉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에 신경을 안 쓰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145	21.6%	79	10.4%
가끔 그렇다	219	32.7%	199	26.1%
자주 그렇다	211	31.5%	279	36.6%
매우 그렇다	95	14.2%	205	26.9%
소계	670	100.0%	762	100.0%

□ 가족이 없을 때 움직임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전혀 아니라는 의견(33.9%)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주 그렇다는 의견(28.8%)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 가끔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현재 은둔생활자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표 17〉 가족이 없을 때 움직이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227	33.9%	147	19.3%
가끔 그렇다	177	26.4%	233	30.6%
자주 그렇다	193	28.8%	227	29.8%
매우 그렇다	73	10.9%	155	20.3%
소계	670	100.0%	762	100.0%

□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아무도 못들어오게 함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전혀 아니라는 의견(33.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주 그렇다는 의견(28.7%)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 자주 그렇다는 의견(30.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는 의견(27.4%)이 높게 나타나 현재 은둔생활자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줌

〈표 18〉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아무도 못들어오게 하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221	33.0%	159	20.9%
가끔 그렇다	179	26.7%	209	27.4%
자주 그렇다	192	28.7%	231	30.3%
매우 그렇다	78	11.6%	163	21.4%
소계	670	100.0%	762	100.0%

□ 가족이나 타인에게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함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가끔 그렇다는 의견(38.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혀 아니라는 의견(31.2%)이 높게 나타남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19〉 가족이나 타인에게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209	31.2%	218	28.6%
가끔 그렇다	258	38.5%	294	38.6%
자주 그렇다	157	23.4%	175	23.0%
매우 그렇다	46	6.9%	75	9.8%
소계	670	100.0%	762	100.0%

□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남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자주 그렇다는 의견(36.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는 의견(35.7%)이 높게 나타남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20〉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나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70	10.4%	78	10.2%
가끔 그렇다	239	35.7%	215	28.2%
자주 그렇다	241	36.0%	286	37.5%
매우 그렇다	120	17.9%	183	24.0%
소계	670	100.0%	762	100.0%

□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쓰이고 불편함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자주 그렇다는 의견(37.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는 의견(27.2%)과 매우 그렇다는 의견(27.5%)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들은 매우 그렇다는 의견(38.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34.8%), 가끔 그렇다는 의견(20.9%) 순으로 나타남

〈표 21〉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쓰이고 불편함을 느끼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53	7.9%	43	5.6%
가끔 그렇다	182	27.2%	159	20.9%
자주 그렇다	251	37.5%	265	34.8%
매우 그렇다	184	27.5%	295	38.7%
소계	670	100.0%	762	100.0%

□ 사람과의 연락이나 만나는 활동을 가급적 피함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자주 그렇다는 의견(40.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는 의견(31.9%)이 높게 나타남
-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자주 그렇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은둔생활자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표 22〉 사람과의 연락이나 만나는 활동을 가급적 피하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38	5.7%	27	3.5%
가끔 그렇다	150	22.4%	127	16.7%
자주 그렇다	268	40.0%	276	36.2%
매우 그렇다	214	31.9%	332	43.6%
소계	670	100.0%	762	100.0%

□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음

- 현재 은둔생활자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의견(52.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27.8%)이 높게 나타남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23〉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47	7.0%	64	8.4%
가끔 그렇다	87	13.0%	147	19.3%
자주 그렇다	186	27.8%	227	29.8%
매우 그렇다	350	52.2%	324	42.5%
소계	670	100.0%	762	100.0%

□ 친구가 없음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의견(37.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31.2%)이 높게 나타남
-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 가끔 그렇다는 의견(34.0%)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30.2%) 나타나고 있어 현재 은둔생활자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주고 있음

〈표 24〉 친구가 없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52	7.8%	78	10.2%
가끔 그렇다	159	23.7%	259	34.0%
자주 그렇다	209	31.2%	230	30.2%
매우 그렇다	250	37.3%	195	25.6%
소계	670	100.0%	762	100.0%

□ 무기력함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의견(44.5%)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41.3%) 나타남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응답 비율상으로는 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표 25〉 무기력함을 느끼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18	2.7%	9	1.2%
가끔 그렇다	77	11.5%	104	13.6%
자주 그렇다	277	41.3%	216	28.3%
매우 그렇다	298	44.5%	433	56.8%
소계	670	100.0%	762	100.0%

□ 나의 장래에 비관적임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의견(43.1%)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34.3%) 나타남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26〉 나의 장래에 비관적인 느낌을 갖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27	4.0%	22	2.9%
가끔 그렇다	124	18.5%	132	17.3%
자주 그렇다	230	34.3%	223	29.3%
매우 그렇다	289	43.1%	385	50.5%
소계	670	100.0%	762	100.0%

□ 무의미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냄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의견(44.9%)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38.5%) 나타남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27〉 무의미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은둔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아니다	18	2.7%	10	1.3%
가끔 그렇다	93	13.9%	91	11.9%
자주 그렇다	258	38.5%	246	32.3%
매우 그렇다	301	44.9%	415	54.5%
소계	670	100.0%	762	100.0%

5. 위험군 여부

- 위험성향 점수는 은둔성향 체크리스트의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됨³⁾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위험군에 해당하는 30점 이상의 비율이 37.7%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위험군에 해당하는 30점 이상의 비율이 49.6%로 나타나 현재 은둔생활자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28〉 위험군에 포함되는 은둔당사자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0~9점	15	2.2%	11	1.4%
10~19점	138	20.6%	98	12.9%
20~29점	264	39.4%	275	36.1%
30~39점	230	34.3%	301	39.5%
40~45점	23	3.4%	77	10.1%
소계	670	100.0%	762	100.0%

3) 총점은 45점이며 30점 이상이 위험군에 해당함

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
1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2	일상생활이 불규칙적이다.				
3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는다.				
4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5	가족이 없을 때(혹은 잘 때)만 움직인다.				
6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아무도 못들어오게 한다.				
7	가족이나 타인에게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8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난다.				
9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쓰이고 불편하다.				
10	사람과의 연락이나 만나는 활동을 가급적 피한다.				
11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다.				
12	친구가 없다.				
13	무기력하다.				
14	나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15	무의미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6. 은둔전 경험

□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1%로 나타나 현재 은둔생활자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줌

〈표 29〉 은둔당사자: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229	34.2%	336	44.1%
없다	441	65.8%	426	55.9%
소계	670	100.0%	762	100.0%

□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4%로 나타나 현재 은둔생활자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줌

〈표 30〉 은둔당사자: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279	41.6%	406	53.4%
없다	391	58.4%	355	46.6%
소계	670	100.0%	761	100.0%

□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8%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2%로 나타나 현재 은둔생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음

〈표 31〉 은둔당사자: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220	32.8%	298	39.2%
없다	450	67.2%	463	60.8%
소계	670	100.0%	761	100.0%

□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로 나타나 현재 은둔생활자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32〉 은둔당사자: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299	44.6%	485	63.7%
없다	371	55.4%	276	36.3%
소계	670	100.0%	761	100.0%

□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9%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8%로 나타나 현재 은둔생활자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33〉 은둔당사자: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381	56.9%	516	67.8%
없다	289	43.1%	245	32.2%
소계	670	100.0%	761	100.0%

□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9%로 나타나 현재 은둔생활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표 34〉 은둔당사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270	40.3%	372	48.9%
없다	400	59.7%	389	51.1%
소계	670	100.0%	761	100.0%

7. 은둔의 원인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은둔의 이유로 직업관련 어려움(37.9%), 대인관계 어려움(15.1%), 정신적 어려움(13.3%)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직업관련 어려움(36.9%), 정신적 어려움(21.4%), 대인관계 어려움(12.9%) 순으로 나타남

〈표 35〉 은둔당사자의 은둔원인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학업관련 어려움(진학, 성적, 입시 등)	23	3.4%	74	9.7%
직업관련 어려움(취업, 실직 등)	254	37.9%	281	36.9%
가족관련 어려움(갈등, 이혼, 사망 등)	47	7.0%	63	8.3%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직장동료 등)	101	15.1%	98	12.9%
건강상의 어려움(장애, 질병 등)	50	7.5%	30	3.9%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	89	13.3%	163	21.4%
가정폭력, 학교폭력(학대, 따돌림 등)	8	1.2%	13	1.7%
이유없음	72	10.7%	12	1.6%
기타	26	3.9%	28	3.7%
소계	670	100.0%	762	100.0%

8. 은둔생활 경험

□ 은둔당사자의 은둔생활 첫 경험 여부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은둔생활이 처음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4.3%로 나타남

〈표 36〉 은둔당사자의 은둔생활 첫 경험 여부

구분	현재	
	응답자 수	비중
예	431	64.3%
아니오	239	35.7%
소계	670	100.0%

□ 총은둔횟수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총은둔횟수를 2회라고 응답한 비율(37.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5회 이상(24.4%), 3회(21.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2회, 3회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은둔생활자보다 총은둔횟수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은둔생활자는 5회 이상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는 1회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 은둔당사자의 총은둔횟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회	30	12.6%	395	51.8%
2회	88	37.0%	215	28.2%
3회	50	21.0%	82	10.8%
4회	12	5.0%	13	1.7%
5회 이상	58	24.4%	57	7.5%
소계	238	100.0%	762	100.0%

□ 최근 은둔기간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최근에 은둔생활을 한 기간과 관련하여 1년~2년 미만(29.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3년~5년 미만(17.2%), 7개월~1년 미만(15.5%)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한 응답자들의 경우에 1년~2년 미만(33.7%), 7개월~1년 미만(26.2%), 2년~3년 미만(13.4%) 순으로 나타남

〈표 38〉 은둔당사자: 최근 은둔기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6개월 이내	15	6.3%	91	12.1%
7개월~1년 미만	37	15.5%	197	26.2%
1년~2년 미만	70	29.4%	254	33.7%
2년~3년 미만	32	13.4%	101	13.4%
3년~5년미만	41	17.2%	79	10.5%
5년~7년 미만	16	6.7%	22	2.9%
7년 이상	27	11.3%	9	1.2%
소계	238	100.0%	753	100.0%

□ 은둔 첫시기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20~29세 이하(49.0%)에서 은둔을 처음 시작하였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0~39세 이하(25.1%), 40세 이상(17.2%)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와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39〉 은둔당사자: 은둔첫시기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3세 이하(초등학교)	9	3.8%	1	0.1%
14~16세 이하(중학교)	6	2.5%	6	0.8%
17~19세 이하(고등학교)	6	2.5%	35	4.6%
20~29세 이하	117	49.0%	346	45.4%
30~39세 이하	60	25.1%	275	36.1%
40세 이상	41	17.2%	99	13.0%
소계	239	100.0%	762	100.0%

9. 출근경험

□ 출근 경험여부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2%로 나타남
-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출근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6%로 나타남

〈표 40〉 은둔당사자: 출근경험 여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457	68.2%	584	76.6%
아니오	213	31.8%	178	23.4%
소계	670	100.0%	762	100.0%

□ 은둔생활 전 근무기간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은둔생활 전 근무기간으로 6년 이상(33.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년~2년 미만(19.7%), 2년~3년 미만(17.3%)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6년 이상(26.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년~2년 미만(24.2%), 3년~4년 미만(16.3%) 순으로 나타남

〈표 41〉 은둔당사자: 은둔생활 전 근무기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6개월 미만	5	1.1%	11	2.1%
6개월~1년 미만	3	0.7%	18	3.4%
1년~2년 미만	90	19.7%	129	24.2%
2년~3년 미만	79	17.3%	74	13.9%
3년~4년 미만	65	14.3%	87	16.3%
4년~5년 미만	20	4.4%	35	6.6%
5년~6년 미만	43	9.4%	38	7.1%
6년 이상	151	33.1%	141	26.5%
소계	456	100.0%	533	100.0%

□ 은둔생활 전 근무직종(중복응답)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은둔생활 전 직종으로 사무직(31.9%)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서비스직(22.9%), 생산직(12.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와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42〉 은둔당사자: 은둔생활 전 근무직종(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사무직	210	31.9%	265	35.1%
생산직	85	12.9%	89	11.8%
관리직	44	6.7%	24	3.2%
판매/서비스직	151	22.9%	186	24.7%
전문직	42	6.4%	34	4.5%
교육/연구직	35	5.3%	44	5.8%
단순노무직	46	7.0%	29	3.8%
농림어업직	1	0.2%	1	0.1%
문화예술인	15	2.3%	22	2.9%
공무원	6	0.9%	7	0.9%
기타	24	3.6%	53	7.0%
소계	659	100.0%	754	100.0%

□ 퇴사 이유(중복응답)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13.8%), 업무소진(13.2%), 부당한 처우(12.8%), 열악한 근무환경(12.1%), 적성 및 흥미 불일치(10.7%) 순으로 나타남
-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부당한 처우(14.0%), 열악한 근무환경(12.4%), 업무소진(12.4%), 적성 및 흥미 불일치(10.7%),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10.5%)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은둔생활자들이 과거 경험자보다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을 높은 순위로 응답하고 있음

〈표 43〉 은둔당사자: 퇴사이유(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적성 및 흥미 불일치	102	10.7%	124	10.7%
경력발전 기회부족	72	7.6%	89	7.7%
열악한 근무환경	115	12.1%	144	12.4%
부당한 처우(낮은 보상 등)	121	12.8%	162	14.0%
일과 삶의 균형문제	78	8.2%	111	9.6%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131	13.8%	121	10.5%
업무소진(업무 스트레스 등)	125	13.2%	143	12.4%
가족 및 개인사정	68	7.2%	89	7.7%
회사의 경영악화	65	6.8%	65	5.6%
기타	72	7.6%	109	9.4%
소계	949	100.0%	1157	100.0%

10. 생활비 마련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본인이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의 도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소한도로 일한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남
- 과거에 은둔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현재의 은둔생활자와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44〉 은둔당사자: 생활비 마련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본인이 벌어놓은/모아둔 돈으로 생활	259	38.7%	324	42.5%
가족의 도움	214	31.9%	308	40.4%
이웃, 친지, 아는 사람의 도움	21	3.1%	12	1.6%
종교기관의 도움	5	0.7%	4	0.5%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9	1.3%	3	0.4%
관공서의 지원	37	5.5%	13	1.7%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소한도로 일함	66	9.9%	52	6.8%
대출금/카드론	23	3.4%	27	3.5%
기타	36	5.4%	19	2.5%
소계	670	100.0%	762	100.0%

11. 생활만족도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불만족과 보통이 동일한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와 응답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매우 불만족(28.5%), 불만족(34.0%), 보통(24.5%)의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옴

〈표 45〉 은둔당사자: 생활만족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매우 불만족	175	26.1%	217	28.5%
불만족	225	33.6%	259	34.0%
보통	225	33.6%	187	24.5%
만족	41	6.1%	81	10.6%
매우 만족	4	0.6%	18	2.4%
소계	670	100.0%	762	100.0%

12. 집에서 자주하는 활동(중복응답)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인터넷/스마트폰(25.3%), 유튜브 등 동영상 보기(20.9%), 잠자기(13.8%), TV 보기(10.8%), 인터넷 게임(10.5%) 순으로 나타남
-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스마트폰(23.5%), 잠자기(18.3%), 유튜브 등 동영상 보기(17.6%), 인터넷 게임(12.7%), 아무것도 안하기(11.1%) 순으로 나타남

〈표 46〉 은둔당사자;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인터넷 게임	212	10.5%	290	12.7%
인터넷/스마트폰	508	25.3%	537	23.5%
TV 보기	218	10.8%	179	7.8%
유튜브 등 영상보기	420	20.9%	403	17.6%
잠자기(수면)	278	13.8%	418	18.3%
음악듣기	61	3.0%	61	2.7%
독서	47	2.3%	43	1.9%
실내운동	32	1.6%	27	1.2%
취미활동(악기, 그림 등)	33	1.6%	39	1.7%
아무것도 안함(누워있기)	167	8.3%	253	11.1%
기타	34	1.7%	36	1.6%
소계	2010	100.0%	2286	100.0%

13. 정보의 출처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90.4%)과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당사자(90.9%) 모두 정보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7〉 은둔당사자: 정보의 출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온라인 매체	606	90.4%	693	90.9%
언론	21	3.1%	23	3.0%
유관기관	6	0.9%	5	0.7%
가족 및 지인	20	3.0%	26	3.4%
정부부처 및 지자체	7	1.0%	4	0.5%
기타	10	1.5%	11	1.4%
소계	670	100.0%	762	100.0%

14.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으로 전혀 없다는 의견 (44.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명(36.1%), 2~3명(17.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도 현재 은둔생활자들과 동일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당사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8〉 은둔당사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음	298	44.5%	356	46.7%
1명	242	36.1%	260	34.1%
2~3명	115	17.2%	139	18.2%
4명 이상	15	2.2%	7	0.9%
소계	670	100.0%	762	100.0%

15. 자살에 대한 태도

□ 자살의향

- 죽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느냐의 질문과 관련하여 현재 은둔생활자는 있었다는 의견이 68.4%로 나타나고, 과거의 은둔경험자들도 있었다는 의견이 73.6%로 나타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49〉 은둔당사자: 자살의향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었음	458	68.4%	561	73.6%
없었음	212	31.6%	201	26.4%
소계	670	100.0%	762	100.0%

□ 자살시도

- 자살을 시도했다는 응답의 경우 현재 은둔생활자들은 있었다는 의견이 25.8%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은둔경험자들은 있었다는 의견이 25.3%로 나타나 응답의 차이가 거의 없음

〈표 50〉 은둔당사자: 자살시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었음	118	25.8%	142	25.3%
없었음	340	74.2%	419	74.7%
소계	458	100.0%	561	100.0%

□ 자살횟수

- 자살을 시도한 횟수와 관련하여 현재 은둔생활자들은 1~2회(54.2%), 3~4회(26.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은둔경험자들도 1~2회(62.7%), 3~4회(22.5%)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51〉 은둔당사자: 자살횟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2회	64	54.2%	89	62.7%
3~4회	31	26.3%	32	22.5%
5회 이상	23	19.5%	21	14.8%
소계	118	100.0%	142	100.0%

16. 식사생활

□ 하루 식사 횟수

- 하루 평균 식사 횟수와 관련하여 현재 은둔생활자들은 하루에 1~2끼를 먹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배고플 때 먹는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들은 1일 1~2끼와 배고플 때 먹는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52〉 은둔당사자: 하루 식사 횟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일 1~2끼	412	61.5%	359	47.1%
1일 3끼	69	10.3%	47	6.2%
배고플때 먹음	181	27.0%	337	44.2%
기타	8	1.2%	19	2.5%
소계	670	100.0%	762	100.0%

□ 식사 준비방법

- 식사 준비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은둔생활자들의 경우 스스로 준비한다는 의견(55.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이 외부에서 배달(22.5%), 가족이 준비한다는 의견(17.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3〉 은둔당사자: 식사 준비방법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스스로 준비	369	55.1%	348	45.7%
가족이 준비	118	17.6%	201	26.4%
본인이 외부에서 배달	151	22.5%	180	23.6%
가족이 외부에서 배달	14	2.1%	8	1.0%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4	0.6%	2	0.3%
기타	14	2.1%	23	3.0%
소계	670	100.0%	762	100.0%

17. 수면생활

□ 수면의 질

- 수면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현재 은둔당사자들의 경우 상당히 나쁘다는 의견(49.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상당히 좋다는 의견(26.3%)과 매우 나쁘다는 의견(22.4%)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음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들과 유사하게 상당히 나쁘다는 의견(56.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상당히 좋다는 의견(19.9%)과 매우 나쁘다는 의견(21.8%)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음

〈표 54〉 은둔당사자: 수면의 질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매우 나쁨	150	22.4%	166	21.8%
상당히 나쁨	333	49.7%	432	56.7%
상당히 좋음	176	26.3%	152	19.9%
매우 좋음	11	1.6%	12	1.6%
소계	670	100.0%	762	100.0%

□ 하루 평균 수면시간

-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 관련하여 현재 은둔당사자들의 경우 4~8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8~12시간 순으로 나타남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 4~8시간과 8~12시간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수면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5〉 은둔당사자: 하루 평균 수면시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4시간 미만	66	9.9%	63	8.3%
4~8시간 미만	426	63.6%	289	37.9%
8~12시간 미만	147	21.9%	286	37.5%
12시간 이상	31	4.6%	124	16.3%
소계	670	100.0%	762	100.0%

18. 자기관리 및 청결

□ 환복

- 현재 은둔당사자들의 경우 2~3일에 한번 옷을 갈아입는다는 의견(48.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일 갈아입는다는 의견(24.6%)이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한 응답자들의 경우 2~3일에 한번 옷을 갈아입는다는 의견(50.9%)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번 갈아입는다는 의견(24.7%) 순으로 나타나 청결도가 현재 은둔당사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56〉 은둔당사자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환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16	2.4%	14	1.8%
2~3주에 한번	37	5.5%	48	6.3%
일주일에 한번	128	19.1%	188	24.7%
2~3일에 한번	324	48.4%	388	50.9%
매일	165	24.6%	124	16.3%
소계	670	100.0%	762	100.0%

□ 목욕/샤워

- 현재 은둔당사자들의 경우 2~3일에 한번 목욕/샤워를 한다는 의견(42.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매일 목욕/샤워를 한다는 의견(36.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와 마찬가지로 응답 순위를 보여주고 있음

〈표 57〉 은둔당사자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목욕/샤워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19	2.8%	18	2.4%
2-3주에 한번	39	5.8%	43	5.6%
일주일에 한번	82	12.2%	137	18.0%
2-3일에 한번	286	42.7%	389	51.0%
매일	244	36.4%	175	23.0%
소계	670	100.0%	762	100.0%

□ 세수/양치

- 현재 은둔당사자들의 경우 매일 세수/양치를 한다는 의견(71.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3일에 한번 세수/양치를 한다는 의견(17.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생활자와 마찬가지로 응답 순위를 보여주고 있음

〈표 58〉 은둔당사자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세수/양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8	1.2%	8	1.0%
2-3주에 한번	29	4.3%	20	2.6%
일주일에 한번	33	4.9%	37	4.9%
2-3일에 한번	119	17.8%	216	28.3%
매일	481	71.8%	481	63.1%
소계	670	100.0%	762	100.0%

□ 물건 정리·정돈

- 현재 은둔당사자들의 경우 한달에 한번 정리/정돈을 한다는 의견(25.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3주에 한번 정리/정돈을 한다는 의견(22.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정리/정돈을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는 점은 유사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리/정돈을 한다는 의견이 현재 은둔당사자보다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9〉 은둔당사자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물건 정리/정돈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170	25.4%	249	32.7%
2~3주에 한번	148	22.1%	159	20.9%
일주일에 한번	115	17.2%	186	24.4%
2~3일에 한번	141	21.0%	119	15.6%
매일	96	14.3%	49	6.4%
소계	670	100.0%	762	100.0%

19. 곤란을 느끼는 정도

□ 기분이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낌

- 현재 은둔당사자들은 기분이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정도와 관련하여 가끔 그렇다(31.6%), 자주 그렇다(32.4%), 항상 그렇다는 의견(31.2%)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었던 당사자들은 항상 그렇다는 의견(41.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60〉 기분이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정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다	32	4.8%	17	2.2%
가끔 그렇다	212	31.6%	157	20.6%
자주 그렇다	217	32.4%	270	35.4%
항상 그렇다	209	31.2%	318	41.7%
소계	670	100.0%	762	100.0%

□ 평소하던 일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 현재 은둔당사자들은 평소하던 일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가끔 그렇다(31.2%), 자주 그렇다(37.8%), 항상 그렇다는 의견(27.3%)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었던 당사자들은 자주 그렇다는 의견(42.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61〉 평소하던 일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다	25	3.7%	18	2.4%
가끔 그렇다	209	31.2%	142	18.6%
자주 그렇다	253	37.8%	320	42.0%
항상 그렇다	183	27.3%	282	37.0%
소계	670	100.0%	762	100.0%

□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름

- 현재 은둔당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른 정도와 관련하여 가끔 그렇다(31.0%), 자주 그렇다(31.0%), 항상 그렇다는 의견(28.8%)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은 항상 그렇다는 의견(37.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62〉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른 정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다	61	9.1%	45	5.9%
가끔 그렇다	208	31.0%	168	22.0%
자주 그렇다	208	31.0%	266	34.9%
항상 그렇다	193	28.8%	283	37.1%
소계	670	100.0%	762	100.0%

□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총동 발생

- 현재 은둔당사자들은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총동과 관련하여 가끔 그렇다는 의견(41.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혀 없다는 의견(27.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 자주 그렇다는 의견(23.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63〉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총동이 발생하는 정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다	181	27.0%	180	23.6%
가끔 그렇다	275	41.0%	258	33.9%
자주 그렇다	118	17.6%	177	23.2%
항상 그렇다	96	14.3%	147	19.3%
소계	670	100.0%	762	100.0%

□ PC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잠시도 진정못함

- 현재 은둔당사자들은 PC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잠시도 진정 못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가끔 그렇다는 의견(39.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23.7%) 순으로 나타남
-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당사자와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64〉 PC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잠시도 진정 못하는 정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다	130	19.4%	148	19.4%
가끔 그렇다	265	39.6%	267	35.0%
자주 그렇다	159	23.7%	195	25.6%
항상 그렇다	116	17.3%	152	19.9%
소계	670	100.0%	762	100.0%

□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듦

- 현재 은둔당사자들은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와 관련하여 가끔 그렇다(29.0%), 자주 그렇다(31.3%), 항상 그렇다(35.8%)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 항상 그렇다는 의견(47.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65〉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다	26	3.9%	25	3.3%
가끔 그렇다	194	29.0%	136	17.8%
자주 그렇다	210	31.3%	241	31.6%
항상 그렇다	240	35.8%	360	47.2%
소계	670	100.0%	762	100.0%

□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함

- 현재 은둔당사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가끔 그렇다(30.4%), 자주 그렇다(27.3%), 항상 그렇다는 의견(35.2%)의 차이가 크지 않음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자주 그렇다(33.9%)와 항상 그렇다는 의견(42.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66〉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다	47	7.0%	38	5.0%
가끔 그렇다	204	30.4%	144	18.9%
자주 그렇다	183	27.3%	258	33.9%
항상 그렇다	236	35.2%	322	42.3%
소계	670	100.0%	762	100.0%

□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 없음

-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 정도와 관련하여 현재 은둔당사자들은 가끔 그렇다는 의견(42.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자주 그렇다는 의견(27.2%)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들의 경우 가끔 그렇다(29.8%), 자주 그렇다(36.1%), 항상 그렇다는 의견(26.6%)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보다 부정적인 응답률을 보여줌

〈표 67〉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 정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다	80	11.9%	57	7.5%
가끔 그렇다	286	42.7%	227	29.8%
자주 그렇다	182	27.2%	275	36.1%
항상 그렇다	122	18.2%	203	26.6%
소계	670	100.0%	762	100.0%

□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방법을 잘 모르겠음

- 현재 은둔당사자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방법을 잘 모르는 정도와 관련하여 가끔 그렇다(39.0%)와 자주 그렇다는 의견(30.0%)에 집중되어 있음
- 반면에 과거 은둔경험자들은 자주 그렇다(36.1%)와 항상 그렇다는 의견(25.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부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68〉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방법을 잘 모르는 정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다	62	9.3%	77	10.1%
가끔 그렇다	261	39.0%	215	28.2%
자주 그렇다	201	30.0%	275	36.1%
항상 그렇다	146	21.8%	195	25.6%
소계	670	100.0%	762	100.0%

20. 주거생활

□ 동거 식구

-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은둔당사자들은 1인 가구(34.5%) 많이 선택하였으며 1세대 가구(27.0%)와 2세대 가구(28.8%)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은 1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하여 현 시점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표 69〉 은둔당사자의 동거여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인 가구	231	34.5%	159	20.9%
1세대 가구(부부, 형제자매 등)	181	27.0%	270	35.4%
2세대 가구(부부+자녀, 부부+부모+조부모+손자녀 등)	193	28.8%	271	35.6%
3세대 이상(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	24	3.6%	28	3.7%
비혈연가구	15	2.2%	15	2.0%
기타	26	3.9%	19	2.5%
소계	670	100.0%	762	100.0%

□ 주택 유형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와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응답자 모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아파트(46.1%, 50.5%)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25.7%, 24.9%)을 선택하였음

〈표 70〉 은둔당사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단독주택	89	13.3%	72	9.4%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	172	25.7%	190	24.9%
아파트	309	46.1%	385	50.5%
오피스텔	54	8.1%	48	6.3%
고시원	11	1.6%	13	1.7%
원룸	28	4.2%	42	5.5%
기타	7	1.0%	12	1.6%
소계	670	100.0%	762	100.0%

□ 소유 형태

- 현재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거주 주택의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자가(35.7%)와 월세(35.4%)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의견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세(16.9%)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은 자가(43.8%)를 가장 높은 의견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월세(23.4%), 전세(21.3%) 순으로 나타나 현재 당사자들이 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71〉 은둔당사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자가	239	35.7%	334	43.8%
전세	113	16.9%	162	21.3%
월세	237	35.4%	178	23.4%
무상	18	2.7%	21	2.8%
기타	29	4.3%	31	4.1%
모름	34	5.1%	36	4.7%
소계	670	100.0%	762	100.0%

21. 신체질환

□ 신체질환 여부

- 현재 은둔당사자의 경우 신체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인지와 관련하여 37.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음
- 반면에 과거에 은둔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23.6%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현재 당사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72〉 은둔당사자의 신체질환 여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250	37.3%	180	23.6%
아니오	420	62.7%	582	76.4%
소계	670	100.0%	762	100.0%

□ 신체질환 유형(중복응답)

- 현재 당사자의 경우 순환기계(18.2%)와 소화기계(18.6%)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내분비계(14.0%)와 근골격계(14.0%)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 당사자들은 소화기계(24.5%), 순환기계(13.8%)와 근골격계(13.8%), 호흡기계(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은둔당사자들의 경우 소화기계, 내분비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등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됨

〈표 73〉 은둔당사자의 신체질환 유형(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순환기계	83	18.2%	37	13.8%
소화기계	85	18.6%	66	24.5%
호흡기계	45	9.9%	33	12.3%
내분비계	64	14.0%	22	8.2%
근골격계	64	14.0%	37	13.8%
안과계	26	5.7%	12	4.5%
치주병, 악성종양 등	22	4.8%	8	3.0%
기타	67	14.7%	54	20.1%
소계	456	100.0%	269	100.0%

□ 신체질환 치료여부

- 현재 당사자와 과거 당사자 모두 신체질환에 대해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0%, 58.0%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짐
- 거의 절반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표 74〉 은둔당사자의 신체질환 치료여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135	54.0%	105	58.0%
아니오	115	46.0%	76	42.0%
소계	250	100.0%	181	100.0%

22. 정신질환

□ 정신질환 여부

-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은둔당사자와 과거 은둔당사자 각각 37.5%, 38.6%가 그렇다고 답변함

〈표 75〉 은둔당사자의 정신질환 여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251	37.5%	294	38.6%
아니오	419	62.5%	468	61.4%
소계	670	100.0%	762	100.0%

□ 정신질환 유형(중복응답)

- 정신질환의 유형과 관련하여 현재 은둔당사자와 과거 은둔당사자의 모두 우울증(36.9%, 42.7%), 불안장애(22.2%, 22.7%), 공황장애(11.5%, 12.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76〉 은둔당사자의 정신질환 유형(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조울장애	47	8.4%	48	7.7%
우울증	206	36.9%	267	42.7%
조현병	10	1.8%	8	1.3%
불안장애	124	22.2%	142	22.7%
양극성 장애	29	5.2%	17	2.7%
공황장애	64	11.5%	81	12.9%
강박장애	42	7.5%	49	7.8%
기타	36	6.5%	14	2.2%
소계	558	100.0%	626	100.0%

□ 정신질환 치료여부

-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은둔당사자와 과거 은둔당사자 각각 40.6%, 46.8%로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음
- 은둔당사자의 50~60%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음

〈표 77〉 은둔당사자의 정신질환 치료여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102	40.6%	138	46.8%
아니오	149	59.4%	157	53.2%
소계	251	100.0%	295	100.0%

23. 가족 중 주 대화상대

- 가족 중 주 대화상대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와 과거 당사자 모두 어머니(46.9%, 36.1%)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는 의견(22.8%, 30.2%), 형제 혹은 자매(15.7%, 16.0%) 순으로 나타났음
- 당사자의 20~30% 정도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비교적 높은 단절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표 78〉 은둔당사자의 가족 중 주 대화상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아버지	19	2.8%	32	4.2%
어머니	314	46.9%	275	36.1%
형제 혹은 자매	105	15.7%	122	16.0%
조부모	7	1.0%	5	0.7%
기타	72	10.7%	98	12.9%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음	153	22.8%	230	30.2%
소계	670	100.0%	762	100.0%

24. 가족과의 갈등

- 가족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와 과거 당사자 모두 그저 그렇다는 의견(50.1%, 39.8%)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심각한 편이다(20.1%, 26.4%), 별로 심각하지 않다(15.7%, 19.9%)는 의견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당사자의 경우 현재 당사자보다 심각하다는 의견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79〉 은둔당사자의 가족과의 갈등 수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심각하지 않다	47	7.0%	49	6.4%
별로 심각하지 않다	105	15.7%	152	19.9%
그저 그렇다	336	50.1%	303	39.8%
심각한 편이다	135	20.1%	201	26.4%
매우 심각하다	47	7.0%	57	7.5%
소계	670	100.0%	762	100.0%

25. 은둔생활에 대한 가족의 인식

- 당사자의 은둔생활에 가족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와 과거 당사자 모두 가족들은 내가 은둔생활을 하는지 알지만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견(34.0%, 36.7%), 가족들이 내가 은둔생활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38.1%, 37.0%)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80〉 은둔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들은 내기 은둔생활을 하는지 모름	139	20.7%	141	18.5%
가족들은 내가 은둔생활을 하는지 알지만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음	228	34.0%	280	36.7%
가족들이 내가 은둔생활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함	255	38.1%	282	37.0%
은둔생활과 관련하여 가족들과 갈등이 심했음	48	7.2%	59	7.7%
소계	670	100.0%	762	100.0%

26. 은둔에 대한 본인의 인식

- 은둔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인식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와 과거 당사자 모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55.4%, 54.2%),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31.6%, 29.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81〉 은둔에 대한 본인의 인식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212	31.6%	227	29.8%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371	55.4%	413	54.2%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87	13.0%	122	16.0%
소계	670	100.0%	762	100.0%

27. 은둔생활이 문제하고 생각한 계기(중복응답)

- 현재 당사자의 경우 스스로 깨달았다는 의견(47.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정신·신체적 변화(16.9%), 특별한 계기가 없음(12.4%), 외부의 사적자극(1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 당사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스스로 깨달았다는 의견(47.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다음으로 외부의 사적자극(16.3%), 특별한 계기없음(13.4%), 정신·신체적 변화(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82〉 문제라고 생각한 계기(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스스로 깨달음	420	47.3%	465	47.4%
건강이상, 환청발생 등 정신·신체적 변화	150	16.9%	121	12.3%
부모, 형제, 친구의 권유 등 외부의 사적 자극	104	11.7%	160	16.3%
관공서, 전문가 권유 등 외부의 공적 자극	22	2.5%	15	1.5%
가족구성원의 변화, 이사 등 환경적 변화	44	5.0%	47	4.8%
특별한 계기는 없음	110	12.4%	131	13.4%
기타	38	4.3%	41	4.2%
소계	888	100.0%	980	100.0%

28.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중복응답)

- 현재 당사자의 경우 스스로 노력한다는 의견(33.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견(29.4%), 외부의 공적 지원(17.1%) 순으로 나타남
- 과거 당사자의 경우에도 노력한다는 의견(42.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가족·친구 등과 의논(18.7%), 외부의 공적 지원(13.5%) 순으로 나타남

〈표 83〉 은둔당사자의 문제해결 노력(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스스로 노력(운동, 자격증 공부 등)	273	33.1%	407	42.8%
정부지원 등 외부의 공적지원을 알아봄	141	17.1%	128	13.5%
가족, 친구 등과 의논	79	9.6%	178	18.7%
전문가, 전문기관 등 외부의 전문적 지원을 알아봄	66	8.0%	80	8.4%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있음	243	29.4%	120	12.6%
기타	24	2.9%	37	3.9%
소계	826	100.0%	950	100.0%

29. 사회적 지지(중복문항)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당사자의 경우 가족·친척, 없음, 친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 당사자의 경우, 친구, 가족·친척, 없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견이 거의 30%에 달해 사회적 관계자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함

〈표 84〉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304	39.1%	304	32.9%
친구	181	23.3%	309	33.4%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41	5.3%	59	6.4%
없음	251	32.3%	253	27.4%
소계	777	100.0%	925	100.0%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당사자는 가족·친척을 가장 높은 비율(47.5%)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없음(30.2%), 친구(18.0%)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 당사자 역시 가족·친척을 가장 높은 비율(44.7%)로 선택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친구(29.5%), 없음(21.5%) 순으로 선택하여 친구와의 관계성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85〉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364	47.5%	412	44.7%
친구	138	18.0%	272	29.5%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33	4.3%	40	4.3%
없음	231	30.2%	198	21.5%
소계	766	100.0%	922	100.0%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당사자의 경우 가족·친척(49.3%)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없음(35.6%), 친구(12.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은둔당사자의 경우에도 현재 은둔당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친척(50.1%), 없음(25.0%), 친구(21.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86〉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359	49.3%	432	50.1%
친구	91	12.5%	188	21.8%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19	2.6%	27	3.1%
없음	259	35.6%	215	25.0%
소계	728	100.0%	862	100.0%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현재 당사자의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없다는 의견(42.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친척(30.1%), 친구(22.9%)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 당사자의 경우 없다(34.6%)와 친구(34.1%)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친척(26.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87〉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226	30.1%	231	26.5%
친구	173	22.9%	297	34.1%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35	4.6%	42	4.8%
없음	320	42.4%	301	34.6%
소계	754	100.0%	871	100.0%

30. 과거 은둔생활에 대한 본인의 인식

- 과거에 은둔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과거 은둔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47.6%), 그때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28.6%), 그때는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의견(16.9%) 순으로 나타남

〈표 88〉 과거 은둔에 대한 본인의 인식

구분	과거	
	응답자 수	비중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363	47.6%
그때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문제라고 생각함	218	28.6%
그때는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아님	129	16.9%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52	6.8%
소계	762	100.0%

31.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중복응답)

- 과거 은둔 당사자의 경우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서(26.3%),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스스로 벗어남(19.3%), 취미활동을 통해(10.5%), 학업 및 진학을 해서(10.4%) 순으로 나타남

〈표 89〉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중복응답)

구분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상담, 치료를 받고 나서	123	9.2%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서	354	26.3%
학업 및 진학을 해서	140	10.4%
취미활동을 통해	141	10.5%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49	3.6%
부모님 및 가족의 노력으로	91	6.8%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스스로 벗어남	260	19.3%
스스로 명상, 글쓰기 등을 통해	76	5.7%
기타	110	8.2%
소계	1344	100.0%

32. 회복의 정도

- 은둔생활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과거 은둔 당사자들의 경우 상당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의견(44.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의견(24.8%), 조금 회복은 되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28.6%) 순으로 나타남

〈표 90〉 회복의 정도

구분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완전히 회복되었음	189	24.8%
상당수준으로 회복되었음	336	44.1%
조금 회복은 되었지만 충분하지 못함	218	28.6%
전혀 회복하지 못했음	19	2.5%
소계	762	100.0%

33. 회복 후 경과기간

- 은둔생활에서 회복한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과거 은둔 당사자들의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34.8%), 2년 이상~3년 미만(14.8%), 3년 이상~4년 미만(13.5%)으로 나타남

〈표 91〉 회복 후 경과기간

구분	과거	
	응답자 수	비중
6개월 미만	20	8.7%
6개월~1년 미만	14	6.1%
1년 이상~2년 미만	80	34.8%
2년 이상~3년 미만	34	14.8%
3년 이상~4년 미만	31	13.5%
4년 이상~5년 미만	15	6.5%
5년 이상~6년 미만	13	5.7%
6년 이상	23	10.0%
소계	230	100.0%

34. 재은둔 경험

- 은둔생활에서 회복한 후 다시 은둔생활을 반복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과거 은둔 당사자들은 33.3%가 그렇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표 92〉 재은둔의 경험

구분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예	254	33.3%
아니오	508	66.7%
소계	762	100.0%

35. 재은둔 이유(중복응답)

- 다시 은둔생활을 반복한 이유와 관련하여 과거 은둔 당사자들은 정신적 어려움(22.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업·취업 어려움(20.1%), 사회적응 어려움(17.2%), 대인관계 어려움(16.5%), 직장 내 갈등 및 적응(10.3%) 순으로 나타남

〈표 93〉 재은둔의 이유(중복응답)

구분	과거	
	응답자 수	비중
대인관계 어려움	93	16.5%
사회적응 어려움	97	17.2%
가족갈등	38	6.7%
정신적 어려움	129	22.9%
학업·취업 어려움	113	20.1%
직장 내 갈등 및 적응	58	10.3%
기타	35	6.2%
소계	563	100.0%

36.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 과거 은둔생활 당시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들은 없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자체·관공서의 도움,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 은둔 당사자들은 없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현재 당사자와는 달리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지자체·관공서의 도움 순으로 나타나 주변의 도움을 보다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음

〈표 94〉 은둔생활시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없음	465	69.4%	448	58.8%
지자체, 관공서의 도움	80	11.9%	64	8.4%
민간단체, 민간기관의 도움	29	4.3%	34	4.5%
종교기관의 도움	8	1.2%	16	2.1%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73	10.9%	190	24.9%
기타	15	2.2%	10	1.3%
소계	670	100.0%	762	100.0%

37. 도움 후의 변화

- 도움을 받은 후 변화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들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견(47.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약간 좋아졌다는 의견(38.0%)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 당사자들의 경우 약간 좋아졌다는 의견(57.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24.2%),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15.9%) 순으로 나타나 도움 후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우호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95〉 도움을 받은 후의 변화의 정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음	17	8.3%	8	2.5%
별다른 변화가 없음	97	47.3%	50	15.9%
약간 좋아짐	78	38.0%	180	57.3%
많이 좋아짐	13	6.3%	76	24.2%
소계	205	100.0%	314	100.0%

38. 도움받을 의향

-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들은 50.0%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음

〈표 96〉 도움받을 의향

구분	현재	
	응답자 수	비중
예	335	50.0%
아니오	149	22.2%
모르겠음	186	27.8%
소계	670	100.0%

39. 도움수용이유(중복응답)

- 도움받을 의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현재 당사자들은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46.8%),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36.2%) 순으로 선택하였음

〈표 97〉 도움받을 의향이 있는 이유

구분	현재	
	응답자 수	비중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247	46.8%
부모님이 간곡히 권유해서	21	4.0%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서	69	13.1%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91	36.2%
소계	528	100.0%

40. 도움거부이유(중복응답)

- 도움받을 의향이 없다고 한 이유에 대해 현재 당사자들은 나의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43.3%),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24.7%), 도움받는 것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98〉 도움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

구분	현재	
	응답자 수	비중
나의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95	43.3%
도움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54	24.7%
상대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21	9.6%
도움받는 것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26	11.9%
근처에 도움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16	7.3%
기타	7	3.2%
소계	219	100.0%

41. 은둔당사자 지원 필요성

-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서 현재 당사자들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34.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매우 필요함(32.1%), 보통(26.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당사자들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함, 보통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우호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표 99〉 은둔 당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필요없음	20	3.0%	23	3.0%
필요없음	30	4.5%	41	5.4%
보통	174	26.0%	110	14.4%
필요함	231	34.5%	285	37.4%
매우 필요함	215	32.1%	303	39.8%
소계	670	100.0%	762	100.0%

42. 가족 지원 필요성

- 은둔 당사자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들의 경우 보통(34.3%)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필요함(29.1%), 매우 필요함(2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 당사자들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35.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필요함(32.5%), 보통(19.0%) 순으로 나타나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표 100〉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필요없음	45	6.7%	35	4.6%
필요없음	53	7.9%	65	8.5%
보통	230	34.3%	145	19.0%
필요함	195	29.1%	269	35.3%
매우 필요함	147	21.9%	248	32.5%
소계	670	100.0%	762	100.0%

43. 지원 서비스 참여의향

- 현재 당사자들의 경우 전체평균이 3.1175로 나오는 반면에 과거 당사자들의 경우 전체평균이 3.4381로 나와 전반적으로 과거 당사자들이 보다 우호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을 묻는 문항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보다 과거 당사자들이 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현재 당사자들의 경우 비대면 상담서비스, 공간지원, 안식공유 프로그램, 공동작업 프로그램, 지식과 정보제공,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생활 서비스 지원, 상점 이용 쿠폰, 힐링 하우스 사업,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 교육, 관심분야 지원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에 과거 당사자들의 경우 현재 당사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거주지 밖 상담서비스, 의사소통 기술교육, 열린 소통모임 등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으로 참여의향을 보여주고 있음

〈표 101〉 은둔당사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평균	응답자 수	평균
메타버스(혹은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	670	3.2791	762	3.3898
거주지 방문 상담 서비스	670	2.1701	762	2.2638
거주지 밖(카페 등) 상담 서비스	670	2.7851	762	3.0958
정기상담, 긴급상황 등 밀착사례관리	670	2.6075	762	2.9633
참여자 간 자조모임(소속감, 경험 나누기)	670	2.5045	762	2.9226
공감대 형성 및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교육	670	2.8537	762	3.3307
소셜다이닝 등 열린 소통모임	670	2.6164	762	3.1181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지원	670	3.2552	762	3.6614
안식공유 프로그램(휴식, 운동, 게임 등)	670	3.2940	762	3.7533
공동작업 프로그램(공예, 부업, 일체험 등)	670	3.3537	762	3.7415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	670	2.4209	762	2.6234
은둔생활 극복을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	670	3.4194	762	3.6220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670	3.5925	762	3.8451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670	3.5582	762	3.8911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평균	응답자 수	평균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670	3.5567	762	3.7822
상점이용쿠폰 지원	670	3.6612	762	3.8373
힐링 하우스 사업(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670	3.2418	762	3.6325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670	3.3910	762	3.8136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670	3.2030	762	3.5433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지원(AI 역량, 목공예 등)	670	3.5851	762	3.9318
전체평균		3.1175		3.4381

44. 최소은둔기간

- 은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기간을 묻는 문항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의 경우 6개월~1년 미만(32.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년~2년 미만(26.3%), 3개월~6개월 미만(18.7%)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 당사자들의 경우 6개월~1년 미만(31.5%), 3개월~6개월 미만(29.7%), 1년~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나 현재 당사자들의 경우보다 단기간으로 이해하고 있음

〈표 102〉 은둔당사자: 최소은둔기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3개월 미만	97	14.5%	180	23.6%
3개월~6개월 미만	125	18.7%	226	29.7%
6개월~1년 미만	220	32.8%	240	31.5%
1년~2년 미만	176	26.3%	98	12.9%
2년 이상	52	7.8%	18	2.4%
소계	670	100.0%	762	100.0%

제3절 은둔 당사자 가족의 설문조사 결과

1.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03〉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현재		과거		전체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성별 (응답자)	남성	101	29.1%	98	35.9%	199	32.1%
	여성	246	70.9%	175	64.1%	421	67.9%
성별 (은둔가족)	남성	216	62.2%	156	57.1%	372	60.0%
	여성	131	37.8%	117	42.9%	248	40.0%
연령 (응답자)	19~29세	139	40.1%	112	41.0%	251	40.5%
	30~39세	113	32.6%	102	37.4%	215	34.7%
	40~49세	62	17.9%	45	16.5%	107	17.3%
	50~59세	24	6.9%	8	2.9%	32	5.2%
	60세 이상	9	2.6%	6	2.2%	15	2.4%
연령 (은둔가족)	19~29세	56	16.1%	56	20.5%	112	18.1%
	30~39세	82	23.6%	87	31.9%	169	27.3%
	40~49세	66	19.0%	50	18.3%	116	18.7%
	50~59세	85	24.5%	36	13.2%	121	19.5%
	60세 이상	58	16.7%	44	16.1%	102	16.5%
학력 (응답자)	고교 중퇴 이하	6	1.7%	3	1.1%	9	1.5%
	고등학교 졸업	78	22.5%	47	17.2%	125	20.2%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28	8.1%	21	7.7%	49	7.9%
	대학교 졸업	198	57.1%	174	63.7%	372	60.0%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8	2.3%	4	1.5%	12	1.9%
	대학원졸업, 수료	29	8.4%	24	8.8%	53	8.5%
학력 (은둔가족)	고교 중퇴 이하	31	8.9%	14	5.1%	45	7.3%
	고등학교 졸업	119	34.3%	85	31.1%	204	32.9%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33	9.5%	34	12.5%	67	10.8%
	대학교 졸업	145	41.8%	129	47.3%	274	44.2%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7	2.0%	1	0.4%	8	1.3%
	대학원졸업, 수료	12	3.5%	10	3.7%	22	3.5%
직업 (은둔가족)	정규직(상용직)	46	13.3%	84	30.8%	130	21.0%
	임시직(계약직)	27	7.8%	49	17.9%	76	12.3%
	아르바이트	12	3.5%	26	9.5%	38	6.1%

구분		현재		과거		전체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일용직	11	3.2%	6	2.2%	17	2.7%
	자영업	13	3.7%	19	7.0%	32	5.2%
	프리랜서	19	5.5%	12	4.4%	31	5.0%
	학생	14	4.0%	12	4.4%	26	4.2%
	무직	197	56.8%	62	22.7%	259	41.8%
	기타	8	2.3%	3	1.1%	11	1.8%
거주지역 (응답자)	강화군	5	1.4%	2	0.7%	7	1.1%
	옹진군	5	1.4%	4	1.5%	9	1.5%
	중구	12	3.5%	19	7.0%	31	5.0%
	동구	10	2.9%	6	2.2%	16	2.6%
	미추홀구	62	17.9%	43	15.8%	105	16.9%
	연수구	57	16.4%	50	18.3%	107	17.3%
	남동구	63	18.2%	39	14.3%	102	16.5%
	부평구	46	13.3%	46	16.8%	92	14.8%
	계양구	41	11.8%	24	8.8%	65	10.5%
	서구	38	11.0%	35	12.8%	73	11.8%
	인천시 외 지역	8	2.3%	5	1.8%	13	2.1%
거주지역 (은둔가족)	강화군	5	1.4%	2	0.7%	7	1.1%
	옹진군	4	1.2%	3	1.1%	7	1.1%
	중구	11	3.2%	19	7.0%	30	4.8%
	동구	11	3.2%	8	2.9%	19	3.1%
	미추홀구	61	17.6%	45	16.5%	106	17.1%
	연수구	54	15.6%	45	16.5%	99	16.0%
	남동구	69	19.9%	47	17.2%	116	18.7%
	부평구	50	14.4%	49	17.9%	99	16.0%
	계양구	40	11.5%	25	9.2%	65	10.5%
	서구	42	12.1%	30	11.0%	72	11.6%
결혼여부 (은둔가족)	미혼	243	70.0%	187	68.5%	430	69.4%
	기혼(사실혼 포함)	74	21.3%	63	23.1%	137	22.1%
	이혼/별거/사별	30	8.6%	22	8.1%	52	8.4%
	기타	0	0.0%	1	0.4%	1	0.2%
자녀유무 (은둔가족)	없음	251	72.3%	200	73.3%	451	72.7%
	있음	96	27.7%	73	26.7%	169	27.3%

구분		현재		과거		전체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자녀수 (은둔가족)	없음	251	72.3%	200	73.3%	451	72.7%
	1~2명	83	23.9%	60	22.0%	143	23.1%
	3~4명	12	3.5%	11	4.0%	23	3.7%
	5명 이상	1	0.3%	2	0.7%	3	0.5%
경제수준 (가구)	하	92	26.5%	50	18.3%	142	22.9%
	중하	127	36.6%	108	39.6%	235	37.9%
	중	103	29.7%	99	36.3%	202	32.6%
	중상	18	5.2%	14	5.1%	32	5.2%
	상	7	2.0%	2	0.7%	9	1.5%

- 응답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남성 29.1%, 여성 70.9%로 나타나고, 과거 가족들의 경우 남성 35.9%, 여성 64.1%로 나타남
- 반면에 은둔가족의 성별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남성 62.2%, 여성 37.8%로 응답하였고, 과거 가족들의 경우 남성 57.1%, 여성 42.9%로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19~29세 40.1%, 30~39세 32.6%, 40~49세 17.9%, 50~59세 6.9%, 60세 이상 2.6%로 나타나고, 과거 가족들의 경우 19~29세 41.0%, 30~39세 37.4%, 40~49세 16.5%, 50~59세 2.9%, 60세 이상 2.2%로 나타남
- 은둔가족의 연령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19~29세 16.1%, 30~39세 23.6%, 40~49세 19.0%, 50~59세 24.5%, 60세 이상 16.7%로 응답하였고, 과거 가족들의 경우 19~29세 20.5%, 30~39세 31.9%, 40~49세 18.3%, 50~59세 13.2%, 60세 이상 16.1%로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학력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고교 중퇴 이하 1.7%, 고등학교 졸업 22.5%, 대학교 재학 8.1%, 대학교 졸업 57.1%, 대학원 재학 2.3%, 대학원 졸업 8.4%로 응답하였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 고교 중퇴 이하 1.1%, 고등학교 졸업 17.2%, 대학교 재학 7.7%, 대학교 졸업 63.7%, 대학원 재학 1.5%, 대학원 졸업 8.8%로 응답하였음
- 은둔가족의 학력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고교 중퇴 이하 8.9%, 고등학교 졸업 34.3%, 대학교 재학 9.5%, 대학교 졸업 41.8%, 대학원 재학 2.0%, 대학원 졸업 3.5%로 응답하였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 고교 중퇴 이하 5.1%, 고등학교 졸업 31.1%, 대학교 재학 12.5%, 대학교 졸업 47.3%, 대학원 재학 0.4%, 대학원 졸업 3.7%로 응답하였음

- 은둔가족의 직업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은 정규직 13.3%, 임시직 7.8%, 아르바이트 3.5%, 일용직 3.2%, 자영업 3.7%, 프리랜서 5.5%, 학생 4.0% 무직 56.8%로 응답하였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 정규직 30.8%, 임시직 17.9%, 아르바이트 9.6%, 일용직 2.2%, 자영업 7.0%, 프리랜서 4.4%, 학생 4.4%, 무직 22.7%로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강화군 1.4%, 옹진군 1.4%, 중구 3.5%, 동구 2.9%, 미추홀구 17.9%, 연수구 16.4%, 남동구 18.2%, 부평구 13.3%, 계양구 11.8%, 서구 11.0%, 인천시 외 지역 2.3%로 나타나고, 과거 가족들의 경우 강화군 0.7%, 옹진군 1.5%, 중구 7.0%, 동구 2.2%, 미추홀구 15.8%, 연수구 18.3%, 남동구 14.3%, 부평구 16.8%, 계양구 8.8%, 서구 12.8%, 인천시 외 지역 1.6%로 나타남
- 은둔가족의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1.4%, 옹진군 1.2%, 중구 3.2%, 미추홀구 17.6%, 연수구 15.6%, 남동구 19.9%, 부평구 14.4%, 계양구 11.5%, 서구 12.1%로 나타나고, 과거 가족들의 경우 강화군 0.7%, 옹진군 1.1%, 중구 7.0%, 동구 2.9%, 미추홀구 16.5%, 연수구 16.5%, 남동구 17.2%, 부평구 17.9%, 계양구 9.2%, 서구 11.0%로 나타남
- 은둔가족의 결혼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미혼 70.0%, 기혼 21.3%, 이혼·별거·사별 8.6%로 나타나고, 과거 가족들의 경우 미혼 68.5%, 기혼 23.1%, 이혼·별거·사별 8.1%, 기타 0.4%로 나타남
- 은둔가족의 자녀유무와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27.7%, 없다는 의견이 72.3%로 나타났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26.7%, 없다는 의견이 73.3%로 나타났음
- 자녀가 있다는 응답한 경우 자녀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재 가족들의 경우 1~2명이 23.9%, 3~4명이 3.5%, 5명 이상이 0.3%로 나타났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 1~2명이 22.0%, 3~4명이 3.5%, 5명 이상이 0.7%로 나타났음
- 가구의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상 2.0%, 중상 5.2%, 중 29.7%, 중하 36.6%, 하 26.5%로 응답하였고, 과거 가족들의 경우 상 0.7%, 중상 5.1%, 중 36.3%, 중하 39.6%, 하 18.3%로 응답하였음

2. 외출빈도

- 은둔당사자의 외출빈도와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병원 등에 외출한다는 의견(45.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의견(33.1%), 자기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9.8%)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 물리적 고립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병원 등에 외출한다는 의견(36.3%)과 자기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의견(35.5%)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과거 가족의 경우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13.9%로 나와 현재 가족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04〉 가족: 외출빈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34	9.8%	38	13.9%
자기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	115	33.1%	97	35.5%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병원 등에 외출한다	158	45.5%	99	36.3%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19	5.5%	20	7.3%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15	4.3%	13	4.8%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은 외출한다	6	1.7%	6	2.2%
소계	347	100.0%	273	100.0%

3. 총은둔기간

- 은둔총기간의 경우 현재 가족들은 1년 이상~3년 미만(26.5%), 3년 이상~5년 미만(20.2%), 6개월 이상~1년 미만(13.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 가족들은 1년 이상~3년 미만(38.1%), 6개월 이상~1년 미만(25.3%), 3개월 이상~6개월 미만(20.5%)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가족보다 총은둔기간을 보다 단기간으로 응답하고 있음

〈표 105〉 가족: 총은둔기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6	7.5%	56	20.5%
6개월 이상~1년 미만	46	13.3%	69	25.3%
1년 이상~3년 미만	92	26.5%	104	38.1%
3년 이상~5년 미만	70	20.2%	27	9.9%
5년 이상~7년 미만	35	10.1%	4	1.5%
7년 이상~10년 미만	34	9.8%	6	2.2%
10년 이상	44	12.7%	7	2.6%
소계	347	100.0%	273	100.0%

4. 은둔전 경험

□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 은둔 당사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현재 가족들은 있다는 의견(45.8%)과 없다는 의견(43.8%)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 가족들은 없다는 의견(53.1%)이 있다는 의견(37.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인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06〉 가족: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152	43.8%	101	37.0%
없다	159	45.8%	145	53.1%
모름	36	10.4%	27	9.9%
소계	347	100.0%	273	100.0%

□ 부모(혹은 그 외에 은둔가족을 키워준 사람)가 은둔가족을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 현재 가족들의 경우 있다는 의견(54.2%)이 없다는 의견(34.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의 경우에도 동일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 모두 부모의 학대를 50%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07〉 가족: 부모가 은둔가족을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188	54.2%	142	52.0%
없다	120	34.6%	96	35.2%
모름	39	11.2%	35	12.8%
소계	347	100.0%	273	100.0%

□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 현재 가족들의 경우 은둔당사자가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없다는 의견(57.1%)이 있다는 의견(34.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의 경우에도 동일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08〉 가족: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118	34.0%	66	24.2%
없다	198	57.1%	180	65.9%
모름	31	8.9%	27	9.9%
소계	347	100.0%	273	100.0%

□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 현재 가족의 경우 은둔당사자가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의견(63.7%)이 없다는 의견(32.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의 경우에도 동일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09〉 가족: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221	63.7%	159	58.2%
없다	112	32.3%	96	35.2%
모름	14	4.0%	18	6.6%
소계	347	100.0%	273	100.0%

□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 현재 가족의 경우 은둔당사자가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의견(68.6%)이 없다는 의견(28.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현재 가족이 과거 가족보다 있다는 경험을 비교적 높게 응답하고 있음

〈표 110〉 가족: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238	68.6%	158	57.9%
없다	97	28.0%	99	36.3%
모름	12	3.5%	16	5.9%
소계	347	100.0%	273	100.0%

□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 현재 가족의 경우 은둔장사자가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의견(45.8%)이 없다는 의견(2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11〉 가족: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159	45.8%	128	46.9%
없다	103	29.7%	100	36.6%
모름	85	24.5%	45	16.5%
소계	347	100.0%	273	100.0%

5. 은둔의 원인

- 현재 가족의 경우 은둔의 이유로 직업관련 어려움(32.9%)을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 어려움(19.6%), 정신적 어려움(13.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가족의 경우에도 직업관련 어려움(31.9%), 대인관계 어려움(20.5%), 정신적 어려움(14.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12〉 가족: 은둔 원인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학업관련 어려움(진학, 성적, 입시 등)	26	7.5%	23	8.4%
직업관련 어려움(취업, 실직 등)	114	32.9%	87	31.9%
가족관련 어려움(갈등, 이혼, 사망 등)	30	8.6%	36	13.2%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직장동료 등)	68	19.6%	56	20.5%
건강상의 어려움(장애, 질병 등)	25	7.2%	18	6.6%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	47	13.5%	39	14.3%
가정폭력, 학교폭력(학대, 따돌림 등)	9	2.6%	3	1.1%
이유없음	7	2.0%	3	1.1%
기타	13	3.7%	4	1.5%
모름	8	2.3%	4	1.5%
소계	347	100.0%	273	100.0%

6. 은둔생활 경험

□ 은둔생활 첫 경험 여부

○ 당사자의 은둔생활이 처음인지에 대해 현재 가족들은 81.3%로 그렇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표 113〉 가족: 은둔생활 첫경험 여부

구분	현재	
	응답자 수	비중
예	282	81.3%
아니오	65	18.7%
소계	347	100.0%

□ 총은둔횟수

○ 현재 가족들은 2회(27.7%)와 3회(27.7%)를 가장 높게 선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회(26.2%), 5회 이상(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1회(60.1%)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회(22.7%), 3회(10.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14〉 가족: 총은둔횟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회	17	26.2%	164	60.1%
2회	18	27.7%	62	22.7%
3회	18	27.7%	29	10.6%
4회	4	6.2%	1	0.4%
5회 이상	8	12.3%	17	6.2%
소계	65	100.0%	273	100.0%

□ 최근 은둔기간

- 최근 은둔기간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1년~2년 미만(26.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7개월~1년 미만(15.6%)과 3년~5년 미만(15.6%)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2년~3년 미만(19.5%)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반면에 과거 가족의 경우 1년~2년 미만(27.2%), 7개월~1년 미만(21.3%), 2년~3년 미만(19.5%)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15〉 가족: 최근 은둔기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6개월 이내	5	7.8%	33	12.1%
7개월~1년 미만	10	15.6%	58	21.3%
1년~2년 미만	17	26.6%	74	27.2%
2년~3년 미만	9	14.1%	53	19.5%
3년~5년미만	10	15.6%	38	14.0%
5년~7년 미만	5	7.8%	7	2.6%
7년 이상	8	12.5%	9	3.3%
소계	64	100.0%	272	100.0%

□ 은둔 첫시기

- 현재 가족의 경우 은둔 첫시기로 20~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전반적으로 20~30대에 은둔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표 116〉 가족: 은둔 첫시기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3세 이하(초등학교)	2	3.1%	0	0.0%
14~16세 이하(중학교)	2	3.1%	8	2.9%
17~19세 이하(고등학교)	5	7.7%	19	7.0%
20~29세 이하	27	41.5%	125	45.8%
30~39세 이하	15	23.1%	81	29.7%
40세 이상	14	21.5%	40	14.7%
소계	65	100.0%	273	100.0%

7. 출근경험

□ 출근 경험여부

-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현재 가족들의 경우 50.7%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는 54.6%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17〉 가족: 출근경험 여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176	50.7%	149	54.6%
아니오	164	47.3%	112	41.0%
모름	7	2.0%	12	4.4%
소계	347	100.0%	273	100.0%

□ 은둔생활 전 근무기간

- 은둔생활 전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6년 이상(25.9%), 1년~2년 미만(23.6%), 2년~3년 미만(20.1%)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2년~3년 미만(25.5%), 6년 이상(23.4%), 1년~2년 미만(20.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18〉 가족: 은둔생활 전 근무기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6개월 미만	4	2.3%	1	0.7%
6개월~1년 미만	1	0.6%	3	2.1%
1년~2년 미만	41	23.6%	30	20.7%
2년~3년 미만	35	20.1%	37	25.5%
3년~4년 미만	32	18.4%	23	15.9%
4년~5년 미만	6	3.4%	6	4.1%
5년~6년 미만	10	5.7%	11	7.6%
6년 이상	45	25.9%	34	23.4%
소계	174	100.0%	145	100.0%

□ 은둔생활 전 근무직종(중복응답)

- 은둔생활을 하기 전의 근무직종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사무직(19.0%)과 판매·서비스직(19.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생산직(17.1%), 단순노무직(16.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사무직(28.8%), 판매·서비스직(24.5%), 생산직(14.1%), 단순노무직(12.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19〉 가족: 은둔생활 전 근무직종(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사무직	40	19.0%	53	28.8%
생산직	36	17.1%	26	14.1%
관리직	11	5.2%	11	6.0%
판매/서비스직	40	19.0%	45	24.5%
전문직	12	5.7%	8	4.3%
교육/연구직	13	6.2%	7	3.8%
단순노무직	35	16.7%	22	12.0%
농림어업직	0	0.0%	0	0.0%
문화예술인	3	1.4%	1	0.5%
공무원	3	1.4%	2	1.1%
모름	1	0.5%	3	1.6%
기타	16	7.6%	6	3.3%
소계	210	100.0%	184	100.0%

□ 퇴사 이유(중복응답)

- 은둔당사자의 퇴사이유로 현재 가족들은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14.2%), 업무소진(12.5%), 열악한 근무환경(11.1%)과 부당한 처우(11.1%) 순으로 답변하고 있음
-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는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15.5%), 업무소진(13.9%), 부당한 처우(12.7%), 적성 및 흥미 불일치(11.9%), 열악한 근무환경(10.3%) 순으로 답변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음

〈표 120〉 가족: 퇴사이유(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적성 및 흥미 불일치	28	9.5%	30	11.9%
경력발전 기회부족	16	5.4%	15	6.0%
열악한 근무환경	33	11.1%	26	10.3%
부당한 처우(낮은 보상 등)	33	11.1%	32	12.7%
일과 삶의 균형문제	17	5.7%	21	8.3%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42	14.2%	39	15.5%
업무소진(업무 스트레스 등)	37	12.5%	35	13.9%
가족 및 개인사정	16	5.4%	12	4.8%
회사의 경영악화	28	9.5%	13	5.2%
모름	9	3.0%	17	6.7%
기타	37	12.5%	12	4.8%
소계	296	100.0%	252	100.0%

8. 생활비 마련

- 은둔 당사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족들은 가족의 도움 (62.8%), 본인이 벌어놓은/모아둔 돈(18.2%)으로 생활 순으로 답변하였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21〉 가족: 생활비 마련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본인이 벌어놓은/모아둔 돈으로 생활	63	18.2%	82	30.0%
가족의 도움	218	62.8%	152	55.7%
이웃, 친지, 아는 사람의 도움	5	1.4%	10	3.7%
종교기관의 도움	3	0.9%	2	0.7%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6	1.7%	3	1.1%
관공서의 지원	11	3.2%	1	0.4%
생활비를 벌기위해 최소한으로 일함	19	5.5%	12	4.4%
대출금/카드론	5	1.4%	7	2.6%
기타	14	4.0%	0	0.0%
모름	3	0.9%	4	1.5%
소계	347	100.0%	273	100.0%

9. 집에서 자주하는 활동(중복응답)

- 은둔당사자들이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은 인터넷/스마트폰(22.4%), 유튜브 등 영상보기(18.4%), 잠자기(수면)(17.2%), 인터넷 게임(14.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인터넷/스마트폰(22.8%), 잠자기(수면)(17.9%), 유튜브 등 영상보기(17.0%), 인터넷 게임(14.9%) 순으로 나타나 거의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22〉 가족: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인터넷 게임	147	14.1%	122	14.9%
인터넷/스마트폰	233	22.4%	187	22.8%
TV 보기	86	8.3%	83	10.1%
유튜브 등 영상보기	192	18.4%	139	17.0%
잠자기(수면)	179	17.2%	147	17.9%
음악듣기	28	2.7%	17	2.1%
독서	24	2.3%	21	2.6%
실내운동	12	1.2%	11	1.3%
취미활동(악기, 그림 등)	22	2.1%	9	1.1%
아무것도 안함(누워있기)	84	8.1%	69	8.4%
기타	26	2.5%	12	1.5%
모름	8	0.8%	2	0.2%
소계	1041	100.0%	819	100.0%

10. 정보의 출처

- 은둔당사자들이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에 대해서 현재 가족들은 온라인 매체(77.8%), 가족 및 지인(6.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23〉 가족: 정보의 출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온라인 매체	270	77.8%	200	73.3%
언론	17	4.9%	20	7.3%
유관기관	6	1.7%	11	4.0%
가족 및 지인	24	6.9%	29	10.6%
정부부처 및 지자체	3	0.9%	1	0.4%
기타	6	1.7%	2	0.7%
모름	21	6.1%	10	3.7%
소계	347	100.0%	273	100.0%

11.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 은둔당사자들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은 전혀없음(39.5%), 1명(31.4%), 2~3명(16.1%) 순으로 응답한 반면에, 과거 가족의 경우에는 1명(38.1%), 전혀없음(28.6%), 2~3명(20.1%) 순으로 응답하여 보다 긍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24〉 가족: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음	137	39.5%	78	28.6%
1명	109	31.4%	104	38.1%
2~3명	56	16.1%	55	20.1%
4명 이상	8	2.3%	4	1.5%
모름	37	10.7%	32	11.7%
소계	347	100.0%	273	100.0%

12. 자살에 대한 태도

□ 자살의향

- 은둔당사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들은 적 있는지에 대해 현재 가족들 44.7%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과거 가족들도 42.5%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25〉 가족: 자살의향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었음	155	44.7%	116	42.5%
없었음	192	55.3%	157	57.5%
소계	347	100.0%	273	100.0%

□ 자살시도

- 은둔당사자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현재 가족들 2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과거 가족들도 28.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다만 과거가족이 현재가족보다 약간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126〉 가족: 자살시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었음	31	20.0%	33	28.4%
없었음	124	80.0%	83	71.6%
소계	155	100.0%	116	100.0%

□ 자살 시도 횟수

- 은둔당사자들의 자살 시도 횟수에 대해 현재 가족들은 90.3%가 1~2회의 시도를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에 과거 가족들은 69.7%가 1~2회의 자살시도를 하였고, 15.2%가 3~4회의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과거 가족들이 현재 가족보다 자살 시도 횟수를 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음

〈표 127〉 가족: 자살 시도 횟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2회	28	90.3%	23	69.7%
3~4회	0	0.0%	5	15.2%
5회 이상	3	9.7%	5	15.2%
소계	31	100.0%	33	100.0%

13. 식사생활

□ 하루 식사 횟수

- 은둔당사자의 하루 식사생활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1일 1~2끼(45.2%), 배고플 때 먹음(33.7%), 1일 3끼(17.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1일 3끼를 먹는다고 답변한 과거 가족들의 비율(7.0%)이 현재 가족(17.3%)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표 128〉 가족: 하루 식사 횟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일 1~2끼	157	45.2%	119	43.6%
1일 3끼	60	17.3%	19	7.0%
배고플 때 먹음	117	33.7%	125	45.8%
기타	7	2.0%	4	1.5%
모름	6	1.7%	6	2.2%
소계	347	100.0%	273	100.0%

□ 식사 준비방법

- 식사 준비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가족이 준비(40.3%), 스스로 준비(38.9%), 본인이 외부에서 배달(11.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29〉 가족: 식사준비 방법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스스로 준비	135	38.9%	84	30.8%
가족이 준비	140	40.3%	123	45.1%
본인이 외부에서 배달	40	11.5%	44	16.1%
가족이 외부에서 배달	7	2.0%	16	5.9%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6	1.7%	1	0.4%
기타	14	4.0%	1	0.4%
모름	5	1.4%	4	1.5%
소계	347	100.0%	273	100.0%

14. 수면생활

□ 수면의 질

- 은둔당사자의 수면의 질에 대해서 현재 가족들은 상당히 나쁨(37.2%), 매우 나쁨(17.9%), 상당히 좋음(15.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모른다는 응답도 25.1%에 달함
-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나쁨(46.9%), 매우 나쁨(21.2%), 상당히 좋음(7.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른다는 응답도 22.3%에 달함

〈표 130〉 가족: 수면의 질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매우 나쁨	62	17.9%	58	21.2%
상당히 나쁨	129	37.2%	128	46.9%
상당히 좋음	55	15.9%	21	7.7%
매우 좋음	14	4.0%	5	1.8%
모름	87	25.1%	61	22.3%
소계	347	100.0%	273	100.0%

□ 하루 평균 수면시간

- 은둔당사자들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4~8시간 미만 (37.8%), 8~12시간(36.6%), 모름(13.0%)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는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과거 가족들이 현재 가족보다 수면시간 보다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표 131〉 가족: 하루 평균 수면시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4시간 미만	18	5.2%	29	10.6%
4~8시간 미만	131	37.8%	120	44.0%
8~12시간 미만	127	36.6%	69	25.3%
12시간 이상	26	7.5%	23	8.4%
모름	45	13.0%	32	11.7%
소계	347	100.0%	273	100.0%

15. 자기관리 및 청결

□ 회복

- 현재 가족들은 은둔당사자들의 회복과 관련하여 2~3일에 한번(45.8%), 일주일에 한번 (25.1%), 매일(20.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32〉 가족: 자기관리 및 청결도(회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10	2.9%	8	2.9%
2~3주에 한번	21	6.1%	23	8.4%
일주일에 한번	87	25.1%	68	24.9%
2~3일에 한번	159	45.8%	118	43.2%
매일	70	20.2%	56	20.5%
소계	347	100.0%	273	100.0%

□ 목욕/샤워

- 현재 가족들의 경우 2~3일에 한번(40.1%), 매일(34.3%), 일주일에 한번(16.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33〉 가족: 자기관리 및 청결도(목욕/샤워)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6	1.7%	7	2.6%
2-3주에 한번	26	7.5%	19	7.0%
일주일에 한번	57	16.4%	58	21.2%
2-3일에 한번	139	40.1%	117	42.9%
매일	119	34.3%	72	26.4%
소계	347	100.0%	273	100.0%

□ 세수/양치

- 현재 가족들의 경우 매일(69.7%), 2~3일에 한번(21.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응답하고 있음

〈표 134〉 가족: 자기관리 및 청결도(세수/양치)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5	1.4%	7	2.6%
2-3주에 한번	9	2.6%	4	1.5%
일주일에 한번	17	4.9%	20	7.3%
2-3일에 한번	74	21.3%	80	29.3%
매일	242	69.7%	162	59.3%
소계	347	100.0%	273	100.0%

□ 물건 정리·정돈

- 현재 가족들의 경우 한달에 한번(31.4%), 일주일에 한번(23.6%), 2~3일(18.4%)에 한번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35〉 가족: 자기관리 및 청결도(물건 정리·정돈)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109	31.4%	87	31.9%
2-3주에 한번	39	11.2%	47	17.2%
일주일에 한번	82	23.6%	63	23.1%
2-3일에 한번	64	18.4%	48	17.6%
매일	53	15.3%	28	10.3%
소계	347	100.0%	273	100.0%

16. 당사자에게 일어나는(혹은 일어났던) 일

- 당사자에게 일어나는(혹은 일어났던) 일을 솔직하게 적어달라는 주관식 문항과 관련하여 다양한 감정적, 생활패턴, 건강상태 상의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감정적으로는 무기력, 감정기복, 격분, 분노조절 장애, 편집증, 짜증, 불안, 좌절, 흥분, 대인기피, 난폭, 자기비하, 과민반응, 피해의식, 귀차니즘, 좌절, 현실도피, 자기혐오, 자살(시도), 무관심 등의 답변이 이루어졌음
- 일상생활 차원에서는 음주, 불면증, 눈물, 결벽증, 비위생, 반려견, 중독, 험담, 욕설, 유튜브, 게임, 컴퓨터, 악순환, 스마트폰, 홈쇼핑 등의 응답이 이루어졌음
- 보건 차원에서는 건강악화, 알콜중독, 스트레스, 정신과, 아스퍼거 증후군, 초고도비만, 우울증, 조울증 등의 응답이 이루어졌음

〈그림 3〉 당사자에게 일어난 일(주관식)



17. 은둔가족으로 인한 어려움

□ 은둔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함

- 은둔당사자로 인한 어려움 중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함의 정도와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은 매우 그러(47.6%)함과 약간 그러함(44.1%)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과거 가족들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36〉 가족: 은둔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함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10	2.9%	5	1.8%
별로 그렇지 않음	19	5.5%	35	12.8%
약간 그러함	153	44.1%	127	46.5%
매우 그러함	165	47.6%	106	38.8%
소계	347	100.0%	273	100.0%

□ 은둔당사자로 인해 핏병이 생겼음

- 은둔당사자로 인해 핏병이 생긴 정도와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은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별로 그렇지 않음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과거 가족들은 약간 그러함, 별로 그렇지 않음, 매우 그러함 순으로 나타나 보다 긍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37〉 가족: 은둔당사자로 인해 핏병이 생겼음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26	7.5%	21	7.7%
별로 그렇지 않음	75	21.6%	72	26.4%
약간 그러함	153	44.1%	128	46.9%
매우 그러함	93	26.8%	52	19.0%
소계	347	100.0%	273	100.0%

□ 은둔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됨

- 은둔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현재 가족들의 경우 매우 그러함(45.2%), 약간 그러함(37.8%) 순으로 나타나지만,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약간 그러함(42.9%), 매우 그러함(34.4%)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우호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38〉 가족: 은둔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됨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16	4.6%	17	6.2%
별로 그렇지 않음	43	12.4%	45	16.5%
약간 그러함	131	37.8%	117	42.9%
매우 그러함	157	45.2%	94	34.4%
소계	347	100.0%	273	100.0%

□ 은둔당사자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은둔당사자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음을 걱정하는 현재 가족들의 경우 별로 그렇지 않음(34.4%), 전혀 그렇지 않음(31.1%), 약간 그러함(25.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음(37.7%), 약간 그러함(34.1%), 전혀 그렇지 않음(19.4%)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39〉 가족: 은둔당사자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음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108	31.1%	53	19.4%
별로 그렇지 않음	119	34.3%	103	37.7%
약간 그러함	88	25.4%	93	34.1%
매우 그러함	32	9.2%	24	8.8%
소계	347	100.0%	273	100.0%

□ 은둔당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음

- 현재 가족들의 경우 은둔당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음을 걱정하는 문항과 관련하여 전혀 그렇지 않음(32.3%), 별로 그렇지 않음(31.4%), 약간 그러함(27.4%)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별로 그렇지 않음(36.6%), 약간 그러함(34.4%), 전혀 그렇지 않음(20.5%) 순으로 나타나 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40〉 가족: 은둔당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음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112	32.3%	56	20.5%
별로 그렇지 않음	109	31.4%	100	36.6%
약간 그러함	95	27.4%	94	34.4%
매우 그러함	31	8.9%	23	8.4%
소계	347	100.0%	273	100.0%

□ 은둔하고 있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됨

- 은둔하고 있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현재 가족들의 경우 약간 그러함(35.7%), 별로 그렇지 않음(28.8%), 전혀 그렇지 않음(19.6%)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약간 그러함(42.5%), 별로 그렇지 않음(26.0%), 매우 그러함(16.8%) 순으로 응답하여 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41〉 가족: 은둔하고 있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됨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68	19.6%	40	14.7%
별로 그렇지 않음	100	28.8%	71	26.0%
약간 그러함	124	35.7%	116	42.5%
매우 그러함	55	15.9%	46	16.8%
소계	347	100.0%	273	100.0%

□ 은둔 당사자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

- 은둔당사자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걱정되는 현재 가족들의 경우 약간 그러함(40.3%), 매우 그러함(22.8%), 별로 그렇지 않음(21.9%)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약간 그러함(41.0%), 별로 그렇지 않음(26.0%), 매우 그러함(17.2%)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가족의 경우보다 약간 우호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42〉 가족: 은둔당사자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52	15.0%	43	15.8%
별로 그렇지 않음	76	21.9%	71	26.0%
약간 그러함	140	40.3%	112	41.0%
매우 그러함	79	22.8%	47	17.2%
소계	347	100.0%	273	100.0%

□ 은둔 당사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 현재 가족들의 경우 은둔당사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음(51.0%), 별로 그렇지 않음(25.1%), 약간 그러함(16.4%)순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표 143〉 가족: 은둔당사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177	51.0%	124	45.4%
별로 그렇지 않음	87	25.1%	90	33.0%
약간 그러함	57	16.4%	40	14.7%
매우 그러함	26	7.5%	19	7.0%
소계	347	100.0%	273	100.0%

□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힘들

-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힘들다는 문항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의 경우 약간 그러함(44.1%), 매우 그러함(41.5%), 별로 그렇지 않음(11.0%)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약간 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표 144〉 가족: 해결할 방법이 없어 힘들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12	3.5%	23	8.4%
별로 그렇지 않음	38	11.0%	46	16.8%
약간 그러함	153	44.1%	127	46.5%
매우 그러함	144	41.5%	77	28.2%
소계	347	100.0%	273	100.0%

□ 은둔 당사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움

- 은둔당사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현재 가족들의 경우 매우 그러함(55.6%), 약간 그러함(34.3%)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현재 가족들이 과거 가족들보다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표 145〉 가족: 은둔당사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10	2.9%	15	5.5%
별로 그렇지 않음	25	7.2%	29	10.6%
약간 그러함	119	34.3%	119	43.6%
매우 그러함	193	55.6%	110	40.3%
소계	347	100.0%	273	100.0%

□ 은둔 당사자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짐

-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과 과거 가족들 모두 유사한 응답비율로 약간 그러함(42.1%, 45.4%), 매우 그러함(28.2%, 27.5%), 별로 그렇지 않음(20.7%, 21.2%) 순으로 나타나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46〉 가족: 은둔당사자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짐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31	8.9%	16	5.9%
별로 그렇지 않음	72	20.7%	58	21.2%
약간 그러함	146	42.1%	124	45.4%
매우 그러함	98	28.2%	75	27.5%
소계	347	100.0%	273	100.0%

18. 주거생활

□ 동거식구

- 은둔가족의 가구 유형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은 7.8%가 1인 가구라고 응답하였고, 과거 가족들은 8.4%가 1인 가구라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음
- 1세대 가구의 경우에도 두 집단 각각 41.2%, 42.1%로 응답하고 있어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47〉 은둔가족의 가구유형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인 가구	27	7.8%	23	8.4%
1세대 가구(부부, 형제자매 등)	143	41.2%	115	42.1%
2세대 가구(부부+자녀, 부부+부모+조부모+손자녀 등)	138	39.8%	120	44.0%
3세대 이상(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	24	6.9%	9	3.3%
비혈연가구	2	0.6%	0	0.0%
기타	13	3.7%	6	2.2%
소계	347	100.0%	273	100.0%

□ 주택유형

- 은둔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아파트(60.8%),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23.9%), 단독주택(7.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30.4%)과 단독주택(12.1%)을 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음

〈표 148〉 은둔가족의 거주 주택유형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단독주택	25	7.2%	33	12.1%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	83	23.9%	83	30.4%
아파트	211	60.8%	140	51.3%
오피스텔	19	5.5%	7	2.6%
고시원	4	1.2%	1	0.4%
원룸	4	1.2%	9	3.3%
기타	1	0.3%	0	0.0%
소계	347	100.0%	273	100.0%

□ 소유형태

- 은둔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자가(62.5%), 전세(15.9%), 월세(15.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현재 가족들의 경우 자가의 응답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49〉 은둔가족 주택의 소유형태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자가	217	62.5%	145	53.1%
전세	55	15.9%	66	24.2%
월세	54	15.6%	51	18.7%
무상	4	1.2%	5	1.8%
기타	10	2.9%	3	1.1%
모름	7	2.0%	3	1.1%
소계	347	100.0%	273	100.0%

19. 신체질환

□ 신체질환 여부

- 은둔가족이 신체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인지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은 38.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과거 가족들은 28.6%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현재 가족들이 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50〉 은둔가족의 신체질환 여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135	38.9%	78	28.6%
아니오	169	48.7%	159	58.2%
모름	43	12.4%	36	13.2%
소계	347	100.0%	273	100.0%

□ 신체질환 유형(중복응답)

- 은둔가족이 앓고 있는 신체질환 유형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은 순환기계(19.0%), 소화기계(17.3%), 근골격계(15.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과거 가족들은 소화기계(22.5%), 순환기계(16.7%), 호흡기계(15.0%) 순으로 응답하였음
- 두 집단 모두 은둔가족들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순환기계와 소화기계를 선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정책 상의 대책이 필요함

〈표 151〉 은둔가족이 앓고 있는 신체질환 유형(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순환기계	44	19.0%	20	16.7%
소화기계	40	17.3%	27	22.5%
호흡기계	19	8.2%	18	15.0%
내분비계	30	13.0%	12	10.0%
근골격계	35	15.2%	15	12.5%
안과계	13	5.6%	5	4.2%
치주병, 악성종양 등	8	3.5%	6	5.0%
기타	42	18.2%	17	14.2%
소계	231	100.0%	120	100.0%

□ 신체질환 치료여부

- 신체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은 45.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과거 가족들은 74.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표 152〉 은둔가족의 신체질환 치료여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62	45.9%	58	74.4%
아니오	73	54.1%	20	25.6%
소계	135	100.0%	78	100.0%

20. 정신질환

□ 정신질환 여부

- 은둔가족이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요하는지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은 39.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과거 가족들은 27.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현재 가족들이 보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표 153〉 은둔가족의 정신질환 여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136	39.2%	75	27.5%
아니오	147	42.4%	146	53.5%
모름	64	18.4%	52	19.0%
소계	347	100.0%	273	100.0%

□ 정신질환 유형(중복응답)

- 은둔가족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우울증(40.2%), 불안장애(18.4%), 강박장애(8.8%)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우울증(41.0%), 불안장애(17.9%), 공황장애(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두 집단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 가족들이 경우 조울장애(11.5%)와 공황장애(12.2%)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표 154〉 은둔가족의 정신질환 유형(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조울장애	16	6.7%	18	11.5%
우울증	96	40.2%	64	41.0%
조현병	14	5.9%	7	4.5%
불안장애	44	18.4%	28	17.9%
양극성 장애	8	3.3%	8	5.1%
공황장애	19	7.9%	19	12.2%
강박장애	21	8.8%	10	6.4%
기타	21	8.8%	2	1.3%
소계	239	100.0%	156	100.0%

□ 정신질환 치료여부

-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현재 가족들의 경우 30.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56.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표 155〉 은둔가족의 정신질환 치료여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41	30.1%	42	56.0%
아니오	95	69.9%	33	44.0%
소계	136	100.0%	75	100.0%

21. 가족 중 주대화상대

- 은둔가족이 누구와 주로 대화하는지에 대한 문항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어머니(51.0%), 형제 혹은 자매(17.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어머니(42.1%), 형제 혹은 자매(30.8%) 순으로 나타남
- 다만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응답비율이 과거 가족들의 경우(17.2%)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56〉 가족: 은둔당사자의 가족 중 주 대화상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아버지	10	2.9%	11	4.0%
어머니	177	51.0%	115	42.1%
형제 혹은 자매	62	17.9%	84	30.8%
조부모	4	1.2%	4	1.5%
기타	54	15.6%	12	4.4%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음	40	11.5%	47	17.2%
소계	347	100.0%	273	100.0%

22. 가족과의 갈등

- 가족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그저 그렇다(35.7%), 심각한 편이다(31.1%), 매우 심각하다(15.6%)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심각한 편이다(43.2%), 그저 그렇다(30.4%), 매우 심각하다(11.0%) 순으로 나타남
- 과거 가족들의 경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57〉 가족: 은둔당사자와 가족과의 갈등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심각하지 않다	13	3.7%	6	2.2%
별로 심각하지 않다	48	13.8%	36	13.2%
그저 그렇다	124	35.7%	83	30.4%
심각한 편이다	108	31.1%	118	43.2%
매우 심각하다	54	15.6%	30	11.0%
소계	347	100.0%	273	100.0%

23. 가족의 관점에서 은둔 당사자의 인식

- 은둔 당사자가 본인의 은둔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46.1%),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36.6%)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51.3%),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33.3%) 순으로 나타나 현재 가족보다 은둔당사자들의 본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58〉 가족: 은둔가족의 본인 인식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	127	36.6%	140	51.3%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160	46.1%	91	33.3%
모르겠음	60	17.3%	42	15.4%
소계	347	100.0%	273	100.0%

24.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중복응답)

- 은둔가족이 본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견(40.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스스로 노력(17.9%), 가족·친구 등과 의논(14.9%)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스스로 노력하였다는 의견(30.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가족·친구 등과 의논(27.6%), 특별히 노력하지 않음(15.7%) 순으로 나타나 현재 가족들이 과거 가족들보다 부정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59〉 가족: 은둔가족의 문제해결 노력(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스스로 노력(운동, 자격증 공부 등)	30	17.9%	64	30.5%
정부지원 등 외부의 공적지원을 알아봄	24	14.3%	25	11.9%
가족, 친구 등과 의논	25	14.9%	58	27.6%
전문가, 전문기관 등 외부의 전문적 지원을 알아봄	14	8.3%	26	12.4%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있음	68	40.5%	33	15.7%
기타	7	4.2%	4	1.9%
소계	168	100.0%	210	100.0%

25. 사회적 지지(중복응답)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은둔가족들이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가족들은 가족·친척, 친구, 없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60〉 가족: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213	54.2%	159	49.8%
친구	69	17.6%	74	23.2%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16	4.1%	19	6.0%
없음	60	15.3%	39	12.2%
모름	35	8.9%	28	8.8%
소계	393	100.0%	319	100.0%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은둔가족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가족들은 가족·친척(63.8%), 없음(14.6%), 친구(13.8%) 순으로 응답한 반면에 과거 가족들은 가족·친척(58.0%), 친구(19.3%), 없음(9.8%) 순으로 응답하였음
- 현재 가족들의 경우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거 가족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61〉 가족: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240	63.8%	177	58.0%
친구	52	13.8%	59	19.3%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8	2.1%	14	4.6%
없음	55	14.6%	30	9.8%
모름	21	5.6%	25	8.2%
소계	376	100.0%	305	100.0%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은둔가족들이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가족들은 가족·친척(64.0%), 없음(19.0%), 친구(9.5%) 순으로 응답한 반면에 과거 가족들은 가족·친척(62.6%), 친구(14.6%), 없음(9.5%) 순으로 응답하였음
- 현재 가족들이 친구가 있다는 의견(9.5%)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아무도 없다는 의견(19.0%)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과거 가족들의 경우보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62〉 가족: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236	64.0%	184	62.6%
친구	35	9.5%	43	14.6%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6	1.6%	11	3.7%
없음	70	19.0%	28	9.5%
모름	22	6.0%	28	9.5%
소계	369	100.0%	294	100.0%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은둔가족들이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가족들의 경우 가족·친척(38.8%), 없음(22.7%), 친구(16.0%)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가족·친척(42.7%), 친구(20.0%), 없음(15.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가족들의 경우 없다는 의견(22.7%)이 과거 가족들의 경우보다 높아 사회자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63〉 가족: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145	38.8%	128	42.7%
친구	60	16.0%	60	20.0%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14	3.7%	15	5.0%
없음	85	22.7%	46	15.3%
모름	70	18.7%	51	17.0%
소계	374	100.0%	300	100.0%

26.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 은둔가족이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없음(68.9%),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13.5%), 지자체·관공서의 도움(11.0%)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이 없다는 의견이 현재 가족들의 경우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단절의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표 164〉 가족: 은둔가족이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없음	239	68.9%	160	58.6%
지자체, 관공서의 도움	38	11.0%	19	7.0%
민간단체, 민간기관의 도움	8	2.3%	15	5.5%
종교기관의 도움	8	2.3%	16	5.9%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47	13.5%	61	22.3%
기타	7	2.0%	2	0.7%
소계	347	100.0%	273	100.0%

27. 도움 후의 변화

- 은둔가족이 외부도움을 받은 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음(41.7%), 약간 좋아짐(34.3%)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약간 좋아짐(53.1%), 별다른 변화가 없음(33.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가족들이 과거 가족들의 경우보다 부정적인 입장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165〉 가족: 도움 후의 변화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음	22	20.4%	5	4.4%
별다른 변화가 없음	45	41.7%	38	33.6%
약간 좋아짐	37	34.3%	60	53.1%
많이 좋아짐	4	3.7%	10	8.8%
소계	108	100.0%	113	100.0%

28. 회복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중복응답)

- 은둔당사자를 위해 가족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가족의 경우 취업 및 직업훈련 권유(22.1%)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취미·문화생활 권유(19.4%), 대화를 하며 믿고 격려해줌(17.7%),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 받기를 권유(14.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대화를 하며 믿고 격려(21.4%)해주거나 취미·문화생활을 권유(21.7%)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 및 직업훈련 권유(20.0%),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받기 권유(13.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66〉 가족: 은둔가족의 회복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취업 및 직업훈련을 권유	197	22.1%	115	20.0%
취미, 문화생활을 권유	173	19.4%	123	21.4%
대화를 하며 믿고 격려해줌	158	17.7%	125	21.7%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기를 권유	125	14.0%	78	13.6%
상담센터 등 상담 서비스 기관을 알아봄	87	9.8%	43	7.5%
민간이나 공공영역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봄	64	7.2%	30	5.2%
고립, 은둔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 자문 등을 받음	23	2.6%	20	3.5%
자조모임을 나감	4	0.4%	5	0.9%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	44	4.9%	32	5.6%
기타	16	1.8%	4	0.7%
소계	891	100.0%	575	100.0%

29. 은둔당사자 지원 필요성

- 은둔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매우 필요함(51.3%), 필요함(33.4%), 보통(12.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순위의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67〉 가족: 은둔당사자 지원 필요성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필요없음	2	0.6%	1	0.4%
필요없음	9	2.6%	13	4.8%
보통	42	12.1%	38	13.9%
필요함	116	33.4%	110	40.3%
매우 필요함	178	51.3%	111	40.7%
소계	347	100.0%	273	100.0%

30. 가족 지원 필요성

-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은둔당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필요함(41.5%), 필요함(37.5%), 보통(13.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순위의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68〉 가족: 가족 지원 필요성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필요없음	3	0.9%	4	1.5%
필요없음	23	6.6%	10	3.7%
보통	47	13.5%	53	19.4%
필요함	130	37.5%	97	35.5%
매우 필요함	144	41.5%	109	39.9%
소계	347	100.0%	273	100.0%

31. 지원 서비스 참여의향

-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전체평균이 3.6840이 나오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3.7333으로 나와 과거 가족들이 보다 우호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 가족들의 경우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 의사소통을 기술교육, 공간지원, 안식공유 프로그램, 공동작업 프로그램, 지식과 정보제공,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생활서비스 지원, 상점이용 쿠폰, 질병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관심분야 교육 등을 보다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 공간지원, 안식공유 프로그램, 공동작업 프로그램, 지식과 정보제공,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생활서비스 지원, 질병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관심분야 교육 등을 보다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 두 집단 모두의 경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69〉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평균	응답자 수	평균
메타버스(혹은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	347	3.7262	273	3.8388
거주지 방문 상담 서비스	347	3.1614	273	3.3846
거주지 밖(카페 등) 상담 서비스	347	3.5476	273	3.6154
정기상담, 긴급상황 등 밀착사례관리	347	3.4582	273	3.7216
참여자 간 자조모임(소속감, 경험 나누기)	347	3.4323	273	3.4396
공감대 형성 및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교육	347	3.7147	273	3.7253
소셜다이닝 등 열린 소통모임	347	3.4294	273	3.5238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지원	347	3.7550	273	3.8132
안식공유 프로그램(휴식, 운동, 게임 등)	347	3.9280	273	3.9377
공동작업 프로그램(공예, 부업, 일체험 등)	347	3.8905	273	3.8864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	347	3.0086	273	3.0000
은둔생활 극복을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	347	3.9049	273	3.8718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347	4.0403	273	3.9121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347	3.9625	273	3.9377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347	3.8184	273	3.8315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평균	응답자 수	평균
상점이용쿠폰 지원	347	3.8213	273	3.7875
힐링 하우스 사업(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347	3.5014	273	3.7326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347	3.8559	273	3.9853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347	3.8098	273	3.8278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지원(AI 역량, 목공예 등)	347	3.9135	273	3.8938
전체평균		3.6840		3.7333

32.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 은둔당사자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재 가족들의 경우 은둔가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상담(23.0%), 은둔자녀와의 소통 활성화·상호이해를 위한 부모상담(22.4%), 은둔당사자를 둔 가족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지원(20.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가족들의 경우에는 은둔가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상담(23.7%), 은둔자녀와의 소통 활성화·상호이해를 위한 부모상담(24.1%), 은둔당사자를 둔 가족들의 변화와 회복을 촉진하는 종합 프로그램(24.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70〉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은둔자녀와의 소통 활성화, 상호이해를 위한 부모상담	162	22.4%	136	24.1%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 간 모임	76	10.5%	73	12.9%
은둔가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상담	166	23.0%	134	23.7%
은둔당사자를 둔 가족을 위한 문화, 여가활동 지원	145	20.1%	104	18.4%
은둔당사자를 둔 가족들의 변화와 회복을 촉진하는 종합 프로그램	155	21.5%	110	19.5%
기타	18	2.5%	8	1.4%
소계	722	100.0%	565	100.0%

33. 최소 은둔기간

- 은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현재 가족들의 경우 6개월~1년 미만 (30.3%), 3개월~6개월 미만(29.4%), 1년~2년 미만(18.2%)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과거 가족들의 경우 6개월~1년 미만(31.1%), 3개월~6개월 미만(27.5%), 3개월 미만 (26.0%)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가족들이 최소은둔기간을 약간 더 길게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표 171〉 가족: 최소 은둔기간

구분	현재		과거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3개월 미만	52	15.0%	71	26.0%
3개월~6개월 미만	102	29.4%	75	27.5%
6개월~1년 미만	105	30.3%	85	31.1%
1년~2년 미만	63	18.2%	37	13.6%
2년 이상	25	7.2%	5	1.8%
소계	347	100.0%	273	100.0%

제4절 은둔 당사자와 가족의 비교분석

1. 외출빈도

- 외출빈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병원 등에 외출한다(42.1%),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24.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경우와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72〉 당사자와 가족의 외출빈도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163	11.4%	72	11.6%
자기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	347	24.2%	212	34.2%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병원 등에 외출한다	603	42.1%	257	41.5%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190	13.3%	39	6.3%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95	6.6%	28	4.5%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은 외출한다	34	2.4%	12	1.9%
소계	1432	100.0%	620	100.0%

2. 총은둔기간

- 총은둔기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경우 1년 이상~3년 미만(31.7%), 6개월 이상~1년 미만(22.7%), 3개월 이상~6개월 미만(21.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의 경우에도 당사자와 동일한 응답순위를 보여주고 있음

〈표 173〉 당사자와 가족의 총은둔기간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301	21.0%	82	13.2%
6개월 이상-1년 미만	325	22.7%	115	18.5%
1년 이상-3년 미만	454	31.7%	196	31.6%
3년 이상-5년 미만	181	12.6%	97	15.6%
5년 이상-7년 미만	61	4.3%	39	6.3%
7년 이상-10년 미만	50	3.5%	40	6.5%
10년 이상	60	4.2%	51	8.2%
소계	1432	100.0%	620	100.0%

3. 은둔배경

□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 성인이 되기 전에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39.5%, 없다는 응답이 60.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40.8%, 없다는 응답이 49.0% 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응답순위를 보여주고 있음

〈표 174〉 당사자와 가족: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565	39.5%	253	40.8%
없다	867	60.5%	304	49.0%
모름	0	0.0%	63	10.2%
소계	1432	100.0%	620	100.0%

□ 부모(혹은 그 외에 은둔가족을 키워준 사람)가 은둔가족을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 부모가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경우 47.9%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족의 경우 53.2%가 있다고 응답하여 당사자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175〉 당사자와 가족: 부모가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685	47.9%	330	53.2%
없다	746	52.1%	216	34.8%
모름	0	0.0%	74	11.9%
소계	1431	100.0%	620	100.0%

□ 가족 중 누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 가족 중 누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36.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들의 경우 29.7%가 있다고 응답하여 당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176〉 당사자와 가족: 가족 중 누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518	36.2%	184	29.7%
없다	913	63.8%	378	61.0%
모름	0	0.0%	58	9.4%
소계	1431	100.0%	620	100.0%

□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54.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들의 경우 61.3%가 있다고 응답하여 가족들이 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177〉 당사자와 가족: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784	54.8%	380	61.3%
없다	647	45.2%	208	33.5%
모름	0	0.0%	32	5.2%
소계	1431	100.0%	620	100.0%

□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62.7%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들의 경우 63.9%가 응답하여 두 집단이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78〉 당사자와 가족: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897	62.7%	396	63.9%
없다	534	37.3%	196	31.6%
모름	0	0.0%	28	4.5%
소계	1431	100.0%	620	100.0%

□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44.9%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46.3%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79〉 당사자와 가족: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다	642	44.9%	287	46.3%
없다	789	55.1%	203	32.7%
모름	0	0.0%	130	21.0%
소계	1431	100.0%	620	100.0%

4. 은둔의 원인

- 은둔의 이유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직업관련 어려움(37.4%), 정신적 어려움(17.6%), 대인관계 어려움(13.9%), 가족관련 어려움(7.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들의 경우 직업관련 어려움(32.4%), 대인관계 어려움(20.0%), 정신적 어려움(13.9%), 가족관련 어려움(10.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사자들의 경우 가족들의 경우보다 정신적 어려움을, 가족들의 경우 당사자들의 경우보다 대인관계 어려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표 180〉 당사자와 가족: 은둔 원인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학업관련 어려움(진학, 성적, 입시 등)	97	6.8%	49	7.9%
직업관련 어려움(취업, 실직 등)	535	37.4%	201	32.4%
가족관련 어려움(갈등, 이혼, 사망 등)	110	7.7%	66	10.6%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직장동료 등)	199	13.9%	124	20.0%
건강상의 어려움(장애, 질병 등)	80	5.6%	43	6.9%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	252	17.6%	86	13.9%
가정폭력, 학교폭력(학대, 따돌림 등)	21	1.5%	12	1.9%
이유없음	84	5.9%	10	1.6%
기타	54	3.8%	17	2.7%
모름	0	0.0%	12	1.9%
소계	1432	100.0%	620	100.0%

5. 은둔생활 경험

□ 은둔생활 첫 경험 여부

- 은둔 경험이 처음인지를 묻는 문항에서 당사자들의 경우 64.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81.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족들의 경우 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181〉 당사자와 가족: 은둔생활 첫 경험 여부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431	64.3%	282	81.3%
아니오	239	35.7%	65	18.7%
소계	670	100.0%	347	100.0%

□ 총 은둔횟수

- 그 동안 몇 번의 은둔생활 경험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1회 42.5%, 2회 30.3%, 3회 13.2%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1회 53.6%, 2회 23.7%, 3회 13.9%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동일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82〉 당사자와 가족: 총 은둔횟수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회	425	42.5%	181	53.6%
2회	303	30.3%	80	23.7%
3회	132	13.2%	47	13.9%
4회	25	2.5%	5	1.5%
5회 이상	115	11.5%	25	7.4%
소계	1000	100.0%	338	100.0%

□ 최근 은둔기간

- 최근 은둔기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경우 1년~2년 미만(32.7%), 7개월~1년 미만(23.6%), 2년~3년 미만(13.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의 경우에도 1년~2년 미만(27.1%), 7개월~1년 미만(20.2%), 2년~3년 미만(18.5%) 순으로 나타나 동일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83〉 당사자와 가족: 최근 은둔기간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6개월 이내	106	10.7%	38	11.3%
7개월~1년 미만	234	23.6%	68	20.2%
1년~2년 미만	324	32.7%	91	27.1%
2년~3년 미만	133	13.4%	62	18.5%
3년~5년 미만	120	12.1%	48	14.3%
5년~7년 미만	38	3.8%	12	3.6%
7년 이상	36	3.6%	17	5.1%
소계	991	100.0%	336	100.0%

□ 은둔 첫시기

- 언제 처음으로 은둔하였는지를 묻는 문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20~29세 이하(46.3%), 30~39세 이하(33.5%), 40세 이상(14.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20~29세 이하(45.0%), 30~39세 이하(28.4%), 40세 이상(16.0%)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일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84〉 당사자와 가족: 은둔 첫시기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3세 이하(초등학교)	10	1.0%	2	0.6%
14~16세 이하(중학교)	12	1.2%	10	3.0%
17~19세 이하(고등학교)	41	4.1%	24	7.1%
20~29세 이하	463	46.3%	152	45.0%
30~39세 이하	335	33.5%	96	28.4%
40세 이상	140	14.0%	54	16.0%
소계	1001	100.0%	338	100.0%

6. 출근경험

□ 출근 경험여부

- 은둔당사자가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72.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의 경우 52.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당사자들이 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185〉 당사자와 가족: 출근 경험여부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1041	72.7%	325	52.4%
아니오	391	27.3%	276	44.5%
모름	0	0.0%	19	3.1%
소계	1432	100.0%	620	100.0%

□ 은둔생활 전 근무기간

- 은둔생활 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6년 이상(29.5%), 1년~2년 미만(22.1%), 2년~3년 미만(15.5%)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는 6년 이상(24.8%), 2년~3년 미만(22.6%), 1년~2년 미만(2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두 집단 모두 6년 이상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지만 1년~2년 미만도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어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86〉 당사자와 가족: 은둔생활 전 근무기간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6개월 미만	16	1.6%	5	1.6%
6개월~1년 미만	21	2.1%	4	1.3%
1년~2년 미만	219	22.1%	71	22.3%
2년~3년 미만	153	15.5%	72	22.6%
3년~4년 미만	152	15.4%	55	17.2%
4년~5년 미만	55	5.6%	12	3.8%
5년~6년 미만	81	8.2%	21	6.6%
6년 이상	292	29.5%	79	24.8%
소계	989	100.0%	319	100.0%

□ 은둔생활 전 근무직종(중복응답)

- 은둔생활 전에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경우 사무직 33.6%, 판매·서비스직 23.8%, 생산직 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의 경우에는 사무직 23.6%, 판매·서비스직 21.6%, 생산직 15.7% 순으로 나타났음

〈표 187〉 당사자와 가족: 은둔생활 전 근무직종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사무직	475	33.6%	93	23.6%
생산직	174	12.3%	62	15.7%
관리직	68	4.8%	22	5.6%
판매/서비스직	337	23.8%	85	21.6%
전문직	76	5.4%	20	5.1%
교육/연구직	79	5.6%	20	5.1%
단순노무직	75	5.3%	57	14.5%
농림어업직	2	0.1%	0	0.0%
문화예술인	37	2.6%	4	1.0%
공무원	13	0.9%	5	1.3%
모름	0	0.0%	4	1.0%
기타	77	5.4%	22	5.6%
소계	1413	100.0%	394	100.0%

□ 퇴사 이유(중복응답)

- 퇴사 이유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부당한 처우(13.4%), 업무소진(12.7%), 열악한 근무환경(12.3%),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12.0%)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14.8%), 업무소진(13.1%), 부당한 처우(11.9%), 열악한 근무환경(10.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사자들의 경우 부당한 처우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에는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응답비율 상의 차이는 크지 않음

〈표 188〉 당사자와 가족: 퇴사 이유 비교(중복응답)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적성 및 흥미 불일치	226	10.7%	58	10.6%
경력발전 기회부족	161	7.6%	31	5.7%
열악한 근무환경	259	12.3%	59	10.8%
부당한 처우(낮은 보상 등)	283	13.4%	65	11.9%
일과 삶의 균형문제	189	9.0%	38	6.9%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252	12.0%	81	14.8%
업무소진(업무 스트레스 등)	268	12.7%	72	13.1%
가족 및 개인사정	157	7.5%	28	5.1%
회사의 경영악화	130	6.2%	41	7.5%
모름	0	0.0%	26	4.7%
기타	181	8.6%	49	8.9%
소계	2106	100.0%	548	100.0%

7. 생활비 마련

-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본인이 벌어놓은/모아둔 돈으로 생활(40.7%), 가족의 도움(36.5%),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소한도로 일함(8.2%) 순으로 응답한 반면에 가족들은 가족의 도움(59.7%), 본인이 벌어놓은/모아둔 돈으로 생활(23.4%),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소한도로 일함(5.0%) 순으로 응답하였음
- 가족의 도움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인식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189〉 당사자와 가족: 생활비 마련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본인이 벌어놓은/모아둔 돈으로 생활	583	40.7%	145	23.4%
가족의 도움	522	36.5%	370	59.7%
이웃, 친지, 아는 사람의 도움	33	2.3%	15	2.4%
종교기관의 도움	9	0.6%	5	0.8%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12	0.8%	9	1.5%
관공서의 지원	50	3.5%	12	1.9%
생활비를 벌기위해 최소한도로 일함	118	8.2%	31	5.0%
대출금/카드론	50	3.5%	12	1.9%
기타	55	3.8%	14	2.3%
모름	0	0.0%	7	1.1%
소계	1432	100.0%	620	100.0%

8. 집에서 자주하는 활동(중복응답)

- 집에서 자주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인터넷·스마트폰(24.3%), 유튜브 등 동영상 보기(19.2%), 잠자기(16.2%), 인터넷 게임(1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 인터넷·스마트폰(22.6%), 유튜브 등 동영상 보기(17.8%), 잠자기(17.5%), 인터넷 게임(14.5%)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90〉 당사자와 가족: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 비교(중복응답)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인터넷 게임	502	11.7%	269	14.5%
인터넷/스마트폰	1045	24.3%	420	22.6%
TV 보기	397	9.2%	169	9.1%
유튜브 등 영상보기	823	19.2%	331	17.8%
잠자기(수면)	696	16.2%	326	17.5%
음악듣기	122	2.8%	45	2.4%
독서	90	2.1%	45	2.4%
실내운동	59	1.4%	23	1.2%
취미활동(악기, 그림 등)	72	1.7%	31	1.7%
아무것도 안함(누워있기)	420	9.8%	153	8.2%
기타	70	1.6%	38	2.0%
모름	0	0.0%	10	0.5%
소계	4296	100.0%	1860	100.0%

9. 정보출처

-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온라인 매체(90.7%)를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온라인 매체(75.8%)를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는 있지만 당사자와는 달리 가족 및 지인(8.5%), 언론(6.0%) 등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1〉 당사자와 가족: 정보 출처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온라인 매체	1299	90.7%	470	75.8%
언론	44	3.1%	37	6.0%
유관기관	11	0.8%	17	2.7%
가족 및 지인	46	3.2%	53	8.5%
정부부처 및 지자체	11	0.8%	4	0.6%
기타	21	1.5%	8	1.3%
모름	0	0.0%	31	5.0%
소계	1432	100.0%	620	100.0%

10.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몇 명인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전혀 없음, 1명, 2~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전혀 없음, 1명, 2~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두 집단 모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자본의 결핍이 확인되고 있음

〈표 192〉 당사자와 가족: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음	654	45.7%	215	34.7%
1명	502	35.1%	213	34.4%
2~3명	254	17.7%	111	17.9%
4명 이상	22	1.5%	12	1.9%
모름	0	0.0%	69	11.1%
소계	1432	100.0%	620	100.0%

11. 자살에 대한 태도

□ 자살의향

-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혹은 당사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71.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43.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당사자의 경우 훨씬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193〉 당사자와 가족: 자살의향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었음	1019	71.2%	271	43.7%
없었음	413	28.8%	349	56.3%
소계	1432	100.0%	620	100.0%

□ 자살시도

-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25.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23.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음

〈표 194〉 당사자와 가족: 자살시도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있었음	260	25.5%	64	23.6%
없었음	759	74.5%	207	76.4%
소계	1019	100.0%	271	100.0%

□ 자살시도 횟수

- 자살시도 횟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경우 1~2회(58.8%), 3~4회(24.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가족의 경우 1~2회를 보다 높은 비율(79.7%)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당사자의 경우 5회 이상을 보다 높은 비율(16.9%)로 응답하고 있어 당사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더 높은 자살시도 횟수를 보여주고 있음

〈표 195〉 당사자와 가족: 자살시도 횟수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2회	153	58.8%	51	79.7%
3~4회	63	24.2%	5	7.8%
5회 이상	44	16.9%	8	12.5%
소계	260	100.0%	64	100.0%

12. 식사생활

□ 하루식사 횟수

- 하루식사 횟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1일 1~2끼(53.8%), 배고플 때 먹음(36.2%), 1일 3끼(8.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1일 1~2끼(44.5%), 배고플 때 먹음(39.0%), 1일 3끼(12.7%)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집단 모두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96〉 당사자와 가족: 하루식사 횟수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일 1~2끼	771	53.8%	276	44.5%
1일 3끼	116	8.1%	79	12.7%
배고플때 먹음	518	36.2%	242	39.0%
기타	27	1.9%	11	1.8%
모름	0	0.0%	12	1.9%
소계	1432	100.0%	620	100.0%

□ 식사 준비방법

- 식사 준비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스스로 준비(50.1%), 본인이 외부에서 배달(23.1%), 가족이 준비(22.3%)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들은 가족이 준비(42.4%), 스스로 준비(35.3%), 본인이 외부에서 배달(13.5%) 순으로 응답하여 가족이 준비한다는 의견을 보다 높은 비율로 선택하고 있음

〈표 197〉 당사자와 가족: 식사 준비방법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스스로 준비	717	50.1%	219	35.3%
가족이 준비	319	22.3%	263	42.4%
본인이 외부에서 배달	331	23.1%	84	13.5%
가족이 외부에서 배달	22	1.5%	23	3.7%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6	0.4%	7	1.1%
기타	37	2.6%	15	2.4%
모름	0	0.0%	9	1.5%
소계	1432	100.0%	620	100.0%

13. 수면생활

□ 수면의 질

- 수면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당사자들은 상당히 나쁘다는 의견(53.4%)을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상당히 좋음(22.9%), 매우 나쁨(22.1%)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상당히 나쁨(41.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나쁨(19.4%), 상당히 좋음(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족들 다 당사자들이 수면의 질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패턴이 확인되고 있음

〈표 198〉 당사자와 가족: 수면의 질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매우 나쁨	316	22.1%	120	19.4%
상당히 나쁨	765	53.4%	257	41.5%
상당히 좋음	328	22.9%	76	12.3%
매우 좋음	23	1.6%	19	3.1%
모름	0	0.0%	148	23.9%
소계	1432	100.0%	620	100.0%

□ 하루 평균 수면시간

-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4~8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8~12시간, 12시간 이상 순으로 나타나고, 가족들의 경우에도 4~8시간(40.5%), 8~12시간(31.6%), 12시간 이상(7.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사자들이 가족들보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더 적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표 199〉 당사자와 가족: 하루 평균 수면시간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4시간 미만	129	9.0%	47	7.6%
4~8시간 미만	715	49.9%	251	40.5%
8~12시간 미만	433	30.2%	196	31.6%
12시간 이상	155	10.8%	49	7.9%
모름	0	0.0%	77	12.4%
소계	1432	100.0%	620	100.0%

14. 자기관리 및 청결

□ 회복

- 자기관리 및 청결을 위한 회복의 경우 당사자들은 2~3일에 한번(49.7%), 일주일에 한번(22.1%), 매일(20.2%)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가족의 경우에도 2~3일에 한번(44.7%), 일주일에 한번(25.0%), 2~3일에 한번(20.3%)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두 집단 간에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200〉 당사자와 가족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회복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30	2.1%	18	2.9%
2~3주에 한번	85	5.9%	44	7.1%
일주일에 한번	316	22.1%	155	25.0%
2~3일에 한번	712	49.7%	277	44.7%
매일	289	20.2%	126	20.3%
소계	1432	100.0%	620	100.0%

□ 목욕/샤워

- 자기관리 및 청결을 위한 목욕·샤워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2~3일에 한번(47.1%), 매일(29.3%), 일주일에 한번(15.3%)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2~3일에 한번(41.3%), 매일(30.8%), 일주일에 한번(18.5%)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두 집단 간에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201〉 당사자와 가족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목욕·샤워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37	2.6%	13	2.1%
2-3주에 한번	82	5.7%	45	7.3%
일주일에 한번	219	15.3%	115	18.5%
2-3일에 한번	675	47.1%	256	41.3%
매일	419	29.3%	191	30.8%
소계	1432	100.0%	620	100.0%

□ 세수/양치

- 자기관리 및 청결을 위한 세수·양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매일(67.2%), 2~3일에 한번(23.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매일(65.2%), 2~3일에 한번(24.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집단 간에 동일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202〉 당사자와 가족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세수·양치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16	1.1%	12	1.9%
2-3주에 한번	49	3.4%	13	2.1%
일주일에 한번	70	4.9%	37	6.0%
2-3일에 한번	335	23.4%	154	24.8%
매일	962	67.2%	404	65.2%
소계	1432	100.0%	620	100.0%

□ 물건 정리·정돈

- 자기관리 및 청결을 위한 정리·정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한달에 한번, 2~3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3일에 한번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두 집단 간에 응답순위의 패턴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응답비율상의 편차가 크지 않아 유사한 패턴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표 203〉 당사자와 가족의 자기관리 및 청결도: 정리·정돈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한달에 한번	419	29.3%	196	31.6%
2~3주에 한번	307	21.4%	86	13.9%
일주일에 한번	301	21.0%	145	23.4%
2~3일에 한번	260	18.2%	112	18.1%
매일	145	10.1%	81	13.1%
소계	1432	100.0%	620	100.0%

15. 주거생활

□ 동거식구

- 거주 중인 가구유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27.2%가 1인 가구라고 응답한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8.1%가 1인 가구라고 응답하여 당사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에 1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의 경우 당사자보다(31.5%, 32.4%) 가족의 경우(41.6%, 41.6%) 더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더 많은 가족 응답자가 동거상태에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204〉 당사자와 가족: 가구유형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인 가구	390	27.2%	50	8.1%
1세대 가구(부부, 형제자매 등)	451	31.5%	258	41.6%
2세대 가구(부부+자녀, 부부+부모+조부모+손자녀 등)	464	32.4%	258	41.6%
3세대 이상(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	52	3.6%	33	5.3%
비혈연가구	30	2.1%	2	0.3%
기타	45	3.1%	19	3.1%
소계	1432	100.0%	620	100.0%

□ 주택유형

- 거주 중인 주택유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아파트(48.5%),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25.3%), 단독주택(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아파트(56.6%),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26.8%), 단독주택(9.4%)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집단 모두 과반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205〉 당사자와 가족: 주택유형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단독주택	161	11.2%	58	9.4%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	362	25.3%	166	26.8%
아파트	694	48.5%	351	56.6%
오피스텔	102	7.1%	26	4.2%
고시원	24	1.7%	5	0.8%
원룸	70	4.9%	13	2.1%
기타	19	1.3%	1	0.2%
소계	1432	100.0%	620	100.0%

□ 소유형태

-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자가(40.0%), 월세(29.0%), 전세(19.2%)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자가(58.4%), 전세(19.5%), 월세(16.9%)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가족들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선택하고 있음

〈표 206〉 당사자와 가족: 거주 소유형태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자가	573	40.0%	362	58.4%
전세	275	19.2%	121	19.5%
월세	415	29.0%	105	16.9%
무상	39	2.7%	9	1.5%
기타	60	4.2%	13	2.1%
모름	70	4.9%	10	1.6%
소계	1432	100.0%	620	100.0%

16. 신체질환

□ 신체질환 여부

- 신체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인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30.0%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에도 34.4%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가족들의 경우 12.7%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많은 가족들이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7〉 당사자와 가족: 신체질환 여부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430	30.0%	213	34.4%
아니오	1002	70.0%	328	52.9%
모름	0	0.0%	79	12.7%
소계	1432	100.0%	620	100.0%

□ 신체질환 유형(중복응답)

- 앓고 있는 신체질환의 유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소화기계, 순환기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순으로 응답한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소화기계, 순환기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이상의 결과를 보면 응답비율과 순위 상의 차이는 있지만 은둔생활을 경험하면서 소화기계, 순환기계, 내분비계, 근골격계 상의 질환을 공통적으로 앓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표 208〉 당사자와 가족: 신체질환 유형 비교(중복응답)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순환기계	120	16.6%	64	18.2%
소화기계	151	20.8%	67	19.1%
호흡기계	78	10.8%	37	10.5%
내분비계	86	11.9%	42	12.0%
근골격계	101	13.9%	50	14.2%
안과계	38	5.2%	18	5.1%
치주병, 악성종양 등	30	4.1%	14	4.0%
기타	121	16.7%	59	16.8%
소계	725	100.0%	351	100.0%

□ 신체질환 치료여부

- 신체적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55.7%가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 56.3%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40% 이상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응답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보건 지원방안이 필요해 보임

〈표 209〉 당사자와 가족: 신체질환 치료여부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240	55.7%	120	56.3%
아니오	191	44.3%	93	43.7%
소계	431	100.0%	213	100.0%

17. 정신질환

□ 정신질환 여부

- 정신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인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38.1%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34.0%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가족들의 경우 18.7%가 모른다고 답변하여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10〉 당사자와 가족: 정신질환 여부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545	38.1%	211	34.0%
아니오	887	61.9%	293	47.3%
모름	0	0.0%	116	18.7%
소계	1432	100.0%	620	100.0%

□ 정신질환 유형(중복응답)

- 앓고 있는 정신질환 유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우울증(39.9%), 불안장애(22.5%), 공황장애(12.2%), 조울장애(8.0%)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우울증(40.5%), 불안장애(18.2%), 공황장애(9.6%), 조울장애(8.6%) 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신체질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둔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공통적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조울장애를 앓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표 211〉 당사자와 가족: 정신질환 유형 비교(중복응답)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조울장애	95	8.0%	34	8.6%
우울증	473	39.9%	160	40.5%
조현병	18	1.5%	21	5.3%
불안장애	266	22.5%	72	18.2%
양극성 장애	46	3.9%	16	4.1%
공황장애	145	12.2%	38	9.6%
강박장애	91	7.7%	31	7.8%
기타	50	4.2%	23	5.8%
소계	1184	100.0%	395	100.0%

□ 정신질환 치료여부

-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44.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들의 경우 39.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거의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거의 50~60%에 달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표 212〉 당사자와 가족: 정신질환 치료여부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예	240	44.0%	83	39.3%
아니오	306	56.0%	128	60.7%
소계	546	100.0%	211	100.0%

18. 가족 중 주 대화상대

- 주로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어머니(41.1%),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음(26.7%), 형제 혹은 자매(15.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 어머니(47.1%), 형제 혹은 자매(23.5%),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음(14.0%) 순으로 나타남
-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당사자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보다 부정적인 관계 고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3〉 당사자와 가족: 가족중 주 대화상대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아버지	51	3.6%	21	3.4%
어머니	589	41.1%	292	47.1%
형제 혹은 자매	227	15.9%	146	23.5%
조부모	12	0.8%	8	1.3%
기타	170	11.9%	66	10.6%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음	383	26.7%	87	14.0%
소계	1432	100.0%	620	100.0%

19. 가족과의 갈등

- 가족과의 갈등 정도를 묻는 문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그저 그렇다(44.6%), 심각한 편이다(23.5%), 별로 심각하지 않다(17.9%)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 심각한 편이다(36.5%), 그저 그렇다(33.4%), 매우 심각하다(13.5%)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13.5%)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 가족들의 경우 당사자보다 가족과의 갈등정도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14〉 당사자와 가족: 가족과의 갈등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심각하지 않다	96	6.7%	19	3.1%
별로 심각하지 않다	257	17.9%	84	13.5%
그저 그렇다	639	44.6%	207	33.4%
심각한 편이다	336	23.5%	226	36.5%
매우 심각하다	104	7.3%	84	13.5%
소계	1432	100.0%	620	100.0%

20. 문제해결 노력(중복응답)

-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스스로 노력(38.3%), 노력하지 않음(20.4%), 외부의 공적지원(15.1%)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특별히 노력하지 않음(26.7%), 스스로 노력(24.9%), 가족·친구 등과 의논(22.0%)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 당사자들이 가족들보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스스로 노력 한다는 응답비율은 높게 나타나 스스로를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표 215〉 당사자와 가족: 문제해결 노력 비교(중복응답)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스스로 노력(운동, 자격증 공부 등)	680	38.3%	94	24.9%
정부지원 등 외부의 공적지원을 알아봄	269	15.1%	49	13.0%
가족, 친구 등과 의논	257	14.5%	83	22.0%
전문가, 전문기관 등 외부의 전문적 지원을 알아봄	146	8.2%	40	10.6%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있음	363	20.4%	101	26.7%
기타	61	3.4%	11	2.9%
소계	1776	100.0%	378	100.0%

21. 사회적 지지(중복응답)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들의 경우 가족·친척(35.7%), 친구(28.8%), 없음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 가족·친척, 친구, 없음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표 216〉 당사자와 가족: 중요하거나 어려움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608	35.7%	372	52.2%
친구	490	28.8%	143	20.1%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100	5.9%	35	4.9%
없음	504	29.6%	99	13.9%
모름	0	0.0%	63	8.8%
소계	1702	100.0%	712	100.0%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들의 경우 가족·친척(46.0%), 없음(25.4%), 친구(24.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 가족·친척(61.2%), 친구(16.3%), 없음(12.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사자의 경우 가족·친척보다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족과의 관계가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17〉 당사자와 가족: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776	46.0%	417	61.2%
친구	410	24.3%	111	16.3%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73	4.3%	22	3.2%
없음	429	25.4%	85	12.5%
모름	0	0.0%	46	6.8%
소계	1688	100.0%	681	100.0%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들의 경우 가족·친척(49.7%), 없음(29.8%), 친구(17.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가족·친척(63.3%), 없음(14.8%), 친구(11.8%) 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218〉 당사자와 가족: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791	49.7%	420	63.3%
친구	279	17.5%	78	11.8%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46	2.9%	17	2.6%
없음	474	29.8%	98	14.8%
모름	0	0.0%	50	7.5%
소계	1590	100.0%	663	100.0%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들의 경우 없다는 의견(38.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28.1%)와 가족·친척(28.1%)이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가족·친척(40.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없음(19.4%), 모름(19.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사자들의 경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는 모른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관계의 단절이 확인되고 있음

〈표 219〉 당사자와 가족: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가족, 친척	457	28.1%	273	40.5%
친구	470	28.9%	120	17.8%
그 외 타인(이웃, 직장동료 등)	77	4.7%	29	4.3%
없음	621	38.2%	131	19.4%
모름	0	0.0%	121	19.0%
소계	1625	100.0%	674	100.0%

22.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없음(63.8%),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18.4%), 지자체·관공서의 도움(10.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순위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은둔 당사자들 60% 이상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표 220〉 당사자와 가족: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없음	913	63.8%	399	64.4%
지자체, 관공서의 도움	144	10.1%	57	9.2%
민간단체, 민간기관의 도움	63	4.4%	23	3.7%
종교기관의 도움	24	1.7%	24	3.9%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263	18.4%	108	17.4%
기타	25	1.7%	9	1.5%
소계	1432	100.0%	620	100.0%

23. 도움 후의 변화

- 도움을 받은 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경우 약간 좋아짐(49.7%), 별다른 변화가 없음(28.3%), 많이 좋아짐(17.1%)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약간 좋아짐(43.9%), 별다른 변화가 없음(37.6%), 전혀 없음(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사자들이 외부도움에 대해 가족들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표 221〉 당사자와 가족: 도움 후의 변화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없음	25	4.8%	27	12.2%
별다른 변화가 없음	147	28.3%	83	37.6%
약간 좋아짐	258	49.7%	97	43.9%
많이 좋아짐	89	17.1%	14	6.3%
소계	519	100.0%	221	100.0%

24. 은둔당사자 지원 필요성

-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과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들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당사자들과 동일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222〉 당사자와 가족: 은둔당사자 지원 필요성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필요없음	43	3.0%	3	0.5%
필요없음	71	5.0%	22	3.5%
보통	284	19.8%	80	12.9%
필요함	516	36.0%	226	36.5%
매우 필요함	518	36.2%	289	46.6%
소계	1432	100.0%	620	100.0%

25. 가족 지원 필요성

- 가족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필요함, 매우 필요함, 보통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족들이 당사자들보다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표 223〉 당사자와 가족: 가족 지원 필요성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필요없음	80	5.6%	7	1.1%
필요없음	118	8.2%	33	5.3%
보통	375	26.2%	100	16.1%
필요함	464	32.4%	227	36.6%
매우 필요함	395	27.6%	253	40.8%
소계	1432	100.0%	620	100.0%

26. 지원 서비스 참여의향

- 당사자들의 경우 전체평균이 3.2881로 나오는 반면에 가족들의 경우 전체평균이 3.7057로 나와 가족들이 당사자들보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둔 청장년층을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 내지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안식공유 프로그램, 공동작업 프로그램, 지식과 정보제공,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생활서비스 지원, 상점이용쿠폰 지원,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관심분야 교육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에 우호적으로 나타남
- 가족들의 경우에는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 거주지 밖 상담서비스, 밀착사례관리,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교육, 공간지원, 안식공유 프로그램, 공동작업 프로그램, 지식과 정보제공,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생활 서비스 지원, 상점이용쿠폰 지원, 힐링 하우스 사업,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관심분야 교육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에 우호적으로 나타남

〈표 224〉 당사자와 가족: 지원 서비스 참여의향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평균	응답자 수	평균
메타버스(혹은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	1432	3.3380	620	3.7758
거주지 방문 상담 서비스	1432	2.2200	620	3.2597
거주지 밖(카페 등) 상담 서비스	1432	2.9504	620	3.5774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평균	응답자 수	평균
정기상담, 긴급상황 등 밀착사례관리	1432	2.7968	620	3.5742
참여자 간 자조모임(소속감, 경험 나누기)	1432	2.7270	620	3.4355
공감대 형성 및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교육	1432	3.1075	620	3.7194
소셜다이닝 등 열린 소통모임	1432	2.8834	620	3.4710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지원	1432	3.4714	620	3.7806
안식공유 프로그램(휴식, 운동, 게임 등)	1432	3.5384	620	3.9323
공동작업 프로그램(공예, 부업, 일체험 등)	1432	3.5601	620	3.8887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	1432	2.5286	620	3.0048
은둔생활 극복을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	1432	3.5272	620	3.8903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1432	3.7270	620	3.9839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1432	3.7353	620	3.9516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1432	3.6767	620	3.8242
상점이용쿠폰 지원	1432	3.7549	620	3.8065
힐링 하우스 사업(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1432	3.4497	620	3.6032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1432	3.6159	620	3.9129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1432	3.3841	620	3.8177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지원(AI 역량, 목공예 등)	1432	3.7696	620	3.9048
전체평균		3.2881		3.7057

27. 최소 은둔기간

- 은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6개월~1년 미만(32.1%), 3개월~6개월 미만(24.5%), 3개월 미만(19.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들의 경우 6개월~1년 미만(30.6%), 3개월~6개월 미만(28.5%), 3개월 미만(19.8%) 순으로 응답하여 당사자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225〉 당사자와 가족: 최소 은둔기간 비교

구분	당사자		가족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3개월 미만	277	19.3%	123	19.8%
3개월~6개월 미만	351	24.5%	177	28.5%
6개월~1년 미만	460	32.1%	190	30.6%
1년~2년 미만	274	19.1%	100	16.1%
2년 이상	70	4.9%	30	4.8%
소계	1432	100.0%	620	100.0%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용역

V. 심층 인터뷰 결과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분석결과

제3절 소결

V

심층 인터뷰 결과

제1절 조사개요

1. 연구참여자

- 본 심층 인터뷰 조사는 은둔의 경험을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구조화된 설문 조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은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풍부하고 심도 있는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참여자는 1차적으로는 실제로 은둔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은둔 생활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의 경험을 목도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다만 은둔 당사자의 경우 현재 은둔 당사자와 과거 은둔 당사자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과거 은둔 당사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은둔생활로부터 벗어난 계기를 비롯하여 회복과정 전반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가족의 경우에는 기존의 여러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은둔 당사자보다 조사 참여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은둔 당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과거시점을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음
- 은둔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검토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경우 좀 더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도 반드시 필요함

2. 조사 프로세스

① 참여자 선정

- 심층면접조사에 대한 안내는 설문조사 홍보물 내 안내하여, 설문조사 홍보와 더불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 응답 과정에서 심층면접조사 실시에 대한 참여자 안내와 더불어 참여의향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 설문조사 참여자 중 판별문항, 함정문항에 대한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 1차적으로 대상자를 목록화 하였고, 다양한 의견 및 상황의 참여자 모집을 목표로, 대상자 목록 중 설문조사 응답의 성실도, 주관식 응답 문항에 대한 답변내용 분석을 통해 2차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였음
- 2차 대상자 중 은둔 당사자와 가족,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거주지역 등으로 분산하여, 실태 조사 및 심층 인터뷰에 대한 안내 SMS 발송 후 연구원의 유선 연락을 통해 조사 일정을 협의하였음
- 심층 인터뷰는 참여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장소 섭외 및 시간을 접수하여, 연구원의 직접 방문을 통한 대면 조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일정 조율 및 협의 과정에서 다수의 연구 참여자는 외부 노출 및 대면조사에 거부감을 나타내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을 희망하는 참여자도 다수 존재하였음
- 따라서 심층 인터뷰에 대한 거부감 감소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유선 통화 및 화상 회의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일 및 야간/새벽시간 등 모든 시간을 허용함으로써,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참여자 등 모든 참여자가 참여의향만 있다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 참여자 선정은 과업 착수 시 은둔형 외톨이 15명, 가족 15명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생각보다 가족의 인터뷰 참여율이 저조하여 은둔형 외톨이 19명, 가족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음. 다만 가급적 지역별로 다양하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였음

〈표 226〉 지역별 인터뷰 참여자 선정

행정구역별 (응답자 기준)	대상자(명)				
	계	은둔 청·장년층 당사자		은둔 청·장년층 가족*	
	인원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총계	30	10	9	8	3
중구	1	-	1	-	-
동구	2	-	-	2	-
미추홀구	5	3	1	1	-
연수구	6	2	2	1	1
남동구	4	1	3	-	-
부평구	4	-	1	1	2
계양구	2	2	-	-	-
서구	2	-	1	1	-
강화군	0	-	-	-	-
옹진군	3	2	-	1	-
관외	1	-	-	1	-

*은둔 청·장년층 가족 응답자는 '은둔 가족(설문 참여자)'의 지역을 기준으로 집계

〈표 227〉 심층 인터뷰 참여자

성별 (당사자 기준)	대상자(명)					연령 (당사자 기준)	대상자(명)				
	계	은둔 청·장년층 당사자		은둔 청·장년층 가족*			계	은둔 청·장년층 당사자		은둔 청·장년층 가족*	
		인원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인원	현재	과거
총계	30	10	9	8	3	총계	30	10	9	8	3
남성	14	4	4	5	1	만 20대	11	4	2	2	3
						만 30대	11	1	6	4	-
여성	16	6	5	3	2	만 40대	6	4	1	1	-
						만 50대 이상	2	1	-	1	-

*은둔 청·장년층 가족 응답자는 '은둔 당사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집계

② 심층 인터뷰 진행

- 실태조사 시 인터뷰 참여의사를 밝힌 당사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은둔 기준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심층 인터뷰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았으며 심층면접 당일에는 다시 한번 면접의 목적과 질문내용, 면접방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인터뷰에 대한 일정히 잡힌 상황에서도 막상 인터뷰를 시도하는 경우 시간 변경을 요청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다시 일정을 협의하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았음
- 또한 일정이 협의되더라도 후속적인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변경하는 통보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음
- 인터뷰는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에 따라 2시간 이상 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도 있었음. 가급적 인터뷰 참여자의 진술에 호응하면서 최대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답변을 어려워하는 질문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고 넘어가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 나갔음
- 참여자들은 인터뷰 시작 전, 참여 동의서를 사전에 배포하였으며, 연구 목적으로 인터뷰 내용이 녹취된다는 점을 공지한 후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시작하였음. 인터뷰에서 공유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 보장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음. 또한 녹취 파일은 2년간 보관했다가 폐기할 것임을 약속하고 동의서에 동의를 받았음

3. 조사내용

- 인터뷰 진행을 위한 주요 질문들은 은둔의 배경, 은둔 이전의 삶, 은둔생활, 극복의 노력, 미래계획, 지원방안 등의 비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으로서의 어려움’을 추가적 질문으로 포함시켰음
- ‘은둔 이전의 삶’의 경우 은둔 이전의 상황과 은둔 이후의 상황을 비교·대조해보기 위한 질문으로서 은둔생활 이전의 가족관계, 은둔생활 이전의 대인관계, 은둔생활 이전의 학교 혹은 직장생활 등을 질문하였음
- ‘은둔 계기’의 경우 은둔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이유를 검토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계기, 영향을 준 사람, 은둔 시작 시점 등을 질문하였음
- ‘은둔생활’의 경우 실제로 은둔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하루 일상, 평균 수면시간, 식사패턴, 건강상태, 경제적 문제해결, 주소통상대, 가족관계, 대인관계, 가장 큰 변화 등을 질문하였음
- ‘은둔생활 극복 노력’의 경우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벗어나게 된 시점, 벗어나게 된 계기, 벗어나게 된 방법, 재은둔의 이유 등을 질문하였음
- ‘미래계획’ 및 ‘지원방안’의 경우 은둔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음

〈표 228〉 당사자용 심층 인터뷰 내용

조사항목	세부 항목
Introduction & Warm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목적 및 인터뷰 간략소개 · 성별, 연령, 거주지 등 자기 소개
은둔 이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생활 이전의 가족관계는 어땠는지? · 은둔생활 이전의 대인관계는 어땠는지? · 은둔생활 이전의 학교 혹은 직장생활은 어땠는지?

조사항목	세부 항목
은둔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기가 있었는지? ·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지? · 언제부터 집(방)에만 있었는지?
은둔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 하루평균 수면시간은? ·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 건강상태는? · 경제적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였는지? · 가장 큰 걱정거리는? · 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 자살사고 또는 시도경험은? · 경제적 활동경험은? · 집(방)에만 있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은? · 집(방)에만 있는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 당시 기분 혹은 심리상태는 어떠했는지? ·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관계는 어땠는지? ·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은둔생활의 극복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벗어나고자 했던 시점은? ·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 어떤 방법으로 벗어났는지? · 다시 은둔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미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생활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 인천시가 은둔당사자를 위해 어떠한 사업 혹은 서비스를 제공?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의견이나 주장 피력

〈표 229〉 가족용 심층 인터뷰 내용

조사항목	세부 항목
Introduction & Warm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목적 및 인터뷰 간략소개 · 성별, 연령, 거주지 등 자기 소개
은둔 이전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생활 이전의 가족관계는 어땠는지? · 은둔생활 이전의 대인관계는 어땠는지? · 은둔생활 이전의 학교 혹은 직장생활은 어땠는지? · 은둔당사자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은둔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기가 있었는지? ·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지? · 언제부터 집(방)에만 있었는지? · 전조증상이 있었는지?
은둔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 외출빈도는? · 하루평균 수면시간은? ·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 건강상태는? · 경제활동을 하는지? · 가장 큰 걱정거리는? · 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 자살사고 또는 시도경험은? · 경제적 활동경험은? · 집(방)에만 있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은? · 집(방)에만 있는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 당시 기분 혹은 심리상태는 어떠했는지? ·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관계는 어땠는지? ·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은둔생활의 극복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쯤, 얼마만에, 어떤 계기로? · 어떤 방법으로 벗어났는지? · 다시 은둔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족으로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가족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 가족으로서 가장 힘든 점은?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 인천시가 은둔당사자를 위해 어떠한 사업 혹은 서비스를 제공? · 인천시가 가족을 위해 어떠한 사업 혹은 서비스를 제공?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슷한 경험을 하는 가족들을 위한 조언? ·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의견이나 주장 피력

4. 분석방법

- 본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기 위해 현상학적 접근방법 중 Colaizzi(1978)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음. 우선 심층 면담을 통해 녹음된 내용을 경청하면서 그대로 필사하고 은둔형 외톨이 혹은 가족의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고자 하였음
- 그 다음 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생활을 포함하는 문장이나 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고 연구참여자의 언어를 연구자의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의미를 구성하였음
- 의미가 포함된 문장들 모임에서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들을 다시 묶어서 추상화된 주제 모임을 도출하여 범주화하고자 하였으며, 분석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비교해가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통합한 후 최종 진술을 기술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1985)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credibility), 적용성 (transferability), 일관성(dependability), 중립성(confirmability) 측면에서 엄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
- 사실적 가치와 적용성은 연구참여자 2명에게 분석한 결과를 알려주고,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받고자 하였으며, 일관성은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2명의 교수로부터 검토를 받고자 하였음. 연구의 중립성은 국내외 문헌을 다양하게 고찰하고,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참여자가 이야기할 때 관여하거나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하지 않았음

제2절 분석결과

1. 인터뷰 범주 분석 결과

- 참여자를 심층면접하고 분석한 결과, 537개의 개념과 27개의 하위범주, 6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함. 도출된 개념과 하위범주 및 상위범주는 [표 III-4]와 같음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은둔 이전의 생활	평범한 성장기와 학창시절	(원만한 성격과 대인관계) 활달함, 사교적, 성격 좋음, 외향적,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좋아했음, 친구 만나는 것 좋아했음, 동아리 회장과 과대표도 했었음, 대학 다닐 때 사람들과 잘 지냈음, 집에서 가장 순하고 말도 잘 들었음, 어디 가든 성격 좋단 소리 들었음, 친구 관계 문제 없음 (원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가족관계 평범했음
	성장기와 학창 시절의 부정적 경험	(원가족과의 부정적 관계) 10대 때부터 가족과 사이 안 좋음,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었음, 부모님이 내 교육에 관심이 없었고 방치되면서 자랐음, 아버지가 알콜 중독, 아버지가 무능해서 어릴 때 이혼, 어머니가 칭찬 절대 안해주고 혼만 냄, 형이 자주 때림, 학창시절에 아버지가 학교에 태워다줬는데 매번 싸움, 아버지가 보수적이었음, 대학원 입학 이후 아버지와 감정적 갈등이 있었음, 어머니의 기대가 과도해서 관계가 안 좋았음, 어머니가 엄했고 학대 당함, 어머니에게 따듯한 조언을 듣기보다는 엄한 말을 주로 들으며 자람, 부모님이 맞벌이라 사랑을 충분히 못받음, 늦둥이라 부모님과 세대차이로 깊은 대화는 못함, 원래 가족과의 대화가 적음, 권위적인 아버지와의 갈등 (강렬한 부정적 기억) 어머니한테 다리미로 맞은 적 있음,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함, 부족한 사회성으로 인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타를 실패하여 친구와 말다툼이 있었음, 학생 때 눈을 다쳐서 외모 콤플렉스가 생김, 어렸을 때 다리를 크게 다쳤으나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
	성장기부터 드러난 은둔 관련 기질	(은둔 관련 기질) 학교 다닐때도 친구 별로 없었음, 대인관계 어려웠음, 정신과는 다녔으나 약은 거부하고 상담만 받음,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음, 어릴 때부터 성격 어두웠음, 사람들과 대화가 안 통한다는 느낌 (가족들의 막연한 진술) 어렸을 때부터 말이 별로 없고 과묵했음, 학교에서도 말 별로 없고 친구 별로 없었음, 집안이 원래 우울 기질이 있음, 학교 잘 안 나간거 같음, 왕따 당했던 거 같음, 어릴 때부터 친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구가 별로 없었음, 원래부터도 성격이 예민하고 여렸음, 새로운 관계 형성을 잘하지 못함
	은둔 이전 사회생활 경험	<p>(원만했던 사회생활) 직장 사람들과 잘 지냄, 결혼하고 딸도 있었음, 직장 사람들이랑 등산도 같이 가고 동기들하고 회식도 같이 하고 잘 지냈음, 꾸준히 직장생활함, 같이 일하는데에 무리 없을 정도로 직장생활 열심히 함, 한 회사에서 직장생활 오래 잘 했었음, 동료들과는 잘 지냈고 우수 사원 표창도 받음, 내성적이긴 했으나 직장생활 잘 했고 자부심도 있었음, 가족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한 곳이 직장이었음, 출근하는걸 즐거워했고 성실했었음</p> <p>(힘들었던 직장 생활) 이 돈 받고 일해야 되나 회의감, 사장이 양아치 같았음, 거래처들이 술집이어서 무시 많이 당함,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정신병 걸릴거 같아서 회사 그만둬, 조무사여서 간호사랑 환자, 의사들한테 무시당함, 공항 검색직이었는데 까다로운 고객들이 많아서 사람에 대한 환멸이 생김, 특성화고 졸업하고 연계된 회사에 취업했는데 선배들이 쉽게 들어왔다고 많이 괴롭힘, 회사에서 성희롱 당함, 직장 사람들이 정신과 가보라고 조언함, 직장 상사가 때렸는데 대표가 상사편만 들어줌</p> <p>(직장생활에의 부적응) 경제활동 경험 전혀 없음, 직장생활에서 사회성이 떨어져 3일 만에 퇴사, 직장에서도 친한 관계를 맺지 못함, 직장에서 3~4개월만에 퇴사함, 직장생활 했으나 1년 이상 다닌 곳 없음, 업무강도가 높았음,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해서 경제력이 좋지 못했음, 직장에서 중징계 받음,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만 가끔 함, 아르바이트 지원은 많이 했으나 대부분 불합격함, 한 곳에 오래 다니지 못함</p>
은둔 생활 시작의 원인	사회 진출 과정과 학업에서의 어려움	<p>(직장 생활의 어려움) 번아웃으로 퇴사하고 은둔하게 됨, 번아웃과 무기력증으로 퇴사하여 그 이후로 은둔, 직장 상사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 오래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지면서 퇴사하고 재취업이 안됨, 직장에서 징계를 먹어 근신을 하는 도중에 우울감이 커짐, 이 돈 받고 왜 일해야 되나 현타가 왔음</p> <p>(구직과정에서의 좌절) 지속적인 취직 실패로 인한 좌절감, 적성에 맞지 않는 공무원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음, 공무원 준비하다 그만둔 이후 취직 실패, 지속적인 취업 실패로 인한 우울감, 공무원 준비가 자연스럽게 은둔으로 이어짐</p> <p>(학업 스트레스) 번아웃으로 휴학, 지속적인 입시 실패로 인한 자존감</p>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하락, 대학 중퇴하고 재수 준비했으나 잘 안됨, 대학원 입학 이후 학업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왔음
	개인적 요소	<p>(연애·결혼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폭력과 폭언,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정신과적 증상이 심해짐, 계속 연애에 실패하여 우울감과 자신감이 떨어짐, 이성친구와 이별 이후 우울증이 심해짐, 헤어진 남자친구가 위협적으로 행동함, 이혼하고 딸과 잘 못 보게 됨</p> <p>(출산과 육아) 17살에 출산하고 우울증 심하게 왔음, 이혼하고 양육권을 아내에게 뺏기면서 딸과 분리됨, 갑작스럽게 미혼부가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커짐, 출산 이후 전업주부가 됐는데 아기 엄마들과는 대화가 안 통해서 집에만 있게 됨</p> <p>(마음의 병) 못 견딘 어머니가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하자 집 나가고 은둔 시작함, 조현병 약을 먹어왔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음, 공황장애 있었음</p>
	복합적 원인	취업이 안되는데 어머니가 안 좋은 말만 하여 자존감 하락, 취직 실패 중에 부모님의 잔소리에 우울감이 커짐, 갑상선 암 제거하면서 일 관두게 되고 허리 디스크까지 생기며 재취업이 안됨, 졸업하고 쉬고 싶었으나 부모님이 취업을 강요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짐, 대학원 진학 이후 학업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와서 약 먹기 시작하다 남자친구와의 헤어짐, 결혼으로 이사하면서 고향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출산으로 직장을 관두게 되자 사회적 관계가 모두 단절됨
은둔 중 생활 양태	사회적 관계	<p>(가족들과도 부정적 관계) 부모님과 사이 나빠짐, 부모님이 나를 노는 걸로 봐서 관계 나빠짐, 부모님과 밥 먹었냐 정도의 이야기만 하는 정도, 가족이 요새 뭐하냐 물어보면 문 닫고 들어감, 조금만 문제 생겨도 남편과 싸우고 아이한테 짜증냄, 부모님이 민감한 대화를 꺼내서 대화 거부</p> <p>(철저한 고립과 단절) 부모님과 연락 단절됨, 핸드폰에 어머니 번호만 있음, 같이 사는 엄마와도 대화 거의 안 함, 부모님조차 내가 은둔하는 걸 모름, 모든 사람과 연락 끊음, 가족들과 대화 거부, 공무원 시험 준비 안하고 은둔하는 모습을 숨김, 대인기피증으로 친구들을 스스로 피함, 아무도 만나지 않음, 친구들이 연락해도 답하지 않음</p> <p>(가족들과도 선택적 관계) 어머니하고 꼭 필요한 대화만 함, 아버지와</p>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p>대화 거부하고 어머니하고만 대화, 남편하고만 주로 이야기하고 자식들과도 이야기 잘 안함, 남편 이외 모두와의 관계 회피함 (마음을 열 수 있는 소수의 관계만 유지) 지금의 힘든 시기를 이해해주는 친구들만 연락, 주변 사람들과 간단한 연락은 하는 정도, 정말 친한 친구 소수와만 연락, 동거하는 남자친구하고만 대화, 게임 같이 하는 사람들과만 소통, 사촌형과 가끔 술 한 잔 함, 데이팅 어플로 남자 계속 만남, 연애는 계속 함, 부모님은 내 이야기 잘 들어줌, 남편과 사이는 좋았음, 대화어플 사용하여 고민 이야기 (비대면 인간관계) 대화 어플로 사람 만나려 시도, 게임하는 사람들과는 잘 대화함, 소개팅 어플로 사람 만남 (고립과 단절의 원인) 내 상황이 부끄러우니 사람들과 연락 꺼려짐, 사람 만날 돈이 없음, 맨날 집에만 있으니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음, 어머니를 무서워해서 자기 방에서 몰래 토할 정도,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기 때문에 대화 불가능, 상대방이 조금만 거슬리면 상처주는 말을 하게 됨, 화가 많아서 사람을 만나면 싸우게 되어 인간 관계 끊김, 주사가 심해져서 친구들과도 관계 끊김, 미혼 상태에서 출산하니 부모님과 관계 단절</p>
	신체적 문제	<p>(수면 문제) 하루에 16시간 잠, 밤낮 뒤바뀜, 잠이 잘 오지 않음, 하루 4,5시간 밖에 못 잠, 자다가 자주 깬, 잠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새벽 2시면 무조건 잠이 깬, 2시간마다 계속 깬, 새벽을 제외하곤 하루 종일 자다깨다 함,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남, 며칠 못자다가 몰아서 잠 (체중 증가) 살이 많이 찌서 자존감 저하됨/수치스러움/신경질이 남, 체중이 늘면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 받음, 체중이 80키로 증가함, 아기 재워놓고 밤마다 맥주 마시는 습관 들면서 살이 찌 (신체 질환) 누워만 있으니 허리 디스크가 왔음, 피부가 망가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체력 저하) 다리가 얇아지고 근력이 약해짐, 걷는것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근력과 체력이 저하됨</p>
	심리적 문제	<p>(자괴와 자학감) 밖에 무서워서 못 나가는 자신에게 자괴감,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란 자괴감, 내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움, 또래들보다 도태되어버린 느낌,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하는 좌절감, 번아웃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과 자학, 삶이 불행하다 생각하며 자학을 자주 함, 좌절로 인한 부정적 생각의 굴레에 갇힘, 은둔과 취업 실패로 인</p>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p>한 자기 비관 증가, 전반적인 자존감 저하</p> <p>(우울과 무기력) 남편이 웃기려고 노력하고 아이가 예쁜 짓해도 웃음이 안 나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자다가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눈물만 흘림, 계획 없이 사는데에 대한 무기력감, 힘을 내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음, 직장 안 다니니까 소속감이 없어서 우울함, 쓰레기집 만듦, 무기력해서 씻지 않음</p> <p>(관계에 대한 두려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날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아 상처 받음, 사람들이 조금만 강하게 말하면 식은 땀 흘리고 눈물 흘림, 밖에 나가기 두려움, 지팡이 짚고 다니면 사람들이 원숭이 보듯 해서 밖에 나가기 더 두려움</p> <p>(원망과 분노) 왜 자신을 학창 시절에 다른 남매들만큼 안 챙겨줬냐고 끊임없이 원망, 동생과 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한다며 원망, 술 먹으면 어머니한테 욕 함, 아버지에 대한 끊임 없는 원망</p> <p>(예민함) 온 집안의 사소한 소리가 다 들리고 신경에 거슬림</p> <p>(자살에 대한 생각) 항상 마음 한 켠엔 자살이 있음</p> <p>(인지능력 저하) 언어 구사 능력 저하, 남들한테 바로 들킬 뻔한 거짓 말을 함</p> <p>(정신질환) 불안장애 약 먹었으나 불규칙하게 먹고 병원도 자주 바꿈, 우울증 약을 먹다 말다 함</p> <p>(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시도해서 응급실 간 적 있음, 부모가 아는 자살 시도만 10번이 넘음, 손목 그음, 투신 시도, 수면제 수십알 먹음, 반려동물 아니었으면 자살했을 것, 한강 다리까지 걸어갔다가 그냥 집에 왔음</p>
	생활비	<p>(주변에 의존) 시부모님 용돈, 부모님 용돈, 남편 수입, 남편과 자녀들 용돈에 의존, 명절에 받은 용돈, 형제자매들이 보태주는 어머니 용돈을 받아 씀, 같이 사는 남동생한테 용돈 받음, 남자친구 월급</p> <p>(자기가 해결) 일해서 모아둔 돈으로 버팀, 파트타임 알바하며 해결, 돈 떨어지면 야간 알바하러 감, 마이너스 통장, 보험대출, 게임 아이템 판매, 공공근로 급여</p> <p>(공공 부조 의존) 나라에서 나오는 수급비로 해결</p>
	외출 양상	<p>(어쩔 수 없을 때만 외출) 병원, 편의점 갈 때만, 파트타임 알바 할 때만, 물리치료 받을 때랑 편의점에 먹을거 살 때만, 마트갈 때, 집</p>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앞에 편의점만, 거의 안 나감, 편의점과 일용직 알바 할 때 밤에만, 중요한 가족 행사 (생계 이외의 외출) 산책할 때만 밖에 나감, 답답해서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려 감 (극단적인 외출 거부) 강아지를 방에서만 끼고 있어서 개가 방에 배변 함,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만 방에서 나옴, 쓰레기 버릴 때 말곤 집 밖으로 안 나감, 전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음
	식사	(부모님이 차려줌) 부모님이 차려둔거 혼자 먹음, 부모님과 같이 먹음, 부모님이 출근하면 일어나서 집에 있는 음식 먹음 (편의점이나 배달음식에 의존) 부모님이 차려둔게 없으면 배달시킴,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배달시킨걸 혼자 몰래 먹으려 함, 배달로 해결
	주로 하는 일	유튜브, 넷플릭스, 인터넷, 드라마, 게임, 독서, 아파트 단지 산책, 침대에 누워 핸드폰, 뒷산 산책, 누워 있음, 집안일과 육아, 하루 종일 먹고 잠, 음주, 요리, 화분 키우기, 뭐하는지 잘 모르겠음(당사자의 가족들)
	은둔 생활에 대한 주된 걱정거리(당사자)	자살할까봐 무서움, 주변에 피해 끼칠까봐 걱정됨, 혼자 있으니 우울하고 지루함, 한창 돈 벌어야 하는 나이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우울, 취업해서 돈 벌고 저축해야 하는 시기인데 허송세월하고 있어 걱정, 집이 오래되서 여기저기 고장나는데 수리비가 없음, 배우자와 아이가 자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걱정,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몇 년 남아서 생활비 걱정, 부모님이 늙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자신은 이미 도태되었다는 체념과 비관
	은둔 생활에 대한 주된 걱정거리(가족)	경제적 어려움과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나란 걱정, 자살시도를 많이 하는 자식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섞인 각오, 자신이 10대 때 은둔을 했었는데 그게 영향을 줬었나 하는 죄책감과 무기력감, 경제적 자립은 못하는데 자신들의 수입은 감소, 자식 나이 서른 넘어가니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서 돈 내줘야 함, 지금은 어머니가 감당 중인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데리고 살아야 될까,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음, 당사자가 아버지에게 정신과 상담 같이 가는 것을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거부 중, 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심해질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극복 노력과 은둔 극복 계기	자신의 노력	<p>(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 식사량 줄이기,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으려 노력하기, 산책하기, 갱년기약 먹음, 등산, 배달 음식 끊음, 하루에 한 번 편의점 가기, 주변인에게 모닝콜 부탁하기, 매일 세수해보기, 라면 아닌 요리해보기</p> <p>(운동과 치료) 살 빼기 위해 다이어트, 헬스와 PT받기,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 가기, 매일 운동, 상담 받으려고 병원 알아봄, 국가지원금으로 우울증 상담 치료를 받음</p> <p>(정책 참여) 사회복지관의 은둔형 외톨이 모임 참석, 사회복지관의 중년 1인 가구 프로그램 참석, 공공기관의 무료 원데이 클래스 참석, 구청에서 하는 가족 상담 참여, 구직 지원금 신청, 청년취업지원제도 참여, 공공근로 참여</p> <p>(사회적 관계 시도) 친구들과 술자리 가져 봄, 동호회에 사람 만나러 감</p> <p>(근로 시도) 가볍고 난이도 낮은 일 찾아보는 중, 일자리 알아보기</p>
	주변의 도움	<p>(일자리 소개) 일자리 알아보기 위해 많이 노력함, 부모님이 일자리 소개시켜 줌, 친척이 일자리 소개시켜 줌, 부모님이 고용센터 데리고 감, 주변에 있던 선생님이 강사 일을 소개해 줌, 친구가 공공근로 정보 알려줌</p> <p>(감정적 배려) 남편이 잘 해줌, 남자친구가 같이 산책하자고 매일 데리고 나감, 감정적으로 배려하고 일관된 태도 유지하려 노력, 먼저 말 걸지 않기, 외출 같이 하려고 시도, 조그만한 일들을 해달라고 부탁,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와줘서 같이 동거, 남편의 따뜻한 조언, 남동생의 대리 연락</p> <p>(정신과 치료) 부모가 수차례 정신병원에 데려갔으나 본인의 거부로 인해 지속되지 않음, 정신과 진료는 본인이 거부함</p>
	극복 계기	<p>(주변인) 어머니가 힘들다는 토로를 하자 구직 시작, 조카에게 선물 사줄 수 있는 이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 부모님에게 더 죄송하기 전에 졸업장은 따야한다는 생각,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줘서 직장 구할 수 있었음, 좋은 여자친구를 만남, 잘 해주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p> <p>(경제적 동기) 생활비가 떨어져 감, 부모님 지원이 끊김</p> <p>(취업)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회사에 입사함, 주변에 있던 선생님이 강사 일을 소개시켜주며 일하기 시작</p> <p>(연애) 수입이 없으니 은둔 중 연애에서 끌려다닌거 같아 구직 시작, 이성에게 차인 충격으로 정신차림</p>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공공정책) 청년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함, 공공근로를 해보다가 보람을 느낌
정책 제안	정책대상 발굴	가족들에 초점을 맞춘 발굴 시스템 필요
	상담 지원	가정 방문 등 대면 상담, 들어주는 것 위주의 상담 서비스, 비대면상담, 심리상담 바우처, 단체상담, 가족과 같이 상담, 비대면 상담 이후 대면 상담으로 전환해야 함, 정신적 신체적 치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 전문 상담기관 및 병원 정보 제공 및 연계
	일자리	취업 컨설팅, 기본적 직장생활 태도와 지식 교육, 인턴 같은 일경험 제공 사업, 난이도 낮고 은둔형 외톨이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 일자리, 심리상담치료연계된 공공근로, 일정기간 근속 시 지원금 제공,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사회적 관계	비슷한 은둔 당사자들끼리의 자조 모임, 다양한 주제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임 활동비 지원, 문화활동이나 취미생활을 매개로 한 관계 형성 지원, 은둔자 대상 한 치유 캠프 운영, 은둔 극복 사례 공유, 비대면 모임 프로그램, 강제성이 있는 모임 프로그램
	문화 활동 지원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문화활동, 취미생활 지원, 모임당 규모는 5~7인이 적당
	경제적 지원	은둔 상황이 명확한 경우 경제적 지원 필요
	가족에 대한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들간의 자조와 성공사례 공유 모임, 부모 세대에 대한 은둔형 외톨이 대응 방법과 태도 교육, 가족들에 대한 상담 필요
	정책 추진시 주의 사항	공무원이 친절했으면, 자조 모임에서도 소극적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신경 써줘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취업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함,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과 청년 지원 정책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
	인식 확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은둔형 외톨이 호칭이 부정적 이므로 바꿀 필요

2. 인터뷰 범주별 주요 내용

1) 은둔 이전의 생활

① 평범했던 성장기와 학창 시절

- (원만한 성격과 대인관계) 일부 은둔 당사자와 가족들은 성장기와 학창 시절에 대해 대인 관계에 큰 문제가 없었고 성격도 원만했었다고 응답함. 자신이 동아리 회장을 하는 등 외향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 은둔 당사자와 가족 모두 성장기와 학창 시절의 경험이 은둔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1) 성격은 밖에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활발하고 성격도 좋고 좀 사교적이고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10) 좀 나서는 자리에 있었어요. 동아리 회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과대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12)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가 너는 어디 무인도에 갇다 놔도 잘 살 거다, 너는 친구 관계나 그런 건 전혀 걱정 없다, 너는 취업도 전혀 걱정 없다, 너는 눈치가 현해서 회사 가도 잘 할 거다, 라고
(18) 학창시절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하고 자주 연락하고 놀기도 자주 놀았었죠.

■ 가족들의 답변

- (21) 몇몇 친구들이랑 잘 지냈던 거 같아요.
(22) 친구 관계도 원만했고 다 괜찮았어요.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29) 우리 집에서 가장 순하고 말을 잘 듣고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들었던 애예요.

- (원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원가족과의 관계가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한 은둔 당사자는 1명에 불과했으며 가족들의 답변에선 나타나지 않았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10) 가족관계는 딱히 그냥 평범했고요. 뭐 딱히 문제도 없었고.

② 성장기와 학창시절의 부정적 경험

- (원가족과의 부정적 관계) 많은 은둔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성장기와 학창시절부터 원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양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부모의 권위적 성격과 일방적 소통, 무관심, 과도한 기대 등이 부정적 관계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1) 가족 관계는 사실 10대 때부터 그냥 쪽 안 좋았어요.
 (6) 부모님이 엄격하셔서,.
 (7) 전 돌봄을 잘 받고 자란 게 아니라서요. 고아는 아닌데 고아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해야 하나요?
 (12) 제가 취직하고 나서부터 가족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원하시는 게 되게 많았어요. (중략) 결국엔 어머니 때문에 따로 나와서 살게 된 케이스예요
 (15) (부모님이) 따뜻한 말보다는 이래 갇곤 되겠어, 더 열심히 해야지, 너가 이러니까 뭐 취업이 안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16)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일 다니시고 아빠도 막 그렇게 병원 다니시고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 되게 고팠던 것 같아요.
 (18) 좋은 조언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던 부모님들이죠. (중략) 세대 차이도 아무래도 있었고, 제 마음을 좀 온전히 이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 가족들의 답변

- (21) 부모님이 안 좋게 헤어져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22) (아버지가) 무뚝뚝하시고 대화하자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버리시고요.
 (24)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빠가 학교에 태워다 줬거든요. 차에서 내릴 때까지 싸웠대요. (중략) 3년 내내 그런 식이었대요.
 (27) 형이 완전히 동생을 리모컨화 그러니까 TV 몇 번 틀어,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뭐 이랬던 거죠. 형이 많이 심했어요.
 (29) 엄마는 네가 잘한 게 있어야 칭찬을 하지 이러면 동생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언니처럼 공부를 잘해야 되냐 혹은 동생처럼 막내여야 칭찬을 해주냐, 동생은 되게 사랑이 고팠던 것 같은데,

- (강렬한 부정적 기억) 일부 은둔 당사자들은 성장기에 겪었던 강렬한 부정적 기억에 대해서도 응답하였음. 부모의 신체적 학대, 학교 폭력과 왕따 경험 등이 언급되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이후 자신의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가 협소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응답함. 일부 응답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모로부터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당한 경우도 있었음. 가족들의 답변은 상대적으로 상세함이 떨어지고 특정 사건 전반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3)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시웃 발음이 센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발음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말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거든요. 발음 때문에 혹시 놀림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입을 닫고 지냈어요.
- (5) 학창 시절에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고등학교 때 눈을 다쳤어요. 눈을 다치고 안과를 갔죠.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안과를 데려갔는데 안과에서는 이상이 없대요. 저는 한쪽 눈동자가 지금도 안 올라가 가지고 이걸로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 (11) 중학교 3학년 때 조금 왕따를 당하긴 했어요. (중략)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면서 혼자 그냥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 (12) 제가 맞다가 도망쳤어요. 헤어드라이기였나 고데기였나 하여간 집에 있는 전자기기였는데 심지어 선생님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쭙보셨어요.
- (17) 편의점 알바 되게 쉽다고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친구 대타로 한 거였는데 1달 해주기로 했는데 1주만 나가고 너무 나가기 싫은 거예요. 물건 정리할 것도 많고 해서 그래 가지고 그것도 못 다니고 친구랑 그걸로 말다툼도 있었어요.

■ 가족들의 답변

- (20) 소위 말하는 일진 친구들이 물건 뺏고 안 돌려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니까 억지로 엄마가 보내서 갔었는데요.
- (29) 가족이 그때 4명인데 경제 활동을 안 하시니까 이제 생활비도 없고 엄마는 그거에 화가 나서 막 쏘아붙이고 그러다가 이제 엄청 큰 싸움이 되고 저희 아빠랑 엄마랑 동갑이신데, 되게 엄청 폭력을 쓰면서 싸우셨거든요. 어렸을 때.

③ 성장기부터 드러난 은둔 관련 기질

- 가족들이 성장기부터 현재의 은둔 관련 기질이 관찰되었다는 답변을 더 많이 하였으나 답변의 구체성은 떨어지고 그런 요소들이 은둔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막연하게 추론하는 경향이 강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3)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없었어요. 제가 친구가 없고 또 대인관계 이런 게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자퇴를 했거든요.
- (4) 병원도 동네에 큰 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진찰이나 상담 이런 거를 받긴 했었는데 (중략)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 (7) 제가 부모들도 그렇고 가정환경이 좀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막 밝은 편도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 가족들의 답변

- (21) 그냥 워낙 좀 예민한 성격적인 요인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 (23) 그 학교생활을 시골에서 해 가지고요. 왕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 (24) 지금 생각해보면 타고난 성격도 조금 있고 거기에다가 또 환경 문제도 그렇고 애가 더해져서 이렇게 심하게 됐구나 하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 (26) 학교생활도 성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략) 중고등학교도 다니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 (26) 우리 집안 식구들이 우울 기질이 있어요. 기질 자체가 그런 영향을 좀 받아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27)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책을 많이 보거나 이런 타입이에요.

④ 은둔 이전 사회생활 경험

- (원만했던 사회생활) 은둔 당사자들과 가족들 상당수는 은둔 당사자들이 사회 진출 이후, 직장 생활이나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 등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2) 그냥 똑같이 남들처럼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9) 직장생활 잘했었어요. 열심히 잘했죠.

(11) 직장생활은 꾸준히 했었고요.

(15) 친한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학교생활을 하고 직장 안에서도 그냥 같은 부서 사람들이랑은 그래도 뭐 속 얘기까지는 못한다 해도 같이 직장 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사회생활을 하긴 했었어요.

■ 가족들의 답변

(20) 12시 되면 진짜 딱 자고 아침 7시에 딱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나가고 신기했어요. (중략) 자기도 그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25) 자부심도 있고 일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주변한테 잘하고 그런 사람이죠.

(25) 직장생활은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30) 직원들하고 관계가 괜찮았고 그 회사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수 사원 표창도 받고 일을 되게 잘했어요.

- (힘들었던 직장 생활) 은둔 당사자들 중 상당수는 직장 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부정적 경험은 거래처 및 고객들로부터 받는 무시와 그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정신과에 가보라는 발언 등 동료들의 무시와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회사의 착취적 행태, 상사의 성추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가족들에게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상대적으로 적게 제기되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5) 거기(직장)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상적으로 저를 안 보고 정신과 가보라는 그런 충고도 받았었고요.

(7) 전공이 기계설계과여서 캐드하는 쪽 회사를 좀 들어가긴 했었는데 일도 잘 모르겠고 (중략) 사장은 양아치 같고 그래서 관뒀다가 다음에 주류 판매 영업하는 회사에서 사무직을 봤어요. 그런데 주류회사다 보니까 사장이 더 양아치인 거예요. 월급도 너무 적고 사람 인격 무시하는 것도 심하고 계속 전화받는 일이었는데 술집 주인들도 좀 그렇잖아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나 20대 초반에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무시하는 것도 있고 주류 배달원 아저씨들은 더 그렇고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7) 환자들도 간호사가 아니니까 무시하면서 외모에 대해서도 막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간호사들도 당연히 같은 간호사가 아니니까 잡일하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거기서도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11) 재취업을 했던 직장이 그 사이에 있기는 했는데 3일 만에 그만뒀어요. 왜냐면, 상사가 제 앞에서 바지를 갈아입었거든요.

■ 가족들의 답변

(22) 상사가 폭행을 했어요. (중략)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그렇게(=참으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애는 그냥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애가 한동안 사람을 안 만나더라고요.

(29) 제 동생은 특성화 고등학교였고 졸업하면 연계되는 직장처라서 비교적 쉽게 들어갔던 거였는데 그걸 아니꼽게 생각했던 여자 선배들이 제 동생이 실수하면 정말 엄청 크게 혼을 냈고 그런 걸 넘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은근한 따돌림, 그냥 못살게 구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인 거죠.

(30) 총알, 탄피 같은 것 지나가면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부딪치면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이건 왜 안되냐 이거 왜 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한 피로도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 (직장생활에의 부적응) 은둔 당사자와 가족들 모두에서 은둔 당사자들이 한 직장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단기간만 다니며 여러 직장을 전전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게 나타남. 은둔 당사자들의 응답에선 그러한 자신에 대한 자학감 등도 언급들도 함께 나타남

- 상술한 '부정적 직장 경험'에서 나타나는 직장 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응답이 아닌, 한 직장 오래 머무르지 못하거나 직장 생활 자체가 자신과 맞지 않았다는 개인적 특성을 진술하고 있어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4) 아르바이트도 해봤던 경험이 몇 번 있었긴 했었거든요. 굳이 이 돈을 벌려고 하나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거 얻으면 뭘 할 수 있지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당시에 좀 하다가 그만두고 그게 무기력함이 그렇게 진행되니까

(5) 싱크대 만드는 회사에서 부사수라고 하나요? 무슨 시대로 일했어요. 그거 한 9개월 다녔었고 그 전에도 또 한군데 다녔는데 아버지 친척이 모터보트 수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거기서 한 1달 2달 정도 일했었죠.

(16) 그렇게 나서 들어갔다가 3개월도 못 버티고 나오니까 나는 진짜 이것도 못 버티는구나 나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더 방으로만 들어가게 되고 숨게 되고 아무도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17) 바로 취업을 해야지 했는데 처음에 취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란 좀 달랐어 가

지고 사회성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직장을 3일인가 하고 관뒀어요.

■ 가족들의 답변

(20) 알바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뽀히질 않으니까. 공장 알바는 몇 번 가봤지만 금방 또 잘리고 오래 못 다니고.

(22) (직장을)한 곳에 있지 못하고 계속 좀 옮겼다 그래야 되나?

(26) 생활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중략)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하더라고.

2) 은둔 생활 시작의 원인

① 사회진출 과정과 학업에서의 어려움

- (직장 생활의 어려움)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은둔 생활 시작의 원인으로 응답한 경우, 직장 생활에서의 여러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사하거나 장기간 근속하던 직장생활에서 해고 당한 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한 경우 직장 생활 자체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취업 시도를 아예 포기한 것 등이 은둔의 계기가 되었다는 답변이 주된 내용이었음. 가족들보다 은둔 당사자들에게서 더 많은 답변이 제기되었고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5) 업무를 처음에는 쉽게 보고 갔는데 사람이 할 게 못 되는구나, 죽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월급이 한 250 정도 됐었는데 이 돈 벌려고 이렇게 일하지 말고 적게 받아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부담이 적은 일을 찾아보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7) 월급도 너무 적고 사람 인격 무시하는 것도 심하고 계속 전화받는 일이었는데 술집 주인들도 좀 그렇잖아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나 20대 초반에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무시하는 것도 있고 주류 배달원 아저씨들은 더 그렇고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내가 다른 데 갈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냥 1년 하다 관둔 거예요. 직장 잘 못 구하고 그래서 거의 집에만 있게 됐죠.

(9) 17~18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아프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처럼 퇴직을 권고를 받았어요.

(11) 회사는 꾸준히 다녔거든요. 근데 만사가 너무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친구에게 전화가 와도 안 받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퇴사를 하고 집에 있으면서부터 점점 바깥 생활을 안 하게 되고 오는 연락도 안 받게 되고 연락도 점점 줄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15) 업무를 잘하고 있다가 직종 변환이 됐었어요. 그래서 생소한 직종 때문에 (중략) 실수를

한 게 있는데 그 실수가 좀 커서 자택에서 대기를 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신을 하고 있
어라 그러면서 근신을 하는 기간에 또 이제 우울한 거죠.

■ 가족들의 답변

(22) 상사가 폭행을 했어요, (중략) 아무래도 부장인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냥 네
가 참고 넘겨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
터 애가 한동안 사람을 안 만나더라고요.

(30) 공항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검색하는 거 했었어요. (중략) 지나친 걸 요구한다든가 합
리적이지 않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았던
것 같고 그래서 대인기피 같은 게 생기고 사람에 대한 환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 (구직과정에서의 좌절) 구직과 취업의 실패, 적성에 맞지 않는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 등
이 장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단절되고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지며 자존감 하락
과 좌절을 느끼게 된 것이 은둔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음.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이 취업 실패와 구직 시도 회피의 구실로 쓰였다는 응답도 나타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2) 큰 계기는 취직 실패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다시 재취업을 성공을 했는데요. 1달
만에 잘렸어요. 1달 동안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
는 말을 들어서 되게 좌절감이 컸었어요.

(14) 공무원 시험 쪽으로 했는데 몇 달 다녀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았고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1년은 해보라 하시던 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고 저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쪽 그냥 방에
있었던 거예요.

(16) 공무원 시험을 그냥 다들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했는데 또 그것도 내 길이 아닌
거 같고, 어쨌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하는 척은 해야겠고. 한 1년 뭐 이렇게 학원도 다
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중략) 그만두고 취직을 이것저것 알아보
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17)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사실 그냥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놀 수 있는 명분. 그
게 한 2~3년 됐었거든요.

■ 가족들의 답변

(27) 공무원 시험 볼 때 학원을 다닌 이외에 2년 정도는 거의 방 안에서만 있었던 거죠.

- (학업 스트레스) 일부 은둔 당사자들은 학업 수행 과정에서 오는 심적 부담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번아웃이나 우울증, 자존감 하락 등으로 이어지면서 은둔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응답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4) 일단 중학교 때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게 많이 왔었거든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관련된 게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이제 은둔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0) 제가 대학원 입학하면서부터 (중략) 학업 스트레스도 심하고 번아웃도 같이 오고 그러니까 대학원 생활도 사실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도 출석 일수를 채워야 되니까 교수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최소한의 수업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어찌저찌 버티고 이제 수업을 다 듣고 나서부터는 계속 집에 거의 있었죠.

(18) 제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시작했어요. 3수하고 4수까지 했는데 공부는 공부대로 잘 되지 않고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쪽 떨어지면서 가족들이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거의 그때부터는 제 방 안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 가족들의 답변

(28) 수능(재수)이 잘 안 되면서 여러 가지로 가족들하고도 좀 대화하는 걸 꺼리게 됐고

② 개인적 요인

- (연애·결혼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 은둔 당사자와 가족 양쪽 집단에서 적지 않은 수가 헤어진 연인의 폭력적 행태,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던 연인과의 이별, 잇따른 연애 실패 경험 등을 주요한 은둔의 원인으로 응답하였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2) 남자친구랑 헤어졌었는데 많이 못되게 굴더라고요. 겁에도 질렸고 무서웠고 어떻게 저를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

(10)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좀 정신과적인 병증도 심해져서 굳이 계기를 뽑자면 그때 이별했던 게 좀 영향이.

(19) (미혼부가 된 이후) 2번의 이별을 하고 나서 세 번째가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설여져서 만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또 상처받고.

■ 가족들의 답변

(26) 결혼식은 못하고 그냥 살다가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딸을 (이혼하면서) 엄마 쪽으로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딸이 있을 때도 좀 그러긴 했어.

(29) 동거를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폭행과 폭언을 당했더라고요.

- (출산과 육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과 육아 과정을 주된 은둔 원인으로 지목하는 응답도 나타남. 출산 자체보단, 많은 돌봄 노동이 필요한 신생아를 키우는 고된 육아 과정을 장기간 홀로 감당하게 되면서 수반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되었음. 가족들 쪽에선 이 맥락의 답변이 나타나지 않았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1) 제가 16살에 임신을 했어요. 17살에 낳았고 그 아이 키우는 동안 한 3년 동안 아이랑 같이 은둔을 시작했구요. 성인 될 때까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 (8) 애가 한 4살 때부터 되니까는 이제 온종일 집에 갇힌 거예요. (중략) 아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집 생활만 하고 신랑하고 얘기하는데 신랑하고도 대화의 벽이 있는 것 같고.
- (19) 그 친구(=연인)가 임신을 했다는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 10개월인 시간 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부모님한테도 말을 선뜻 못 하겠더라고요.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도 차마 이게 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미혼부가 흔하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아이를 키우면서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어요.

- (마음의 병) 일부 은둔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심해지거나 그러한 질환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은 것이 주요한 은둔의 원인이었다고 응답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1) 저는 우울증이 아직 큰 거 같아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제 끝은 자살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들어서 그래서 그냥 어차피 죽을 거 나가기도 싫고 사람 대면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1번씩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 (5) 개네들(직장 동료들)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이미 약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조현병 약을 먹고 있거든요.
- (6) 제가 그때 우울증을 계속 치료받고 있거든요. 한 4년 정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무기력한 게 좀 심해가지고 쉬고 싶어 했던 건데
- (18) 당시에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우울증도 다시 도지고 하니까 약도 다시 타먹고 그랬거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 가족들의 답변

- (30) 취업하고 2년을 다니니까 그때 약간 공황 증세 같이 왔어요. 불안공황 뭐 이런 게 오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회사를 급작스럽게 그만두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4년을 은둔했죠.

③ 복합적 원인

- 상당수의 은둔 당사자들은 취업의 실패, 가족과의 갈등, 마음의 병, 대인관계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은둔 생활의 원인이 되었다고 응답함. 특정한 계기나 사건, 주된 요인을 응답하기보다 여러 원인들이 겹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점차적으로 은둔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임. 가족들에게선 이런 답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은둔 당사자들의 내면의 깊은 곳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6) 제가 취업에 대한 어려움, 걱정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좀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힘이 남들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뭘 다시 시작하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9) 갑상선 하나를 떼어냈고요. 그때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그러다가 또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고생하고 좀 괜찮아졌는데 다시 취직하려고 알아보니까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계속 알아보는데 안돼요.

(10) 대학원 입학하면서부터 우울증이랑 공황 불안장애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학업 스트레스도 심하고 이제 번아웃도 같이 오고 그러니까 대학원 생활도 사실 쉽지가 않았고요. (중략) 수업을 다 듣고 나서부터는 계속 집에 거의 있었죠. 선후 관계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헤어지고.

(13) 전에는 겪지 못했던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긴 했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도 했고 학업에도 원하는 만큼 성취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스트레스 받아서 다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15) 대학에서 졸업하고 나니까 일단은 취업도 잘 안 되기도 했고 계속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왜 안될까 이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너무 못해서 관계도 어렵고 취업도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16) 취업을 하려고 보면 다들 재는 어디 취직했더라 이름값 있는 기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공무원이 됐다. 뭐가 됐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에 사무직이나 생산직을 들어가요. 그런 거로 취업을 하면 엄마 아빠는 야 무슨 그런 걸 들어가. 사무직을 들어가야지. 왜 이런 커피집에서 직원해. (중략) 어른들의 그런 시선이랑 그런 것도 문제고요.

(17)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란 좀 달랐어 가지고, 사회성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3일인가 하고 관뒀어요. 부모님도 실망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좀 자괴감이 많이 들고 해서요. 그때 또 다른 알바를 또 했을 거예요. 편의점 알바. 편의점 알바 되게 쉽다고 인식이 있잖아요. 친구 대타로 1달 해주기로 했는데 1주만 나가고 너무 나가기 싫은 거예요. 물건 정리할 것도 많고 해서 못 다니고 친구랑 그걸로 말다툼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못

하면은 너는 어떻게 살 거냐 해서 그때부터 약간 우울증도 걸리고 매사 우울하고 이렇게 힘없이 집에만.

2) 은둔 중 생활 양태

① 사회적 관계

- (가족들과의 부정적 관계) 은둔 당사자들과 가족의 응답 중 적잖은 수가 은둔 당사자와 가족, 특히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응답함. 사이가 좋지 못한 원인은 부모의 은둔 당사자에 대한 이해 부족, 은둔 당사자의 대화 회피, 은둔 당사자의 은둔 생활 극복 노력 부족 등이 제기되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4) 계속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한심하고 불편하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 (5) 부모님이 보시기에 힘든 일은 이제 제가 안 할라고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 건데.
- (6) 그냥 뭐 밥 먹었냐 그냥 오늘 뭐 했냐 그냥 그런 얘기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 (8) 최근 한 3~4년 전에는 진짜 최악이었죠. 맨날 신랑하고도 싸우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구 애기한테 막 짜증내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 (17) 부모님이 그런 쪽으로 자꾸 취직은 언제 할 거냐 뭐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하니까 좀 약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 (19) 당연히 믿고 (공무원 시험) 학원비 대주고 용돈, 먹는 거 그런거 졸업하고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거에 대해 부모님이 이제 배신감을 정말 많이 느끼셨고

■ 가족들의 답변

- (24) 아빠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여겨버리니까 아빠도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떻게 애를 좀 해보려고 해도 애가 마음을 안 돌리는 거야.
- (27) 요즘 뭐하니 그러면은 눈을 그냥 뚱글뚱글 굴리다가 그냥 문 땡 닫고 들어가요.

- (철저한 고립과 단절) 은둔 당사자가 친구는 물론 부모 등 가족과의 소통까지도 거절한다는 응답도 다수 제기됨. 핸드폰에 어머니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다는 응답, 몇 년간 은둔 생활 자체를 가족들에게도 숨겨 왔다는 응답 등 극단적이고 철저하게 고립과 단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들이 나타났음.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대화 시도를 일체 거부한다는 가족들의 답변도 다수 제기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1) 엄마랑도 대화를 거의 안 하고 말 거는 게 싫어요. 말은 하고 싶는데 누군가 그냥 말을 걸

어오면 너무 싫고 짜증부터 좀 나는 것 같아요.

(2) 제가 번호도 바꾼 상태고 그 와중에 엄마 번호만 있는 상태고.

(11) 연락을 제가 안 받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메일까지 썼어요. 나 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메일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니까. (중략) (가족들은) 제가 1년 6개월을 그때 그 당시에 집에만 있었다는 것을 모를 거야.

(13) 연락이 오더라도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읽지를 않고 그냥 3개월 정도는 놔뒀던 것 같아요.

(15) 친구들도 걱정이 돼서 잘 있냐 연락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다가 이제 제가 답을 잘 안 하고 나 지금 힘들다 그냥 내가 알아서 연락할게 이렇게 되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고.

(18) 가족들이 연락을 줘도 잘 안 받고 본가에서도 잠깐 와서 밥 먹고 가라 해도 안 가고 친구들 연락은 당연히 다 끊기고.

(19)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혐오가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 와서 친구들도 안 만나러 나갔고.

■ 가족들의 답변

(22) 가족들이 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콧 박혀 있어요. 방에.

(22) 나와서 (식사를) 같이 먹는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을 만져요. 거의 대화가 없고 그냥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먹어요.

(22) (은둔 중이니까) 질 수 있는 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폰을 보게 되는 거고

(23) 대화가 없으니까 그게 갑갑하죠. 밥도 따로 먹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26) 못 만나요. 엄마랑 사는데 방에서 안 나올뿐더러 밤과 낮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식구들 가면 싫어하고

(29) 집에서 막 술을 먹고 토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밖에 있으니까 화장실로 토를 하러 못 가 가지고 방에서 토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랑 사이가 완전 나빠진 거예요.

- (마음을 열 수 있는 소수의 관계만 유지) 일부 은둔 당사자들이 배우자, 친구 중 일부 등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수의 대인관계만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도 일부 나타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9) 아무래도 남편하고는 얘기는 하는데 아들은 좀 어렵죠. 애들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10) 사람이 많은 모임은 우선 잘 안 나가고요. 그리고 좀 소수의 정말 친한 친구들 제가 이렇게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걸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랑만 깊게 연락을 하는.

(14) 거의 모든 대화 상대는 부모님하고 여동생 1명.

(15) 남편이랑은 그래도 사이가 되게 좋아요.

(16) 친구들은 회사 나가면 계속 컴퓨터로 카톡을 하잖아요. (중략) 그 친구들과하고 그냥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 가족들의 답변

(20) 1명이랑 조금 더 친하고 자주 만나는데 그 친구도 지금은 직업이 없는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동생이랑 비슷한데, 제 동생처럼 병원(=정신과) 다니거든요.

(27) 이모가 자꾸 다독다독 거리더라고요. 다독다독 거리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모네 가서 그렇게 몇 박 며칠 있다 온 건 처음이었어요.

(28) 가장 많이 얘기한 건 주로 엄마인 거 같아요.

(30) 남자친구는 계속 있었어요.

- (비대면 인간관계) 은둔 당사자들 중 일부가 자신의 상황을 밝힐 필요가 없는 온라인 게임, 핸드폰 어플 등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답변도 나타남. 이러한 답변은 은둔 당사자보단 가족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6) 대화 어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 가족들의 답변

(20) 동생이 게임을 하는 게 (대화) 여럿이서 모여서 해야 되는 거라 엄청 활발하게 활동 하더라고요

(22) 게임하면서 그 게임하는 사람들이랑 뭘 얘기를 하는데 이어폰 끼고.

(29) 소개팅 어플 이런 거를 깔아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더라고요.

- (고립과 단절의 원인) 은둔 생활 동안 고립과 단절의 원인으로는 자존감 저하,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싫은 부끄러움, 대화거리 부족, 사람을 만나기 위한 비용 부족 등이 제시되었음. 답변들은 주로 은둔 당사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는데 가족들은 은둔 당사자의 내면을 알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 말은 하고 싶은데 누군가 그냥 말을 걸어오면 너무 싫고 짜증부터 좀 나는 것 같아요.

(5) 돈이 없는데 친구를 어떻게 봐요.

(6) 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데 좀 꺼려지더라고요. (중략)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8) 상대의 말이 조금만 내 귀에 거슬린다면 말을 자꾸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해요. (중략) 한

마디로 까탈스러운 성격 예민한 성격이라고 제가 체감하고 느끼는 거예요.

(11) 그때 당시에는 친구 관계에 대한 회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4)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지금 간 대학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 친구 연락이 끊겼고

(18) 나만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만났을 때 무슨 말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좀 자신이 처량한 느낌에 피했던 것 같아요. 연락 안 했었죠.

(19) 친구들은 (중략) 일상 소소한 걸 얘기해도 그게 좀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많이 피했어요.

■ 가족들의 답변

(29) 친구들 사이에서도 재 술 먹으면 이상한 애다. 이러니까 개랑 같이 먹어주는 애도 없고 주사도 심하고, 결국에는 이제 혼자가 됐는데.

(30) (친구들한테) 상태가 안 좋고 감정이 격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② 신체적 문제

- (수면 문제) 대부분의 은둔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은둔 생활 동안 수면 시간 증가, 불규칙한 수면, 수면의 질 악화 등이 나타났다고 답변함. 일부 은둔 당사자들은 과도한 수면이 현실도피의 일환이었다고 응답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 적어도 12시간 이상 많이 잘 땀 16시간 하루에 거의 자느라 시간을 보내고 또 밤낮도 바뀌어 있었고

(4) 중간에 깨거나 그런 경우가 좀 빈번하게 많이 생기는 편이어 가지고 총 수면 시간 합치면 거의 4시간 반 이하로

(6) 수면의 질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계속 밤에 만약에 1시쯤 잠이 든다치면 막 3시, 5시, 6시 뭐 이런 식으로 자면서 한 4~5번 깨거든요.

(7) 밤낮이 바뀌고 (중략) 전날에 뭐 밤새다가 안 잔 거 아니면은 뭐 거의 1시간 이상은 잠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9) 자다가 한 2~3번 정도 깨요. 저녁에 한 11시쯤 자는데 자다가 새벽에 한 2시쯤 깨고 4시쯤 깨고 6시쯤 깨고 보통 그래요.

(11) 잠이 안 오니까 또 점점 늦게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며칠을 잘 못자다가 또 피곤하니까 한번 몰아서 잘 때도 있고.

(12) 안 잘 때는 4일 정도 안 잘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자게 되면은 한 18시간 잘 때도 있고요. 되게 불규칙적이예요.

(13) 기상 시간이 11시일 때도 있고 오후 3시일 때도 있고, 이제 밤에 늦게까지 게임하거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자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11시나 1시쯤 일어나고.
 (13) 1달 정도 (은둔) 생활하고 나니까 점점 힘들어져서 수면 시간이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14) 많이 잤어요. 그냥 도피성으로 잔 것 같아요. 뭔가 깨어있으면 원갈 해야 될 거 같고, 패배감이 들고 하니까 그냥 자자.
 (16) 거의 15시간 막 이렇게 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18) 이건 아마 다른 은둔 생활자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냥 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기본이 14시간 취침이었어요. (중략) 눈 감고 자면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 가족들의 답변

(23) 밤에 일어나 가지고 낮에는 자고 계속 밤에만 저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25)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형인 편이죠.
 (29) 밤에 일을 하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본인 의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낮 밤이 바뀌어 가지고.
 (30) 수면 시간은 18시간 이상해서 잤을 것 같은데 계속 자고, 자다 깨다 계속 잤죠. 낮에는 거의 종일 자고.

- (체중 증가) 체중 증가 역시 은둔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로 많이 응답되었음. 은둔 생활로 인해 기존에 비해 활동량이 극도로 줄어들게 된 것이 체중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며, 체중 증가는 다시 자존감 저하를 야기하여 은둔 생활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 일단 은둔하고 살이 찌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체중 변화.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나가기 싫어지고 사람을 더 대면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게 악순환이 됐던 거 같아요.
 (2) 제가 아무래도 22년도 여름 때부터 누워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그땐 살이 찼던 체질은 아니었거든요? 한 35키로 이상이 찼었던 거 같아요.
 (3) 은둔을 시작하면서 밖을 거의 안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30키로 이상 찼거든요. 그래서 100키로가 넘어갔다가
 (6) 체중도 제가 원래는 50키로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살이 찌면서 이제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거의 123키로까지 찼었거든요.
 (8)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집에서 혼자 신랑 모르게 캔맥주만 2~3개 먹다 보니까 살은 살대로 또 불어나고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어서.
 (10)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부터 살이 굉장히 많이 찌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건강적인 문제가 있고
 (19)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정말 많이 찌서 체중이 그때 당시는 비만이었던 것 같아요.

- (신체 질환) 은둔 이전에 비해 안 좋아진 생활 습관으로 인해 신체 질환에 걸렸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6)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진단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계속 약을 안 먹으면은 재발을 해 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서도 치료받고 있어요.
 (7)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허리 디스크 쪽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남들처럼 디스크 걸릴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봐 가지고요. 처음에는 막 제대로 걸어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40대 초반부터 지팡이 써서 겨우 걸어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15) 씻는 것도 귀찮으니까 덜 씻게 되고 이러니까 피부가 진짜 많이 망가졌었어요. 그리고 밤에 (야식) 먹었으니까 항상 더부룩한 기분을 가지고 아침에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아마 역류성 식도염도 생겼을 거예요.

- (체력 저하) 은둔 생활과 함께 활동량이 극단적으로 감소하면서 근력과 체력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약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답변한 은둔 당사자도 있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9) 다리하고 엉덩이 쪽 근육이 많이 빠져가지고 나가면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10) 체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요. 왜냐면,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요.
 (13) 뭔가 걷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점점 힘이 근육이 빠져서 그런가.

③ 심리적 문제

- (자괴감과 자학감) 은둔 당사자 상당수는 어떤 것도 이루고 있지 못하며 은둔 생활을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제대로 못 하는 자신에게 자괴와 자학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토로함. 은둔 생활이 자괴감과 자학감을 강화하고, 자괴감과 자학감이 다시 은둔 생활을 강화하는 심리적 패턴을 응답한 경우도 있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 항상 새벽마다 뭐 취업사이트도 보고, 뭐 다음날엔 꼭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 내일은 꼭 이렇게 해야지. 근데 다음 날에도 또 그러지 못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그랬던 게 가장 힘들었고요. 정신적으로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이러면서요.
 (1) 오늘도 나는 못했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자신이 되게 쓸모없다는 생각,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단 생각이 아무래도 많이 들었죠.
 (10)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그런 좌절이나 속상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 (11) 한번 쉬니까 게을러졌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하는데 몸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게을러졌구나 라는 생각만 해서 제 탓을 했었죠.
- (13) 생각이 자꾸 그런 쪽(=자학)으로 흘러간다는 게 은둔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게.
- (15) 다들 나가서 서류 100번 쓰고 떨어져도 다 잘만 다니는데 너는 집에서 뭐 하나? 이런 거 들으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못나서 집에만 있는 건가 생각도 들고 그랬었거든요. 외적으로도 체중이 불게 되고 피부도 점점 망가지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쓸까..
- (16) 자존감은 내려가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잠깐 자괴감.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런 심리 상태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 (19) 당시 인생을 부정하는 시기다 보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그때는 좀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혐오가 강했었어요.

■ 가족들의 답변

- (21) 비관도 있고 무기력감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딱히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약간 모순적인 마음인거 스스로도 알고 거기서 괴롭고 또 그런 자기 모습에 대해 실망해서 괴롭고 약간 찻찻산중으로 가나 봐요.
- (24)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 해도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시작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서 막혀요. 비관적이라는 거지. 자기한테 긍정보다 비관이 훨씬 크니까 거기에서 가로막혀서 이게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 (우울과 무기력감) 일부 은둔 당사자는 우울함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어떤 것도 시도할 에너지가 나지 않고 부정적 감정만을 느끼며, 현실을 회피하는 상태라 응답함. 극심한 무기력감으로 인해 청소를 장기간 하지 않아 쓰레기집이 되었고 그로 인해 청소 업체를 불렀다는 답변, 씻지 않아 몸에서 노숙자 같은 냄새가 난다는 답변도 제시되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8) 웃질 않아요. 입꼬리가 올라가질 않아.
- (9) 요즘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자다가 죽었음 좋겠다. 그냥 내가 죽을 땐 식구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그냥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
- (12) 제가 집을 쓰레기집 만든 적이 있어요. 혹시 쓰레기집이 어떤 건 줄 아시나요? 말 그대로 집을 정리를 안 해서 쓰레기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중략) 그러다가 한 3개월 전쯤에 이게 되게 민망하고 창피한 얘기긴 한데요. 집을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가 돈을 지불하고 집 청소를 했어요.
- (14) 그냥 질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서 크게 나에 대해서 뭔가 바꾸려고 이러는 것도 없었던 거 같은데, 그런 게 무기력 같아요.

■ 가족들의 답변

(20) 동생만 들어가면 냄새가 너무 심해요. 서울역 앞에 간 거 같아요. 노숙자 냄새 있잖아요. 정말 안 씻어서 이럴 거면 서울역 앞에 가서 살아 막 이런 말도 하고 저도 이제 힘드니까요.

-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은둔 당사자 중 일부는 타인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고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으며 타인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어떤 단어를 골라야 할지 어려워 타인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든 일이라고 응답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7) 사람들이 막 뒤에서 좀 수군수군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중략) 동네 수영장도 몇 번 나갔었는데요. 할머니들 예의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그런 거 막 물어보니까 너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밖에 나가면은 내가 동물원 원숭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14) 스몰 토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주제로 누군가와 얘기할 때 대화의 주제를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어느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이 사람과의 대화 깊이를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 복귀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 가족들의 답변

(24) 밖에 나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무섭고.

- (원망과 분노) 원망과 분노에 대한 답변은 은둔 당사자들보다 가족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 다른 감정들에 비해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은둔과 분노의 감정은 자신이 은둔 생활에 이르게 된 것이 원가족 때문이라는 원망, 대화에서의 공격성 등의 형태로 나타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8) 상대의 말에 조금만 내 귀에 거슬린다면 자꾸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말을 해요.(중략) 한마디로 까탈스러운 성격 예민한 성격이라고 제가 체감하고 느끼는 거예요.

■ 가족들의 답변

(24) 지금 돌이켜보면 원인이 다 아빠한테로 가 있어요. 아빠가 그때 그러지만은 않았어도 3년이 제일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9) 3남매인데 둘째로 끼었는데, 뭐 언니는 맨날 첫째라서 챙겨주고 막내는 뭐 막내여서 챙겨줬는데 자기는 혼나기만 했다. 맞기만 했다. (중략) 나 빼고 셋이 단란하지 나만 없으면 셋이서 잘 다니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0) 무슨 말만 하면은 가볍게 지나가는 말도 상처를 받아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 (예민함) 은둔 생활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민해져서 은둔 이전이라면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을 타인의 발언을 문제라고 느끼게 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평소라면 들리지 않았을 자그마한 소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는 답변도 나타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6) 원래도 예민했는데 이제 집에만 있고 온 신경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밑에 집 전화 소리 물트는 소리 화장실 소리 그런 게 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 잘 때도 귀마개 끼고 잤던 것 같고요.

- (인지능력 저하) 은둔 생활 동안 타인과의 대화의 양도 줄고 대화 주제도 한정되면서 단어 선택이 어려워지는 등 언어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답변도 제기되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4) 엄마 아빠 동생하고만 얘기하다가 과 사람들이랑 과제도 하고 발표도 하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생각한 단어랑 말할 때 단어가 겹쳐서 2글자 단어가 막 앞글자 뒷글자 이렇게 따서 나오고 생각과 말이 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전까진 없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게 확실히 뭔가 잘못됐구나 이상하구나.

(16)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 가족들의 답변

(29) 인지능력도 조금 저하가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중략) 생각 좀만 하면 다 보이는 거짓말인데 자기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 (정신질환) 정신질환에 대한 답변은 주로 가족들에게서 나타남. 진단을 받았음에도 당사자가 치료를 잘 받지 않는다는 호소가 많았음

- 정신질환에 대한 언급은 심층 인터뷰 전반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이 부분에서는 은둔 생활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언급만을 다뤘음.

■ 가족들의 답변

(29) 우울증 약을 좀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이게 치료가 될 때까지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먹다 끊었다 먹다 끊었다 이러니까 효과가 없고

(30) 우울증 약 뭐 불안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 1~2년은 먹었고요. 근데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그랬어요.

- (자살에 대한 생각) 설문조사에선 자살 시도를 해봤다는 은둔 당사자들의 비율이 높았으나 심층 인터뷰에서 인터뷰 대상들은 자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했음. 은둔 당사자들과 가족 응답자 중 각 1명만이 자살 시도에 대해 언급하였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1) 저는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을 간 적도 있고 경험도 많고 여전히 한편에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 (12) 저는 특별히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왜 시도하지 않았냐면 제가 반려동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살하면 반려동물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제가 반려동물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제가 반려동물이 없었더라면 전 죽었을 거예요.
- (16) 생명의 전화 그런데도 전화해서 1번 정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진짜 막 안 되겠을 때는 마포 대교를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걷기만 하고 집에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도는 못 해왔어요. (중략) 아직도 좀 그런 감정이 계속 있어요.

■ 가족들의 답변

- (30) 내가 아는 것만 10번이니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④ 생활비 마련 방법

- (주변에 의존) 은둔 당사자와 가족 양 집단 모두에서 은둔 생활 당시 필요한 생활비를 부모나 동거인 등 주변에 의존하면서 마련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나타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1) 성인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애기아빠 부모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비를 주셔서 가능했었고
- (5) 아버지가 생활비를 조금 주셨었어요. 그냥 용돈이라고 하시면서 한 30만 원씩
- (10) 원래는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었는데요. (중략)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 용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 남자친구랑 둘이 남자친구 월급으로 생활을.
- (13) 거의 부모님의 용돈에 의존했죠
- (16) 그때 이제 아버님한테 용돈을 20만 원 받았거든요.
- (17) 그냥 돈이 없어질 때쯤 되면은 명절이었거든요. 이제 명절 때 받는 용돈으로.

■ 가족들의 답변

- (21) 용돈으로요. 그냥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하네요.
- (25) 전적으로 그렇죠(=의존). 예전에 직장생활하면서 퇴직금이랑 이런 게 조금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써서 아마 바닥인 걸로 알고 있어요.
- (26) 저희들이 용돈을 드려요. 엄마 드리면 그걸로 (엄마와 같이 사는 동생이) 필수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27) 이모나 이모부가 오면 용돈 1번씩 봉투에다 딱딱 넣어서 주고 돈 없을 것 같으면 형이 1번씩 주고 그러니까는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게 쓰고요.

(29) 용돈까지는 엄마가 주진 않았는데 동생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때때로 줬던 거 같아요.

(30) 경제적으로는 약간이 아니라 100% 서포트를 받았죠.

- (자신이 해결) 은둔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자신이 마련하였다는 답변은 은둔 당사자들에게서 더 많이 제기되었음. 구체적인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 은둔 이전에 직장을 다니던 당시 모아둔 저축의 소인 등이 답변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6)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알바를 파트타임으로 주 2회 정도 하거든요.

(11) 경제적인 거는 실업급여도 받았고 퇴직 급여도 있었고,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중략) 돈이 떨어질 때쯤 정신을 차린 거기 때문에.

(16) 보험에 있는 그런 대출을 썼어요. (중략) 진짜 돈이 없으면 그 하루만 일하는 거 있잖아요. 단기 알바. 그거를 가요.

(17) 아껴 쓰기도 했고 또 게임 아이템 같은 거 팔아서 2~3만 원 정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됐었어요. 당시에는 쓸 돈이 없으니까.

(18) 그때 당시에는 이제 꽤나 한 3~4년이 지났을 때니까 당연히 모아온 돈이 다 소진이 되던 때였어요. (중략)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일용직 같은 거를 그래도 조금씩 했었어요.

■ 가족들의 답변

(22) 아니요. 받지 않고 이제 본인이 그때(=직장 다닐 때) 모았던 돈 있잖아요. 그걸로 쓰는 거죠.

(29) 일용직 나가는 것도 밤에 나갔었어요. (중략) 그때 돈을 더 시급을 많이 주거든요.

- (공공부조 의존) 은둔 당사자 소수에서만 공공부조를 통해 생활비를 해결했다는 답변이 나타남. 대부분의 은둔 당사자들이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하고 가족이나 동거인 같은 사적 관계, 자신의 간헐적 노동 등을 통해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2) 제가 2022년도 10월에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하면서 희한하게 엄마도 같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원하고 퇴원하면 엄마가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요. (중략) 이런 식으로 둘 다 아프고 일도 못 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돼버린 거예요.

⑤ 외출 양상

-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외부) 생계 해결, 생필품 구입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외출한다는 응답은 은둔 당사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5) 제가 병원 다니고 편의점 가서 물건 사고 그러는 거 외에는 밖에 거의 안 나가거든요. 제가 해당이 되는 거 같긴 해요.
- (6) 알바를 파트타임으로 주 2회 정도 하거든요. 그 시간이 아니면은 거의 그냥 제 방에서 누워서 보내고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 그냥 간단히 나가서 그냥 바람 쐬는 정도예요.
- (7) 1주일에 몇 번씩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을 때는 나가고 뭐 나가는 김에 그냥 혼자서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해 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편의점 가서 먹을 거나 사오고.
- (9) 난 식구들 밥을 해줘야 되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한꺼번에 그냥 사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배달시키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11) 그때 당시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았거든요. 고용보험센터 갈 때만. (중략) 분리수거는 집에서 했다가 분리수거하러 나가긴 했죠.
- (12) 지금 생계를 위한 외출 말고는 안하고 그 외출을 할 때 필수적인 생활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해요.
- (18) 밖에 나갈 때는 그냥 뭐 사러 집 앞에 5분 거리 편의점 갈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암막 커튼 쳐놓고 잠만 자고 그런 은둔 생활이었죠.

■ 가족들의 답변

- (29) 일용직 그 일하러 갈 때 하고 그리고 편의점 정도예요.

- (생계 이외의 외출) 생계 해결이나 생필품 구입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외출을 한다는 답변은 은둔 당사자 일부에서만 나타남. 주로 거주지 주변을 산책한다는 답변이 나타났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3) 그 다음에 밖에 산책도 가고 달리기도 하고
- (5) 뒷산 산책할 겸 1바퀴 돌고오고
- (6)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 그냥 간단히 나가서 그냥 바람 쐬는 정도예요.
- (10) 정신과 선생님이 산책을 하라고 하셔서 강제로 이제 동네산책을 남자친구랑 같이.

■ 가족들의 답변

- (24) 늦더라도 자기 전에 아파트 단지 1바퀴 돌고

- (극단적인 외출 거부) 가족 응답자의 상당수는 은둔 당사자가 집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는 극단적인 외출 거부 경향을 보인다고 응답함. 즉, 은둔 당사자는 생활비를 가족들에게 의존할 수 있어 노동이 필요 없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편의점도 갈 필요가 없고 그 이외의 물품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므로 집 밖으로의 외출을 아예 거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임

■ 가족들의 답변

- (21) 1년에 한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예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 필요한 거 거의 다 인터넷 구매고.
 (26) 지금은 이제 전혀 외출을 안 하고 있나 봐요.
 (30) 월세를 얻어서 집 근처로 한 400미터 옆으로 방을 얻어줬거든요. 그리고 본가에 (중략) 거의 안 오고 집에서 혼자 생활을 했죠.

[6] 식사

- (부모님이 차려줌) 부모에게 음식 준비 등을 의존한다는 답변도 많이 나타남. 해당 답변은 은둔 당사자들보다 가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5) 저녁은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먹어요.
 (6) 어머니께서 차려주시고 가시면 그거 집에 있는 거 먹고
 (17) 집에서 집밥 주고 이렇게 하니까 밖을 나가진 않았거든요.
 (18) 엄마 아빠 출근하고 나서야 좀 눈 비비적 거리면서 일어나서 집에 있는 밥 먹고

■ 가족들의 답변

- (22) 차려두면 혼자서 먹는 거죠. 그때 눈을 뜨면 같이 먹는 거고요.
 (23) 밥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어요.
 (27) 식사는 가능하면 같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정확해요.
 (30) 시켜 먹거나 내가 먹을 거 해다 갖다 바쳐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죠.

-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 상당수의 은둔 당사자와 가족들은 은둔 당사자들이 식사를 배달음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변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7) 그냥 편의점 가서 먹을 거나 사오고

(10) 편의점 음식일 때도 있고, 배달시켜 먹을 때도 있고. 요즘에는 1끼랑 한 1.5끼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끼랑 간식 이렇게.

(11) 밥은 대부분 시켜 먹어서. 1번 시키면 그걸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먹고.

(16) 솔직히 밥 안먹어도 배 하나도 안 고프거든요. 집에서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심심하고 막 허하고 그래서 그냥 배달 음식을 시키면 한 입 먹고

■ 가족들의 답변

(21) 배달음식 시켜 먹거나

(24) 작년까지만 해도 배달 음식을 뭐 하루에도 한 2번 정도 시켜서 먹고 그랬었어요.

(29) 자기만 몰래 (배달)시켜서 방에서 혼자 먹는대거나

7 주로 하는 일

- 은둔 생활 중 주로 하는 일로는 은둔 당사자와 가족들 모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서핑, 영상 시청, 게임 등이 가장 많이 답변되었음. 컴퓨터를 한다는 답변은 양 집단 모두에서 적게 나왔는데 이는 주로 누워있는 경우가 많은 은둔 당사자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가족들의 답변에선 막연한 추측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나 가족들이 한 집에 살면서도 은둔 당사자가 어떤 일을 하며 일상을 보내는지 잘 모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2) 핸드폰 보고 있다가 배고프면 먹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새벽까지 보고

(3) 보통 책을 읽거나 인터넷 같은 걸 보고요.

(4)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노래를 듣거나 드라마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5) 부모님 시중 들어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침대에 누워서 라디오 듣고 휴대폰 게임하고.

(10) 핸드폰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거나 남자친구랑 동거 중이어서 남자친구 퇴근하면 얘기 좀 하고

(11)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티비 보고 아무 생각 없어요.

(13) 밤에 늦게까지 게임하거나 그러고 오후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밥 먹고 게임하거나.

(15) 인터넷을 한다던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나 영화 본다든가 컴퓨터로 많이 했었고

(15) 아침에 남편 배웅하고 그때부터 잠을 자고, 자고 나서 남편이랑 대화 좀 하고 남편은 이제 잔다 그러면 인터넷하고

(17) 핸드폰 좀 보다가 취처럼 거실 나와가지고, 다시 방에 들어가고 게임하고

(18) 그냥 자는 거였어요. (현실에 대한 생각) 잊으려고 컴퓨터 게임하고 그러고 자고.

■ 가족들의 답변

- (20) 밤에 게임하고 낮에 자요. 그리고 깨어있을 때 하는 것은 핸드폰 게임.
- (21) 딱히 게임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티비를 조금 보는 것 같은.
- (22) 이제 그냥 게임만 해요. RPG 게임 그런 거
- (23) 가끔 힐끗 보면 화초도 키우고 뭐 그러더라고.
- (25) 주로 그냥 인터넷이나 티비나 뭐 그리고 집안일 소일거리
- (27)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 가지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겠쥬.
- (30) 종일 자고, 먹고 무기력하고 티비 영화 보고, 넷플릭스 이런 거 있잖아요.

⑧ 은둔 생활에 대한 주된 걱정거리

- 은둔 당사자들과 가족들 모두 은둔생활에 대한 주된 걱정거리로 현재 정상적인 경제·사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것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은둔 당사자들은 자신의 삶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반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들은 은둔 당사자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부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소통 단절에 대한 답답함,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답변도 많았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1) 이러다 죽을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중략) 나만 힘들면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데 주변에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 (3) 혼자 있다 보면 지루하고 심심하잖아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 (4) 아무래도 이거를 벗어나고 싶은 게 좀 힘든 부분이에요.
- (5) 지금 40대면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이대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그런 사실
- (6)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죠. (중략) 지금 나이가 30인데 30에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으니 까요.
- (6) 사회생활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
- (8)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로 인해서 내 소중한 아이랑 내 배우자가 스트레스받고.
- (9)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도 (중략) 내년이나 준다고 그러고
- (10) 남자친구도 정신과적 병증이나 은둔생활 이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언제까지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을까?
- (11) 난 너무 늦었구나.
- (13)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지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 (13)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 같아요. 뭔가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 (14)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중략) 언제 들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어요.

- (15) 왜 난 도대체 못 부지런해지고, 왜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막 생각이.
 (18) 이대로 나이는 분명 먹어갈 거고, 모아놓은 돈은 다 사라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19) 내가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플러스 내가 정말 사회 일원으로 잘 살 수 있을까?

■ 가족들의 답변

- (20) 저랑 둘째랑 엄마랑 생각하는 가장 큰 그거는 경제적인 자립이에요. 경제적으로 엄마 집에 얹혀 살지만 저는 이제 곧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가거든요.
 (23) 대화가 좀 있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밥도 따로 먹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24) 앞으로 엄마 아빠 늙고 병들면 본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으로 표출을 하더라고요.
 (24) 아빠에 대한 분노를 아직 풀지를 못하니까 애가 계속 그냥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26)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 친구는 우리 몫인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랑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27) 사회에 빨리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게 안타까운 거고, 엄마 아빠가 좀 있으면 돈 벌지 못할 상태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그런 게 답답한 거죠.
 (28)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섰어가지고 저도 되게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거든요. 무력감이 제일 컸던 거 같아요.
 (30) 재가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지 희망이 없잖아요. 끝이 안 보이니까. 저게 평생을 갈지, 아니면 몇 년 하다 그만둘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죠.
 (30) 죽으려고 욕상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 아유 죽으면 연락 오겠지. (중략) 이렇게까지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내 자식이 먼저 갈 운명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3) 은둔 극복 노력과 주변의 도움

① 자신의 노력

-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 은둔 당사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은둔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남들에겐 사소해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입장에선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관련 질문은 은둔 당사자 인터뷰 시에만 적용되었으므로 가족들의 답변이 없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2) 의지가 조금 생겼는지 식사량을 많이 줄이고 누워있던 걸 앉아있는 거로 앉아있던 거를 서 있는 거로 바꿨어요.
 (8) 부모 교육들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고 산에 한 1~2년 동안 2~3시간씩 타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10) 하루에 1번 편의점 가기가 제 목표 같은 거였고요. 아니면은 아침에 친구한테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로 몇 번이고 깨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15) 아침에 매일 세수해보기, (중략)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어서 요리라도 해보고.
 (16)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해보자 그리고 모자를 쓰고 산책을 나가고요.

○ (운동과 치료) 운동을 하거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병원 등을 방문하고 있다는 답변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음

- 관련 질문은 은둔 당사자 인터뷰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가족들의 답변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수록하였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2) 30기로 정도는 뺐을 것 같은데 다 빠지는 못했어요. 허리로 최근에 입원을 해서 MRI 다시 찍고 시술받고 퇴원하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4) 상담만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거 같아요.
 (10) 헬스랑 피티도 받아봤고 산책하려고도 해봤고
 (19) 저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전문 상담사분과 무료로 받았어요. (중략) 마음의 아픔이 많이 해소됐던 거 같아요.

■ 가족들의 답변

- (24) 자기가 이제 좀 건강하게 살아야겠어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진대 이래 가면서 저희 집이 산 뒤에 있거든요(중략). 지가 알아서 하루에 2번씩 다녀와요.

○ (정책 참여) 정책 참여와 관련된 은둔 극복 시도 답변들로는 지역 사회복지관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공공이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 등에의 참여 등이 제시되었음

- 관련 질문은 은둔 당사자 인터뷰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가족들의 답변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수록하였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3)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거기다 인천 은둔형 외톨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복지관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거기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기 들어가서 일단 그분하고 대화하고 직접 만나서 거기 들어갔죠.
 (7) 동네 복지관에 혼자 사는 중년 1인 가구들 프로그램이 올해 봄쯤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니려고 돌아다니고

- (7) 인천시에는 무료 원데이 클래스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건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기회 있으면 나도 해볼까 해서 지금 몇 번 가본 적은 있거든요.
- (8) ○○에 그 아이 가족 상담 그런 것들 있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얘기하고 문제없는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고,
- (17) 청년취업지원제도 같은 거. 그것도 돈을 주거든요. (중략) 그거를 다니게 됐어요.
- (18) 공공근로에 지원을 했는데 붙었어요. 그때 당시 꾸준히 하니까 뭔가 조금 보람도 있고 일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 가족들의 답변

- (28)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알기로 구직 지원금인가 그게 선정이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중략) 그거로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 먹으면서 좋았던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 (사회적 관계 시도) 소소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시도해보았다는 답변들도 은둔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남

- 관련 질문은 은둔 당사자 인터뷰 시에만 적용되었으므로 가족들의 답변이 없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3) 복지관에서 은둔형 외톨이 모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하고 알게 돼 가지고 그분이랑 가끔 만나긴 하는데요.
- (4) 친구들을 만나서 밥이라도 먹던지 아니면 술 한잔 하던지 이런 식으로

○ (근로 시도) 은둔 극복을 위해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를 하거나 구직을 시도했다는 답변도 제시되었음

- 똑같이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답변이어도 답변이 나온 인터뷰의 맥락이나 근로를 한 목적에 따라 아래의 답변들은 은둔 극복을 위한 근로 시도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질문은 은둔 당사자 인터뷰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가족들의 답변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수록하였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11) 취업을 해야겠다는 의욕은 생겨서 잡코리아에 들어가서 회사를 서치하고
- (16) 전역하고 나서는 일용직으로 그 박스 까는 그런 거 있거든요. 컴퓨터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만 모아야겠다 해서 2주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 가족들의 답변

- (27) 이번 인천시청 취업박람회 같은 게 있어서 본인이 나가서 면접을 보겠다고 ○○인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② 주변의 도움

- (일자리 소개) 은둔 극복을 위한 주변의 도움으로는 일자리 소개가 많이 언급되었음. 특히 가족들의 경우 자신들의 사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서라도 은둔 당사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려했다는 답변이 많이 나타났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4) (은둔 이전에) 학원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중략) 거기 있던 선생님이 학원 강사 소개를 해줘 가지고.

(18) 공공근로 제도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친구를 통해서 (중략) 공공근로 얘기하기론 되게 좋았다고 해 가지고,

■ 가족들의 답변

(20) 아버지 지인분이 일을 하고 계셔서 그분의 소개로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23) 재작년엔가 한번 내가 저기 고용센터에 데리고 가봤는데 안 하려 그러더라고요.

(27) (친척이) ○○라고 하나 어디 1차 하청 쪽으로 이력서를 넣자고 하면서 며칠 데리고 다니면서 집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나와라 했더니 요즘은 말을 많이 좀 하더라고요.

(30) 남매 중에 은행 다니는 오빠가 있는데 친구가 세무사 사무실을 해요. 세무 자격증 따면 여기 취직시켜 준대 이러니까 직업 훈련을 받으러 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성공하진 못했고 여러 번 실패하고 이제 자격증을 땀어요, 한번 이력서를 내보자 그랬는데 이력서 쓸 힘이 없잖아요? 근데 언니가 글을 잘 써. 언니가 이력서를 딱 써줬어.

- (감정적 배려) 가족들에게서 은둔 당사자에 대해 감정적 배려를 했다는 답변이 많이 제시되었음. 다그쳐봐야 역효과만 날 것, 가장 힘든 사람은 당사자 본인일 것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은둔 당사자들은 가족보다는 배우자나 연인의 감정적 배려를 주로 언급하였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 은둔할 때는 남자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10) 정신과 선생님이 산책을 하라고 하셔서 동네 산책을 남자친구랑 같이해요. (중략) 남자친구가 원래 서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직을 인천으로 하면서 아예 동거를 시작했어요.

(15) 남편이 기다려주고 괜찮아 회사에서 또 다시 돌아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저도 남편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 가족들의 답변

(24) (은둔 당사자의 형이) 동생이 저러고 있는 거 보면 환장하는 거지. 제가 몇 번 얘기했어

요. 그렇게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힘들어한다.

(25) 뭘 만들거나 자기가 손으로 하는 거를 좋아해요. 취미 삼아 하거나 제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거를 하게 하죠.

(28) 제가 가족들한테 말을 했어요. 지금 저 친구가 이렇게만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니까 일단은 뭐 먹고 싶냐 약간 이런 일상적인 질문을 하자고요.

(28) 애가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뭐 먹을래 아이고 고생했다. 이렇게 공감의 말이 나오기가 어렵지만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애한테는 정말 어렵고 큰 한 발자국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30) 내가 변하지 않는 일관적인 태도 유지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 (정신과 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다는 가족의 답변도 나타났으며, 치료를 거부하여 진전이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6) 그때 우울증 약 먹어서 이거라도 해야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고요.

■ 가족들의 답변

(21) 병원 정신과든 그런 치료든 권유를 해도 무시를 해버리니까.

(24) 아빠가 상담을 받으면 자기도 같이 상담받을 용의가 있다. 그러긴 해요.

(26) 정신과나 이렇게 좀 갈 수 있게끔 저쪽으로 유도도 하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3] 극복 계기

- (주변인) 은둔 극복의 계기로 은둔 당사자들은 주변인들이 동기가 되었다는 답변을 많이 함. 은둔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챙겨주는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은둔 생활을 벗어나게 한 주된 계기였다는 답변이 많았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1) 내가 내 조카한테 떳떳한 이모가 되고 싶더라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14) 그전에 실패했는데 여기에 졸업장까지 안 하면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한 거 같고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다

(15) 남편이 그래도 기다려주고 관철을 거라고 얘기를 해 주니까 (중략)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19) 부모님이 전적으로 (아이를) 좀 봐주시고 (중략) 이제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서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현재는 일하고 있어요.

■ 가족들의 답변

(28) 어머니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는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엄마도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듣고서 일을 당장이라도 나가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 (경제적 동기) 경제력 부족으로 더 이상 은둔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됐거나 자신이 마땅한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은둔의 계기가 되었다는 답변도 일부 나타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1) 생활비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조카한테 선물 하나를 마음 편히 사줄 수가 없구나
(16) 우선 돈이 없으니까 단기 알바라도 해야겠다면서 알바를 하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 (취업) 취업을 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은둔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답변도 일부 나타남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4) (학원) 강사예요. 알바라고 생각했던 곳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어려웠는데 그냥 했던 일을 또 할 수 있게 되니까.
(16) 알바를 하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회사를 들어갔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기 알바를 하면서 회사를 들어갔던 것 같은데.

- (연애) 은둔 당시, 연애 경험에서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했던 경험이 오히려 은둔 극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7) 여자친구를 만났거든요. (중략) 제 겉모습만 보고 다가왔던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차였거든요. 그때 좀 충격요법을 좀 세게 받았죠.

■ 가족들의 답변

(30)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마지막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애가 이게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니까 뭔가 해봐야 되겠대요,

- (공공정책) 공공정책, 그 중에서도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은둔 극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답변들도 나타남. 단, 해당 답변들이 청년층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타 대상,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많이 시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따라서 아래의 답변들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일자리 지원이 다른 정책 수단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로 보기에겐 무리가 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7) 직업 학교 다녔던 동생이 추천해 줘서 카페를 다니게 됐거든요. 거기서 2년을 다녔거든요. 그게 제일 큰 전환점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으로 일을 오래 하게 된 그런 케이스.

(18) 공공근로가 끝난 이후에는 그 주말 알바만 계속했어요. 제가 알바하던 당시에서도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고 (중략) 이쯤하면은 진짜 정규직으로 일해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계약을 하게 되죠.

4)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필요한 정책

① 정책 대상 발굴

- 정책 대상인 은둔형 외톨이들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고 정책 참여 의지도 낮기 때문에 공공의 힘만으로 직접 정책 대상들과 접촉이 어려우며 따라서 가족들을 매개로 하는 대상 발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가족들의 답변

(26) 본인이 어떻게 경로를 찾을 일도 없을 거고, 밖으로 나가는 소통이 없으니까 외부하고의 방법은 가족밖에 없어요.

(29) 그 친구들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 친구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발굴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 동생 발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말고는.

② 상담 지원

- 은둔 당사자와 가족 양 집단 모두에서 상담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답변이 많이 나타남. 상담 방식으론 비대면 온라인 상담, 1:1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6) 전화로 하면은 오늘처럼 좀 부담도 좀 덜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 1대1로 방문을 꾸준히 해서 집 상태나 그 사람 체크하고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13) 들어주는 서비스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봐 주고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기회

(15) 줌이나 채팅 상담 같은 걸 하고 싶을 거 같아요.

(16) 1대1이나 비대면으로 전화로 한다거나 그러고 나서 나와서 신청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18)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심리 상담을 받아봤었거든요. (중략)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게 은둔 청년들과 연계가 돼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18) 당시나 지금이나 상담은 무조건 비대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 가족들의 답변

(21) 온라인이요. 일단 먼저 온라인으로 좀 하다가 대면으로 상담이 1차적으로는 좀 필요한 것 같고,

(22) 희한하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누가 끼줘야지 가족들을 끼우면은 결국은 둘 중의 하나는 자리를 피해요. 제삼자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전문가가 그러면은 아 이제 이런 실마리가 있구나 하는 찾아오는 가족상담.

(22)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연계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③ 일자리

-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제공부터, 직업 훈련, 기본적인 직장 생활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4) 인턴십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청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해준다면 그것도 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5) 적당한 일자리를 (중략) 어르신들 일보다는 한 단계 높지만, 직장인들의 그런 업무 난이도보다는 낮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주면 좋겠다.

(9) 1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7) 1달 2달 정도 근속을 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 게 1~2달을 하면은 처음엔 힘들지만 관성이란 게 붙잖아요.

(18) 공공근로와 (중략) 연계를 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는 뭐 상담이라든지 직업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심리치료상담 이런 것들을 같이 프로그램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19) 배고픈 사람한테 물고기를 주는 것도 좋지만 물고기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가족들의 답변

(27) 어디 가서 면접을 보더라도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30) 일본에 은둔형 외톨이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가게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규칙이 없대요. 은둔형 외톨이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15분만 일하고 가도 되고 5시간 일하고 가도 되고 1달에 1번만 나와도 되는 가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④ 사회적 관계

- 은둔 당사자들에게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음. 구체적으로 서로 고충을 분담할 수 있는 은둔 당사자들끼리의 자조 모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모임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함께 제시되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2) 비슷한 사람끼리 잠깐 1~2시간의 모임 정도는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 저는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4) 친목활동 이런 거 진행하면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서로 간에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도 생길 거라 생활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8) 주 1회 정도로 해 갖고 교육을 (중략) 40~50대한테도 눈높이 맞춰서 1시간 정도는 힐링할 수 있게끔 그런 거나 심리 상태 설명을 해주고

(11) 일상적인 모임도 얘기 나누고 다과하고 익사이팅한 것도 가끔 하고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7) 저랑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은 좋을 거 같아요. 추가하자면 참여했을 때 참여비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거 때문에라도 가지 않을까?

(19)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줌이나 실제로 카페에서 만나거나 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고충은 어떻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도 좋을 것 같고,

■ 가족들의 답변

(20) 은둔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9) 이 사람이 에너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원해주다가 다른 친구들 만나보고 싶어 할 때 집단을 넣으면 그거야말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⑤ 문화 활동 지원

-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문화활동, 취미 지원 등을 통해 은둔 당사자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었음. 여타 영역의 문화 활동이나 취미활동 지원의 주된 목적이 문화 향유라면, 은둔 당사자를 위한 정책에서는 해당 정책들이 은둔 당사자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4) 구나 시 이런 데서 청년들을 위해 시간을 내줘서 교육도 받고 문화생활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면 은둔생활에 해결할 수 있게 조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8) 뜨개질이라든지 미싱 또는 바리스타 그런 거 말고도 취미적으로 미술 그림 그리기 그런 것도 있고

(10)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시고 그런 강제성을 부여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약속시간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시간에는 몸을 움직이게 되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 가족들의 답변

(25) 취미로 유인해가지고 연계를 해준다 해서 대인관계가 넓혀질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⑥ 경제적 지원

-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소수 제기되었는데, 이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현재 당장 경제적 지원이 급한 경우는 별로 없고 상담, 일자리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 다른 부문의 지원을 통해 은둔 생활에 벗어날 수 있다면 경제적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0) 은둔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 상황 같은 게 명확히 있는 케이스들에 한해서라도 경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7 가족에 대한 지원

- 은둔 당사자의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은둔 당사자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일부는 은둔 당사자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족간의 자조 모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함

• 관련 질문은 은둔 당사자의 가족들에게만 적용되었음

■ 가족들의 답변

- (20) 가족 다 상담을 해서 은둔 당사자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상태에 맞춰서 가족들은 어떻게 좀 해줘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다면 좋을 거 같아요.
- (21) 은둔형 생활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보단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물질적 지원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결국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니까.
- (25) 가족한테도 심리 상담이나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29)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청년을 대하는 방법 혹은 대처할 수 있는 대화법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30) 가족을 위한 거는 일단 자조 모임이 필요하겠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1박 2일이라도 같이 니 새끼 내 새끼 극복 사례도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8 정책 추진시 주의 사항

- 정책 추진시 주의 사항으로는 공무원이나 담당자의 무관심이나 불친절이 은둔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단 의견, 이미 추진 중인 기존 정책에서도 은둔 당사자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주요하게 제시되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 (1) 주민센터 방문했을 때 담당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도 않고 불친절한 경우가 사실 대다수세요. 이전에 계속 방문을 했었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 (3) 은둔형 외톨이 모임이라곤 하는데 저같이 완전 진짜 소심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 좀 활발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 (7) 구청 직원들은 불친절하게 성질을 내면서 전화를 받거든요. 일단 수급자라고 하면은 ‘수급자들은 다 진상이다.’ 이런 개념들을 공무원들은 갖고 있더라고요.
- (12) 정신질환 지원 프로그램이 국가나 구에서도 따로 하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선착순이라던가 랜덤이라던가 그러니까 저는 다 떨어지고 좌절감이 들어요.

9 인식 확산

-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은둔 당사자들의 답변

(15) 아직도 어른들은 '재 왜 아직도 집에만 있냐.' 라는 질책과 사회 부적응자 낙인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더 관심 갖고 배려해주거나 너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어 이런 좀 따뜻한 말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됐었을 텐데,

■ 가족들의 답변

(28) 잘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되게 많이 보도가 됐어요. 유튜브나 어떤 시사 채널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렇게 사회적 문제로 인식시켜준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거든요.

(28) 사람을 지칭하기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본인이 부끄러워야 될 문제 이렇게 느껴지는 어감인 것 같아요.

제3절 소결

- 성장기부터 나타난 은둔의 배경 요소들로 은둔 당사자들은 대부분 부모의 관계를 답변한 반면, 가족들은 은둔 당사자의 기질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답변이 많았음. 그러나 이후 답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성장기 때의 부정적 요인들은 은둔의 배경 정도로만 작용할 뿐 은둔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함
- 사회생활 진출 과정에서의 좌절, 직장 생활에서의 부조리한 경험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에서 은둔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일자리 관련 이외에 은둔의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된 학업 스트레스, 직장 생활에 맞지 않는 기질, 연애·결혼 등 중요한 인간관계에서의 실패, 출산과 육아 등의 요인들이 나타난 시기 역시 대체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중반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남
- 이 시기는 학업을 마치고 직장 안착,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겪게 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행기로 이 시기에 구직, 직장생활, 연애·결혼 등에서의 실패와 부정적 경험이 은둔 생활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은둔 당사자들은 은둔생활이 단일한 특정 계기가 아닌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시작되었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음. 예를 들어 취업이 잘 안되는 경우, 부모로부터의 압력과 잔소리 등이 시작되며, 경제적 궁핍과 자존감 하락 등이 겹치며 지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은둔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은둔 생활이 특정한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요인들이 쌓이고 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강화하는 부정적인 연쇄의 과정이 결국 은둔으로 이어진다는 것임. 즉, 은둔은 ‘사건’이라기보다 축적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누적된 과정이 은둔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해야 할 것임
- 은둔 이후, 은둔 당사자들은 대부분의 인간 관계를 단절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음. 생활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식사마저도 부모 또는 배달 음식 등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음. 또한 은둔 생활 중 수면 증가, 불규칙한 생활 패턴, 건강 악화, 외출 거부 등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답변함

- 은둔 생활 중의 주된 심리적 상태로는 무기력, 우울감, 자괴감, 자학, 원망, 관계에 대한 두려움 등이 주로 답변되었으며 이러한 감정들은 은둔 상태에 접어들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부정적 감정들은 은둔 생활을 더욱 더 강화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둔 당사자의 가족들은 힘든 부분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당사자에 대한 걱정,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 은둔 당사자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답답함 등을 주로 응답하였음
- 은둔 당사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는 주로 상담,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일자리 등의 분야가 많이 언급되었음. 상담 지원 방식 면에선 비대면, 1:1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에선 은둔 당사자들끼리의 자조 모임 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일자리 지원 분야에선 은둔 당사자들의 상태에 맞는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단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음
- 그 외에도 은둔 당사자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문화 활동이나 취미 활동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은둔 당사자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으로는 은둔 당사자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법을 알려주는 상담과 교육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가족과의 자조 모임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용역

VI.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2절 인천시 은둔형 청장년을 위한 정책 제언

VI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외출빈도

- 외출빈도와 관련하여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병원 등은 외출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에서만 나오고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에도 많은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음
- 30대 이상부터는 편의점, 병원 등의 필수적인 목적을 위해 외출하는 반면 20대는 상대적으로 취미생활을 위해서 외출하는 경향이 높음
- 가구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외출빈도가 낮아지고 취미생활보다는 필수적인 목적을 위한 외출이 증가함

2. 위험군

- 30점 이상의 고위험군은 44.1%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은둔 당사자들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물리적 고립의 정도가 높은 응답의 경우 은둔성향 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표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3. 은둔 기간과 횟수

- 총은둔기간의 경우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1-2년 미만, 3-5년 미만, 5년-7년 미만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년의 이상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95.6%로 나타남
- 은둔첫시기의 경우 20-30대에 시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총은둔횟수의 경우 2회 이상의 재은둔 비율이 46.5%에 달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은둔성향 점수가 낮을수록 총은둔기간이 짧아지고 은둔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총은둔기간이 긴 응답이 나타나거나 빈도가 늘어나는 패턴이 확인되어 고위험군에 있는 당사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4. 성인 이전 경험과 은둔의 이유

- 은둔 이전 부모님의 학대,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의 경험이 40% 이상으로 나타나며,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부모의 학대 경험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은둔의 이유로 직업관련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순으로 나타나며 직업관련 어려움은 남성이, 정신적 어려움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학업관련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가정과 학교폭력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관련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경험이 증가하는 패턴도 보여주고 있음
- 은둔의 이유로 정신적 어려움과 대인관계 어려움의 경우 은둔점수가 높아질수록 어려움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5. 직장생활과 경제환경

- 은둔생활전 근무기간이 1-2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은둔생활 전에 종사했던 직종으로는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많이 나왔음
- 퇴사이유는 부당한 처우, 업무소진, 열악한 근무환경,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순으로 나타남
-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벌여놓은·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통해 충당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음
- 은둔성향 점수가 높아질수록 가족의 도움과 관공서의 지원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소한으로 일을 한다는 응답은 은둔성향 점수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6.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과 매체 의존도

- 집에서 아무것도 안한다는 응답비율이 거의 30%에 달함
- 인터넷 게임은 남성이 더 많이 하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응답자는 여성이 좀 더 많은 패턴을 보임
-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터넷 게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TV, 아무것도 안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정보출처는 온라인 매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또한 은둔성향 점수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7. 사회관계 자본

- 속마음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1명인 경우가 많음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는 사람,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등 사회적 지지 체계와 관련하여 거의 30%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있는 경우에도 가족·친척, 친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 관계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임

8. 자살태도

- 죽고 싶다는 자살의향이 71.2%에 달해 자살 총동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자살시도의 경우 경험은 18.2%에 달하고 이 중 3회 이상은 7.5%로 나타남
- 자살의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의향이 높게 나타남
- 경제수준을 하로 응답한 경우 자살의향이 특히 높게 나타남
- 자살 시도 횟수가 높을수록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
- 자살시도와 관련하여 1~2회의 경우 중년이 높게 나타나고, 3~4회는 20~30대가, 5회 이상은 20대와 중년의 경우에 높게 나타남
- 자살 시도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은둔성향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살의향과 자살시도가 높아지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결국 경제환경이 안좋은 연령대가 높은 여성의 경우 자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밀착사례관리가 필요해 보임

9. 생활환경

- 식사는 하루에 1~2끼만 먹거나 배고플 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스스로 준비해서 먹거나 외부로부터 배달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수면의 질은 나쁘다는 의견이 75.5%에 달하며, 수면시간은 4~8시간 미만, 8~12시간 미만 순으로 나타남
- 자기관리 및 청결(환복, 목욕·샤워, 세수·양치, 정리·정돈)의 경우 2~3일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번 꼴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음

-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1인 가구가 27.2%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과반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거환경은 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가 2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거주환경도 양호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해 보임

10. 보건환경

- 신체질환 진단자 30%, 정신질환 진단자는 38.1%로 나타나 많은 응답자가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신체질환은 44.3%, 정신질환은 56%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체질환 여부의 비율도 높아짐
-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체질환 여부의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에 치료여부에 대한 비율은 높게 나타남
- 한편 학력이 낮을수록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조울장애와 조현병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신질환 치료여부에 대한 응답율도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줌
-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옴
- 뿐만 아니라 은둔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11. 당사자의 감정상태

- 기분이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평소 하던 일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르다,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꼈다 등의 의견이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남
- 이러한 감정적 상태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해 보임

12. 당사자와 가족 간의 관계

- 은둔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은둔당사자의 행동을 이해못하거나 부양의 책임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음
- 당사자의 경우 가족과의 갈등이 심하다는 의견이 30%에 달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절실히 보임
- 그러나 가족들이 당사자가 은둔생활을 하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56%에 달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많아지는 반면에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임
- 뿐만 아니라 은둔성향 점수가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비율 또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13. 문제해결 노력

- 문제라고 생각한 계기와 관련하여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관공서, 전문가 권유 등 외부의 공적자극은 3%에 불과해 어떤 지원을 통해 은둔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문제해결 노력의 경우 스스로 노력은 55.6%,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29.7%로 나타나는 반면에 외부의 공적지원을 알아본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함
- 스스로 노력하였다는 응답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응답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응답수를 보여주고 있음

14. 재은둔 이유

-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로는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장 많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스스로 벗어났다는 의견, 취미활동 순으로 나타남
- 과거 은둔생활로부터 회복은 되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은둔 경험이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복이유는 불안·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 학업 및 취업의 어려움, 사회적응의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순으로 나타남

- 재은둔 이유로 남성은 사회적응 어려움을, 여성은 정신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장내 갈등 및 적응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은둔으로부터 벗어난 계기와 관련하여 은둔성향 점수가 높아질수록 상담심리치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은둔성향 점수가 낮아질수록 취미 활동을 통해 벗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재은둔 이유와 관련하여 은둔성향 점수가 낮아질수록 가족갈등이나 학업·취업의 어려움을 선택한 응답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은둔성향 점수가 높아질수록 직장 내 갈등을 선택한 응답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15. 도움과 지원

-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이 없다는 의견이 63.8%로 나타나고, 지자체나 관공서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함
- 도움을 받았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이 28.3%, 약간 좋아졌다는 의견은 49.7%로 나타남
- 가족들이 기울인 노력으로 취업 및 직업훈련 권유, 취미 및 문화생활 권유, 대화를 하며 믿고 격려,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 권유, 상담 서비스 기관 탐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순으로 나타남
- 당사자들의 경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향은 50%로 나타나며, 도움수용 이유로는 벗어나고 싶어서라는 의견이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도움거부 이유로는 상태를 알고 싶지 않아서 63.8%,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36.2%로 나타남
- 남성보다 여성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을수록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향도 높아지는 반면에 경제수준은 낮을수록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향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해결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리고 싶지 않다는 답변과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답변이 많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의견이 약간 높게 나옴
-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40점 이상의 은둔성향 점수를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도움받을 의향에 대해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으며 도움받을지 모르겠다는 응답의 경우 은둔성향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은둔성향 점수가 높아질수록 외부의 전문지원을 받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문제해결 노력들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음
-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은둔성향 점수가 높아질수록 약간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16. 지원 프로그램 참여의향

- 당사자 지원필요성은 72.2%, 가족지원 필요성 60%로 나타남
-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부모상담, 개인상담, 문화/여가활동 지원, 회복촉진 프로그램, 가족간 모임 등 골고루 응답이 나옴
- 비교적 높은 참여의향을 보여준 서비스로 비대면상담, 편한 공간지원, 안식공유 프로그램, 공동작업 프로그램, 지식과 정보제공,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창업지원, 생활서비스 지원, 상점이용쿠폰, 힐링하우스 사업, 질병예방치료, 관심분야교육 등이 있음
- 연령대가 높은 남성일수록 거주지 방문 상담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참여자 간 자조모임은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우호적인 패턴을 보임
- 공동작업 프로그램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선호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남
- 관심분야 교육과 관련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선호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참여의향이 많이 있다는 응답의 경우 은둔성향 점수가 높아질수록 정비례로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

17. 최소 은둔기간

- 은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경우 32%가 6개월~1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약 20%가 1년~2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따라서 최소 1년, 길게는 2년 주기의 은둔 청장년층을 위한 실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제2절 인천시 은둔 청장년층을 위한 정책 제언

1. 조기발굴 체계 구축

- 예방보다는 조기발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예방을 하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환경적 개입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조기발굴 체계는 20대 이후의 청년을 대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실제로 은둔첫시기를 20-30대로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음
-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2년 단위의 실태조사 필요함
- 인천의 경우, 최소은둔기간과 관련하여 6개월~1년, 1년~2년이 가장 높게 나와 이 일정에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읍면동 담당자 협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조, 버스 홍보물, 구글 GDN 등 온라인 홍보, 인천e음 홍보 등이 비교적 효과적이었음
- 응답자들의 의견 중에는 주변사람들의 신고나 발굴 포상제도, 지역내 배달음식점과 협업하여 포장비닐을 통해 홍보를 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음

2. 은둔 청장년 진단체계 구축

- 실제로 위험군에 해당하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에 상이한 패턴이 발견됨
- 예를 들어, 은둔성향이 높을수록 자살의향과 자살시도가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40점 이상의 응답자들의 경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은둔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의향도 정비례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은둔형 생활을 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을 식별하는 진단체계가 필수적임

3. 은둔형 청장년층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은둔 청장년층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정보제공, 상담예약, 교육자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들이 자택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은둔 청장년층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은둔의 원인, 과정, 회복 메커니즘 등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발굴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은 은둔 청장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제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4.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은둔형 경험은 사회적지지 체계가 결핍될 때 나타나는 현상임
- 실제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1명인 경우가 대다수였음
-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가족들이 당사자가 은둔생활을 하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은 경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은둔 청장년층들이 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사회적 활동 참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취미활동 모임,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청장년층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은둔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은둔 회복 프로그램이 절실함
- 당사자 간 자조모임, 인식공유 프로그램, 공동작업 프로그램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음

5. 은둔형 생활자들을 위한 보건체계 마련

- 은둔형 생활자들을 위한 복지체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보건체계가 필요할 수 있음
- 은둔형 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약 30%가 신체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들 중 약 44%가 치료를 방치하고 있음
-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약 38%가 앓고 있으며, 이들 중 약 56%가 치료를 방치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높을수록 순환기계, 내분비계에 문제가 있고 조현병의 우려가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은둔형 생활자들을 위한 맞춤형 보건체계가 필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건강진단 서비스의 제공 같은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

6. 은둔형 청장년층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은둔형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 은둔의 이유로 직업관련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다양성은 은둔형 생활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나타냄
-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유관기관으로 주민자치연합회, 각 기초 자치단체, 관내 행정복지센터, 통이장 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 청년미래센터, 각 교육기관, 인천 청년포털, 대중교통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함
- 따라서 이들 간의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7. 발굴 이후 초기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 은둔형 생활자들이 발굴되는 경우 이들을 초기에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문제해결 노력을 묻는 문항에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약 30%로 나타남
-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이 없다는 의견이 63%나 되며, 지자체나 관공서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은 10.1%에 불과함
- 도움받을 의향이 있다는 의견 중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도 36%에 달함
- 따라서 청년미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전문기관에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많은 응답자들이 익명으로 언제든지 학교나 지역 내에 손쉽게 문의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8. 활동가·상담가 등 전문인력 양성

- 은둔형 청장년층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실태조사가 여전히 많이 미흡함
- 관련 정보를 대부분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음
- 한국과 일본 간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자발적인 의지로 물리적 고립상태와 사회자본 단절상태에 놓여있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이분법적인 접근법에 따르면 사각지대가 발생
- 이러한 사각지대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활동가 및 상담가들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9. 은둔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은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상당부분 은둔 이전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형 생활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
- 많은 응답자들이 은둔형 외톨이를 실패자라고 인식시키는 사회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따라서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인식개선 홍보가 필요함
- 아직은 초기발굴이 자발적 신청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공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10. 마음 건강 및 정서 지원

- 은둔 당사자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불안상태가 분명 확인되고 있음
- 기분이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는 응답, 자신이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은둔의 이유로 정신적 어려움을 제시하는 응답 역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재은둔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도 불안·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음
- 다만, 인천의 경우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는 비교적 우호적인 응답을 보이는 반면에 거주지 방문 상담서비스나 거주지 밖(카페 등) 상담서비스는 비교적 낮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음
- 비대면 상담의 경우 온라인 상담, 상담전용앱, 전화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방안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또는 히키코모리의 방구석 탈출기를 연극이든 뮤지컬 또는 청년 콘서트로 보고 싶다는 의견도 존재함

11. 의사소통 기술교육

- 사회경험을 쌓기 위한 방법(대화법, 감정조절방법 등) 알려주는 교육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됨
- 은둔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사회성 훈련,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같은 교육 콘텐츠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12. 자살에 대한 밀착사례관리

- 본 실태조사를 통해 자살의향과 자살시도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남
- 부산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확인된 바 있음
- 인천의 경우 죽고 싶다는 자살의향이 거의 71%로 나타나고, 약 18%의 응답자를 통해 자 살시도에 대한 경험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중 3회 이상 자살시도를 했다는 응답도 7.5%에 달함
- 따라서 은둔형 생활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 긴급현장 출동 등 밀착사례관리가 필요함

13. 경제적 생활 지원

- 은둔형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결과 많은 이들이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 제로 언급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1인 가구가 27.2%에 달하고, 월세에 사는 경우도 29%에 달함
-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치료를 방치하는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소한도로 일한다는 응답은 8.2%에 불과함
- 직장생활을 하게 돼도 다시 재은둔 경험을 하게 되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음
- 따라서 지역인근 상점과 연계하는 생활서비스 지원이나 상점 이용쿠폰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개방형 문항에서도 응답자들이 최소한의 먹고 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를 구했을 때 월급받을 한 달간만이라도 자금문제가 해결되면 좋겠 다는 의견도 제시됨
- 반면에 경제적 지원이 은둔생활을 더욱 고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시되고 있어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해보임

14. 퀘렌시아 공간 지원

- 퀘렌시아는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으로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함
- 실태조사 결과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지원을 매우 높은 비율로 선호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은둔형 청장년층들을 위한 퀘렌시아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회복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이 필요함
- 실제로 많은 응답자들이 부담없이 갈 수 있는 휴식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5. 은둔생활 극복을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

- 실태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았으며 인터뷰 상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은둔형 생활자들의 회복을 돕는 적극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이 매우 필요함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판단됨
- 은둔형 당사자들은 정보의 출처를 온라인에서 찾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다방면의 정보제공 채널이 필요함

16. 회복(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은둔형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들이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참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집에서 아무것도 안한다는 응답비율이 거의 30%에 달하는 반면에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가장 높은 순위로 응답함
- 재은둔의 이유로도 학업 및 취업의 어려움을 매우 높은 순위로 응답함
- 인천의 경우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은둔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낮은 강도의 일자리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직업적성검사나 직업탐방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포상제도 등을 제시하는 의견도 존재함
- 한편 취업준비를 위한 기본역량에 해당하는 스펙(컴활, 토익, 엑셀 실무, 포토샵 혹은 어도비 프리미어 강좌, 파이썬 기초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수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 다양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일경험/기간제근로자/인턴(근로기간 3~6개월) 지원 등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17. 교육지원

- 교육에 대한 지원이 생활환경 개선이나 회복지원에 기여할 수 있음
- 은둔형 생활자들의 식사패턴을 보면 하루에 1-2끼만 먹거나 배고플 때 불규칙적으로 먹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소화기계엔 문제가 있다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한편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스스로 벗어났다는 의견과 취미활동 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식생활을 배우는 클래스, 건강한 먹거리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함
- 뿐만 아니라 개인의 흥미와 역량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18.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실태조사 결과, 은둔 당사자들의 경우에도 가족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음
- 가족들의 경우에도 부양의 책임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힘들다, 은둔 당사자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은둔 당사자로 인해 화병이 생겼다 등 다양한 곤란함을 토로하고 있음
- 인천의 경우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문화·여가활동 지원, 회복촉진 프로그램, 가족 간 모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골고루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인천의 경우 광주보다 가족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지원, 회복촉진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고 있음

19.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빛이 들어오지 않는 원룸,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 등으로 좌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있었음
- 은둔 청장년 중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사회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둔 청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사회적 주택, 쉼터, 임대주택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힐링 하우스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0. 사회적 기업의 신설

-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은둔형 청장년층들의 디딤돌이 되어줄 카페나 마켓같이, 기술보다는 사람을 먼저 만나도록 하고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일방적인 지원이나 치료가 아닌, 사회적으로 은둔 청장년층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
- 따라서 은둔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친화적인 기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21. 보상체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개입 시부터 활동적인 목표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계획하고 목표에 따라 이음카드 포인트 등으로 보상적인 부분이 함께 진행하면 긍정적 경험이 축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처음부터 무상지원보다는 게임 퀘스트처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조건달성 시 인센티브나 기프티콘, 경품 등을 제공하여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청년회복 마일리지: 앱 등에서 긍정의 말로 일기를 쓰거나 하면 마일리지를 주고 응원을 해주며 일정 마일리지가 쌓이면 소액의 선물이나 적립금 등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회복 프로그램도 아이디어로 제시되고 있음(긍정일기 챌린

지, 긍정영상 올리기, 이불개기 챌린지, 자기를 위한 음식만들어 사진 올리기 등)

- 특히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초기단계에서 1~2회 전화 또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중반단계에서는 점차적으로 상담의 기회를 늘려나가며 정기적으로 외부세상과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22. 다양한 취미활동 지원

- 다양한 취미생활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4주 과정 등 일정기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공예 DIY, 디저트 만들기 같은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은둔생활은 운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지자체 헬스장 등 저렴하게(혹은 무료로) 이용가능한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음

A

부록 : 설문지

인천광역시 은둔 청·장년층 실태조사 설문지

ID

인천광역시에서는 2024년도 은둔 청·장년층 지원을 위한 당사자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은둔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은둔 청·장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 발굴 및 지원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수행 : (주)런런컨설팅(담당자: ○○○ 연구원 070-8265-2488)

공통 문항

‘본인’이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거나(혹은 해당되었거나), ‘함께 살고 있는(혹은 함께 살았던) 가족’ 중에 아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혹은 해당되었다면) 본 설문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일정기간 학교를 가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 병원, 가까운 편의점 방문 등을 제외하고 집에서 잘 나가려 하지 않는다.
- ☐ 가족 외에 사람들과의 소통·교류가 거의 없다.

A1. 귀하는 은둔생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은둔생활 경험이 있는 분의 가족 이신가요?

- ① 당사자(당사자용으로 이동) ② 가족(가족용으로 이동) ③ 없음(조사종료)

당사자용

A2. 귀하는 언제 은둔생활을 하셨습니까?

- ① 현재 은둔생활 중임(현재용으로 이동)
- ② 과거에 은둔생활을 했었음(과거용으로 이동)

당사자 현재용

A3.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②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
-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병원 등에 외출한다.
-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⑥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⑦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 3~4일은 외출한다.
- ⑧ 직장이나 학교로 매일 외출한다.

A4. 귀하는 은둔생활을 하신 총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 | |
|----------------|-----------------|
| ① 3개월 미만 | ②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④ 1년 이상~3년 미만 |
| ⑤ 3년 이상~5년 미만 | ⑥ 5년 이상~7년 미만 |
| ⑦ 7년 이상~10년 미만 | ⑧ 10년 이상 |

A5. 현재 은둔 당사자로서 은둔생활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솔직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0)	가끔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매우 그렇다 (3)
1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①	②	③	④
2	일상생활이 불규칙적이다(기상시간, 식사 등)	①	②	③	④
3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가족이 없을 때(혹은 잘때)만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6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아무도 못들어오게 한다.	①	②	③	④
7	가족이나 타인에게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9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쓰이고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10	사람과의 연락이나 만나는 활동을 가급적 피한다.	①	②	③	④
11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2	친구가 없다.	①	②	③	④
13	무기력하다.	①	②	③	④
14	나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①	②	③	④
15	무의미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당사자용(현재)

A. 은둔배경

A6. 귀하는 성인이 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호	내용	있다	없다
1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①	②
2	부모님(혹은 그 외에 나를 키워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①	②
3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①	②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①	②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①	②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①	②

A7. 귀하는 어떤 이유로 은둔하게 되었나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학업관련 어려움(진학, 성적, 입시 등) ② 직업관련 어려움(취업, 실직 등)
 ③ 가족관련 어려움(갈등, 이혼, 사망 등) ④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직장동료 등)
 ⑤ 건강상의 어려움(장애, 질병 등) ⑥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
 ⑦ 가정폭력, 학교폭력(학대, 따돌림 등) ⑧ 이유 없음
 ⑨ 기타 ()

A8. 귀하의 은둔생활이 처음이십니까?

- ① 예(A9로 이동) ② 아니오(A8-1, A8-2, A8-3으로 이동)

A8-1. 그 동안 몇 번의 은둔생활 경험이 있으십니까? _____ 회

A8-2. 가장 최근에 은둔생활을 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A8-3. 언제 처음으로 은둔하셨습니까?

- ① 13세 이하(초등학교) ② 14세~16세 이하(중학교) ③ 17세~19세 이하(고등학교)
 ④ 20~29세 이하 ⑤ 30세~39세 이하 ⑥ 40세 이상

A9. 귀하께서는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A9-1로 이동) ② 아니오(A10로 이동)

A9-1. 은둔생활 전의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A9-2. 은둔생활 전에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셨습니까?(모두 선택)

- | | | |
|-----------|----------|----------|
| ① 사무직 | ② 생산직 | ③ 관리직 |
| ④ 판매/서비스직 | ⑤ 전문직 | ⑥ 교육/연구직 |
| ⑦ 단순노무직 | ⑧ 농림어업직 | ⑨ 문화예술인 |
| ⑩ 공무원 | ⑪ 기타 () | |

A9-3. 퇴사이유가 무엇입니까?(모두 선택)

- | | |
|-------------------|-------------------|
| ① 적성 및 흥미 불일치 | ② 경력발전 기회부족 |
| ③ 열악한 근무환경 | ④ 부당한 처우(낮은 보상 등) |
| ⑤ 일과 삶의 균형문제 | ⑥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
| ⑦ 업무소진(업무 스트레스 등) | ⑧ 가족 및 개인 사정 |
| ⑨ 회사의 경영악화 | ⑩ 기타 (구체적으로:) |

A10.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어디서 마련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본인이 벌어들인/모아둔 돈으로 생활 | ② 가족의 도움 |
| ③ 이웃, 친지, 아는 사람의 도움 | ④ 종교기관의 도움 |
| ⑤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 ⑥ 관공서의 지원 |
| ⑦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소한으로 일함 | ⑧ 대출금/카드론 |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

B. 일상생활

B1. 요즘 귀하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B2. 집에서 자주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선택하여 주십시오.(3개 선택)

- ① 인터넷 게임 ② 인터넷/스마트폰 ③ TV보기
④ 유튜브 등 영상보기 ⑤ 잠자기(수면) ⑥ 음악듣기
⑦ 독서 ⑧ 실내운동 ⑨ 취미활동(악기, 그림 등)
⑩ 아무것도 안함(누워있기) ⑪ 기타(구체적으로:)

B3. 귀하께서는 정보를 주로 어디서 구하십니까?

- ① 온라인 매체 ② 언론
③ 유관기관 ④ 가족 및 지인
⑤ 정부부처 및 지자체 ⑥ 기타 ()

B4.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1명 ③ 2~3명 ④ 4명 이상

B5. 은둔생활 시 죽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었음(B5-1으로 이동) ② 없었음(B6으로 이동)

B5-1. 은둔생활 시 자살을 시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었음 _____ 회 ② 없었음

B6 귀하께서는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십니까?

- ① 1일 1~2끼 ② 1일 3끼 ③ 배고플 때 먹음
④ 기타(구체적으로:)

문항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방법을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C. 주거생활

C1.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시는지 해당 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1인 가구
- ② 1세대 가구(부부, 형제자매 등)
- ③ 2세대 가구(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 ④ 3세대 이상 가구(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
- ⑤ 비혈연가구
- ⑥ 기타(구체적으로:)

C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 ③ 아파트
-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⑥ 원룸
- ⑦ 기타()

C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
- ⑤ 기타() ⑥ 모름

E4-1. 문제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까?(모두 선택)

- ① 스스로 깨달음
- ② 건강이상, 환청 발생 등 정신·신체적 변화
- ③ 부모, 형제, 친구의 권유 등 외부의 사적 자극
- ④ 관공서, 전문가 권유 등 외부의 공적 자극
- ⑤ 가족구성원의 변화, 이사 등 환경적 변화
- ⑥ 특별한 계기는 없음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E4-2.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모두 선택)

- ① 스스로 노력(운동, 자격증 공부 등)
- ② 정부지원 등 외부의 공적지원을 알아봄
- ③ 가족, 친구 등과 의논
- ④ 전문가, 전문기관 등 외부의 전문적 지원을 알아봄
- ⑤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있음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E5.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모두 선택)

사회적 지지	가족 친척	친구	그 외 타인 (이웃, 직장동료 등)	없음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F3. 귀하는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음 ② 필요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F4. 귀하는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음 ② 필요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F5.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원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많이 있음
마음건강 및 정서지원	메타버스(혹은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거주지 방문 상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거주지 밖(카페 등) 상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정기상담, 긴급상황 현장출동 등 밀착사례관리	①	②	③	④	⑤
관계이해	참여자 간 자조모임(소속감, 경험 나누기)	①	②	③	④	⑤
	공감대 형성 및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교육	①	②	③	④	⑤
	소셜다이닝 등 열린 소통 모임	①	②	③	④	⑤
공동활동 (퀘렌시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지원	①	②	③	④	⑤
	안식공유 프로그램(휴식, 운동, 게임 등)	①	②	③	④	⑤
	공동작업 프로그램(공예, 부업, 일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	①	②	③	④	⑤
회복지원	은둔생활 극복을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생활지원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①	②	③	④	⑤
	상점 이용쿠폰 지원	①	②	③	④	⑤
	힐링 하우스 사업(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교육지원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①	②	③	④	⑤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지원(AI역량, 목공예 등)	①	②	③	④	⑤

F6.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집(방)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은둔’이라고 한다면, 은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은 최소 얼마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 _____ 개월

F7. 인천광역시의 은둔 청·장년층 지원과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기본사항 (통계처리를 위해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출생년도	_____년
3. 학력	① 고교 중퇴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⑥ 대학원 졸업/수료
4. 거주지역	① 강화군 ② 옹진군 ③ 중구 ④ 동구 ⑤ 미추홀구 ⑥ 연수구 ⑦ 남동구 ⑧ 부평구 ⑨ 계양구 ⑩ 서구 ⑪ 인천시 외 지역 ()
5.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사실혼 포함) ③ 이혼/별거/사별 ④ 기타
6. 자녀유무	① 없음 ② 있음 ()명
7. 경제수준 (당사자)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8. 경제수준 (가족)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9. 인터뷰 의향	귀하께서는 은둔상태에 있는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 지급 예정 (성명 : 연락처 :)

인천광역시 은둔 청·장년층 실태조사 설문지

ID

인천광역시에서는 2024년도 은둔 청·장년층 지원을 위한 당사자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은둔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은둔 청·장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 발굴 및 지원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수행 : (주)런런컨설팅(담당자: ○○○ 연구원 070-8265-2488)

공통 문항

‘본인’이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거나(혹은 해당되었거나), ‘함께 살고 있는(혹은 함께 살았던) 가족’ 중에 아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혹은 해당되었다면) 본 설문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일정기간 학교를 가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 병원, 가까운 편의점 방문 등을 제외하고 집에서 잘 나가려 하지 않는다.
- ☐ 가족 외에 사람들과의 소통·교류가 거의 없다.

A1. 귀하는 은둔생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은둔생활 경험이 있는 분의 가족이신가요?

- ① 당사자(당사자용으로 이동) ② 가족(가족용으로 이동) ③ 없음(조사종료)

당사자용

A2. 귀하는 언제 은둔생활을 하셨습니까?

- ① 현재 은둔생활 중임(현재용으로 이동)
- ② 과거에 은둔생활을 했었음(과거용으로 이동)

당사자 과거용

A3. 귀하는 과거 은둔생활 당시 어느 정도 외출하셨습니까?

- ①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 ②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병원 등에 외출하였다.
-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였다.
- 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하였다.
- ⑥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하였다.
- ⑦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 3~4일은 외출하였다.
- ⑧ 직장이나 학교로 매일 외출하였다.

A4. 귀하가 은둔생활을 하신 총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 | |
|----------------|-----------------|
| ① 3개월 미만 | ②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④ 1년 이상~3년 미만 |
| ⑤ 3년 이상~5년 미만 | ⑥ 5년 이상~7년 미만 |
| ⑦ 7년 이상~10년 미만 | ⑧ 10년 이상 |

A5. 과거 은둔생활 당시 은둔 당사자로서 다음의 항목에 솔직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0)	가끔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매우 그렇다 (3)
1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①	②	③	④
2	일상생활이 불규칙적이다(기상시간, 식사 등)	①	②	③	④
3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가족이 없을 때(혹은 잘때)만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6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아무도 못들어오게 한다.	①	②	③	④
7	가족이나 타인에게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9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쓰이고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10	사람과의 연락이나 만나는 활동을 가급적 피한다.	①	②	③	④
11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2	친구가 없다.	①	②	③	④
13	무기력하다.	①	②	③	④
14	나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①	②	③	④
15	무의미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당사자용(과거)

A. 은둔배경

A6. 귀하는 성인이 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호	내용	있다	없다
1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①	②
2	부모님(혹은 그 외에 나를 키워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①	②
3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①	②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①	②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①	②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①	②

A7.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는 어떤 이유로 은둔하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학업관련 어려움(신학, 성적, 입시 등) ② 직업관련 어려움(취업, 실직 등)
 ③ 가족관련 어려움(갈등, 이혼, 사망 등) ④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직장동료 등)
 ⑤ 건강상의 어려움(장애, 질병 등) ⑥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
 ⑦ 가정폭력, 학교폭력(학대, 따돌림 등) ⑧ 이유 없음
 ⑨ 기타 ()

A8. 그 동안 몇 번의 은둔생활 경험하셨습니까? _____ 회

A8-1. 가장 최근에 은둔생활을 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A8-2. 언제 처음으로 은둔하셨습니까?

- ① 13세 이하(초등학교) ② 14세~16세 이하(중학교) ③ 17세~19세 이하(고등학교)
④ 20~29세 이하 ⑤ 30세~39세 이하 ⑥ 40세 이상

A9. 귀하께서는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A9-1로 이동) ② 아니오(A10로 이동)

A9-1. 과거 은둔생활을 하기 전에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A9-2. 은둔생활 전에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셨습니까?(모두 선택)

- | | | |
|-----------|---------|----------|
| ① 사무직 | ② 생산직 | ③ 관리직 |
| ④ 판매/서비스직 | ⑤ 전문직 | ⑥ 교육/연구직 |
| ⑦ 단순노무직 | ⑧ 농림어업직 | ⑨ 문화예술인 |
| ⑩ 공무원 | ⑪ 기타 (|) |

A9-3. 퇴사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모두 선택)

- | | |
|-------------------|---------------------|
| ① 적성 및 흥미 불일치 | ② 경력발전 기회부족 |
| ③ 열악한 근무환경 | ④ 부당한 처우(낮은 보상 등) |
| ⑤ 일과 삶의 균형문제 | ⑥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
| ⑦ 업무소진(업무 스트레스 등) | ⑧ 가족 및 개인 사정 |
| ⑨ 회사의 경영악화 | ⑩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A10. 과거 은둔생활 당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어디서 마련하셨습니까?

- | | |
|-----------------------|------------|
| ① 본인이 벌어들인/모아둔 돈으로 생활 | ② 가족의 도움 |
| ③ 이웃, 친지, 아는 사람의 도움 | ④ 종교기관의 도움 |
| ⑤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 ⑥ 관공서의 지원 |
| ⑦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소한으로 일함 | ⑧ 대출금/카드론 |
|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B. 일상생활

B1.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B2. 과거 은둔생활 당시 집에서 자주하는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3개 선택)

- ① 인터넷 게임 ② 인터넷/스마트폰 ③ TV보기
④ 유튜브 등 영상보기 ⑤ 잠자기(수면) ⑥ 음악듣기
⑦ 독서 ⑧ 실내운동 ⑨ 취미활동(악기, 그림 등)
⑩ 아무것도 안함(누워있기) ⑪ 기타(구체적으로:)

B3.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께서는 정보를 주로 어디서 구하하셨습니까?

- ① 온라인 매체 ② 언론
③ 유관기관 ④ 가족 및 지인
⑤ 정부부처 및 지자체 ⑥ 기타 ()

B4. 과거 은둔생활 당시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셨습니까?

- ① 전혀 없었음 ② 1명 ③ 2~3명 ④ 4명 이상

B5. 과거 은둔생활 당시 죽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었음(B5-1으로 이동) ② 없었음(B6으로 이동)

B5-1. 과거 은둔생활 당시 자살을 시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었음 _____ 회 ② 없었음

B6.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께서는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 ① 1일 1~2끼 ② 1일 3끼 ③ 배고플 때 먹음
④ 기타(구체적으로:)

B7.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께서는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 ① 스스로 준비 ② 가족이 준비
③ 본인이 외부에서 배달 ④ 가족이 외부에서 배달
⑤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⑥ 기타(구체적으로:)

B8.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쁨 ② 상당히 나쁨
③ 상당히 좋음 ④ 매우 좋음

B9.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 ① 4시간 미만 ② 4~8시간 미만 ③ 8~12시간 미만 ④ 12시간 이상

B10. 다음은 자기관리 및 청결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과거 은둔생활 당시 얼마나 해당하셨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항	한달에 한번	2~3주 에 한번	일주일 에 한번	2~3일 에 한번	매일
옷을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⑤
목욕/샤워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세수/양치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정돈한다.	①	②	③	④	⑤

B11. 과거 은둔생활 당시 다음의 문제들로 얼마나 곤란을 느끼셨습니까?

문항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평소하던 일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툴렀다.	①	②	③	④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PC나 휴대전화 없으면 잠시도 진정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방법을 잘 몰랐다.	①	②	③	④

C. 주거생활**C1.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가구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1인 가구
- ② 1세대 가구(부부, 형제자매 등)
- ③ 2세대 가구(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 ④ 3세대 이상 가구(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
- ⑤ 비혈연가구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C2. 과거 은둔생활 당시 거주하고 계셨던 주택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단독주택 ②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 ③ 아파트
-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⑥ 원룸
- ⑦ 기타(_____)

C3. 과거 은둔생활 당시 거주하고 계셨던 주택의 소유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
 ⑤ 기타() ⑥ 모름

D. 건강상태**D1. 귀하께서는 과거 은둔생활 당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었습니까?**

- ① 예(D1-1로 이동) ② 아니오(D2로 이동)

D1-1. 귀하께서 과거 은둔생활 당시 앓았던 신체적 질환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순환기계(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등)
 ② 소화기계(만성위염, 위궤양, 급성간질환, 지방간, 만성간염, 담석증, 당뇨병 등)
 ③ 호흡기계(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타 알레르기 등)
 ④ 내분비계(당뇨병, 갑상선질환 등)
 ⑤ 근골격계(관절염, 골다공증, 통풍 등)
 ⑥ 안과계(백내장, 녹내장 등)
 ⑦ 치주병, 악성종양 등
 ⑧ 기타 ()

D1-2. 신체적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이유: _____)

D2. 귀하께서는 과거 은둔생활 당시 정신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었습니까?

- ① 예(D2-1로 이동) ② 아니오(E1으로 이동)

E3. 과거 은둔생활 당시 가족들은 귀하의 은둔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까?

- ① 가족들은 내가 은둔생활을 하는지 모름
- ② 가족들은 내가 은둔생활을 하는지 알지만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음
- ③ 가족들이 내가 은둔생활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함
- ④ 은둔생활과 관련하여 가족들과 갈등이 심각했음

E4. 과거 은둔생활 당시 본인의 은둔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E4-1로 이동) ②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E4-1로 이동)
- ③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E5로 이동) ④ 은둔이라고 생각하지 않음(E5로 이동)

E4-1. 문제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까?(모두 선택)

- ① 스스로 깨달았음
- ② 건강이상, 환청 발생 등 정신·신체적 변화
- ③ 부모, 형제, 친구의 권유 등 외부의 사적 자극
- ④ 관공서, 전문가 권유 등 외부의 공적 자극
- ⑤ 가족구성원의 변화, 이사 등 환경적 변화
- ⑥ 특별한 계기는 없었음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E4-2.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모두 선택)

- ① 스스로 노력(운동, 자격증 공부 등)
- ② 정부지원 등 외부의 공적지원을 알아봄
- ③ 가족, 친구 등과 의논
- ④ 전문가, 전문기관 등 외부의 전문적 지원을 알아봄
- ⑤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있음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E5.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회적 지지	가족 친척	친구	그 외 타인 (이웃, 직장동료 등)	없음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F. 회복과정

F1. 귀하께서는 본인의 과거 은둔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 ② 그때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문제라고 생각함
- ③ 그때는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아님
- ④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F2. 귀하께서는 어떻게 은둔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모두 선택)

- ① 상담, 심리치료를 받고 나서
- ②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서
- ③ 학업 및 진학을 해서
- ④ 취미활동을 통해
- 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 ⑥ 부모님 및 가족의 노력으로
- ⑦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스스로 벗어남
- ⑧ 스스로 명상, 글쓰기 등을 통해
- ⑨ 기타(구체적으로:)

F2. 귀하는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음 ② 필요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F3. 귀하는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음 ② 필요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F4.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원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많이 있음
마음건강 및 정서지원	메타버스(혹은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거주지 방문 상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거주지 밖(카페 등) 상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정기상담, 긴급상황 현장출동 등 밀착사례관리	①	②	③	④	⑤
관계이해	참여자 간 자조모임(소속감, 경험 나누기)	①	②	③	④	⑤
	공감대 형성 및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교육	①	②	③	④	⑤
	소셜다이닝 등 열린 소통 모임	①	②	③	④	⑤
공동활동 (퀘렌시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지원	①	②	③	④	⑤
	안식공유 프로그램(휴식, 운동, 게임 등)	①	②	③	④	⑤
	공동작업 프로그램(공예, 부업, 일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	①	②	③	④	⑤
회복지원	은둔생활 극복을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생활지원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①	②	③	④	⑤
	상점 이용쿠폰 지원	①	②	③	④	⑤
	힐링 하우스 사업(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교육지원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①	②	③	④	⑤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지원(AI역량, 목공예 등)	①	②	③	④	⑤

F6.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집(방)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은둔’이라고 한다면, 은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은 최소 얼마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 _____ 개월

F7. 인천광역시의 은둔 청·장년층 지원과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기본사항 (통계처리를 위해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출생년도	_____년
3. 학력	① 고교 중퇴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⑥ 대학원 졸업/수료
4. 거주지역	① 강화군 ② 옹진군 ③ 중구 ④ 동구 ⑤ 미추홀구 ⑥ 연수구 ⑦ 남동구 ⑧ 부평구 ⑨ 계양구 ⑩ 서구 ⑪ 인천시 외 지역 ()
5.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사실혼 포함) ③ 이혼/별거/사별 ④ 기타
6. 자녀유무	① 없음 ② 있음 ()명
7. 경제수준 (당사자)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8. 경제수준 (가족)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9. 인터뷰 의향	귀하께서는 은둔상태에 있는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 지급 예정 (성명 : 연락처 :)

인천광역시 은둔 청·장년층 실태조사 설문지

ID

인천광역시에서는 2024년도 은둔 청·장년층 지원을 위한 당사자와 가족, 친지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은둔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은둔 청·장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 발굴 및 지원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수행 : (주)런런컨설팅(담당자: ○○○ 연구원 070-8265-2488)

공통 문항

‘본인’이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거나(혹은 해당되었거나), ‘함께 살고 있는(혹은 함께 살았던) 가족’ 중에 아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혹은 해당되었다면) 본 설문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일정기간 학교를 가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 병원, 가까운 편의점 방문 등을 제외하고 집에서 잘 나가려 하지 않는다.
- ☐ 가족 외에 사람들과의 소통·교류가 거의 없다.

A1. 귀하는 은둔생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은둔생활 경험이 있는 분의 가족이신가요?

- ① 당사자(당사자용으로 이동) ② 가족(가족용으로 이동) ③ 없음(조사종료)

가족용

A2. 귀하는 은둔가족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 ① 조부모 ② 부모 ③ 배우자 ④ 형제·자매 ⑤기타()

A3. 귀하의 은둔가족은 언제 은둔생활을 하셨습니까?

※ '은둔가족'은 가족 중 은둔하는 구성원을 지칭함. 이하 동일

- ① 현재 은둔생활 중임(현재용으로 이동)
② 과거에 은둔생활을 했었음(과거용으로 이동)

가족 현재용

A4. 귀하의 은둔가족은 평소 어느 정도 외출하십니까?

- ①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②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병원 등에 외출한다.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⑥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⑦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 3~4일은 외출한다.
⑧ 직장이나 학교로 매일 외출한다.

A5. 귀하의 은둔가족이 은둔생활을 하신 총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 | |
|----------------|-----------------|
| ① 3개월 미만 | ②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④ 1년 이상~3년 미만 |
| ⑤ 3년 이상~5년 미만 | ⑥ 5년 이상~7년 미만 |
| ⑦ 7년 이상~10년 미만 | ⑧ 10년 이상 |

가족용(현재)

A. 은둔배경

A6. 귀하의 은둔가족께서 성인이 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호	내용	있다	없다	모름
1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①	②	③
2	부모(혹은 그 외에 은둔가족을 키워준 사람)가 은둔가족을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①	②	③
3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①	②	③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①	②	③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①	②	③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①	②	③

A7. 귀하의 은둔가족은 어떤 이유로 은둔하게 되었나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① 학업관련 어려움(진학, 성적, 입시 등) | ② 직업관련 어려움(취업, 실직 등) |
| ③ 가족관련 어려움(갈등, 이혼, 사망 등) | ④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직장동료 등) |
| ⑤ 건강상의 어려움(장애, 질병 등) | ⑥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 |
| ⑦ 가정폭력, 학교폭력(학대, 따돌림 등) | ⑧ 이유 없음 |
| ⑨ 기타 () | ⑩ 모름 |

A8. 귀하의 은둔가족의 은둔경험이 처음입니까?

- ① 예(A9로 이동) ② 아니오(A8-1, A8-2, A8-3으로 이동)

A8-1. 그 동안 몇 번의 은둔생활 경험이 있습니까? _____ 회

A8-2. 가장 최근의 은둔생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A8-3. 언제 처음으로 은둔하하셨습니까?

- ① 13세 이하(초등학교) ② 14세~16세 이하(중학교) ③ 17세~19세 이하(고등학교)
④ 20~29세 이하 ⑤ 30세~39세 이하 ⑥ 40세 이상
⑦ 모름

A9. 은둔가족이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A9-1로 이동) ② 아니오(A10로 이동) ③ 모름(A10로 이동)

A9-1. 은둔생활 전의 근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년 개월

A9-2. 은둔생활 전에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였습니까?(모두 선택)

-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 관리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전문직 ⑥ 교육/연구직
⑦ 단순노무직 ⑧ 농림어업직 ⑨ 문화예술인
⑩ 공무원 ⑪ 모름
⑫ 기타 ()

A9-3. 퇴사이유가 무엇입니까?(모두 선택)

- ① 적성 및 흥미 불일치
 - ② 경력발전 기회부족
 - ③ 열악한 근무환경
 - ④ 부당한 처우(낮은 보상 등)
 - ⑤ 일과 삶의 균형문제
 - ⑥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 ⑦ 업무소진(업무 스트레스 등)
 - ⑧ 가족 및 개인 사정
 - ⑨ 회사의 경영악화
 - ⑩ 모름
 - ⑪ 기타 (구체적으로:)

A10. 귀하의 은둔가족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어디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본인이 벌여놓은/모아둔 돈으로 생활 | ② 가족의 도움 |
| ③ 이웃, 친지, 아는 사람의 도움 | ④ 종교기관의 도움 |
| ⑤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 ⑥ 관공서의 지원 |
| ⑦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소한으로 일함 | ⑧ 대출금/카드론 |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⑩ 모름 |

B. 일상생활

B1. 귀하의 은둔가족이 집에서 자주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선택하여 주십시오.(3개 선택)

- | | | |
|-----------------|---------------|------------------|
| ① 인터넷 게임 | ② 인터넷/스마트폰 | ③ TV보기 |
| ④ 유튜브 등 영상보기 | ⑤ 잠자기(수면) | ⑥ 음악듣기 |
| ⑦ 독서 | ⑧ 실내운동 | ⑨ 취미활동(악기, 그림 등) |
| ⑩ 아무것도 안함(누워있기) | ⑪ 기타(구체적으로:) | |
| ⑫ 모름 | | |

B3. 귀하의 은둔가족은 정보를 주로 어디서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온라인 매체 | ② 언론 |
| ③ 유관기관 | ④ 가족 및 지인 |
| ⑤ 정부부처 및 지자체 | ⑥ 기타 () |
| ⑦ 모름 | |

B4. 귀하의 은둔가족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① 전혀 없음 | ② 1명 | ③ 2~3명 | ④ 4명 이상 | ⑤ 모름 |
|---------|------|--------|---------|------|

B5. 귀하의 은둔가족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었음(B5-1로 이동) | ② 없었음(B7로 이동) |
|-----------------|---------------|

B5-1. 귀하의 은둔가족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었음 _____ 회 ② 없었음

B6. 귀하의 은둔가족의 식사생활은 주로 어떻습니까?

- ① 1일 1~2끼 ② 1일 3끼 ③ 배고플 때 먹음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⑤ 모름

B7. 귀하의 은둔가족은 본인의 식사를 주로 어떻게 준비합니까?

- ① 스스로 준비 ② 가족이 준비
 ③ 본인이 외부에서 배달 ④ 가족이 외부에서 배달
 ⑤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⑦ 모름

B8. 귀하의 은둔가족의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쁨 ② 상당히 나쁨
 ③ 상당히 좋음 ④ 매우 좋음
 ⑤ 모름

B9. 귀하의 은둔가족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4시간 미만 ② 4~8시간 미만 ③ 8~12시간 미만 ④ 12시간 이상 ⑤ 모름

B10. 다음은 자기관리 및 청결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은둔가족이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항	한달에 한번	2~3주 에 한번	일주일 에 한번	2~3일 에 한번	매일
옷을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⑤
목욕/샤워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세수/양치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정돈한다.	①	②	③	④	⑤

B11. 귀하의 은둔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예시: 매사에 흥미가 없어 보인다. 큰소리로 격분하는 경우가 있다.)

--

B12. 은둔가족으로 인한 귀하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은둔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로 인해 화병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다.	①	②	③	④
은둔하고 있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①	②	③	④

C. 주거생활

C1. 귀하의 은둔가족의 가구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세대 가구(부부, 형제자매 등)
- ② 2세대 가구(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 ③ 3세대 이상 가구(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
- ④ 비혈연가구
- ⑤ 기타(구체적으로:)

C2. 귀하의 은둔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 ③ 아파트
-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⑥ 원룸
- ⑦ 기타()

C3. 귀하의 은둔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
- ⑤ 기타() ⑥ 모름

D. 건강상태

D1. 귀하의 은둔가족이 신체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입니까?

- ① 예(D1-1로 이동) ② 아니오(D2로 이동) ③ 모름(D2로 이동)

E. 소통과 사회적 지지

E1. 귀하의 은둔가족이 주로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혹은 자매 ④ 조부모
⑤ 기타 () ⑥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음

E2. 은둔생활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심각한 편이다.
- ⑤ 매우 심각하다.

E3. 귀하의 은둔가족은 본인의 은둔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E3-1로 이동)
- ②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E4로 이동)
- ③ 모르겠음(E4로 이동)

E3-1. 귀하의 은둔가족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스스로 노력(운동, 자격증 공부 등)
- ② 정부지원 등 외부의 공적지원을 알아봄
- ③ 가족, 친구 등과 의논
- ④ 전문가, 전문기관 등 외부의 전문적 지원을 알아봄
- ⑤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있음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F3. 귀하는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음 ② 필요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F4. 귀하는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음 ② 필요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F5.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은둔가족에게 권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원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많이 있음
마음건강 및 정서지원	메타버스(혹은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거주지 방문 상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거주지 밖(카페 등) 상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정기상담, 긴급상황 현장출동 등 밀착사례관리	①	②	③	④	⑤
관계이해	참여자 간 자조모임(소속감, 경험 나누기)	①	②	③	④	⑤
	공감대 형성 및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교육	①	②	③	④	⑤
	소셜다이닝 등 열린 소통 모임	①	②	③	④	⑤
공동활동 (퀘렌시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지원	①	②	③	④	⑤
	안식공유 프로그램(휴식, 운동, 게임 등)	①	②	③	④	⑤
	공동작업 프로그램(공예, 부업, 일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	①	②	③	④	⑤
회복지원	은둔생활 극복을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생활지원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①	②	③	④	⑤
	상점 이용쿠폰 지원	①	②	③	④	⑤
	힐링 하우스 사업(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교육지원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①	②	③	④	⑤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지원(AI역량, 목공예 등)	①	②	③	④	⑤

F6.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모두 선택)

최소 _____ 개월

응답자 기본사항 (통계처리를 위해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1. 응답자의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은둔가족의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응답자의 출생년도	_____년
4. 은둔가족의 출생년도	_____년
3. 응답자의 학력	① 고교 중퇴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⑥ 대학원 졸업/수료
3. 은둔가족의 학력	① 고교 중퇴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⑥ 대학원 졸업/수료
4. 은둔가족의 직업	① 정규직(상용직) ② 임시직(계약직) ③ 아르바이트 ④ 일용직 ⑤ 자영업 ⑥ 프리랜서 ⑦ 학생 ⑧ 무직 ⑦ 기타()
5. 응답자의 거주지역	① 강화군 ② 옹진군 ③ 중구 ④ 동구 ⑤ 미추홀구 ⑥ 연수구 ⑦ 남동구 ⑧ 부평구 ⑨ 계양구 ⑩ 서구 ⑪ 인천시 외 지역 ()
5. 은둔가족의 거주지역	① 강화군 ② 옹진군 ③ 중구 ④ 동구 ⑤ 미추홀구 ⑥ 연수구 ⑦ 남동구 ⑧ 부평구 ⑨ 계양구 ⑩ 서구 ⑪ 인천시 외 지역 ()
6. 은둔가족의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사실혼 포함) ③ 이혼/별거/사별 ④ 기타
7. 은둔가족의 자녀유무	① 없음 ② 있음 ()명
8. 경제수준 (가구)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9. 인터뷰 의향	귀하께서는 은둔상태에 있는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 지급 예정 (성명 : 연락처 :)

인천광역시 은둔 청·장년층 실태조사 설문지

ID

인천광역시에서는 2024년도 은둔 청·장년층 지원을 위한 당사자와 가족, 친지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은둔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은둔 청·장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 발굴 및 지원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수행 : (주)런런컨설팅(담당자: ○○○ 연구원 070-8265-2488)

공통 문항

‘본인’이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거나(혹은 해당되었거나), ‘함께 살고 있는(혹은 함께 살았던) 가족’ 중에 아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혹은 해당되었다면) 본 설문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일정기간 학교를 가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 병원, 가까운 편의점 방문 등을 제외하고 집에서 잘 나가려 하지 않는다.
- ☐ 가족 외에 사람들과의 소통·교류가 거의 없다.

A1. 귀하는 은둔생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은둔생활 경험이 있는 분의 가족이신가요?

- ① 당사자(당사자용으로 이동) ② 가족(가족용으로 이동) ③ 없음(조사종료)

가족용

A2. 귀하는 은둔가족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 ① 조부모 ② 부모 ③ 배우자 ④ 형제·자매 ⑤기타()

A3. 귀하의 은둔가족은 언제 은둔생활을 하셨습니까?

※ '은둔가족'은 가족 중 은둔하는 구성원을 지칭함. 이하 동일

- ① 현재 은둔생활 중임(현재용으로 이동)
 ② 과거에 은둔생활을 했었음(과거용으로 이동)

가족 과거용

A4. 귀하의 은둔가족은 과거 은둔생활 당시 어느 정도 외출하셨습니까?

- ①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②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병원 등에 외출하였다.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였다.
 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하였다.
 ⑥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하였다.
 ⑦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 3~4일은 외출하였다.
 ⑧ 직장이나 학교로 매일 외출하였다.

A5. 귀하의 은둔가족이 과거 은둔생활을 한 총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 | |
|----------------|-----------------|
| ① 3개월 미만 | ②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④ 1년 이상~3년 미만 |
| ⑤ 3년 이상~5년 미만 | ⑥ 5년 이상~7년 미만 |
| ⑦ 7년 이상~10년 미만 | ⑧ 10년 이상 |

가족용(과거)

A. 은둔배경

A6. 귀하의 은둔가족께서 성인이 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호	내용	있다	없다	모름
1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①	②	③
2	부모(혹은 그 외에 은둔가족을 키워준 사람)가 은둔가족을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①	②	③
3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①	②	③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①	②	③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①	②	③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①	②	③

A7. 귀하의 은둔가족은 어떤 이유로 은둔하게 되었나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① 학업관련 어려움(진학, 성적, 입시 등) | ② 직업관련 어려움(취업, 실직 등) |
| ③ 가족관련 어려움(갈등, 이혼, 사망 등) | ④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직장동료 등) |
| ⑤ 건강상의 어려움(장애, 질병 등) | ⑥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 |
| ⑦ 가정폭력, 학교폭력(학대, 따돌림 등) | ⑧ 이유 없음 |
| ⑨ 기타 () | ⑩ 모름 |

A8. 귀하의 은둔가족은 그 동안 몇 번의 은둔생활 경험이 있습니까?

_____회

A8-1. 가장 최근의 은둔생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_____년_____개월

A8-2. 언제 처음으로 은둔하였습니까?

- ① 13세 이하(초등학교) ② 14세~16세 이하(중학교) ③ 17세~19세 이하(고등학교)
④ 20~29세 이하 ⑤ 30세~39세 이하 ⑥ 40세 이상
⑦ 모름

B. 일상생활

B1.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이 집에서 자주하는 활동이 무엇이었습니까?(3개 선택)

- | | | |
|-----------------|---------------|------------------|
| ① 인터넷 게임 | ② 인터넷/스마트폰 | ③ TV보기 |
| ④ 유튜브 등 영상보기 | ⑤ 잠자기(수면) | ⑥ 음악듣기 |
| ⑦ 독서 | ⑧ 실내운동 | ⑨ 취미활동(악기, 그림 등) |
| ⑩ 아무것도 안함(누워있기) | ⑪ 기타(구체적으로:) | |
| ⑫ 모름 | | |

B3.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은 정보를 주로 어디서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온라인 매체 | ② 언론 |
| ③ 유관기관 | ④ 가족 및 지인 |
| ⑤ 정부부처 및 지자체 | ⑥ 기타 () |
| ⑦ 모름 | |

B4.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1명 ③ 2~3명 ④ 4명 이상 ⑤ 모름

B5.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B5-1로 이동) ② 없었음(B6으로 이동)

B5-1.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_____ 회 ② 없었음

B6.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의 식사생활은 주로 어떠하였습니까?

- ① 1일 1~2끼 ② 1일 3끼 ③ 배고플 때 먹음
 ④ 기타(구체적으로:)
 ⑤ 모름

B7.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은 본인의 식사를 주로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 ① 스스로 준비 ② 가족이 준비
 ③ 본인이 외부에서 배달 ④ 가족이 외부에서 배달
 ⑤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 ⑥ 기타(구체적으로:)
 ⑦ 모름

B8.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의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쁨 ② 상당히 나쁨
 ③ 상당히 좋음 ④ 매우 좋음
 ⑤ 모름

B9.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얼마나되었습니까?

- ① 4시간 미만 ② 4~8시간 미만 ③ 8~12시간 미만 ④ 12시간 이상 ⑤ 모름

B10. 다음은 자기관리 및 청결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이 얼마나 해당하였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항	한달에 한번	2~3주 에 한번	일주일 에 한번	2~3일 에 한번	매일
옷을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⑤
목욕/샤워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세수/양치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정돈한다.	①	②	③	④	⑤

B11.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에게 일어났던 있는 일들을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예시: 매사에 흥미가 없어 보였다. 큰소리로 격분하는 경우가 있었다.)

B12. 과거 은둔생활 당시 은둔가족으로 인한 귀하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약간 그려함	매우 그려함
은둔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했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로 인해 화병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은둔하고 있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되었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①	②	③	④
은둔당사자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①	②	③	④

C. 주거생활

C1.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의 가구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1인 가구
- ② 1세대 가구(부부, 형제자매 등)
- ③ 2세대 가구(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 ④ 3세대 이상 가구(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
- ⑤ 비혈연가구
- ⑥ 기타(구체적으로:)

C2.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단독주택 ②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 ③ 아파트
-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⑥ 원룸
- ⑦ 기타()

C3.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소유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
- ⑤ 기타() ⑥ 모름

D. 건강상태

D1.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이 신체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었습니까?

- ① 예(D1-1로 이동) ② 아니오(D2로 이동) ③ 모름(D2로 이동)

E. 소통과 사회적 지지

E1. 과거 은둔생활 당시 은둔가족과 주로 대화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혹은 자매 ④ 조부모
⑤ 기타 () ⑥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음

E2. 은둔생활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았다.
- ③ 그저 그랬다.
- ④ 심각한 편이었다.
- ⑤ 매우 심각한 편이었다.

E3.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은 본인의 은둔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음(E3-1로 이동)
- ②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음(E4로 이동)
- ③ 모르겠음(E4로 이동)

E3-1.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니까?

- ① 스스로 노력(운동, 자격증 공부 등)
- ② 정부지원 등 외부의 공적지원을 알아봄
- ③ 가족, 친구 등과 의논
- ④ 전문가, 전문기관 등 외부의 전문적 지원을 알아봄
- ⑤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있음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E4.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 곁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회적 지지	가족 친척	친구	그 외 타인 (이웃, 직장동 료 등)	없 음	모 름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F. 도움 및 지원

F1. 과거 은둔생활 당시 귀하의 은둔가족이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도움이 있었습니까?

- | | |
|---------------|---------------|
| ① 없음 | ② 지자체·관공서의 도움 |
| ③ 민간단체·기간의 도움 | ④ 종교기관의 도움 |
| 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 ⑥ 기타 () |

F1-1. 도움을 받은 후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별다른 변화가 없음 ③ 약간 좋아짐 ④ 많이 좋아짐

F5.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은둔가족에게 권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원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많이 있음
마음건강 및 정서지원	메타버스(혹은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거주지 방문 상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거주지 밖(카페 등) 상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정기상담, 긴급상황 현장출동 등 밀착사례관리	①	②	③	④	⑤
관계이해	참여자 간 자조모임(소속감, 경험 나누기)	①	②	③	④	⑤
	공감대 형성 및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교육	①	②	③	④	⑤
	소셜다이닝 등 열린 소통 모임	①	②	③	④	⑤
공동활동 (퀘렌시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지원	①	②	③	④	⑤
	안식공유 프로그램(휴식, 운동, 게임 등)	①	②	③	④	⑤
	공동작업 프로그램(공예, 부업, 일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	①	②	③	④	⑤
회복지원	은둔생활 극복을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생활지원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①	②	③	④	⑤
	상점 이용쿠폰 지원	①	②	③	④	⑤
	힐링 하우스 사업(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교육지원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①	②	③	④	⑤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지원(AI역량, 목공예 등)	①	②	③	④	⑤

F6.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모두 선택)

- ① 은둔 자녀과의 소통 활성화, 상호이해를 위한 부모상담
 ②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 간 모임
 ③ 은둔가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 상담
 ④ 은둔당사자를 둔 가족을 위한 문화, 여가활동 지원
 ⑤ 은둔당사자를 둔 가족들의 변화와 회복을 촉진하는 종합 프로그램
 ⑥ 기타(구체적으로:)

F7.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집(방)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은둔’이라고 한다면, 은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은 최소 얼마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 _____ 개월

F8. 인천광역시의 은둔 청·장년층 지원과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기본사항 (통계처리를 위해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1. 응답자의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은둔가족의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응답자의 출생년도	_____년
4. 은둔가족의 출생년도	_____년
3. 응답자의 학력	① 고교 중퇴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⑥ 대학원 졸업/수료
3. 은둔가족의 학력	① 고교 중퇴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⑥ 대학원 졸업/수료
4. 은둔가족의 직업	① 정규직(상용직) ② 임시직(계약직) ③ 아르바이트 ④ 일용직 ⑤ 자영업 ⑥ 프리랜서 ⑦ 학생 ⑧ 무직 ⑦ 기타()
5. 응답자의 거주지역	① 강화군 ② 옹진군 ③ 중구 ④ 동구 ⑤ 미추홀구 ⑥ 연수구 ⑦ 남동구 ⑧ 부평구 ⑨ 계양구 ⑩ 서구 ⑪ 인천시 외 지역 ()
5. 은둔가족의 거주지역	① 강화군 ② 옹진군 ③ 중구 ④ 동구 ⑤ 미추홀구 ⑥ 연수구 ⑦ 남동구 ⑧ 부평구 ⑨ 계양구 ⑩ 서구 ⑪ 인천시 외 지역 ()
6. 은둔가족의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사실혼 포함) ③ 이혼/별거/사별 ④ 기타
7. 은둔가족의 자녀유무	① 없음 ② 있음 ()명
8. 경제수준 (가구)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9. 인터뷰 의향	귀하께서는 은둔상태에 있는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 지급 예정 (성명 : 연락처 :)

개인정보 동의 및 심층면접 참여의향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신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하는 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경품발송, 심층면접 참여, 은둔 청·장년층 지원정책, 연구 및 지원사업 참여안내
- 수집정보 보관기간 : 수집일로부터 2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_____ 휴대전화번호 : 010 - _____ - _____

또한 심층면접에 참여하시는 응답자분들께도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입니다. 심층면접에 ‘참여의향이 있다’로 선택하신 응답자들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서 추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는 은둔생활을 하는 당사자 및 가족지원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참여의향이 있다.

② 참여의향이 없다.

◆ 귀하께서는 추후 인천시가 진행하는 은둔 청·장년층 및 가족을 위한 지원 연구 및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